

【문화읽기】

호남문화관광대학 국성관 문화관광해설가 강의록



문화관광해설가의 역할과 관광객의 심리	
박창규(전남도립 남도대학 관광정보학과 교수)	001
곡성의 역사와 지역성	
권경안(조선일보 기자).....	019
남도소리와 곡성	
황연수(국악인, 남도명창)	033
곡성의 문화재	
손혜경(전남과학대학 호텔카테일과 교수)	037
절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손혜경(전남과학대학 호텔카테일과 교수)	055
南道文化 들여다 보기	
조상열(사단법인 大東文化 會長 /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069
한국음식문화와 남도의 향토음식	
김정숙(이화박사 / 전남과학대학 호텔조리 김치발효과 교수).....	077
관음사(觀音寺)와 곡성심청(谷城沈淸)	
안형식(곡성군 관광개발사업단장).....	093
민속문화의 위기와 곡성의 문화적 활로	
나경수(전남대학교 교수 / 박물관장).....	105
韓國傳統建築의 構成要素	
천득엽(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117
文化史的 觀點에서 본 숲	
강현구(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 무등산 생명숲학교장).....	163
불교 문화의 올바른 이해	
황호균(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175
관광농업의 시대로	
나종년(고로쇠 간장·된장 대표)	211
관광 해설기법 및 현장 실무요령	
이준탁(파란들문화유산답사회 회장).....	217
인터넷 관광정보	
김용수(전남과학대 교수).....	221
곡성 In 詩	
오소후(전남과학대 교수).....	227
곡성 선사인의 삶과 고인들	
이영문(목포대학교 교수 / 박물관장).....	237
곡성의 인물과 성씨	
류기상(소설가).....	249

문화관광해설가의 역할과 관광객 심리

박 창 규

(전남도립 남도대학 관광정보학과 교수)

목 차

- I. 문화관광 해설가의 의미
 - II. 문화관광 해설가의 자질
 - III. 문화관광 해설가의 역할
 - IV. 문화관광 해설의 핵심요소
 - V.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전달
 - VI. 관광객의 심리
-

I. 문화관광해설가의 의미

문화관광 해설가는 기존의 관광지 안내체계가 최근의 소프트웨어 위주의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객 욕구의 다양화 등 국내외의 급격한 관광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여 주변 경쟁국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기초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시도되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인 동시에 환경, 첨단산업과 더불어 21세기의 3대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전문인력에 의한 고품질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

현대적 공원해설의 아버지 킬든은 방문자들이 만나는 어떠한 소재라도 자원해설 대상에 포함시켰다. 박물관에서는 예술품, 공원에서는 잘려진 사슴뿔, 도심지에서는 각종 기념품과 건축장식 등까지 그 대상이 되었다.

여기서 보면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안내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점차 많은 공공 또는 사조직에서 자원해설기술과 철학을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는데, 다음 3가지 점에서 자원해설가와 관광안내원 간에 차이가 있다.

첫째, 자원해설가는 국립공원, 문화유적지와 같은 특정장소에 상주하며, 관광안내원은 도시 또는 지역 전체를 관광객과 함께 여행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장소를 규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소규모지역인 경우에는 지역관광안내원(local guider)이 곧 자원해설가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원해설가는 자원의 의미와 가치전달에 주력하며, 관광안내원은 여행관리에 주력한다. 자원해설가는 자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방문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나, 관광안내원은 관광객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또한 여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셋째, 자원해설가는 그 자신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데 반해, 관광안내원은 그렇지 못하다. 자원해설가의 모습, 언어, 복장 등이 그대로 관광매력물이 되어 관광객에게 특이함을 맛보게 할 수 있으나, 관광안내원의 경우에는 지역관광안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이러한 특이함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관광 해설가」는 특정 장소에서 상주하면서 그 자원(문화유적, 역사관광지 등)의 의미와 가치에 주력하며, 방문객에게 새로운 이해, 통찰력, 열광,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활동을 행하는 자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표> 해설가의 유형

1) 전문해설가	미술사가, 역사학자, 민속학자, 향토사학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특정 테마, 한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해설을 하는 경우
	대중관광해설보다는 학습에 비중을 둔 답사적 성격의 여가프로그램
	해설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관광해설에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됨
	대중성이 부족함(일반관광객 누구나 원치 않음)
	사례) 북한산성의 역사유적지, 도산서원, 용인 등잔박물관, 답사기행 등
2) 통역 가이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에 소속 또는 프리랜서 가이드
	여행일정에 따른 관광자원 해설은 물론 숙박, 식사, 쇼핑 등 너무 많은 역할 담당으로 우리 문화나 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전달 미흡
	우리 문화, 문화유적에 대한 정체성, 소양을 키워주는 재교육 필요

3) 단순학습으로 양성된 안내원	일정 지역코스에 대하여 다소 일방적, 문장식 전달의 안내체계
	해설주체의 자격은 연계된 지역과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음
	직업인으로서 변모에 치중
4) 관련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지역과 문화 전반에 걸쳐 풍부한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소정의 관련학습을 일정 기간 받고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자원해설을 하는 경우
	박물관대학 이수자, 지역의 고급 인력 참여로 관광해설의 질 향상
	유휴인력의 경제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마추어적이지만 인증시험을 통해 자신감 및 신뢰성 부여 (사례) 수원 화성해설가, 담양 가사문화해설가, 곡성 문화관광해설가 등

II. 문화관광 해설가의 자질

틸든은 문화관광 해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것은 어떠한 사람은 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의미한다. 문화관광 해설이 제한된 분야이고 그리고 특히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선택하기 전에 자신에게 그것에 적절한 개인적 특성이 있는가를 마음속으로 검토해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자질은 배우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야를 선택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문화관광 해설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개인적 자질은 다음과 같다.

1. 열정이 있나?

열정(enthusiasm)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 열정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열중과 정열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열중과 정열이 있는 사람의 눈에서는 열정을 나타내는 말 그대로의 번뜩임을 찾아낼 수 있다.

열정적인 해설가를 만나면, 방문자는 그 장소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확실히 해설가가 한 장소를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대한 모든 사항에 매료될 필요는 없다. 핵심은 해설가가 그 곳에 관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매혹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해설가 개인의 느낌 또는 추억일 수도 있다. 그 느낌이나 추억이 방문자와 가까운 관계 또는 즐거움 코드를 쳐줄 수만 있으면 된다.

냉담함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최악의 한가지이며, 관광객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해설가가 그들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금방 느낀다. 해설가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관광객들도 해설가에 대하여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해설 기술을 마스터 한다는 것은 어떤 화젯거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관광객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해설가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왜 여행을 나섰는지, 전에 어디를 여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흥미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해설가는 관광객들을 그 장소에 친숙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서로 존중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가 형

성되어 있기에 해설가는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관광객들도 이들 해설에 대하여 기꺼이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 따뜻함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따뜻함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사람들과 만날 때 방문자가 지각하는 이미지를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

3. 자신감이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들은 새로움을 도전으로 생각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리당국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대부분 입증된다. 자신감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한가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눈 마주침(Eye contact)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즐거운 표정과 태도관리는

인상, 움직임, 의상 등 사람들이 자신의 편안한 느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특성이 복합된 것이 표정과 태도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절로 끌리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왠지 모르게 싫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의상, 얼굴표정, 습관, 기이한 버릇으로 분명히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Ⅲ. 문화관광해설가의 역할

1. 이야기꾼

무성영화의 변사와 같이 문화관광 해설가는 지역문화유적, 관광자원의 가치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이야기꾼이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 해설가의 능력에 의해 방문객의 만족과 경험은 차이가 날 수 있다.

2. 전속 안내원

과거의 관광안내원과 같이 관광객을 동행하며 이곳 저곳을 안내하는 형식이 아닌 특정 문화유적, 관광지에 전속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자원의 매력과 가치의 내용을 설명하는 전속 전문 안내원이다.

3. 자원봉사자

문화관광 해설가의 본분은 자원봉사자이다. 이들은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방문객에게 알림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굳건히 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봉사의 차원에서 문화관광 해설가로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역관광의 첨병

문화관광 해설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관광종사원이다. 이들은 관광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하고 방문객들이 만족스러운 관광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주변의 먹거리, 볼거리로 방문객을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Ⅳ. 문화관광해설의 핵심요소

문화관광 해설은 단순하게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설과정의 핵심요소 하나 하나가 제 기능을 다할 때 훌륭한 문화관광 해설이 될 수 있다. 그 핵심요소란 관여, 짜임새, 생명 불어넣기, 전달 등 4가지를 가리킨다.

1. 관여(involve)시켜라

방문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관련시켜 보면서, 어떠한 역할을 해보면서, 역사적 장면의 일 부분이 되어 보면서, 캠프화이어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면서 관광을 하는 동안에 금을 캐려고 한다.

문화관광해설 시에 방문자를 관여시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방문자를 해설작업에 관여시킬 수 있다.

첫째, 첫 대면이 중요하다.

둘째, 방문자들의 지식과 관심을 이용하라.

셋째, 질문을 던져라.

넷째,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하라.

2. 골격이 짜임새(organization)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종류의 문화관광 해설을 하든지 간에 짜임새가 있어야 한다. 짜임새가 없으면 해설작업이 산만해지고 목적성도 없어진다. 문화관광 해설이 짜임새가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이야기깃거리(topic)를 선택한다.

둘째, 테마를 선택하고 개발한다.

셋째, 서두를 잘 꺼낸다.

넷째, 호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3. 골격에 생명불어 넣자

문화관광 해설을 위한 골격에 짜임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육과 피가 있어야 한다. 골격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다.

첫째, 테마를 살리기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테마와 관련시킨다.

둘째, 일화나 예를 이용한다.

셋째, 증언을 이용한다.

넷째, 시각재료를 사용한다.

4. 전달(delivery)되어야 한다.

전달이란 메시지가 전해지는 물리적 과정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걷고, 일어서고, 앉고, 움직이는 방법, 음성, 시선 등이 포함된다. 이들 전달에 관한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나 몇 가지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자.

첫째, 열정적이어야 한다.

둘째, 다양하게 해보라.

셋째, 스스로 확신을 느껴야 한다.

넷째, 눈을 마주쳐라.

다섯째, 자연스럽게 친절하며 즐거워하라.

V.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의 계획 및 전달(해설기법)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7단계가 된다. (Regnier et al. : 18 -19)

- 이야기거리의 선택
- 이야기거리를 하나의 주가 되는 테마로 좁힘
- 테마를 단일 문장으로 진술
- 테마에 관한 연구
- 청중의 식별
- 해설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 해설매체의 선택 및 개발

이상의 7단계를 거치면서 한 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해설프로그램이 제작된다. 여기에 관한 예를 한가지 들어보기로 한다.

사례: 소쇄원 관광

- (1). 이야기거리의 선택: 소쇄원
- (2). 이야기거리를 하나의 주가 되는 테마로 좁힘: 소쇄원은 원림이다.
- (3). 테마를 단일 문장으로 진술: 소쇄원은 양산보 처사공이 조성한 원림이다.
- (4). 테마에 관한 연구:
 - 원림과 정원의 구분
 - 양산보 처사공의 후손 및 향토사학자 등과 면담
 - 도서관에서 소쇄원에 관한 책
 - 소쇄원 관련 모임
 -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나온 자료
- (5). 청중의 식별:
 - 해설담당자와 면담
 - 잠재방문자에 대한 조사
 - 방문자의 관찰과 면담
- (6). 해설할 것에 대한 아이디어 창출:
 - 원림과 정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라.
 - 양산보 처사공이 소쇄원을 조성하게된 내력을 이야기하라.
 - 당시의 시대배경 한토막을 오늘의 상황과 비교하여 이야기하라.
 - 소쇄원이 이곳에 자리잡게된 내력을 이야기하라.
 - 소쇄원 건물의 이름에 담긴 뜻을 이야기하라.
 - 양산보 처사공이 자손에 내린 당부에 대해 이야기하라.
 - 소쇄원 복원이 가능하게된 배경을 이야기하라.
 - 소쇄원의 아름다움을 읊은 노래 한 수를 들려주라.
- (7). 해설매체의 선택 및 개발:
 - 6 단계까지의 내용을 적절하게 해설해 줄 방법을 선택 또는 고안한다.

1. 생동감 넘치게 하는 기법

어떠한 여행이나 해설이 기억에도 남고 동기도 부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설가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해설이 생생하고 흥미롭게 되는가? 명백하고 즐겁고 기억에 남는 해설을 해내는데는 확고한 규칙은 없지만, 그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는 기법은 많이 있다. 여행

자, 지역, 그리고 해설가는 각기 독특하다. 이들을 잘 조합하면, 하나의 경험과 한가지 해설 유형을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한 그룹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도 다른 그룹에게는 평범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해설가나 안내자는 방문자의 흥미와 호기심에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즉시 코스를 바꿀 수 있도록 재빠르고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1) 장소 또는 대상에 대한 열정

어떠한 장소나 특성을 생동감 있게 하는 첫 번째 핵심적 사항은 해설가가 그 대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즐겁고 외경스런 느낌을 갖는 것이다. 열광하는 것은 금방 알아볼 수 있으며 고도로 전문성이 강하다. 열렬한 해설가를 만나면, 방문자는 그 장소를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틸든은 자신이 제시한 6가지 원칙을 하나로 요약하면 사람이라고 한 바 있다(Tilden, 1957).

확실히 해설가가 한 장소를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대한 모든 사항에 매료될 필요는 없다. 핵심은 해설가가 그 곳에 관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있다. 그것은 자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자연의 모습에 대하여 방문자들의 이해가 그 곳 방문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가는가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동시대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매혹일 수도 있다. 해설가의 견해로 볼 때, 그 지역을 변모시켰거나, 또는 그 지역의 이상을 실현시킨 인물에 대한 매혹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해설가 개인의 느낌 또는 추억일 수도 있다. 그 느낌이나 추억이 방문자와 가까운 관계 또는 즐거움 코드를 쳐줄 수만 있으면 된다.

(2) 사람들에 대한 열정

냉담함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최악의 한가지이며, 관광객들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해설가가 그들을 좋아하는가 아닌가를 금방 느낀다. 해설가가 자신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관광객들도 해설가에 대하여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해설 기술을 마스트 한다는 것은 어떤 화젯거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관광객들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해설가는 관광객들에 대하여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왜 여행을 나섰는지, 전에 어디를 여행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흥미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해설가는 관광객들을 그 장소에 친숙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환영받고 있음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서로 존중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에 해설가는 커다란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관광객들도 이들 해설에 대하여 기꺼이 신뢰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3) 장소와 경험간의 관련성 강화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역사도 관광객이 그 역사에 아무런 관련성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박물관에서 자신의 일부를 인식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그림속에 자신이 있고 전광터 속에 자신이 있다. 농기구 속에 선조의 모습이 떠오르고 초가지붕 속에 할머니의 이야기가 도란거리고 있음에서 자신의 뿌리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우리들 자신의 옛 발자취를 더듬어 올라가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전개된다. 그 때 해설가가 전문가들이 밝혀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면, 우리들은 보고 있던 역사의 편린들이 또렷한 의미를 지닌 채 다가움을 느낄 수 있다.

(4) 정보 이상의 해설 강조

많은 안내자나 해설가들은 해설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걸어다니는 백과사전(Walking encyclopedia)이라 불리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상의 찬사라고 믿는다. 그

러나, 사실 정보는 해설의 한가지 성분에 지나지 않는다. 톨든의 세 번째 해설의 원칙은 “정보는 해설이 아니다. 해설은 정보에 근거하여 밝히는 것이다. 정보와 해설은 전적으로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해설은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해설은 정보를 섞고 추출해내는 일이다. 건물이나 동상의 크기나 주춧돌에 새겨진 날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연결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 없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날짜와 같은 세부적인 것이 이야기의 양념이 되거나 강조 사항이 될 수 있다. 해설가는 그들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이것을 돌보아야 했던가? 이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또는 이곳(이 사람, 이 시대)이 나를 때로 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관광객은 해설가 자신의 견해를 알고 싶어한다. 좋은 싫든 해설가가 관광객이 그 지역에서 알게된 유일한 개인 중 한사람이며, 해설가의 개인적 느낌과 견해가 그 여행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 된다.

은퇴한 FBI 요원인 맥카프리는 사람도 시간제 해설가였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진정코 사실이다. 해설하는 과정에서 좀더 인간적일수록 관광객들은 더 좋아한다. 그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설가는 인간적임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해설가가 지나치게 인간적이고 친하게 되는 것은 프로 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종종 인식된다.

(5) 이야기를 지어내고 해줄 수 있는 능력

이야기가 장소와 사람들을 살아있게 한다. 유명한 이야기꾼인 심스(Laura Simms)는 이야기한다. “당신은 어떤 곳에 몇 번이나 가더라도 그대로 외부자(外部者)로 남게 된다. 그러나 그곳의 이야기를 알게되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방문자가 아니다. 당신은 참여자가 된다. 내가 이야기를 알게 되자 뉴질랜드는 과일처럼 싱싱하게 다가왔다. 이제 나는 그 속의 역사를 만들기 시작한다.”

확실히 해설가에게 있어서 진실성과 정확성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선동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해설가는 모든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도록 수식하고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타고난다. 너무나도 자주 해설가는 전설이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때는 진짜라고 하면서 얼굴 붉어지고 부끄러운 일화나 전설을 길게 늘어놓는다.

사실 삶 그 자체가 방대한 이야기의 모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래비와 와이드머(John Gravey 와 Mary Law Widmer)는 그들의 저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 뉴올리안즈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역사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하나의 이야기로서 이야기꾼에 따라 달라진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본래의 역사가 관련지워 진다. 이 때문에 잇따르는 연대기는 하나의 역사이지 본래의 그 역사는 아니다. 정해진 역사는 없다. 오로지 기록보다 많거나 적게 이야기되는 이야기거리가 있을 따름이다.”

때때로 알려진 사실은 따로 있지만 해설가는 그것을 옮겨 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역사가이며 작가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해설가인 마리온(John Francis Marion)씨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나는 역사 속에서 공상하는 사람이다. 내가 역사를 읽을 때는 나는 나 자신을 역사속의 인물 사이에 투영하는데 그것이 이야기가 된다. 사실을 쭉 펼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해설가는 진실을 전할 의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 입증

되지 않거나 의문시되는 전설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또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등으로 시작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6) 자극적 질문 능력

질문을 하는 능력도 아주 값진 해설 기술이다. 관광객을 참여시킴으로써 해설가는 그들을 관여시킨다. 자극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보기보다 복잡하다. 질문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해설가들은 방문자들을 몰입시키기 위해 질문을 한다. 질문은 당신의 레퍼토리를 첨가하는데 있어 고도로 유용한 기술이다.

질문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Regnier et al. : 31).

- . 흥미를 자극한다.
- .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한다.
- . 창조적인 생각을 고무한다.
- . 중요한 점을 강조한다.
- . 방문객들이 생각과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7) 질문 시 알아들 점

한사람에게 묻지 말고 전체 청중에게 물어라. 이렇게 해야 모두가 생각하게 된다.

한번에 한가지만 물어라

대답할 시간을 주어라. 이것을 기다리는 시간(wait-time)이라고 한다. 연구 결과 질문자가 더 많은 시간을 줄수록 더 나은 대답이 나왔다. 자신이 스스로 대답하지 말라. 만약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아니면 말을 바꾸어서 물어보라.

“누가 알까” 또는 “누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와 같이 시작하며 묻지 말라. 그러한 말투는 그 질문에 답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청중의 능력에 맞추어서 질문하라

질문에 대한 응답은 비록 그 답이 틀렸을 지라도 품위 있게 받아 들여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된 듯이 느끼게 하지 말라.

끝으로, 예 또는 아니오 식의 단순한 질문은 하지 말라.

질문은 보통 질문 내용만큼 자극적이다. 질문을 만들면서 해설가는 다양한 수준의 질문을 이용해야 하며, 반응할 시간도 적절하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응답에 대하여 놀려서는 결코 안 된다. 해설과정에서 질문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질문 하면 아주 성공적일 수 있으나 젊은이나 어른들에게는 별로 이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낀다.

(8) 부분을 전체에 관련시키는 능력

자연주의자인 해설가는 사과꽃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벌을 가지고 자연에서 공생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한 마리의 벌은 꽃에서 꿀을 빨아올려 먹고 배속에 넣었다가 꿀통에다 꿀을 채운다. 이 꿀은 또 사람이 먹고 약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 물론 꿀벌이 꿀을 빨아올리기 위하여 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음으로써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세포가 분열하여 커지면서 사과 씨앗이 형성된다. 이 씨앗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육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즐겨먹는 사과이다.

벌과 나비가 없으면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질 수 없고, 꽃이 없으면 벌 나비가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꿀벌 한 마리인 부분을 가지고 자연 속에서 거미줄 같이 얽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알려줄 수 있다. 즉 전체에 관련시켜 해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찰 마당에 서 있는 석탑 하나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으나 그 탑의 모양을 가지고 불교 문화의 변천 과정, 석공예 기술의 변천사를 설명하게 되면, 역시 부분이 곧 전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에 관련시키는 능력은 해설가에게 특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것은 관광객이 해설가를 통하여 그 자원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9) 유머를 활용하는 능력

현명하게 사용하면 유머는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호소하는 의사소통 수단 가운데 한가지이다. 반면에 유머는 극단적으로 어설퍼지고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많은 해설가들은 재미있게 해줄수록 관광객에게 더 인기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웃기를 좋아한다고 항상 웃기려고 애를 쓰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해설가는 유머의 미묘함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해설가는 재치와 유머를 농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실에 근거한 뒤틀린 접근이 종종 보다 더 유머감이 있다. 그룹원을 끊임없이 웃기려고 시도하는 해설가는 관광객을 괴롭히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손님들이 해설가에 대하여 불평을 할 수도 있다. “그는 코미디언이 되려다 실패한 사람과 같다. 온종일 진실을 들여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설가가 유머의 공격적이고 격리시키는 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머에 대한 취향은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유머는 피해아 한다. 유머를 활용할 때 필요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자신에 맞게 한다. 농담을 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웃기려해도 웃지 않는 것만큼 애처로운 것은 없다.

민족에 관련된 농담이나 타지방, 타언어, 다른 풍습, 다른 신념을 가벼이 다루지 말라.

해설가가 얼마나 유머 감각이 있느냐를 가지고 해설가의 자질을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기억하라.

장시간 해설을 하는 경우에는 손님 중에서 이야기할 사람을 찾아 함께 하는 것도 유쾌함과 유머거리가 될 수 있다.

(10) 분명하고 다채로운 언어사용

말은 대단한 의사전달 도구이다. 해설가는 말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게도 관광객을 현실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옮겨놓을 수도 있다. 해설가들은 자신들의 언어사용을 대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풍부한 어휘 구사가 대단히 학자다운 것으로 생각한다. 사실은 간단한 언어, 어린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11) 침묵할 때를 알기

종종 가장 적절하고 힘있는 해설은 침묵이다. 침묵하게 되면 존경 또는 반성하는 기분을 갖게 하거나 관광객에게 그들 스스로 그곳에 빠져들고 평가할 시간과 공간을 주게 된다. 그리고 침묵은 관광객이 정신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설가의 해설 없이 관광객을 내버려두면 관광객들 스스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침묵은 해설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설에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

묘지나 사찰, 성당과 같은 성스러운 곳은 사려 깊게 다루어야 한다. 해설가는 그러한 성스럽고 엄숙한 분위기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야단스럽게 해설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적절한 행동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극히 아름다운 경관이나 전쟁의 참상이 빚어졌던 곳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관광객들 스스로 전쟁의 참혹함을 떠올려보거나 경관의 아름다움에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다.

그리고 시간이 없거나 계획을 잘못 짜서 들리지 못할 곳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이벤트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되고, 지금하고 있는 여행이 알맹이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멈출 때를 알기

틸튼은 분명히 “부족한 것이 낫다(Less is more)”고 설명하고 있다. 많은 해설가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관광객에게 전해주려고 시도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광객들은 정보 과부하(誇負荷)에 처하게 된다. 훌륭한 해설가라면, 언제 그만두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야 한다.

연예 산업에서는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황금 규칙이다. 가장 적절한 그만두는 시점은 절정기이다. 공연하는 사람의 마지막 한가지 숨겨둔 재주까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이 아니다. 다음에 와서 또 보고 듣고 즐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해야 한다.

(13) 새로운 것 학습과 프로그램 개발

해설가가 관광객에게 진부하게 보이지 않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택한 주제에 대하여 경이로움과 외경감(畏敬感)을 유지하는 것이다. 영리하고 활기찬 해설가는 실제로 모든 종류의 지식, 물질, 예술 형태를 자신들의 해설 프로그램 속에 짜 넣어야 한다.

어떤 장소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는 사람은 흥미롭고 관련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서두르지 않는다. 해설가 스스로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남에게 진한 감동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2. 답화하는 기법

(1) 무대 설치하기

당신이 첫 마디를 꺼내기 훨씬 이전부터 말은 시작된다. 당신의 잘 차려입은 복장이 믿음직스럽다. 당신의 몸가짐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준다. 평상복을 입되 너저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옷차림이 그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서의 신빙성을 말해준다.

적절하고 빈틈없게 복장을 갖추고 자신감 있는 자세를 취하라. 청중이 보기에 당신의 모습이 자신만만하게 보이도록 하라. 청중이 당신이 누구인가하고 의아해해서는 안 된다. 청중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장비와 시청각자료를 준비하고 모든 것이 손님을 위해 준비되었는지 점검하라.

(2) 시작

말을 시작한 후 처음 30초는 청중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온화함, 자신감, 수행방법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감을 느껴야만 한다. 말이 쉽게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 연습을 해야 한다.

당신과 청중 사이에 장벽을 만들지 말라. 연단이나 탁자 위에 서지 마라. 똑바로 서서 청중들과 눈을 맞추고 청중을 대하라. 앉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있지 말라. 그렇다고 뒷짐을 지고 나무처럼 뻗뻗이 서있거나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너무 형식을 갖추지는 말라.

(3) 메모

말할 내용을 쓰지 마라. 원고는 당신이 청중과 눈을 맞추거나 하고자 하는 제스처를 방해한다. 대강 내용을 메모장에 적은 것이면 족하다. 실마리가 필요하면 그냥 잠시 멈춰서 메모장을 보고는 계속하라. 이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라. 메모장을 숨기지 마라. 숨기면 훑쳐보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 유창하게 흘러나오지 못한다.

말할 내용을 암기하지 마라. 신선하고 자발적인 발언이 방해받는다. 그 대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말할 내용을 마음속에 그려라. 마음속에 주된 내용을 연상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예를 쉽게 기억해 낼 수 있다.

(4) 목소리

목소리는 다음과 같은 4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Pond : 128~131).

첫째, 음의 높낮이(Pitch) : 피치는 목소리의 높거나 낮은 질이다. 음의 높낮이는 그 사람의 신체적 요인의 하나인데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높은 소리는 대개 여성, 흥분, 신경질, 절망, 열정 등과 관련이 있다. 낮은 소리는 의도적, 통제적, 그리고 여성적임을 암시한다. 중간소리는 그 중간으로서 단조로울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리의 높낮이 폭이 꽤 넓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소리의 폭을 줄이고 한가지 높이로만 말한다. 전문가들은 말할 때, 소리의 전체 폭을 활용하여 변화를 주라고 권한다.

둘째, 공명(Resonance) : 공명이란 소리의 울림이다. 소리의 울림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은 콧소리와 쉰 소리이다. 콧소리는 벌리고 소리를 내게 되면 콧소리는 없앨 수 있다. 쉰 소리는 감기가 심하거나 편도선이 부어서 또는 다른 장애물에 의해 목으로 공기가 충분히 통과하지 못할 때 나는 소리다. 병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와 상의해보아야 한다.

셋째, 음량(Volume) : 소리의 크기를 음량이라고 한다. 적절한 음량이란 소리를 크게 또는 적게 하여 그룹과 공간의 크기에 맞추어서 힘들이지 않고 소리의 양을 내는 것이다. 복부에까지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를 내면 남여 모두 낮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무리를 해서 큰 소리를 오랫동안 내게 되면, 위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된다.

넷째, 목소리 돌보기 : 값진 물품과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목소리에 생계를 걸고 있는 가수, 아나운서, 문화유산해설가, 연사들은 특히 목소리 보호에 조심해야 한다. 담배, 과음, 약물과용, 잦은 큰기침, 입벌리고 자기, 큰소리로 과다하게 이야기하기, 고함지르기 등이 목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들에 조심해야 목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우유제품을 과다하게 먹지 말며, 가능한 자주 더운물 샤워를 하면 목소리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목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 언어구사

소리를 내는 양식에는 다음 8가지의 중요한 특성이 있다(Pond :131~137).

첫째, 목소리의 억양(Intonation) : 목소리의 억양이란 말이 지닌 멜로디이다. 이는 그 사람의 출생지, 개성, 열정 등에 따라 비쳐지는 개인적 특성이다. 이상적인 억양은 자연스러우면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결코 판에 박힌 듯하지 않은, 그러나 많은 문화유산해설가는 판에 박힌 듯한 억양을 가지고 말을 한다. 암기한 것을 반복해서 쓰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은 짜증스럽고 괴롭다.

둘째, 똑똑한 발음(Articulation) : 말소리가 깨끗하고 분명하며 발음이 또렷또렷한 것이다. 좋은 문화유산해설가라면 발음도 똑똑해야 한다. 똑똑한 발음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소리를 녹음해두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듣는 것이다. 말끝을 흐리거나, 말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거나 너무 빨리 말하면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게 된다.

셋째, 어휘(Vocabulary) : 어휘가 풍부하면 동일한 것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좋다. 문화유산해설가는 항상 청중에게 신경을 써서 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귀에 익지 않은 단어를 구사하면, 듣는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된다. 진부하지 않고 다채로운 어휘를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일이다.

넷째, 문법(Grammar) : 적절한 문법은 전문 문화유산해설가가 지녀야 하는 속성이다. 사실 언어는 인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나타내므로 언어의 규칙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더욱이 언어가 지닌 또 한가지 아름다움은 그 용법의 다양성에 있다. 표준문법의 규칙에는 맞지 않지만, 오로지 그 지방 사투리만 알고 있더라도 훌륭한 해설을 해내는 사람은 많다. 바람직한 것은 표준어와 사투리를 모두 알고 대화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빠르기(Rate of speaking) : 듣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 가운데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한가지가 말이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 사람들의 말이 빠르다. 문화유산해설가는 대부분 타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너무 빨리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여섯째, 나쁜 언어습관 : 듣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버릇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목걸이나 옷 등을 만지면서 말하는 경우; ‘음’, ‘애’ 등과 같은 소리를 계속 내는 경우; 눈을 자주 움직이는 경우; 과장하는 경우; 지나치게 비속한 말을 사용하는 경우; ‘아시다시피’,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등과 같은 표현이나 장난기 있는 말(petwords)을 과다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일곱째, 단어사용 : 잘 선택된 단어는 생생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당신이 어휘를 선택하는데 보낸 시간은 청중들이 평가해 줄 것이다(Regnier et al. : 25).

- 특별 하라. “청설모가 숲을 망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청설모를 쏜다.” 라는 문장은 애매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나는 한 독립가를 알고 있는데, 그는 청설모가 잣 알맹이를 빼 먹는다는 이유로 한 해에 20마리의 청설모를 총으로 쏘아 날려버렸다.” 라는 문장과 비교해 보라.

왜 두 번째 문장이 더 세밀한 이미지를 전달하는가? 그것은 특수한 장소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더욱 좋다)을 나타내고, 특수한 나무에 있는 청설모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청설모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폭파한다. 개인적 대명사인 “나”는 이 이야기가 실제상황이고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더 효과적인 심상(心象)을 위해 활동적인 동사, 특수하고, 구체적인 명사, 친근한 사람과 장소, 개인적 언어를 사용하라.

- 불필요한 말은 빼라. 불필요한 단어는 빼라. 진부한 표현, 상투어, 군더더기, 아호, 에헴, “애매모호한 단어”가 불필요한 말이다. 학문에 훈련된 사람들이 주로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 에 의하면 ”, “ ... 일 것이다.” 라는 말을 좋아한다. 불필요한 말은 빼라.

여덟째, 마이크 사용 : 필요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마이크 성능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손님들이 도착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들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물론 마이크 사용시의 소리가 너무 커서도 작아서도 안 된다.

(6) 몸짓언어

우리는 팔, 얼굴, 그리고 자세만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프로이드가 말했듯이 “어떤 인간도 비밀을 간직할 수 없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손가락 끝으로 얘기한다. 부자연스럽고 신경질적인 몸짓은 문화유산해설가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린다. 더욱이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몸짓이나 자세는 극도로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고, 문화유산해설가의 메시지를 불신하게 만들기까지 할 수 있다. 문화유산해설가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자신의 몸짓이나 자세를 바람직하게 수정할 필요도 있다.

첫째, 표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라.

어떤 전문가들은 메시지 이해의 55%는 단어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을 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문화에서 눈은 아주 중요하다. 항상 청중을 보아라.

둘째, 자세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라.

빈틈없는 자세는 자신감을 나타내준다. 아이디어를 강조할 때 몸짓언어를 이용하라.

셋째, 산만한 매너리즘은 피하라.

말하는 것이 신경 쓰이는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연기자인 로렌스 올리비에 경은 공연이 있기 전이면 언제나 몸이 아팠다. 올리비에 같은 유명 연기자도 안전부절했다. 긴장을 에너지로 바꿔라. 그러나 긴장이 심란한 매너리즘에서 흘러나오도록 하지는 마라. 다음에 맞서라:

- 몸 이동 • 몸 떨림 • 단상에 기대기 • 팔 흔들기
- 손 숨기기 • 옷 만지작거리기 • 발 끌기

넷째, 제스처를 통해 의사소통 하라.

프로그램의 요지를 손으로 강조하고 묘사하라. 자연스럽게 과장되지 않은 동작을 해라. 고상하고 간결하게 해라. 좋은 제스처는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다. 좋은 제스처는 메시지의 내용에 적합하게 하고 생각을 강화한다.

다섯째, 목적을 가지고 걸어라.

오리의 뒤통거리림, 타조의 걸음걸이, 코끼리의 무거운 걸음, 팬더의 활보. 당신이 걷는 방식은 당신의 이미지를 반영한다. 당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을 안무하라. 모든 행동이 목적을 지녀야 한다. 행동은 또한 청중의 주의를 끌거나 중요한 점을 강조해야 한다. 듣는 사람을 향해 걸어가면 당신이 이어 말하고자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타이밍은 결정적인 것이다. 말하기 바로 전에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능숙한 몸동작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 말을 할 때 될 수 있는 한 철두철미하게 동작을 미리 연습하라.

여섯째, 눈 마주침(eye contact)을 활용하라.

담화기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눈 마주침은 초보자에게는 겁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숙달되면 문화유산해설가에게는 무한히 값지고 힘이 솟아나는 도구이다. 눈 마주침을 즉각 반응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간에 마음을 열 수 있게 필요한 연계관계를 맺어준다. 전문가들은 청중 한사람 한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도록 권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훌륭한 연설가였는데, 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한번에 한눈으로 한사람과 대화하였다고 한다.

3. 소도구의 사용

사람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소도구는 호기심을 더욱 고조시키는데, 특히 그것이 자극적인 것일 때 그렇다. 예를 들면, 박제는 효과적인 소도구이다. 빨간 머리 딱따구리 박제는 청중이 움푹패인 곳에 사는 생물들에 대해 많이 알도록 해준다. 사람들은 발톱이 특이한 배열을 볼 수 있고 꼬리의 깃털을 느낄 수도 있다.

소도구 사용시에 알아들 점은 다음과 같다.

• 그 대상이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사람들은 친숙한 대상에 반응한다.

그런 소도구는 당신이 흔한 대상과 자연계 사이의 비슷한 점을 끌어내도록 도와준다. 손전등과 상호의존의 개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배터리 등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라. 서로 다른 부분들이 함께 작용하여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 색깔이 주의를 끈다.

빨간 색은 사람들을 흥분시킨다. 녹색과 파란색은 긴장을 완화시킨다. 색깔은 또한 관습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빨간 구두를 보았을 때 누구라고 생각하겠는가? 청중을 노란 색 벽돌 길로 안내하기 위해 이러한 비유적인 소도구를 이용함이 어떠한가?

• **소도구에 다른 감각들을 몰입시킨다.**

냄새와 소리는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는다. 예를 들어 울빼미 소리는 울빼미의 모습만큼이나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다. 스킨크 냄새가 나는 항아리를 열어서 큰 부리 울빼미가 스킨크를 먹이로 한다는 것을 알려라(재빨리!).

• **사람들을 소도구에 몰입시킨다.**

울빼미의 부드러운 깃털을 만지는 사람은 울빼미의 조용한 비상을 알 것이다. 청중이 울빼미의 입을 잡아보았다면, 그 모양과 색깔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 **사람들이 역사적인 골동품에 관심을 갖게 한다.**

골동품은 지난 시대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갈고리 달린 막대기로 큰 통나무를 굴리거나 곤룡포에 달린 단추를 만지는 것은 시간을 여행하는 방법이다.

Ⅶ. 관광객의 심리

관광객의 심리를 꿰뚫어 봄으로써 관광자원을 계획·연출할 때 관광객의 기대했던 이미지와 자극 받은 이미지의 강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판단·예측할 수 있는 계획 및 연출가 특유의 예리한 감각이 요구된다.

수려한 관광자원이라도 연출을 잘못하면,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하찮은 관광자원이라도 연출방법에 따라서는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 즉 조련사의 숙련 정도에 따라 돌고래 쇼는 정신없이 박수를 칠 정도로 신이 날 수도 있고, 시시해져버릴 수도 있다. 계획 및 연출가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관광객의 심리는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탈일상성·기분전환

관광객에게는 일상거주지를 벗어나므로써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관광지 환경이 일상 거주환경과의 차이가 클수록 만족감도 커지나, 보건위생적인 환경은 평상시 습관화되어 있어 일상 환경과 크게 차이가 나면 불만족스럽게 느낀다. 요리도 어른들은 토속음식 등 평소에 먹을 기회가 적은 요리를 즐겨 먹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음식에 관심이 없다. 이러한 점은 연출할 때 감안해야 한다.

(2) 환대성·친절성

관광객은 손님이며 손님은 곧 왕이다. 따라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싶어지며, 종업원의 조그만 불친절에도 화를 내는 것은 자기가 곧 왕이라는 생각에서 극진한 환대를 바라기 때문이다. 안전과 편의 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관광객을 환대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필요하다. 관광에서 환대는 비록 그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알려지더라도 결코 싫어하지는 않으므로 연출가는 환대에 각별한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

(3) 개방성·익명성

관광객은 자기의 생활권을 벗어나기 때문에 즐거움과 만족감을 만끽해 보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 따라서 법적 및 공중도덕적인 면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유희추구성향, 사행심, 성개방 성향은 관광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광지에서는 이들 성향이 어느 정도 발휘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관광지가 무미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냄새, 혼돈의 장소도 관광지에는 필요하다. 인간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장소도 남겨 놓아야 한다.

(4) 직접접촉

홍보용 사진에서 보는 석굴암 불상은 더없이 자비롭고 살아 숨쉬는 듯하여 경주에 가면 석굴암 해돋이를 보려고 아침 일찍 산길을 오르는데 막상 석굴에 들어가 보면 큰 유리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있다. 자원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을 유리창 밖으로 그것도 멀리 떨어져서 확인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이 한 마디씩 불평을 한다. 모조품이라도 부근에 두어 접촉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데도 자신의 전감각을 통해 그 경관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동력을 써도 창으로 에워싸인 케이블카보다는 개방된 리프트 쪽이 주위의 자연을 더욱 잘 느끼게 해줄 수 있다.

(5) 호기심

묘하고 기이하고 진기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줄을 지어 동굴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평소에 걸모습을 보면서 그 속이 어떨까 하는 땅 속에 대한 잠재된 호기심이 유발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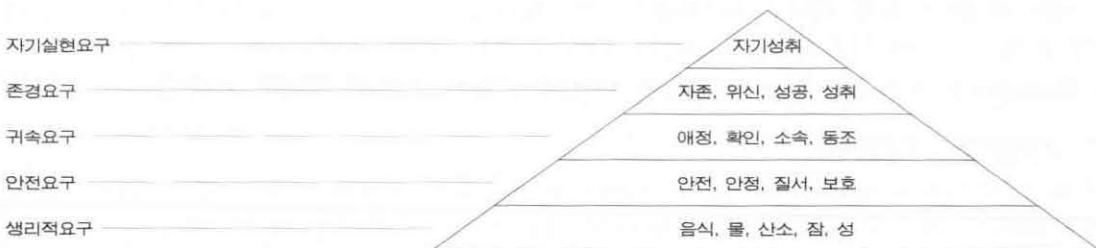
예를 들면, 특히 어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개구리의 헤엄치는 모습도 어린이에게는 신기하다.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커서 개구리가 된다고 설명해 주면 당장이라도 올챙이를 잡아 달라고 성화를 부린다. 이와 같이 인간본성에 내재한 호기심의 발로는 곧 관광 자원에 대한 탐구정신을 왕성하게 해주므로 호기심이 유발하고 또한 충족될 수 있도록 연출해야 한다.

(6) 기념성

오늘날의 관광여행은 이미지의 확인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이미지를 확인하였다는 사실로서, 집에 돌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 거리로서, 그리고 뇌리에 박힌 장면들을 회상해 보기 위해서 관광객에게는 관광지에 온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도 있다. 따라서 인상적인 장면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도록 사진을 찍을 장소와 상징물을 만들고 토산품을 만들며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지에 온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을 연출해 놓아야 한다.

관광객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관광여행 동기에 대한 이론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요구단계설(hierarchy of needs)이다. 그는 인간의 5가지 기본적 요구를 제시하였다.

매슬로우의 5단계 요구단계



- 참고문헌: 박석희, 나도 관광자원해설가가 될 수 있다, 백산출판사, 2000.

- 최소한 아는 것의 80%라도 전달할 수 있는 해설기술을 연마하자.
- 문화관광 해설가야말로 관광자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사.
- 곡성의 문화관광 해설가 자신이 바로 관광자원이다.
- 자신의 팬을 만들자.

고려시대 문물문화의 발달과 함께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고려의 문물문화는 점차 발전하여

곡성의 역사와 지역성

권경안

(조선일보 기자)

목 차

1. 지명은 지리특성을 반영했다
2. 곡성의 역사흐름
3. 곡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1. 지명은 지리특성을 반영했다

(1)최초지명은 欲乃, 8세기때 현재로

곡성이란 지명이 처음으로 생겨난 때는 통일신라시대였다. 경덕왕 16년(757년)이다. 『삼국사기』를 보면 구체적인 기록이 나온다. 이 당시 대대적으로 지방통치조직과 군현개명작업을 단행했다. 통치체제정비의 일환이다.

곡성(谷城)군은 본래 백제의 옥내(欲乃)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고려시대)도 그대로이다. (곡성군이) 거느리고 있는 현이 셋이다. 부유(富有)현은 본래 백제의 둔지(遁支)현으로, 경덕왕이 바꿔 지금과 같다. 구례현은 본래 백제의 구차례(仇次禮)현으로, 경덕왕이 고쳐 지금도 그대로이다. 동복현은 본래 백제의 두부지(豆夫只)현으로, 경덕왕이 고쳐 지금과 같다.(지리지3 곡성군 조)

현재 파악되고 있는 곡성의 최초명칭은『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백제시대 欲乃였다. 이어 통일신라 경덕왕대 谷城으로 개칭한 이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欲乃(백제시대) 谷城(통일신라 경덕왕대 이후 지금까지)이다.

그렇다면 최초명칭 欲乃是 무슨 뜻이었고, 어떻게 읽었을까. 골내(나)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뜻은 골짜기가 많은 곳이란 의미였을 것이다. 백제시대의 명칭은 우리말을 불완전하게 한자를 통해 표기하던 단계였다. 欲의 당시 훈(訓)이 ‘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골의 뜻은 ‘마음이 풀리다’의 ‘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명을 欲乃로 표기하면서 의도했던 뜻은 이같은 뜻이 아니라 골짜기의 골이라고 본다. 乃자는 장소를 뜻한다. 地, 野, 壤을 뜻하는 우리말이 내(혹은 나)였다. 그렇다고 보면 欲乃是 골내(나)로 읽을 것이고, 그 뜻은 골짜기가 많은 곳(지역)이었을 것이다. 골짜기가 많은 곳이란 자연지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 지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후 개명된 谷城은 무엇인가. 훈이 골이지만 골짜기와는 그 뜻이 달랐던 欲을 명실상부하게 뜻을 가진 골짜기 谷자로 바꾸고, 곳(지역)을 의미하는 乃도 그 뜻이 유사한 城으로 바꾸었다. 순수우리말을 한자를 빌려써 표현한 欲乃명칭에서, 한자로서 그 뜻이 명확하고 마찬가지로 자연지리적 특성을 담고 있는 谷城으로 정비되었다.

(2)곡성의 별칭은 浴川 穀城

곡성과 가까운 남원은 龍城, 구례는 鳳城이라고 한다. 별칭이다. 곡성도 이와 비슷한 별칭을 가지고 있다. 행정상의 지역명칭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곡성현 조를 보면 欲乃, 浴川이 나와 있다. 欲은 물과 계곡을 의미하는 浴으로, 乃是 ‘내 川’으로 바꾸어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별칭, 즉 浴川이 쓰여진 것으로 본다. 18세기와 일제시대 간행된 『浴川(續)誌』는 객사현관에 浴川館, 穀城館이라 썼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시 浴川, 穀城이란 별칭이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시대 간행된 『곡성군지』를 보면, 연혁에서 옥내군(일명 欲川郡)이 나온다. 아직까지 欲川이란 용례를 다른 문헌에서는 찾지 못했다. 欲乃에서 浴川으로 변하는 중간단계가 欲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지명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

『浴川(續)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다. 살아갈만한 산품이 없다(地狹人多 居無常産).’라는 구절이다. 谷자와 같은 穀자를 써서 별칭을 삼고, 산품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穀城館이란 현관을 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참고1) 곡성역 벽면에 걸린 곡성역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백제시대에는 欲川郡 欲乃

郡으로 불리어오다 地勢에 따라 河川으로 흐름을 본 따서 曲城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시대에 와서 시골장을 떠돌아 다니는 장꾼들이 交通이 불편하여 通行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哭城이라 한 때 불렸고, 그후 穀城으로 되었으나 國家에서 지명만을 생각하고 租稅를 부과한다는 住民여론에 따라 이를 개칭, 谷城으로 불리워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명을 따라 곡성역이라 명함. 이 글대로라면 欲川郡 欲乃郡(백제시대) 曲城 哭城(고려시대) 穀城 谷城으로 지명이 변해온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래문은 역사기록에 나타나는 행정지명과 별칭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설명대로라면 지역명칭이 그 순서에 따라 변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행정명칭은 欲乃(백제) 谷城(통일신라부터 현재까지)이며, 별칭은 涪川, 穀城 등이 있었다.

(참고2) 곡성의 지명중에는 봉황과 관련된 이름이 많이 나온다. [옥천지]와 [옥천속지]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보자.

곡성의 진산인 동악산(東樂山)은 봉황이 날아가는 형세(飛鳳形)이다. 봉황은 오동(梧桐)이 아니면 깃들지 않기에 동쪽에는 오지(梧枝)가 있고, 대나무열매(練實)이 아니면 먹지 않으므로 남쪽에는 죽곡(竹谷)이 있다. 또 봉황은 고양이로 꺼리는 성질이 있어서 서쪽에는 묘치(猫時, 괴티재)가 있고 메추라기를 보면 머물기에 북쪽에는 순자강(子江)이 있다.

풍수가들이 지금도 봉황에 빗대어 곡성지역의 풍수를 논하고 있다. 이 같은 예는 얼마든지 있다. 오산면의 중심마을을 부들이라 부르는데 이 순수 국어지명을 한자로 화석(火石) 화대(火岱) 포평(蒲坪) 봉동(鳳洞) 등으로 썼다. 이곳에 있는 산을 오지봉(梧枝鳳)이라하고, 율천리(栗川里)에는 봉황대(鳳凰臺)가 있다. 봉은 단산(丹山)에서 난다해서 단사리(丹士里)라는 마을 이름이 붙여지고, 봉이 조양(朝陽)에서 운다하여 조양리(朝陽里)라는 마을도 있다.

2. 곡성의 역사흐름

후기구석기부터 사람살기 시작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연대를 50만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다 돌맹이를 사용했다. 이 돌맹이를 두들겨서 쥐고 찌르고 던지는데 알맞도록 모양을 만들었다. 글자 뜻대로 돌을 깨뜨려서 만든 타제(打製)석기를 쓰던 때를 구석기시대라 부른다. 구석기시대는 수백만년전부터 10만년전무렵까지의 전기구석기, 10만년전부터 3만년전사이의 중기구석기, 3만년전부터 1만년전까지의 후기구석기로 크게 나뉜다.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 유역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은 중기구석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 우산리 곡천유적과 화순 사수리 대전유적에서 중기구석기가 발굴됐고, 순천 죽내리 유적에서도 중기구석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섬진강의 본류가 흐르는 곡성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고고학의 발굴성과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곡성지역에서 후기구석기의 유물들이 출토됐기 때문에 최소한 후기구석기때부터 곡성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연대가 올라갈 개연성은 충분하다.

곡성에서 후기구석기가 출토된 곳은 옥과면 주산리와 송전리, 입면 제월리 등이다. 옥과면 주산리와 송전리 유적은 지난 1989년 주암댐 수몰지구인 순천지역에서 구석기유적을 발굴하며 틈틈이 섬진강 유역일대를 지표조사하던 서울대 박물관에 의해 발견됐다.

1만5천년전 전후 살기 시작한 흔적 발견돼

주산리와 송전리에서 나온 유물들은 모두 니암(泥岩)자갈을 원재료로 하는 타제석기가 압도적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석기제작에 사용된 니암은 주암댐 수몰지구내의 여러유적에서 사용된 것들과 동일한 것으로 이들 니암자갈의 산지는 옥과에서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진 전남 화순군 동북 일대로 추정됐다. 주산리 유적에서는 석핵(石核) 밀개 톱니날석기 등이 나왔다. 송전리에서는 우리나라 처음인데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스키모양을 한 박편세석핵(剝片細石核)이 발견됐고, 굽개 밀개 톱니날석기 짝개 등이 출토됐다. 특히 눌러떼기를 한 세석인(細石刃)석핵이 두 곳에서 발견됐는데, 한반도에서 이것이 발견된 곳으로는 공주 석장리, 평양 만달리, 거창 임불리 등 극소수에 불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석인문화는 20,000년전에 시베리아의 아르단강 유역과 바이칼호 주변에서 발생하여 15,000년경에는 한반도에까지 넓게 분포한 석기문화이다. 박물관측은 두 곳의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1만5천년(후기구석기시대)전후로 추정했다. 지난 1984~5년 조사된 입면 제월리 유적도 주먹도끼 송곳 밀개 석핵 첨두기(尖頭器) 등이 나왔다. 제월리 유적도 후기구석기시대로 보고됐다.

가장 오랜 집터는 석곡 유정리 유적지

신석기시대는 1만년전부터 3천년전경의 시기를 말한다. 빙하기가 끝났으나 아직 차가운 기온이 남아 있던 기후는 점점 오늘날과 같이 따뜻하게 되고, 해수면도 지금과 비슷하게 되었다.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돼 구석기시대와는 달리 훨씬 살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 신석기시대는 갈아서 만든 간석기(마제석기 磨製石器)와 토기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신석기시대 후기는 지금과 비슷한 기온이 유지됐다. 그래서 울창한 삼림에서 밤 호두 등 열매를 채집하여 가공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음식물을 익히고 저장하기 위해 토기를, 빠른 동물을 잡기위해 활과 화살도 만들었다. 이때부터 한곳에 머물러 생활(定住)하기 시작했다.

곡성의 경우 석곡면 유정리 유평마을에서 집터와 함께 빗살문토기(櫛紋土器) 등 신석기토기편 등 유물이 발견됐다. 이곳은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유물이 함께 나왔다. 신석기에서 원삼국시대(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고대왕국으로 발전하기 전단계로 기원원년 전후에서 3세기무렵까지)까지 유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 자리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터는 청동기시대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석기토기편 등 발견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어느 시점부터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로는 곡성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집터라고 하겠다. 4기의 집자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1호 집터의 경우 남북길이 515cm, 동서폭 500cm안팎이었다. 집터 안쪽에는 흑갈색 모래가 채워졌다. 한 가운데는 군데 군데 목탄이 남아있었다. 이 집자리들과 지식묘 아래에서는 무문토기(無紋土器, 무늬없는 토기) 석검(石劍) 돌화살촉 방추차(紡錘車, 짐승이나 삼 등의 재료를 써서 돌이나 흙으로 만든 가락바퀴로 옷감을 짜는데 사용) 어망추(漁網錘, 그물에 다는 추) 홍도(紅陶) 유구석부(有溝石斧, 흙돌자귀, 땅을 가는 농기구) 등이 나왔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곡성휴게소 앞 녹지 고인돌군(支石墓群)은 호남고속도로 담양군 고서면과 순천시간 확장구간에 위치한 고인돌들을 발굴, 지난 1994~5년 한 자리에 이전복원한 것이다. 이전복원된 고인돌은 모두 상석 32기와 하부구조 15기다.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전기마을 앞 구릉에 있던 고인돌의 경우는 덮개돌의 무게가 각각 55톤과 35톤에 달할 정도이다.

전남지방의 고인돌은 분포수에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단위 면적당 최고의 분포수와 밀집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2,208개소에서 19,058기가 조사됐다. 이중 곡성의 고인돌은 현재까지 81군(群) 524기로 조사되고 있다.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은 목사

동면 삼기면 석곡면 오산면 오곡면 등 보성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고인들이 밀집된 대표적인 곳으로 오산면 연화리(22기), 목사동면 공북리(35기), 석곡면 연반리(20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연화리의 경우 마제석검(갈아서 만든 돌검) 마제석촉(갈아서 만든 돌화살촉) 곡옥(曲玉, 장신구) 무문토기 흑도-황도편 등이, 연반리에서는 유구석부, 삼각형석도(石刀, 벼이삭을 자르는 농기구) 등이 나왔다.

청동기-마한시대에 정치사회체 출현

곡성지역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대왕국으로 발전하기 이전인 시기에는 마한 진한 변한 등 삼한 가운데 마한의 영역에 속했다. 마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속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최근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3호분 발굴을 계기로 관심이 되고 있다. 마한에는 기록상 50여개의 작은 나라(小國)들이 있었다고 중국측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시발에 대해서는 기원전 3, 2세기로부터 보는 견해가 많다. 곡성지역에 소국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죽곡면에 일난국(一難國)을 발음의 유사성을 들어 비정하기도 했으나, 어떤 역사학자는 일난국을 영암지역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고인돌사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한 고고학자는 고인들이 밀집한 지역과 마한소국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연구성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청동기 고인돌시대와 마한시기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한소국들이 고인돌사회를 계승 발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목사동-석곡면과 순천 주암면지역(고인돌 455기 밀집)이 하나의 고인돌밀집 지역으로 주목했으나 소국으로는 비정하지 않았다. 이곳과 인접한 보성강 유역인 보성군 북내면 일원(고인돌 1,446기 밀집)이 불운국(不雲國)으로 추정된 것을 보면 목사동-석곡면 일원에도 일정한 세력을 가진 권력자를 정점으로한 정치사회체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마한시대거처, 6세기초 무렵에 백제에 편입돼

백제가 지금의 전남지방을 복속시킨 때는 근초고왕 24년(369년)대로 추정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섬진강유역은, 구체적으로는 곡성지역은 이보다 훨씬 늦은 무령왕 12~13년(512~513년)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순천-광양-여수-하동 등 섬진강유역의 여러 지역이 이 무렵 백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곡성지역도 그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최초의 지명은 곡성은 욱내, 옥과는 과지

고려시대 김부식이 남긴 역사책 [삼국사기] 지리지 백제조에는 주(州)-군(郡)-현(縣)순서별로 지명이 간략하게 정리돼 있다. 여기에 욱내(欲乃)군과 과지(菓支)현이 보인다. 욱내군의 경우 그 아래 순서상으로 둔지(遁支)현과 구차례(仇次禮)현 두부지(豆夫支)현 등 세곳의 현 이름이 달려 있다. 과지현은 복홀(伏忽, 오늘날 보성군)군 아래 마사량(馬斯良)현 계천(季川)현 조차(鳥次)현 고마미지(古馬彌支)현 추자혜(秋子兮)현 다음에 명칭이 나온다. 참고로 마사량-계천-조차-고마미지현은 오늘날 장흥군내 일부지역들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백제가 부여로 수도를 옮긴 이른바 사비시대 이후(성왕 16년, 538년)에 방(方)-군-현제가 시행된다. 기록상으로는 욱내군은 둔지현 등 세현을 거느리는, 과지현은 복홀군 아래에 있는 현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군-현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거느리는 행정구역개념은 아니고, 지방행정의 거점에 대한 칭호로, 그 정치적 군사적 중요도에 따라 주 군 현의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다. 현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면서 주와 군의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제시대 욱내군은 지금의 목사동면과 석곡면 일대로, 과지현은 옥과면과 오산면 일대로 추정하기도 한다.

8세기 통일신라때 지명이 곡성, 옥과로 바뀌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인 경덕왕 16년(757년)에는 대대적으로 지방통치조직과 군현개명 작업이 이뤄진다.

곡성(谷城)군은 본래 백제의 옥내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쳐, 지금(고려시대)도 그대로이다. (곡성군이) 거느리고 있는 현이 셋이다. 부유(富有)현은 본래 백제의 둔지(遁支)현으로, 경덕왕이 바꿔 지금과 같다. 구례(求禮)현은 본래 백제의 구차례(仇次禮)현으로, 경덕왕이 고쳐 지금도 그대로이다. 동복(同福)현은 본래 백제의 두부지(豆夫只)현으로, 경덕왕이 고쳐 지금과 같다. (『삼국사기』 지리지3 곡성군)

추성(秋成)군은 본래 백제의 추자혜(秋子兮)군으로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고, 지금(고려시대)의 담양(潭陽)군이다. (추성군이) 거느리고 있는 현은 둘이다. 옥과(玉菓)현은 본래 백제의 과지(菓支)현으로, 경덕왕이 고쳐 지금에 이른다. 울원(栗原)현은 본래 백제의 울지(栗支)현으로 경덕왕이 고쳤고, 지금의 원율(原栗, 오늘날 담양군 일부지역)현이다. (『삼국사기』 지리지3 추성군)

곡성과 옥과지역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통일과 그 이후에도 별다른 군현상의 위상변화는 없었다. 곡성군은 백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순천 주암-쌍암일대인 부유현과 구례 지역인 구차례현, 화순 동복일대인 동복현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옥과현은 백제시대 복흥군에서 추자혜군아래로 들어간 것이 변화할 수 있다.

통일신라말기, 불교문화의 한 중심지로 떠올라

통일신라말기와 후삼국시대를 거쳐 고려가 통일을 이룩하던 시기를 흔히 나말여초(羅末麗初)라 부른다. 통일신라 말기는 폐쇄적인 신분제도인 골품제에 의해 능력있는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불만과 갈등이 표면화하고, 지방에서 성장하던 호족세력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새로운 실력자로 등장하는 등 고대전제주의 국가체제가 몰락하고 있었다. 당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던 불교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선종(禪宗)은 귀족주의적 성격이 강했던 교종(敎宗)과는 달리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불성(佛性)을 깨달을 수 있다는 새로운 불교사조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9세기 무렵 선종의 9개파가 지방에서 호족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창, 성장했다. 사상적인 선종이 유행하고, 지방실력자인 호족이 성장하는 시대적 변화가 일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선종 9산중 하나로 바로 오늘날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에서 혜철(惠哲)이 동리산파(桐裏山派)를 개창했다. 그 절이 바로 태안사(泰安寺)이다. 나말여초 불교문화의 한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12세기 후반 독립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아

고려시대의 곡성은 태조 23년(940년)의 군현개편과정에서 3개의 현을 거느린 영군의 지위에서 승평(昇平)군의 속군이 되었고, 옥과현은 보성군의 속현이 되었다. 현종(재위 1009~1031년)대에 이르러 고려군현체제의 골격이 마련되었다. 4도호(都護) 8목(牧)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 상주하는 56개의 주(州)와 군(郡), 28개의 진(鎭), 20개의 현(縣)으로 편성된 것이다. 이 때 곡성군은 그 위치가 강등되어 승평군의 속군에서 나주목의 속군으로 바뀌었고, 옥과현은 그대로 보성군의 속현으로 머물렀다. 곡성과 옥과가 속군이나 속현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은 명종2년(1172년) 감무(監務, 비교적 규모가 적은 현에 파견된 관리, 큰 규모의 현에는 현령을 파견)가 두 곳에 파견되면서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자리 잡았다.

고려말 읍치가 동악산 아래로 옮겨져

고려말 왜구의 침입은 전국 각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 왜구의 약탈행위는 특히 왜구의 본거지와 가까운 남해안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곡창지대였던 서해연안도 주요한 약탈지였다. 곡창지대권이었던 섬진강유역은 남해안이나 서해안을 통해 침입해 들어오는 왜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충숙왕 2년(1333년) 당시 일본은 아시카가(足利氏)에 의해 새로운 무로마찌막부(室町幕府)가 들어서면서 황실이 남북으로 갈라져 싸우는 이른바 남북조(南南北朝)분열기를 맞아 혼란이 계속됐다. 생활이 궁핍해진 일본지방의 서부연해민들이 해적들로 변해 그 폐해가 고려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 고려말 무장 이성계는 창궐하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데 무공을 크게 세워 최영과 함께 명장으로 이름을 날려, 훗날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른 것은 잘 알려진 얘기다.

이 때 섬진강 상류지역인 곡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왕 5년(1379년) 3월 왜구가 곡성 남원에 쳐들어와 판관(判官, 수령 등 지방관리의 보좌관으로 업무경감차원에서 큰 고을에만 파견됐다)을 죽이고 사흘동안 머물다 순천에 쳐들어갔다는 고려사 기록이 있다. 고려말 창왕대에 왜구침입으로 인해 죽곡면 당동리에 있던 곡성의 읍치(邑治, 관청소재지)가 동악산 아래로 옮겨왔다고 한다. 당동마을 뒤에는 고려시대 피난목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는 산성의 흔적이 남아있고, 당동마을 건너 본 터에는 현청(縣廳)이 있던 곳이다.

전란 맞아 유팽로 등 의기(義氣) 떨쳐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 외적이 침입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자 곡성지역사람들도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의병을 일으켜 전장에 직접 나아가 싸우다 순국하거나, 가재를 털어 군량미와 병기를 조달하는 등 구국의 행렬에 앞장섰다. 정유재란 때에는 곡성읍에 있던 곡성현의 객사(客舍, 왕명으로 내려오는 관리가 묵었던 숙소)가 왜병에 위해 불타기도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임진왜란(壬辰倭亂, 선조 25년, 1592년)과 정유재란(丁酉再亂, 선조 30년, 1597년)중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유팽로(柳彭老)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호남지역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킬 것을 부르짖고 격문을 만들어 참여를 호소했던 이가 바로 그다. 곡성지역을 중심으로 남원 담양 등지의 의병을 모아 고경명을 대장으로 모시고 직접 거병, 금산전투에 참여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경명을 구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바친 의병장이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에도 수많은 인사들이 구국대열에 합류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은 박언배(朴堧培)다.

사료에 나타난 조선시대 생활상

신이 순행하면서 물어보니, 폐단이 많았습니다.(중략) 신이 순행할 때에 관사 뜰에 물려와 울부짖으며 호소했는데, 책상에 쌓인 소장은 모두가 군역을 빠진 자의 일가불이들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곡성이었습니다. 곡성은 잔읍(殘邑)이었습니다. 보병으로 나가야하는 집들이 1백84호입니다. 아예 집이 없어진 경우도 94호나 됩니다. 이렇다보니 없어진 집들만큼의 포(布)를 그 일가불이들에게 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8년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정국(金正國)이 전라도지역을 돌아보고 폐단을 시정해줄 것을 중종에게 건의한 글 중의 일부이다. 살기 어려워 군역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군역 대신 내는 포를 남아있는 일가불이나 이웃집사람들에게 징수하는 잘못을 고치자는 건의내용이다. 가난한 백성은 곡식 한말과 베 한포 마련하기 어려워 전답을 팔아내는 형편이어서 파산하고 도망한다는 설명까지 나온다. 실제 군역을 짊어지는 대신에 1년에 2필의 군포를

바쳤으나 결코 이것이 가벼운 부담이 아니었다. 관리와 결탁하여 군포의 납부를 면제당한 사람들도 많아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납부하는 것이 전반적인 현상이었다.

각 고을의 환곡(還穀)에 대한 폐단은 여러 도가 다 그러합니다마는 본도처럼 심한 데가 없습니다. 동북 육과 등 고을의 경우 민호(民戶)가 겨우 1, 2천인데 환곡은 다 2만석이 넘으므로 한 집에서 받은 것이 거의 수십 석이나 되니, 이 때문에 시름하고 원망하여 고향을 떠나 흩어집니다. 환곡을 설치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이제는 백성을 괴롭혀 극심한 지경이니 대책이 있어야겠습니다.(『조선왕조실록』 영조 30년기사)

호남 이정사 이성중(李成中)이 영조에게 올린 환곡의 폐단을 지적한 내용중의 일부이다. 환곡은 관청이 흉년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이자 또한 곡식으로 받은 진휼제도이다. 그러나 임란·병자의 난 이후 국가재정이 크게 부족하자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필요여하를 막론하고 대부를 강제하고 이자곡식도 높아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전정(토지납부) 군정(군역) 환정(환곡)의 삼정중 가장 폐해가 컸다. 농민반란의 한 원인이 된다.

1862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

양반지배체제는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동요하기 시작한다. 농민들 중에서 부농으로 성장하여 양반신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세도가의 대토지사유제가 확대됨에 따라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수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농민들 중에 토지를 잃고 날썬팔이(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 양반관리들의 압박 속에 시달리던 농민들이 점차 사회적 지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한편 몰락한 농민들이 떠돌아다니기도 했다. 1860년 대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에 의한 민란이 거의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진주민란)은 전라, 충청도로 확산되었다. 몰락한 양반들에 의해 이끌려 지던 당시의 농민봉기는 들불처럼 퍼져나간다. 그중에서도 전라도 지방이 가장 많았다. 이는 전라도에서 가장 집중적인 수탈이 자행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섬진강유역에서는 순천 광양지역을 중심으로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운봉 구례 육과 곡성 남해 등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곡성에서도 동학의 물결

천주교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학은 농촌 속에서 자랐다. 농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동학이라는 종교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학이 커다란 사회적인 세력으로 확대되자,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동학교조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달라(교조신원, 敎祖伸冤)는 표면적인 운동으로 나타난 것은 1892년(고종 29년)이다. 교도 수천명이 전라도 삼례에 모여서 충청-전라도 감사에게 교조신원과 탄압금지를 촉구했다. '일본과 서양세력을 물리치자'는 척왜척양(斥倭斥洋),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자'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구호를 내세우며 농민들에 의해 더욱 조직화돼 대규모적인 군사행동을 일으킨 것은 1894년(고종 31년)이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물결도 곡성지역에 미쳤다. 곡성은 1890년을 앞뒤로 동학을 받아들였다. 곡성지역의 동학교도들은 구례로 동학을 전해주기도 했다. 곡성의 동학교인들은 1893년(고종 30년) 음력 정월에 괴서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전봉준(全琫準, 1855~1895,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창의문을 곡성현의 아문에 붙여놓았던 것이다. 괴서사건은 곡성의 김재홍 남원의 김영기, 운봉의 김성기, 구례의 유태흥 등과 연합하여 각 군현의 아문에 창의문을 붙인 것을 말한다. 창의문의 내용은 교조신원운동이나 탄압중지 포교자유 등이었을 것이다.

1894년 백산(白山)에 모인 전라도 33고을 중에 곡성에서는 김석하(金錫夏) 조재영(趙在英) 강일수(姜日洙) 김현기(金玄基) 기봉진(奇鳳鎭) 구정선(具正善) 등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했다. 곡성의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을 따라 황토현과 장성의 황룡의 승전을 거쳐 전주에 입성했고, 전주화약(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성립된 농민군과 정부간의 휴전)이후에는 집강소(執綱所, 일종의 민정기관으로 지역의 몰락한 양반이나 향리들이 요직에 참여해 폐정개혁을 실시)가 설치되었다. 곡성에서는 양력 5월 중순 농민군 수천명이 옥과현의 관아를 점령하여 현감을 묶고 관곡을 챙겨 정읍으로 물러가기도 했다. 전주화약이후 김개남(金開南, 1853~1895, 동학농민군의 지도자)은 태인과 순창을 거쳐 옥과 담양 창평 동북 보성 낙안 순천 곡성 등을 순방한 후 6월25일 남원에 입성했다. 이것은 김개남 자신이 관할구역인 전라좌도의 중요지역을 순찰한 후, 자신의 거점인 남원으로 들어가서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을 뜻한다. 1894년 9월 곡성에 들어온 김개남의 조카는 군수물자가 지시한 대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서 술자리를 벌이다 담뱃대를 화약가마니에 꽂아 그것이 폭발하여 김개남의 조카를 비롯 접주급 지도자 7~8명과 농민군 70~80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학농민군이 패퇴하자 곡성에서는 전직관리나 양반들이 수성군을 조직해 외부의 침략을 막거나 동학농민군을 소탕했다.

일제에 맞서 순절 잇따라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전국각지에서 역시 의병이 꺾기했다. 곡성에서도 역시 의분을 참지 못해 의병장으로 나서 싸우다 순사하는 등 애국행렬이 계속됐다.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에서 태어나 죽곡면 태평리에서 산 금천(錦川) 노임수(盧琳壽)는 1906년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선생의 통문을 호남지역에 유포하고 죽곡면 남양리 출신 남강(南崗) 신정백(申正栢)과 함께 의병에 가담했다. 그는 순천 곡성 보성 여수 등지에서 일본군과 수차례 교전을 했고, 석곡면 삼산전투에서는 일본군 7명을 사살했다. 충남 회덕 출신 정암(淸菴) 김동신(金東信)부대와 연합전선을 구축, 구례군 순사주재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1908년 11월 곡성 태안사지구에서 일본군 부대와 접전중 체포돼 교수형을 선고받아 1911년 순국했다. 신정우(申正雨)는 1907년 3월 의병을 일으켰다. 노인선(盧仁先)은 같은 해 11월 김동신의병에 참여했다가 신정우와 연합하여 곡성 구례 순천 보성 등지에서 활약했다. 둘다 일제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다.

석호(石湖) 김윤필(金潤弼), 석호의 동생 옥산(玉山) 김윤재(金潤在), 남거(南居) 진건수(陳健秀)는 1906년 곡성군 고달면 목동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최익현의병장과 합류하기 위해 진군하던중 순창에서 왜병과 싸우다 체포돼 옥중단식과 옥고를 치른 이후 돌아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병석에서 1914~5년 모두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중앙의 관직을 거쳐 향리인 목동리에서 후진을 양성하다 60~70대의 나이로 거병하는 우국충정을 실천했다. 목동리 뒷산 둔산(屯山)에서 후학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둔산 삼의사라 한다.

1906년 대마도 감옥에서 일제의 을사조약에 항거해 단식해 숨진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선생의 문인 곡성출신 성암(省庵) 조우식(趙愚植)은 스승 최익현과 함께 1906년 전북 정읍 순창 남원 전주 일원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이 때 역시 곡성출신인 배헌(拜軒) 조영선(趙詠善)도 함께 의병에 참가했다. 조영선은 일제에 붙잡혀 3년여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조우식은 스승 면암의 문집을 간행을 주도했다. 스승을 배향한 사우(梧岡祠)와 면암의 영정을 일제경찰이 철거, 훼손하자 1937년 사당앞 나무에 목을 매 자결했다.

곡성군 입면 약천리 출생인 소송(小松) 정재건(鄭在健)은 1910년 이른바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불리는 한일합방이 되던 해 자결했다.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된 지 2주만인 그해 9월4일 "망국의 신하로서 구태여 살 수 없다.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신하의 직분이다."며 자손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단도를 입에 물고 순절했다. 정재건은 1843년 출생, 성균관을 거쳐 문과 급제해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됐다. 1894년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간섭의 배경과 공직 문란 등을 통탄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수차례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고 학문에 전념했었다. 김기순(金奇順)도 경술국치를 맞아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통곡한 후 자결했다. 설초(雪樵) 김극명(金克明)도 설산에서 북쪽에 절을 두 번 올리고 목숨을 끊었다. 석전(石田) 유건영(柳健永)은 1940년 참치개명제도가 시행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총독에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고 음독자결했다.

일제하, 독립운동과 저항의 움직임

일제는 무단정치라는 무력에 의한 폭압적인 수단으로 민족을 탄압했다. 1919년 2월8일 동경유학생독립선언에 이어 3월1일 독립선언이후 만세운동은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 곡성에서는 곡성공립보통학교의 부훈도 신태윤(申泰允)이 청년,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3월29일 학생들 수십명을 중심으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신태윤 정래성 김중호 양성만 박수창 김기섭 김태수 등은 1~2년의 옥고를 치루었다. 또한 3월25일에는 옥과에서 만세시위가 있어 2명이 붙잡혔고, 산위에서 불을 피우면서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4월4일 남원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동지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으로 몰려가다 경찰의 저지로 진출하지 못하기도 했다.

일제농지수탈은 곡창지대인 전남지방에서 극에 달했다. 농민들은 토지를 빼앗기고 높은 소작료를 수탈당했다. 1920년대에 접어들어 각지의 농민들이 단체를 결성, 소작쟁의를 주도했다. 곡성지역도 농민단체를 조직했다. 옥과노동회가 그것이다. 전남지역은 농업중심지역이며 민족자본이나 일제의 자본이 공업에 치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다른 지방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래도 곡성지역에서도 노동단체가 결성돼 활동하기도 했다.

곡성과 옥과가 합쳐진 때는 1914년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곡성과 옥과가 모두 현으로 태종 13년(1413년) 감무 대신에 현감이 파견된다. 조선시대 대부분 두 지역은 상위 행정단위의 소속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모두 현감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행정조직의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돼왔다. 갑오경장 이듬해인 1895년 근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방관제를 개혁했다. 지방관리에게 그동안 부여됐던 사법권과 군사권이 박탈됐다. 곡성과 옥과는 모두 남원부 산하 군으로 편제됐다. 1896년 다시 13도제의 시행으로 전라도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도로 분리되어 두 곳 모두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다시 1908년에는 옥과군이 폐지돼 창평군에 병합되었다. 1914년 일제는 조선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방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창평군에 병합되었던 옥과지역의 면들, 玉山면(창평편입 직전의 명칭은 縣內면) 水면(水大谷면) 立면(立石면) 兼면(兼坊면) 火면(火石면) 只면(只佐谷면)들이 곡성군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구례군 고달면, 순천군 주암면 구촌, 전북 남원군 금암면 석전리 등도 곡성지역에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곡성의 도상면과 예산면을 합쳐 곡성면으로, 오지면과 우곡면(牛谷面)을 합쳐 오곡면으로, 옥산면과 수면을 합쳐 옥과면으로 각각 바꾸고, 지면은 겸면에 통합했다. 오늘날 행정체제와 구역의 뼈대가 1914년에 이뤄졌다.

사족과 이족, 일제를 거쳐 지역주도층 변화

조선시대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양반사족이 지배층을 형성했다.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관권을 정점으로 사족들이 지역을 주도했다. 대체적으로 18~19세기가 되면 관권의 정점인 수령과 군과 현의 아전(향리, 이속)과 결탁, 지역을 지배하는 수령-이서지배체제가 중심이 된다. 곡성의 경우도 이와 흐름을 같이했다고 보여진다. 곡성에서는 양반과 향리들이 읍외와 읍내에서 서로 떨어져 토착한 전형적인 모습이다.

곡성에서도 양반층이 집단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지역은 읍내와는 떨어진 오곡면이었다. 오

지리는 조선중기 이후 순흥 安씨·해주 뒗씨·옥천 趙씨·문화 柳씨가와 남양 洪씨·풍천 盧씨·제주 高씨 집안이 배타적인 혼인권을 유지하며 향권을 장악했다. 이런 양반촌과는 달리 읍내는 향리층이 대대로 살았다. 호장과 이방 등 주요 이직을 두루 배출했던 향리가는 금성 丁씨·평산 申씨·남원 梁씨·창녕 曹씨·안동 金씨·전주 李씨·파평 尹씨 등이었다.

특히 이족가문들은 19세기의 혼란기에 직위를 이용해 축재(중간수탈과 이식활동, 토지집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이것이 일제 강점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력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본배경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양반가는 몰락하고, 이족가는 지역사회주도층으로 확실하게 부상했다.

대체적으로 사족들은 전통적인 유학체계와 가치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세에 저항하며, 관권과는 멀어지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나 이족들은 유학적 소양과 실무적인 행정능력, 현실 추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 이 같은 성향들에 따라 결국 양반들은 반일의병운동쪽에, 이족들은 관권과 함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쪽에 그 무게중심을 가져갔다. 따라서 읍외의 양반들은 의병운동에 참여했으나, 읍내의 향리층은 참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의 지배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향리층들은 일제의 관리가 되거나 근대학교를 세우는 등 문명개화에 앞장서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지역사회의 주도권이 19세기 사족과 이족이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상태에서 20세기에는 이족가문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20세기 전반기에 이뤄졌던 이족가문중심의 지역주도층은 광복 이후에도 계속 연장되었다. 일반 지역민들과 향리출신 대지주들 사이에는 계급적 대립관계가 형성되었고, 그것은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노출되었다.

우익중심으로 건준 구성

광복되자마자 곧바로 구성된 건국준비위원회는 일부의 우익지주세력을 제외한 좌우세력이 비교적 고루 참여하였던 민족연합전선적인 성격을 가진 정치단체였다. 합법적인 정치체제가 없었던 공백기에 건준이 태동했다.

곡성의 경우 곡성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된 지 일주일 후인 8월 22일 사발통문을 보내 결성되었다. 모임장소는 곡성공회당이었다. 곡성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신태운, 정래성, 박수창을 중심으로 한 명망가들이 모였다. 위원장 신태운은 60세의 고령으로, 그의 제자 정래성이 부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건준을 운영하였다. 부위원장 김규택은 일제강점기 도평의원을 지낸 지주였다. 내정부장과 선전부장 재정부장 치안대장 등을 신씨와 김씨 양씨들이 맡았다. 건준은 인민위로 개편하지 않고 미군정이 진주할 때 까지 계속되어 1945년 10월말까진 해체했다. 그러나 옥과출신인 정동화 등 사회주의성향의 세력들은 9월말 별도로 인민위원회를 발족했다. 우파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활동은 펼치기가 어려웠다.

3. 곡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1)지리적 경계로 생활권이 구분된다

흔히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때 지리적 환경을 먼저 살펴보는 듯 하다. 곡성군의 경우도 그러한 방식을 통해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곡성군은 전남동북부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크게 보면 섬진강 중상류의 유역권이다. 산과 강으로 곡성지역도 생활권이 구분돼왔던 경향이다. 섬진강유역은 산악으로 둘러싸여 지류가 흐르는 곳곳에 분지를 이루고 있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팔공산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으로 이어진다. 순창을 지나는 섬진강은 도계를 넘어 옥과천을 합류하고 있다. 이 옥과천부근에 분지가 있다. 옥과천은 남원을 거치는 요천과 합류, 섬진강 본류를 형성한다. 곡성읍에 분지

를 또 이루고 있다. 남원부근에서 압록이전까지의 섬진강 본류를 순자강이라고도 불러왔다. 섬진강지류인 보성강은 전남 보성군 웅치면에서 발원해 순천시 주암면 주암호를 거쳐 곡성군 압록에서 본류와 만난 구례로 흐른다. 압록까지 흐르는 보성강은 일제시대 기록을 보면 대황강(大荒江)이라고 나온다. 정리하자면 곡성군지역의 경우 섬진강의 본류인 순자강 유역 분지(동쪽:곡성읍, 고달면, 오곡면)와 옥과천분지(서쪽:옥과면, 오산면, 곁면, 입면, 삼기면 일부), 보성강유역(남쪽:석곡면, 죽곡면, 목사동면, 삼기면 일부)으로 대체적인 지리적 범위가 나뉘고 있다. 이 범위를 구분짓는 것은 400~700m 높이의 구릉성산악들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생활권 역시 삼분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곡성군의 경우 1읍 10면 체제이다. 곡성군의 총면적은 547.01㎢으로 전남의 4.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임야는 398.05㎢으로 72.8%, 농경지는 99.33㎢로 18.1%로 임야비중이 전남 지역 다른 시·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곡성(谷城)이란 지명은 문자 그대로 골짜기가 많은 산간지역이란 의미이다.『삼국사기』에 보이는 백제시대의 지명인 '欲乃'를 당시 '골내(나)'와 비슷하게 읽었고, '골짜기가 많은 곳'이란 뜻으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이 지명은 통일신라시대때 谷城으로 개칭,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2)보성강유역에서 섬진강본류권으로 중심이동

위에서 살펴보았던 생활권의 삼분화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성강 유역권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곡성군역사의 중심지로 기능해왔고, 여말선초(고려말 조선초)를 분기점으로 섬진강 본류권으로 그 중심지가 이동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본류권인 곡성읍 일원과는 동악산(735m)과 형제봉(656m) 등 산악으로 경계가 나뉘었던 옥과면 일원이 독자적으로 기능해오다, 일제시대 행정상으로 곡성군에 편입되었다.

섬진강유역에서는 사람의 자취가 상당기간 거슬러 올라간다. 구석기인들의 경우 아직까지 현재의 우리들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후기구석기가 출토된 곳은 옥과면 주산리와 송전리, 입면 제월리이다. 시기적으론 1만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석기유물과 청동기시대유물·집터는 석곡면 유정리 유평마을에서 나왔다. 고인들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지역은 보성강유역권(목사동면, 석곡면, 삼기면 등)이다. 백제시대 옥내군은 지금의 목사동면과 석곡면 일대로, 과지현(菓支縣, 오늘날 玉果面일원)은 옥과면과 오산면 일대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과지현은 통일신라시대 현재의 玉果로 지명이 바뀌었다. 통일신라시대 곡성군은 순천 주암~쌍암 일대인 부유현과 구례지역인 구차례현, 화순 동북일대인 동북현을 아래고 두고 있었고, 옥과현은 백제시대 복흥군(오늘의 보성군)을 거쳐 추자해군(오늘의 담양군) 아래에 있었다. 고려시대 곡성군은 승평군의 속군에서 나무목의 속군으로, 옥과현은 보성군의 속현으로 있었다. 1172년(명종2년)에 관리(감무)가 파견되면서 독립적인 행정구역으로 자리잡았다.

고려말 왜구침입은 곡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온 왜구들에 의해 곡성군의 치소(관청소재지)가 참화를 입었다. 이로 인해 죽곡면 당동리에 있던 관청을 동악산 아래 지금의 곡성읍으로 옮기기에 이르렀다. 조선시대 곡성과 옥과는 모두 현이었다. 1895년 두 곳 모두 남원부 산하 군으로 편제됐다. 곡성군은 1914년 옥과지역의 면들과, 남원과 구례에 차례로 속해왔던, 곡성읍을 기준으로 섬진강 너머인 고달면을 합쳐 오늘날의 행정구역체제가 이때 대부분 완성됐다.

(3)전란과 국가의 위기에서 의기 드러내

흔히 우리는 지역을 논할 때, 특히 곡성의 경우 삼성삼평(三城三平, 곡성 보성 장성 합평 창평 남평)이란 용어를 먼저 떠올린다. 일제시대 식민지통치차원에서 규정한 일종의 지역특성이랄 수 있다. 그것은 뒤집어말한다면 일제의 식민통치에 거세게 반발하고 저항했던 지역

들을 가리킨 말이다. 지역성의 일단을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오늘날 지역마다, 또는 전라도 지역 전체로 의향(義鄕)을 논하고 있지만 곡성의 경우도 전란과 국가적,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러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더하여 일제시대뿐 아니라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서도 찾을 수 있다.

소송(小松) 정재건(鄭在健)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른 바 경술국치(庚戌國恥), 즉 합방 조약이 체결된 지 2주일만에 “망국의 신하로서 구태여 살 수 없다.”며 자결했다. 그 뿐 아니었다. 김기순(金奇順), 김극명(金克明)도 이 때 목숨을 스스로 끊어 의기를 보여주었다. 유건영(柳健永)은 1940년 창씨개명제도에 반대, 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총독에게 보내고 음독자결했다. 이에 앞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거병(擧兵)과 순사(殉死)가 이어졌었다. 노임수(盧琳壽), 노인선(盧仁先), 신정우(申正雨) 모두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 일제에 의해 교수형을 당했던 인물들이다. 김윤필(金潤弼) 김윤재(金潤在) 진건수(陳健秀)는 함께 거병한 뒤 옥고를 치루고 분사(憤死)했다. 조우식(趙愚植)은 최익현의 12제자중의 한 사람으로 역시 곡성출신 조영선(趙詠善)과 의병활동을 했다. 조우식은 1937년 스승 면암의 영정을 일제경찰이 철거, 훼손하자 사당앞 나무에 목을 매고 자결했다.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던 대종교가 활발하게 펼쳐진 곳도 이 지역이다. 담양출신 신태운(申泰允)에 주도된 1914년의 단군전건립은 그 예이다.

시기를 다시 올라가 보자. 임진왜란 당시 유팽로(柳彭老)는 호남지역에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고 고경명을 의병장으로 모시고, 격문을 만들어 참여를 호소했던 이다. 고경명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워 목숨을 바친 인물이다. 유팽로를 중심으로 한 의병은 남원지역 세력들과 연계해 활동했다. 학계에서 조명한 바 있다. 정묘호란 당시 박언배(朴堰培)는 청주, 안주에서 의병을 거느리고 싸우다 순사했다. 만약 신송겸(申崇謙)이 견훤과의 싸움에서 왕건을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이후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4) 곡성의 지역성은 무엇인가

곡성사람들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질(特質)은 무엇일까. 특질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것과는 다른 고유한 성질이나 기질이다. 지역성이란 역시 사전적으로 일정한 지역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이 지닌 공통적인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지역(민)의 특질들을 종합한 것을 지역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연구의 목표점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浴川續誌』등을 보면 ‘地狹人多 居無常產’ ‘土尙禮儀 民務稼穡’ 이란 글이 보인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 상산(常產)이 없다, 사류는 예의를 숭상하고, 백성들은 농사에 힘쓴다는 것. 浴川은 곡성의 별호이다. 위에서 언급한 삼성삼평이란 것도 지역성을 운위한다면 빠질 수 없는 시대적 산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곡성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곡성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 ‘의 절의 터, 곡성’이란 그런 연장선상에서 스스로 규정한 특질이라 할 수 있다. 곡성만의 것이라고는 힘들 것 같다. 물론 그런 특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곡성군은 ‘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심청전의 주인공인 심청이 곡성지역의 실존인물이었더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방자치시대에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특성화사업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충(忠)의 고장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곡성은 전통시대의 중심가치였던 의(義), 효(孝), 충(忠) 등 개념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섬진강과 지리산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미지도 고양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치와 새롭게 부상하는 가치들이 공존하는 양상이다. 새롭게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이 엮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남도소리와 곡성

황연수

(곡악인, 남도명창)

남도소리와 곡성

예로부터 남도는 예향이라 불리워져왔다.

그까닭은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속문화와 맛깔스럽고 후한인심의 음식문화가 어우러진 넉넉한 땅이었으며 특히 전남은 서남해와 인접된 수많은 섬들까지 옹기종기 어울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사는 소박하고 정이많은 기질만큼이나 의로운 기개까지 갖춘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끊임없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곳 남도는 역사의 소외지역 인 것 같으면서도 그 중심에 서서 벗어나지 않고 면면이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뿌리가 되어 밟아도 밟아도 부러지지 않는 잔디처럼 즐기고도 순하게 살아가는 저력의 밑바탕에 커다랗게 자리한 부분이 우리의 음악 즉 국악 인 것 이다 국악에 미친 이 지역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판소리나 민요가 거의 남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불리워 지고 전승발전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예도 판소리를 남도창 또는 남도소리라고 불린다.

이제 판소리는 우리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가 공유 하는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 유산 걸작”이 되었다. 예술의 가치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영광 된 결과가 있기까지에는 수많은 세월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승 시켜온 못명창님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피와 땀으로 얼룩진 노력의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든 예술이 다 어렵겠지만 특히 판소리는 오랜 각고의 시간을 통해서 피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한과 흥의 예술이다.

판소리는 한사람의 창자가 소리와 아니리, 발림(너름새)을 해가면서 긴 사설을 연창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고수 한사람이 북으로 장단을 치며 소리에 반주를 해주고 또 추임새를 해가며 창자와 청중의 흥을 돋군다.

판소리는 일정한 청중이 있고 일고수가 있고 일 창자가 있는 것이다.

서양음악의 오페라나, 일본의 가부키, 중국의 창희 같은 극 음악 의 경우 많은 가수가 여러 악사들의 반주에 맞춰가며 연창 한다. 그들의 경우 청중과 연주자 의 관계는 거의 일방적이라 할 수 있다. 무대에서는 열심히 연주하고 객석에서는 조용히 듣고 보는 관계인 것이다. 여기에는 잡음이나 잡담이 결코 끼어 들 틈이 없다. 그저 느끼고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 간간히 박수를 치는 것으로 청중의 의무는 다 해진다. 물론 감동의 정도에 따라 박수소리가 길고 우렁차게 나오는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의 판소리는 어떤가. 한사람의 고수와 한사람의 창자가 청중앞에 서거나 앉아서 소리하는 사설의 내용에 따라서 장단의변화 인물의변화 또 배경의 변화등의 극정상황을 한 사람이 모두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판소리를 감상하는데 있어서 청중의 역할은 서양이나 일본등지의 자세와는 전혀 다르다. 소리를 감상하다가 흥이 나면

“얼씨구~”, “좋다~” 등의 추임새를 한다. 고수의 추임새도 소리꾼에게 힘이 되고 기를 불어넣어주지만 길고 힘든 소리를 하는 데 있어서 관객들의 호응이 섞인 적당한 추임새는 창자에게 더욱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다. 이처럼 청중과 연주자가 함께 호흡하면서 더욱 멋진 예술의 판으로 이끌어 갈 수 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추임새 이외의 잡담이나 적절하지 못한 추임새는 오히려 소리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흐름에 방해가 되는 소리는 창자 호흡을 끊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설을 잊어버리게 하기도 한다. 추임새를 하다보면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일어나서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판소리 완창 무대나 공연장에서 항상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이런 몇몇 청중들의 자세들이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데려

와 공연시간 내내 울리기도 한다. 소란스러움을 유발시키는 추임새나 행동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냥 조용히 감상하는 편이 훨씬 좋을 것이다. 정말로 어렵고 긴고통의 시간을 지나 배우고 닦아온 기량을 선보이고 감상함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이해와 수준 있는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어떤면에서 지금껏 판소리가 갖고 있는 가치나 예술성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 계몽 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 하겠다.

남도의 소리로서 민요를 빼놓을 수 없는데 흔히 남도 민요 하면 충청도와 경상도 일부 그리고 전라도 민요를 말한다. “보림” 새타령, 육자배기, 화초사거리, 농부가, 흥타령, 감감술래 진도아리랑 등이 있는데 경기 민요나 서도 민요 동부 민요가 경쾌하고 가벼운 맛이 있는 반면 남도 민요는 매우 한스럽고 삶의 애환이나 실연의 아픔등을 담은 애절 한 가사들이 많다. 그 장단 또한 매우 느리고 길게 이어지며 빠른 장단으로 변화할 때는 리듬이나 노래가 아주 경쾌하게 바꾸어 지기도 한다.

판소리는 아니리, 발림, 소리, 그리고 추임새로 이루어진다. 판소리의 장단에는 7가지가 있는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엇모리, 엇중모리 가 있다.

성음에 따라 조가 있는데 우조, 계면조, 평조 등이 있다.

판소리의 유파로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등이 있다.

판소리와 관련된 곡성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고 일산 김명환(1913-1989) 선생을 들 수 있다. 선생은 곡성 옥과 출신의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일본으로 14세때 유학을 다녀온 이후 결혼을 위해서 귀국 했다가 결혼 첫날밤에 “북 한가락 못친다”는 하객들의 심한 놀림에 반 오기로 북을 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다 그에게 영향을 준 고수로는 박관석 신찬문 장관개 등이다. 1978년 판소리 고법 기능 보유자로서는 처음으로 중요 무형 문화재 기능 보유자로 지정 되었다. 신찬문도 곡성 출신의 명고로 알려진다. 또 고종때 곡성옥과 출신의 율객으로 “화초 사거리” 라는 수준 높은 민요를 만든 인물로 신방초가 있다. 이 민요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소리꾼들에 의해 불리워지고 그 가치는 높이 평가 되고 있다.

곡성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에는

곡성군 삼기면의 원등 들노래 가 있고 곡성 길삼 노래 가 있다.

곡성 상여 소리, 곡성 삼삼는 소리, 신세타령, 돌실나이 등이 있다.

- 배워보기 -

〈단가〉-중모리

사철가

이산저산 꽃이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허구나

내청춘도 날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갈줄 아는 봄을 반겨헌들 쓸데가 있나

사랑가-중중모리

아니리

“도련님은 어찌 불길하게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담도 허고 업고도 한 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업고 한 번 놀아 보는다

중중모리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지. 이 이이 내 사랑이로다.

아 매도 내 사랑아. 니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 둥글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능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씨는 발라버리고, 붉은점 움푹 떠 반간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라, 포도를 주라.

굴병, 사탕의 혜화당을 주라 아 매도 내 사랑아.”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루지 허니 외가지 단참외

먹으려 느냐? 시금털털 개살구 작은 이도령스ندی 먹으려 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소 ”

“저리 가거라. 뒷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 아장 걸어라, 짓는 태를 보자. 방긋 웃어라, 잇 속을 보자.

아 매도 내 사랑아.”

진도 아리랑 -세마치

후렴-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아 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 1.문경 새재는 왜고 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
- 2.만나니 반가우나 이별을 어이해 이별이 되라거든 왜 만났던고
- 3.노다 가세 노다나 가세 저 달이 떴다 지도록 노다나 가세
- 4.만경참과에 둥둥둥 뜬배 어기여차 어야디여라 노를 저어라

곡성의 문화재

손혜경

(전남과학대학 호텔카테일과 교수)

— 목 차 —

- I. 문화재의 구분
- II. 문화재의 정의
- III. 문화재의 종류와 정의

문화재의 구분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를 말한다.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고유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여 영구보전 하도록 보호한다.

(3) 기념물(記念物)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경승지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동물·식물·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4)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시대상과 국민생활의 변천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을 말한다.

〈표〉 문화재의 구분

문화재	유형문화재	건축물 - 건축, 교량, 석탑
		미술공예품 - 조각, 회화, 공예품, 서적, 고문서
		고고자료 - 출토품
	무형문화재	예능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 도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기
	무형문화재	유적- 패총, 주거지, 고분, 사지, 궁지, 성지
		경승지 - 정원, 교량, 협곡, 산악
		천연기념물 - 동물, 식물, 지질, 광물
	민속자료	유형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의 물건
		무형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의 관습

문화재의 종류와 정의

(1) 국보(國寶 national treasures)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등의 분야중 역사·학술·예술·기술적인 면에서 가치가 높고,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며, 유래가 드문 것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2) 보물(寶物 treasures)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무구 등 유형문화재 중 역사 학술 예술 기술적인 면에서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다.

(3) 사적(史籍 historic spot)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 ① 선사시대 유적 및 고분
- ② 제사와 신앙에 관한 유적
- ③ 정치 및 전쟁에 관한 유적
- ④ 산업교통토목관계 유적
- ⑤ 분묘
- ⑥ 비석

(4) 명승(名勝 scenic beauty)

풍경이 뛰어난 곳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승으로 지정하며, 특히 우수한 자원은 특별명승으로 지정한다.

(5) 사적 및 명승(historic spot & scenic beauty)

기념물 중 명승지에 사적이 겹쳐진 곳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곳으로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곳은 6곳이다.

- ① 경주 불국사 경내 (제1호)
- ② 내물왕릉 계림월성 지대 (제2호)
- ③ 내성 유곡 권중대 유적 (제3호)
- ④ 속리산 법주사 일원 (제4호)
- ⑤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제5호)
- ⑥ 부여 구두레 일원 (제6호)

(6)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natural monument)

천연기념물이란 어떤 지역의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고유한 동물·식물·광물과 천연보호구역을 말한다.

(7)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intangible cultural assets)

일정 지역의 주민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예능적 존재를 말한다.

(8) 중요 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folk materials)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것에 쓰이는 의복·기구·가옥 등의 물건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모습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자원을 민속자

료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자원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9) 보호물 및 보호구역(Protection & reservation)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문화재의 종류와 정의

국가지정 보물

도립사 괘불(보물 제1341호, 2002. 07. 02)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8

대부분 삼존도의 괘불은 입상인데 도립사 괘불은 좌상이며, 협시는 입상인 특이한 예로 후불벽화(탱화)의 한 잔영으로 보인다. 주존은 석가모니불로, 협시는 문수 보현보살을 그렸다. 향마촉지인을 취한 석가모니불은 길상좌 형태의 결가부좌이다. 이 괘불은 비록 삼존도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영산회상을 그린 것이다. 두광 위쪽의 넓어지는 기형 광배를 배경으로 삼배바탕으로 가사는 붉은 색이며 그 외에는 녹색을 잘 조화한 전남지역의 괘불 가운데 채색상태가 매우 뛰어나다.

이 괘불은 지방유형문화재 제119호로 지정되었다.(크기 : 가로 708cm, 세로 775cm). 괘불 지주는 법당 좌우에 12미터가 넘게 넓은 간격으로 자리한다. 괘불 자체의 너비와 많은 차이가 의아스럽다.(높이 150cm, 너비43cm, 두께 25cm, 지주 간격 1,230cm) 괘불함은 법당 후불벽 뒷편에 놓여있고 괘불의 출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법당의 왼쪽 뒷부분에 문을 내었다.(너비 30cm, 높이 26cm, 길이 730cm)

태안사 동종(보물 제1349호, 2002. 10. 15) 시도유형문화재 제24호, 1972. 01. 29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에는 동종 2구가 전해진다. 대웅전 안에 놓인 이 동종은 조선시대 동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조각이 아름답고 부드럽다. 정상에는 용통과 용뉴가 있으며, 종신에는 상대와 하대가 있고, 중앙상부 4면에 유곽과 전후좌우로는 화문장식을 한 원형의 당좌를 두었다. 종신 중앙에 이종에 대한 내력을 밝혀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천순원년육월일대종주위과 우만력구년사월일대종개주차금사백여근입주'(天順元年六月日大鐘鑄爲破 又萬曆九年四月日大鐘改鑄次金四百餘斤入鑄)라 기록되어 있다. 이 명문은 해서체로 썼는데, 1457년(세조 3)에 주조한 것을 종이 깨져 금 400근을 넣어 1581년(선조 14)에 다시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 사찰에 있는 대다수의 종이 임진왜란 이후, 즉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이 많은데 비해서 이 종은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초기의 동종양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종 크기:높이 96.5cm, 입지름 66cm)

또 하나의 동종은 크기가 높이 55cm, 입지름 41cm이다. 건륭 17년(1752년)에 만든 중량 60근짜리의 작은 종이다. 형태만 갖춘 단두용과 음통이 종정에 있고 종신을 3조선으로 세 부분을 구획하였다. 범자문의 상대, 4좌의 유곽, 4분의 보살상을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가곡리 5층석탑(보물 제1322호, 2001. 10. 30)

- 전남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산2

가곡리 오층석탑의 맨 아래 바닥들은 시멘트로 만든 기단에 묻혀 있어 원래 모습을 알 수 없다. 탑의 아래기단에는 기둥 모양이 없으나 윗기단에는 모서리기둥이 새겨져 있다. 5층의 지붕돌은 알맞은 비례로 줄어들었는데, 1층 몸돌은 4매의 돌, 2층 이상의 몸돌은 1매의 돌로 이루어져 있고, 각 몸돌에는 모서리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2층부터 5층까지의 몸돌 남쪽면에는 네모난 홈을 파서 감실의 효과를 내었다.

1층부터 4층까지의 지붕돌 받침은 3단이고, 5층 지붕돌 받침은 2단으로 되어 있다. 지붕돌 윗면의 경사는 완만하나 양끝의 귀마루가 매우 두텁게 표현되어 백제계 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지붕돌의 처마선은 수평을 이루다가 끝에 이르러 위로 살짝 들어 올려졌고, 지붕돌 모서리에는 풍경을 달았음직한 구멍이 있다. 특히, 매층 지붕돌 위에 또 다른 돌로 몸돌받침을 만들어 몸돌을 괴고 있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이 석탑은 맨 위부분인 상륜부를 제외한 각부의 부재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고려시대에 건립된 일반형 석탑의 양식은 물론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건립되던 백제계 석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석탑은 담양읍 5층석탑(보물 제 506호)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탑신과 지붕돌에 나타난 표현양식과 더불어 몸돌받침이 있는 점은 고려시대 석탑의 대표적인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태안사 바라(보물 제956호, 1988. 06. 16)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바라는 승가에서 범패같은 행사에서 사용되어 무구로서 악사가 무자 집박악사 등을 인도할 때나 그밖에 취타와 무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바라 가운데 절에서 쓰는 것을 동발이라고 하는데, 이 바라는 효령대군이 세종과 왕비등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발원하여 제작한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큰 이 바라는 한사람이 양손으로 들고치기는 어렵다.

제작방법이 우수하며 손상이 거의 없다. 그러나 바라에 두 가지 명문이 조각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그 하나는 정통 12년(세종29, 1447)이고, 다른 하나는 경태 5년(단종 2, 1454)인데 뒤에서 볼 동종에서도 15세기 중엽에 만든 것이 파손되어서 16세기에 다시 만들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 바라도 그러한 정황으로 추측할 수 있겠으나 워낙 큰 바라여서 사용하다가 파손된 것을 다시 보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지름이 92cm인 이 바라는 2매가 1쌍이다.

이 바라에는 앞 뒷면에 1백자의 침점으로 새긴 명문이 있다. 원형의 중심부에 조금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고 그 가운데에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다. 또 대형인 중량 때문에 필요할 때 들어서 옮기는데 불편을 고려하였는지 기둥에 고정시켜 놓은 흔적이 있다.

명문은 표면의 원형을 따라서 접자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슷하나 자수와 문구가 다소 상이하다. 명문에 의하면 이 대발은 효령대군의 공덕으로 1447년(세종 29)에 조성되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로부터 7년 후인 1454년(단종2)에 다시 개조한 것이다.

효령대군은 태종의 둘째 아들이며, 세종의 형으로 원각사의 창건을 감독하였으며 평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바라는 주로 불가에서 큰 집회와 장례식, 새로운 주지를 맞이하는 의식을 올릴 때 사용하지만 속세의 무악에서도 중요한 악기이다. 서양 악기의 심벌즈와 비슷한 타악기. 낫쇠판을 솔뚜껑 모양으로 만들어, 낫쇠판 중앙의 볼록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그것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낸다.

광자대사비(보물 제275호, 1963. 01. 21)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에 있는 탑비로, 고려시대 승려 광자대사 윤다(允多)의 탑비이다.

광자대사는 태안사를 두 번째로 크게 번성케 한 스님으로, 경문왕 4년(864)에 태어나, 8세에 출가하였다. 사방을 다니다가 동리산에서 수도하였고, 가야갑사에서 계를 받은 뒤 다시 동리산으로 돌아와 승려가 되었다. 혜종 2년(945)에 82세로 입적하니, 왕이 광자라는 시호를 내렸다.

비는 비문이 새겨진 몸돌이 파괴되어 일부 조각만이 남아 있으며, 거북받침 위에 머릿돌만 얹혀져 있는 상태이다. 거북은 목이 짧아보이는 하지만, 머리의 표현이나 몸 앞쪽의 조각이 사실적이고 화려하게 표현되어 있다. 등 위로는 비를 얹기 위한 받침대가 새겨져 있는데, 옆면에 보이는 무늬가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머릿돌에는 네 귀퉁이마다 이무기의 머리조각이 돌출되어 있고, 앞면에는 극락조로 보이는 새가 돌을새김되어 있다. 이러한 새 종류의 조각은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나, 북부도(국보 제54호)에서 잘 나타나 있다.

비문은 거의 판독하기가 힘든 상태이지만 다행히 『조선금석총람』에 일부 글자가 빠진 채로 그 전문이 실려있어, 광자대사가 출가하여 법을 받고 전하는 과정, 공양왕의 옆에서 불심에 대한 문답을 한 일, 고려 태조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일 등을 기록하고 있다.

광자대사탑(廣慈大師塔, 보물 제274호, 1963. 01. 21)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입구에 있는 고려시대의 부도로 광자대사의 사리를 모시고 있다. 부도의 형태는 바닥돌부터 꼭대기까지 8각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기단부 위에 탑신을 차례로 놓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덩굴무늬와 연꽃무늬가 새겨진 아래받침돌 위에 유난히 낮은 가운데받침이 올려져 있다. 윗받침에는 16잎씩의 연꽃을 두 줄로 조각하여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탑 몸돌은 앞뒷면 모두 탁자에 놓여 있는 향로모양을 새겨두었고, 그 옆으로 사천왕상을 도드라지게 조각하였다. 지붕돌은 높은 편이나 추녀에 이르러 얇아지고 있어 중후한 감을 덜어주고 있다. 꼭대기에는 흔하지 않게 머리장식부분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이 부도는 전체적인 모습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있고, 각 부의 구성과 조각수법이 정교하고 조화롭다.

적인선사 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 1963. 01. 21)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적인선사 혜철(惠哲)의 부도탑으로 사리를 모시고 있다. 태안사는 신라시대 선을 가르치는 유명한 종파인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로 이름이 높으며, 혜철은 대안사가 속한 동리산파를 연 스님이다.

이 탑은 전체적인 형태가 모두 8각형으로 이루어져 통일신라시대 부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으며, 3단의 기단 위로 탑신과 머리장식을 올리고 있다. 기단은 아래·가운데·윗받침돌로 나뉘어지는데, 아래 받침돌은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으며 면마다 사자상을 조각해 놓았다. 가운데 받침돌은 그 높이가 매우 낮고, 면마다 가늘고 길게 안상을 조각하였다. 윗 받침돌은 옆면에 솟은 연꽃무늬를 새겼다. 탑몸돌은 낮은 편이지만 온화한 기품을 지니고 있으며, 앞·뒷면 문짝 모양을 새겼다. 그 옆면에 다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인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지붕돌은 넓은 편으로 밑면에는 서까래를, 윗면에는 기왓골과 막새기와까지 표현하여 목조건축의 지붕양식을 사실적으로 나타냈다. 추녀의 곡선은 완만하며, 각 귀퉁이는 급하게 치

켜올려진 상태이다. 꼭대기에는 머리장식으로 양화(솜은 연꽃 모양의 장식), 복발(엮어놓은 그릇 모양의 장식), 보륜(바퀴모양의 장식), 보주(연꽃봉오리 모양의 장식) 등이 잘 남아있다. 이러한 머리장식들은 기단과 탑신의 화려한 조각들과 어울려 탑을 전체적으로 장엄하게 보이도록 한다.

혜철

15세에 출가하여 영주 부석사에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30세 때 당나라에 건너가 지장선사 문하에서 공부했다. 지장선사에게 법통을 전수받은 네 제자 중 세명은 혜철을 비롯해 신라인이었다고 한다.

혜철은 55세 때 귀국하여 화순 쌍봉사에서 9년간 머물다 63세 때 태안사에서 동리산과를 열었고(개산조사), 77세 때 입적하자 경문왕이 적인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적인선사 조륜청정탑은 대웅전과 천불보전 사이로 올라가 가파른 계단 위의 배알문을 지나야 한다. 배알문은 통나무로 짜맞춘 문으로 너무 낮아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된다.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군지촌정사(중요문화재 제155호, 1984. 01. 10)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28

섬진강이 반달꼴로 끼고 돌며 멀리 광주 무등산까지 거침없이 바라보이는, 풍수지리상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자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조선 후기의 건물로 군지촌정사는 사랑채와 안채, 대문간채로 이루어져 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18세기 중엽에 건축되었다고 하나 안채는 19세기 초 정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채는 “—”자형으로 서쪽부터 2칸의 부엌이 위, 아래에 있으며, 그 옆에 큰방이 있는데 앞, 뒤에 툇마루를 깔았다. 전면에 2칸의 대청이 있고, 뒷쪽에는 도장과 작은방이 있다. 큰방과 도장 앞은 문시설 없이 개방되었고, 작은방 앞은 문을 달아 가로막았다. 건물은 높이 쌓은 대 위에 있고, 방 앞쪽에는 큰방의 굴뚝시설로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다.

안채의 마당 앞에 있는 행랑채의 동쪽에 사랑채이면서, 동네사람인 군지정사가 있다. 예전에는 이곳이 동네서당으로 쓰였다고 하며, 앞뒤로 담장이 없어서 접근하기 쉽게 하였다. 서쪽부터 사랑방이 위, 아래로 있으며, 그 옆에 대청이 놓여 있는데 개방되었다. 방, 앞, 뒤로는 모두 마루가 깔려있다. 대문간채는 “—”자형으로 안채보다 훨씬 늦게 지었으며, 대문간을 중심으로 동쪽에 2칸 방이 있고 서쪽에는 외양간과 헛간이 있다. 집 앞 언덕 위에는 같은 시기에 지은 “함허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낙죽장도(한병문, 무형문화재 제60호, 1993.07.05)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581

낙죽장도는 삼국시대 백제에서 궁중에 진상품으로 올려져 옛 선조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호신이나 충절도로 허리춤과 주머니, 지갑속에 비장의 무기로 지니고 다녔던 칼이다.

외래문화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현실속에 낙죽장도의 대가인 한병문씨는 13살 무렵에 재종 조할아버지(할아버지의 사촌 동생)로부터 한문공부를 배우다 어깨 너머로 눈여겨보면서 배워 21살까지 기술 전수를 받다가 할아버지의 작고로 “홀로서기”로 자리매김해 나갔다.

칼 제작에 드는 시간은 보통 10여일이며, 10가지에 달하는 재료를 구하는 시간은 1년은 족히 걸린다고 한다. 제작 3일전 목욕재개하고 혼자서 작업과정에 들어가는데, 그 작업 때에

는 정신을 집중하고 온 몸의 기를 한데 모아 제작하기 때문에 칼이 완성되기까지는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낙죽장도는 15cm내외의 길이에 7마디 이상의 대나무에 인두로 지져서 깨알같은 글을 옮겨 새겨 넣는데 낙죽장도의 무늬는 구름, 산수, 매화, 다람쥐, 왕새우, 포도넝쿨 등이며 글씨는 주로 한시를 넣는다고 한다.

곡성 돌실나이(김점순, 무형문화재 제32호, 1970. 07. 22)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229

돌실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길쌈)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곡성의 돌실나이는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섬세하여 삼베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삼베는 전기 신석기시대의 유적인 공산조개더미에서 뼈로 만든 바늘에 실이 감겨 있는 것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중국으로 수출하였고,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모시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면의 재배로 삼베의 생산이 약간 줄어들었다.

삼베의 제작과정을 보면 우선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 후, 잎을 훑은 삼단을 삼곳에 넣고 짜서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다. 삼을 쪼개는 과정을 거친 후, 실을 한올 한올 길게 잇는다. 그후 베 한 필의 길이와 삼베에 따라 몇 올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풀 먹이는 과정을 거친 다음 베틀을 이용해 베를 짠다.

오늘날 삼베의 폭은 30~35cm 정도로 돌실나이가 9승, 안동포가 12승이 짜지고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섬세한 포가 된다. 예전에는 북포(함경도 육진), 강포(강원도), 영포(경상도), 안동포(경북 안동)가 유명하였으나 서양문물의 유입에 따라 가내수공업으로 전락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지정 유형문화재

곡성 당동리 석조여래좌상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72호, 2005. 07. 13)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460

고려시대 조성한 석불로 얼굴 등 일부 훼손이 되었으나 좌우 어깨와 뒷면에 불상이 새겨진 사면석불로서 국내에서는 희귀한 사례로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다. 인근의 원래 소재지였던 폐사지를 발굴조사하여 건물지 등 확인한 바 있어 학술가치도 있다.(전체 높이 200cm)

문화재 자료

곡성 전(傳) 화장사지 석불좌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5호, 2004. 07. 13)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460

대좌의 연화문, 법의자락과 넓고 높은 무릎 등의 전체적인 형식으로 보아 고려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 당동리 소재이지만 한적골의 화장사지로 전하는 곳에서 옮겨와 위치를 포함하여 <곡성 전 화장사지 석불좌상>으로 명명하였다.(전체 높이 200cm)

곡성 도립사 보광전 목조아미타삼존불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1호, 2005. 07. 13)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

조선시대 17세기에 조성한 목조불로 본존불은 1665년, 좌우 보살상은 1680년에 조성하여

절대연대와 작자를 알 수 있어 가치가 있다. (본존상 전체높이 122cm, 관음보살좌상 전체높이 119.0cm, 대세지보살좌상 전체높이 117.0cm)

옥과향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09호, 1981. 10. 20)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

옥과향교가 처음 지어진 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원래의 자리가 황산이었는데 울정으로 옮겼고, 조선 영조 31년(1755)에 현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정조 20년(1796)에 수리하였으며, 고종 광무 2년(1898)에 다시 고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사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쪽 낮은 곳에는 배움의 공간으로 명륜당을 두고, 뒤쪽 높은 곳에는 제사공간으로 대성전을 두고 있다. 즉, 향교의 일반적 배치형태인 전학후묘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 노비, 책 등을 지급받아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1894) 이후에는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과 가을에 제사만 지낸다.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책 가운데 『양목재절목』, 『향교전곡출입절목』 등은 옥과향교만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료로 간주된다.

도동묘 회헌실기목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10호, 1999. 07. 05)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571

고려시대 문인이자 유학자인 안향(1243~1306)의 시문집『회헌실기』를 간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목판으로, 영조 42년(1766) 죽계서원에서 간행한 초간본 목판 55매와 고종 22년(1845)에 간행한 중간본 목판 32매 등 총 87매이다. 안향은 원종 1년(1260)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랑, 감찰어사, 좌승지 등의 벼슬을 지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원나라를 다녀오면서 주자학의 학풍을 보고, 주자 관련 서적을 베껴오고, 주자학을 우리나라에 보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안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그를 동방의 주자라고 칭하였다. 시호는 문성이며, 여러 서원에서 그를 모시고 제사지내고 있다. 그의 영정이 국보 제111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목판은 판각과정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 인쇄사 측면에 그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합허정(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1988.03.16)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4

조선 중종 38년(1543) 심광형이 이 지역 유림들과 풍류를 즐기기 위해 지은 정자로 호연정이라고도 한다. 증손자 심민각이 오래된 정자를 옛터 아래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으며 5대손 심세익이 고쳤다. 지금 있는 건물은 1980년에 수리를 한 것이다. 앞면 4칸, 옆면 2칸 규모로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구성은 마루 1칸을 3면을 터 만들었고 2칸 반은 방으로 꾸몄다. 나머지 오른쪽 반 칸은 바닥을 한 단 높여 쪽마루를 두었다. 정자 아래로 흐르는 섬진강, 울창한 숲, 멀리 무등산이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심광형이 세운 군지촌정사(중요민속자료 제155호)가 있다. 당대 학문을 익히던 선비들의 휴식공간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다.

태안사 능파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2호, 1981. 10. 20)..시도유형문화재 제82호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의 금강문으로 누각을 겸한 일종의 다리건물이다. 계곡의 물과 주위 경관이 아름다워,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능파(凌波)라 이름하였다. 이 다리를 건너면 세속의 번뇌를 던져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진입함을 상징한다.

통일신라 문성왕 12년(850)에 해철선사가 처음 지었고, 고려 태조 24년(941) 광자대사가 수리하였다고 한다. 그 뒤 파손되었던 것을 조선 영조 43년(1767)에 다시 지었다.

앞면 1칸, 옆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이 사람 인(人)자 모양인 간결한 맞배지붕이다. 계곡의 양쪽에 바위를 이용하여 돌축대를 쌓고 그 위에 두 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세웠다. 지붕을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치하는 주심포 양식이며,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민흘림기둥을 사용하였다. 여러가지 동물상을 조각한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다리와 문, 누각의 역할을 함께 하도록 지은 특이한 건물이다.

태안사 일주문(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83호, 1981. 10. 20).. 시도유형문화재 제83호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태안사 입구에 있는 일주문(숙세와 불계의 경계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상징물)으로, 능과 각에서 약 200m쯤 지나 높직한 돌계단에 올라서 있다. 조선 숙종 9년(1683) 각현선사가 다시 지은 후, 1917년과 1980년에 보수하였다.

태안사 일주문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두 개의 굽은 기둥 위에 앞면 1칸의 규모로 세웠으며, 지붕은 단순한 맞배지붕이다. 기둥에는 양쪽 모두 앞뒤로 보조기둥을 세웠다.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 있는 다포식이다. 앞, 뒷기둥 사이에는 3구씩, 옆면에는 1구씩 공포를 배치하여 전후좌우가 포로 꽂찬 느낌이 들며, 매우 화려하다.

일주문 내부의 천장 아래에는 용의 머리를 조각하여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앞면에는 동리산태안사(桐裏山泰安寺)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충열문(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59호, 1974. 09. 24)

- 전남 곡성군 입면 삼오리 50

입면 삼오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열사는 박연의 5대손인 박언배가 조선 인조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난 후 의병장으로 안주싸움에 참가하여 전사하자 이 소식을 들은 부인 완주 이씨도 뒤따라 목숨을 끊었고, 이들의 충과 열을 기리기 위해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순조5년(1805)에 나라에서 동몽교관 겸 선무원종삼 등을 증하고 정려를 명하여 사액하였다.

태안사 3층석탑(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70호, 1988. 12. 21)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석탑은 몇 년 전만해도 지금의 부도밭인 광자대사 부도 앞에 있었으며, 당시에 기단부면석 1매와 1층 옥개석, 2~3층의 탑신이 유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연못을 만들면서 연못 중앙의 섬으로 옮겨 유실된 탑재들을 새로 만들어서 완전한 모양으로 복원하였다.

탑의 구조를 보면 기단은 이중이고 석탑은 3층으로서 상륜을 갖추었다. 그러나 원래는 2중기단을 연못으로 옮기면서 3단의 하대석을 깔고 기단부로 삼았기 때문에 탑이 전체적으로 길어 보인다. 탑신부는 옛 탑부재와 새로운 탑재가 한데 섞여 있으며, 옥개석 층급받침은 4단이고 옥개석 윗면에는 2단의 괴임을 각지게 두었다. 상륜부는 역시 노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재는 새로 만들었다. 비록 옛 부재에다 일부 탑재를 새로 만들어 복원한 것이기는 하나 탑의 조형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통일신라시대의 균형감을 그대로 갖춘 고려 초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부도밭에 상대갑 석재가 한 벌 더 있어 쌍탑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삼층석탑이 자리한 원래의 위치도 알 수 없다. 다만 금강선원 앞의 축대 위에 놓인 옥개석재로 미루어 그 부근일 가능성만 추측할 따름이다. (삼층석탑 크기 : 높이 4.17m)

* 연못 안에 섬을 둔 것은 물길이 생겨 물이 흘러감으로써 썩지 않게 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

영류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7호, 1988. 12. 21) - 함안조씨 종중(사유)

-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522

함안조씨 문중에서 1917년 세운 화숙으로 지방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였고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거나 마을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앞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로 2층 기단 위에 세워 마당보다 높다. 건물 중앙에 있는 대청마루는 사람이 모일 때 문을 위로 들어 올려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꾸몄다.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건물 주위에는 각종 나무와 정원석, 연못이 있다.

나무를 다듬은 수법과 서로 짜맞춘 기법이 매우 우수하며, 전형적인 우리나라 건축 양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물로 관리와 보존이 양호하여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수도암 잣나무(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1987. 06. 01)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613

잣나무는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한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라고 있으며 흔히 공원이나 정원에 심는다. 중국에서는 바다를 건너온 소나무라는 뜻으로 해송(海松), 신라가 중국으로 잣을 수출했기 때문에 신라송(新羅松)이라고도 한다.

매화나무는 가지가 초록색이며 잎은 어긋나고 계란형으로 끝이 뾰족하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며 연한 홍색이 도는 흰빛으로 향기가 강하다. 추위가 덜 가신 초봄에 꽃이 피기 시작하므로 봄소식을 알려주는 나무로 아낌을 받아왔다. 특히 눈 속에 피어나는 매화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으며, 시나 그림의 소재로도 등장하였다.

수도암은 곡성군 옥과면의 설산(522m) 남쪽 허리에 있는 작은 암자이다. 신라시대 설두화상이 도를 닦던 곳으로 전해지나 그 당시 건물은 없고, 1928년 임공덕 보살이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수성당(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9호, 1986. 09. 29)

- 전남 곡성군 옥곡면 오지리 1000

건축연대는 미정이나 처음으로 봉루제, 홍학제로 불려졌으며 처음에는 서당으로 사용하였으나 지금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앞면 5칸, 옆면 1칸이며, 지붕은 팔작지붕이다. 바닥은 온돌과 우물마루를 방과 대청에 각각 시설하였다.

건물 앞 정원에는 연못과 소나무 은행나무 따위의 나무들이 많이 있다. 2단의 낮은 기단 위에 덩방 주춧돌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는 주두(柱頭)가 놓여 있다. 창방과 장혀는 굴도리로 된 외목도리와 결구되어 있고, 또한 창방과 장혀의 사이를 조그마한 소로로 짜맞추었다. 맨앞의 뒷간에 있는 기둥만 원형이고 나머지는 사각형이다. 바닥은 온돌과 우물마루를 방과 대청에 각각 사용하였으며, 방에는 반자가 있고 대청에는 연등천정으로 노출되어 있다. 문과 방은 2분합 띠살문이며 대청은 4분합 들어열개로 되어 있다. 대청에 있는 대들보는 굴곡이 심한 커다란 원목을 2겹으로 결구한 점이 특이하며 전퇴의 우미량은 그 모습이 뚜렷하다. 건물 앞에는 연못과 소나무, 은행나무, 복숭아, 대나무, 뱃나무 등 정원의 나무들이 많이 있다.

덕산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20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옥곡면 덕산리 173

고려 예종(1105~1122)때 여진족을 물리치고 9성을 쌓은 고려진국공신은 문양공 오연총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장군은 원래 고려문신으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전주목사 동북면병마사 등 요직을 거쳤다. 예종2년 여진이 침입했을 때 윤관장군과 함께 출정하여 이를 물리치고 9성을 축조하였으며, 이후 판이부사 등 요직을 거치면서 내치 외치에 위훈을 남겼다.

고려 인종, 조선 세종 및 세조 16년에 사우를 하사. 함북·경성·북청 등지에 정북사·안북사·지덕사를 창건하였다. 1902년 함북 북청 안북사에서 영정을 모셔와 이 자리에 덕산사를 이건하여 배향하게 되었다.

규모는 앞면 3칸 옆면 2칸이며, 지붕은 맞배지붕이다.

도동묘 안향영정(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9호, 2004. 02. 13)

- 전남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5

성리학의 창시자인 주자와 고려 명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 회헌 안향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이다. 매년 춘추로 두 차례 제사를 지내며 회헌실기목판(회헌 안향의 유작들을 모아 편찬한 목판)이 유형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안향의 영정은 고려 충숙왕 5년(1318년)에 그려져 문묘에 봉안되었고, 이의 모사본 1본이 순흥향교에 봉안되었다. 후일 조선 세조 때 순흥부가 폐부되면서 향교도 폐지되자 서울의 종가로 영정이 옮겨지는 일도 있었다. 이 후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으나 처음 창건지이던 오곡면 승법리에서 오지리로 이안하였으며, 1868년(고종 5년)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인해 묘각이 훼철되기도 하였다.

1902년 기우만이 도내의 유림들과 협의하여 주자를 주벽으로 하고 안향을 동벽으로 모시도록 하여 복설하였다. 현재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강당인 소술제가 있다. 도동묘는 1984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석조여래입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8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2822

석조여래입상은 철분이 많은 화강암으로 마멸이 심하여 각 부의 조각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 얽힌 전설은 어느 부유한 가정에 도승이 구걸을 왔는데 그 집 며느리가 집안 식구 몰래 곡식을 주자 도승이 말하기를 이 집에 곧 재앙이 있을 것이니 급히 북쪽으로 피난을 가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천둥, 뇌성과 함께 부부는 헤어져 서로 찾으러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편은 죽산리 석조미륵으로 변하고 부인은 아이를 업은 채 석곡리 석조미륵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 미륵은 석곡리 석곡중학교와 호남고속도로 사이의 중간 논가에 홀로 서 있는데 주변 논보다 높은 단을 만들었고 주변에 와편들이 흩어져 있다.

현재 발목부위 아래로는 매몰되어 있으며 남향으로 서있다. 입상인 이 여래상은 화강암으로 마멸이 심하여 각부의 조각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이고, 차원형으로 두광까지 모두 1석으로 앞에는 장방형의 배례석이 놓여있다. 머리는 소발이며 육계는 반구형으로 뚜렷하고 백호는 이마의 중앙에 아주 조그맣게 뿔러 있으며 귀는 떨어져 나갔는지 없으며 목은 긴 편이고 삼도의 흔적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양어깨에서 내려간 의문의 U자형이 복부까지 양각되어 있고 양손은 별조하여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팔목에 구멍이 나 있다. 조각 기법으로 보아 고려 중엽의 거대한 지방석불의 한 예로 생각되며 지방 석불 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곡성 향교(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7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27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시대에 계승된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나라에서 세운 지방교육기관이다.

곡성향교는 조선 선조 3년(1570)에 지었다고 전하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중종(재위1506~1544) 이전에 세운 것으로도 보인다. 건물 배치는 앞쪽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고, 뒤쪽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이 있어 전학후묘의 형태로 되어 있다. 대성전은 앞면 5칸, 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단순한 맞배지붕이다.

안쪽에는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우리나라 유학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명륜당은 앞면 3칸, 옆면 3칸 규모에 지붕은 맞배지붕이고, 동재와 서재는 각각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를 갖추고 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강당이고, 동재, 서재는 기숙사이다. 이외의 건물로는 내삼문, 전사청, 교직사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유월과장군 정열각(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5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48

유월과 정열각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왜적과 싸우다 죽은 유팽로장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1625)에 세운 건물이다. 유월과라는 이름은 유팽로장군의 호인 월과에서 비롯되었다.

유팽로장군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과거에 급제하고도 부모 봉양을 위해 벼슬을 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으며, 호남지역으로 침입하고자 금산에 집결한 왜적을 공격하다가 고경명, 안영장군 등과 함께 전사하였다.

유월과 정열각이 있는 옥과면 북쪽 끝에는 장군의 말 무덤이 있다. 유팽로장군이 금산 싸움에서 전사했을 때 그의 말이 장군의 머리를 물고 먼 길을 달려 그의 생가까지 갔고, 부인이 장군의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말은 마굿간에 들어가 9일이나 여물을 먹지 않은 채 울다 죽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이들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인조 3년에 유팽로장군 정열각을 건립하였다.

관음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27

관음사는 곡성군 오산면 선세마을에서 계곡을 타고 5km쯤 더 올라간다. 이 관음사 뒤에 검장산이 있고 동남쪽에 성덕산이 있는데, 이 두 산맥이 선세리 부락까지 나란히 뻗어 5km 가량 좁은 계곡을 이루어 놓고 있다.

관음사는 백제 분서왕 3년(300년)성덕보살이 전남 벌교에서 금동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와 봉안하여 창건한 남한 제일의 백제 고찰이며, 내륙 유일의 관음성지로서 그 가치가 크다. 6·25당시 공비들이 오래도록 이곳에 남아 관음사를 기지로 삼자 이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사찰에 불을 질렀다. 그로 인하여 국보 제273호 고려조 건물인 원통전이 불타고, 그 안에 보존된 국보 제214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불에 타 머리부분만 남아 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현존 건물 8채 중 3채는 타지 않고 남은 건물이고, 4채는 1954년 박창운스님이 이 절 1km쯤 위에 있던 대은암(大隱庵)을 이축한 것이다. 관음사는 고대 소설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원흥장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원흥장설화의 줄거리

충청도 대흥 땅에 원량이라는 장님이 있었는데 일찍이 상처하고 흥장이라는 딸과 살고 있었다. 아버지 원량은 예의범절이 바르고 청렴결백하여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했고, 딸 흥장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고을뿐 아니라 멀리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흥법사의 화주승 성공을 만나게 된다.

“우리 절의 법당 불사에 당신은 대시주님이십니다. 지난밤 꿈에 금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일 아침 길에서 처음으로 맹인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이 너의 큰 시주이다’ 라고 하였습

니다.” 하며 간절히 청하였다.

“나는 가난하여 양식도 토지도 없으니 무엇으로 어떻게 시주를 하겠소이까? 딸 아이가 하나 있으니 그 애라도 데려다 팔아 쓰시오”라고 대답하였다. 공덕을 쌓으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화주승의 말을 듣고 딸 홍장을 시주하고 만 것이다.

홍장의 나이 16세. 아버지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스님을 따라가다 소랑포에서 쉬고 있는데 중국의 사신들이 배에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다가오는 것이었다. 사신은 홍장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황후가 되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들의 황제인 혜제는 황후가 죽자 슬퍼하며 낙심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현인이 나타나 동국으로 가면 새 황후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꿈대로 사신들은 금은보화를 가져와 홍장에게 중국으로 함께 가기를 청하자 홍장은 사신들에게 “저는 이미 아버님을 위해 시주된 몸입니다.”라고 말하며 흥법사 스님에게 시주하기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배에 가득 싣고 온 재물을 스님에게 건네주고 홍장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시름에 빠져 있던 황제와 혼인하여 황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홍장은 새 황후가 되어 행복을 얻었지만 부친을 잊지 못하여 관음상(금동)을 만들어 돌배에 띄워 아버지가 계신 곳에 닿기를 소원하였다. 관음상은 표류 끝에 벌교에 나들이 나온 옥과현의 성덕처녀 앞에 와 닿았고, 성덕은 그 관음상에 예를 갖추고 등에 업었는데 새털처럼 가벼웠다고 한다. 산마루에 이르니 갑자기 무게가 태산같이 무거워져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어 그곳에 절을 짓고 성덕산관음사라 하였다.

.....이 이야기는 영조 5년(1729) 백매자가 관음사에 들렀다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내용은 설화이지만 절을 세우게 된 동기와 역사를 적은 글이므로 「성덕산관음사사적 聖德山觀音寺事蹟」이라 하였다.

태안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1984. 02. 29)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동리산 자락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 경덕왕 원년(742년)에 동리산파를 일으켜 세 선승에 의하여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대안사로 불리웠으며 이 나라 불교의 구산 선문의 하나인 동리산파의 본산지로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쌍계사 등을 거느리고 꽤 오랫동안 영화로움을 누렸던 사찰로 혜철선사와 도선국사가 득도한 정량수도의 도량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광자선사가 32칸으로 넓혀지었으나 고려시대 중기에 송광사가 조계종의 본산지로 지위를 굳혀 따로 제금났고,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억누르는 정책 바람을 탈 수 밖에 없었으나 효령대군이 머물며 왕가의 원당으로 삼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줄곧 옛날의 영화로움을 되찾지 못한 채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식민지 시대에는 도리어 화엄사의 말사 신세로 떨어졌다.

그나마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 때에는 대웅전을 비롯하여 절에 딸려 있던 건물 다섯 채가 불에 타 버렸고, 지금의 대웅전은 최근에 옛 모습을 본따서 새로 지은 것이다. 그러나 뜰에는 돌로 만들어진 혜철스님의 부도와 광자선사를 기리는 탑과 비가 이끼 낀 채로 남아 있어 이 절의 연조가 오래됨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태안사에는 태안사 바라 등 9점의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6·25 때 일주문과 능파각만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웅전(大雄殿)

옛 터에 자리한 대웅전은 새로 복원되었다.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4개의 용머리 장식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불당 안을 들여다보면 용꼬리가 나무로 조각되어 있다.

용은 농경문화를 가진 인도의 토속신앙에서 생겨난 것이다. 모내기를 하는 여름철이 되면 물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자,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물을 다스리

는 신인 용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목조건물의 취약점인 화재
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의 형상을 장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림사(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1984.02.29)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

동악산 줄기인 형제봉(성출봉) 중턱에 자리잡은 도림사는 신라 무열왕 7년(660)에 원효대
사가 화엄사로부터 이주하여 지었다고 전해지며 현재는 응진당, 지장전, 칠성각, 요사채 등
이 있고 절 입구에는 허백련 화백이 쓴 「도림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이 숲같이 많이 모여들었다 하여 도림사라 하였다.
해발 748.5m의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것으로 동악계곡, 성출계곡과 더불어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반석 위로 맑은 물줄기가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듯이 흐르고 수맥이 연
중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송, 계곡, 폭포들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는 도림사 계
곡은 지방 기념물 101호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반석들이 있어 예부터 풍류객들의 발길이 잦았으며, 이곳 9
개의 반석에는 선현들의 문구가 음각되어 있어 그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고 한 아름 반석
위로 흐르는 계곡 물에 몸을 담그는 맛이 색다르다.

그리고 이 계곡 정상 부근에는 이곳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좋아 신선이 쉬어 간다고 하는
높이 4m에 넓이 30평에 달하는 신선바위가 있으며, 멀리 보이는 형제봉은 등산로 코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찰 내에는 도유형문화재 119호 괘불(掛佛)이 소장되어 있다.

기 념 물

도림사계곡(기념물 제101호, 1987. 01. 15)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산27

도림사계곡은 해발 735m의 동악산 남쪽 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물줄기로, 동악계곡, 성출계
곡과 더불어 아홉 구비마다 펼쳐진 넓은 바위 위로 맑은 물줄기가 흐른다. 마치 비단을 펼
쳐 놓은 듯이 흐르는 물줄기는 연중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늙은 소나무들과 폭포들이
한데 어우러져 매우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다. 이곳의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예부터 풍
류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며, 9개의 넓은 바위에는 선현들이 새긴 문구가 남아있
어 그들의 풍류를 엿볼 수 있다.

용산재 및 덕양서원(기념물 제56호, 1981. 10. 20)

-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180 / 오곡면 덕산리 36

고려의 개국 공신 신승겸(~927)의 탄생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군의 유적이다.

신승겸은 왕건을 도와 공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공을 세워 개국 일등공신이
되었다. 고려 태조가 즉위한 몇 년 뒤 후백제의 견훤은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크게 분개
한 태조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후백제군에 포위되어 위급하게 되었다. 이 때 신
승겸이 태조를 구하고 후백제군과 싸우다 전사하였다.

선조 22년(1589년)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서원으로 정유재란때 모든 건물이 불
타고 선조 36년(1603)에 신실이 중수되었으며 현종 6년(1665)이전의 서원 규모로 모두 중건
되었다. 이후 1695년에 덕양이라는 사액을 받아 선현배양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
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고종 5년(1868)에 철폐되었다가 1934년 지방유림의 공의
로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건물은 강당, 동재인 연서재와 신실인 덕양사, 서재인 신덕재, 전사청, 그리고 외삼문, 내삼

문 등이 있다. 유적유물로는 덕양서원 건사사적비와 강당과 연서재의 내부현관 19개가 있으며 출생지인 용산재와 함께 도 지방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산재 : 용산재로 가는 길이 두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사당마을과 용암마을을 지난다. 구룡마을 뒤쪽에 용산재가 자리하고 있다.

덕양서원 : 곡성읍에서 오곡면 소재지를 지나 구성마을과 명산마을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덕산마을을 지나기전 밭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덕양서원이 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죽동 농악(박대업,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35호, 2002.04.19)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호남 좌도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는 전남의 대표적인 마을로 좌도농악은 호남 우도농악, 남해안지역의 농악과는 달리 쇠가락과 상쇠의 부포놀음이 발달하여 섬세하고 어려운 기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가락과 동작이 빠른 편이고 단체기술이 발달되었다. 죽동농악은 마당 밭이나 당산굿과 같은 마을굿에서 시작하여 인근마을에 걸공을 하는 들당산과 날당산굿, 그리고 판굿까지 한 바탕 전체를 전승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의 농악보다 화려하고 많은 보유 종목을 자랑한다.

죽동마을은 농악의 전통을 잘 전승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연주와 사회활동을 통해 그 전승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풍물강습에 맞도록 정비된 풍물 전수관과 앞마당에서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 박대업씨는 기창수씨와 강순동씨의 대를 잇는 기능 보유자로 죽동 농악을 이끄는 상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죽동농악은 1998년 남도문화제에 출연하여 종합 최우수상과 1999년 한국 민속예술축제에서 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 등 전국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형문화재

목조신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호, 1976. 09. 30)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54-4

옥과 성황당 안에 보존되어 있는 남녀 한 쌍의 목상(木像)이다. 민간신앙에서 신으로 여기던 대상물로, 남자상은 서 있고, 여자상은 앉아 있는 모습인데, 높이가 각각 84cm, 68cm이다. 남자상은 무당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발등까지 내려오는 사제복 형태의 옷을 입고 허리 끈을 매었는데, 끝이 길게 늘어져 있다. 둥근 얼굴에 크고 붉은 눈썹이 표현되었고 눈이 돌출되었다.

여자상은 머리에 고깔을 쓰고, 양 손가락 끝을 붙여 아래로 향하게 하였는데, 무언가를 들고 기원하는 모습이다. 얼굴 표현은 남자상에 비해 정교하며 자세도 다소곳하다. 남자상은 고려 명종 때의 학자였던 조통장군으로 전한다. 여자상은 장군의 처리는 설도 있고, 장군을 사모하다 한을 품고 죽은 공주라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신상은 한을 품고 죽은 사람을 신격화한 것이거나 추앙받을 만한 인물을 신격화한 것으로, 무속신앙에서 섬기는 다양한 신들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

반구정
 성륜사
 소송 정재건
 마천목장군과 도깨비살
 가정리 고인돌
 단군전
 가곡석장승
 의마총
 청계 양대박장군
 귀암사
 무후사
 덕계사
 오강사
 마천목사당
 덕양서원
 영귀서원
 서산사
 수도암

원효대사

신라 때의 승려. 속성은 설(薛). 법명 원효. 경산군 압량 출생. 설총의 아버지이다. 648년(진덕여왕2) 황룡사에서 승려가 되어 수도에 정진하였다. 가산을 불문에 희사하여 초개사를 세우고 태어난 집터에는 사라사를 세웠다. 650년(진덕여왕4)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가 중도에 고구려 순찰대에 붙잡혀 실패하였다. 661년 의상과 다시 유학길을 떠나 당항성(남양)에 이르러 한 움막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목이 말라 마신 물이 해골에 끈 물이었음을 알았다. 사물 자체에는 정(淨)도 부정(不淨)도 없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고 그대로 돌아와 분황사에서 독자적으로 통불교를 제창하였고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거리에 나가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 하늘을 받칠 기둥을 깎으리라” 라고 노래한 것이 태종무열왕에게 전해져 요석공주와 합방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설총이 태어났다. 이 사실을 스스로 과계로 단정, 승복을 벗고 《무애가》를 지어 부르며 군중 속에 퍼뜨리자 불교가 민중 속에 파고들었다. 또 당나라에서 들여온 《금강삼매경》을 왕과 고승들 앞에서 강론하여 존경을 받았다. 그 후 참선과 저술로 만년을 보내다가 70세에 혈사에서 입적하였다. 뒤에 고려 숙종이 대성화정국사라는 시호를 내렸다. 불교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쓴 정토교의 선구자이며, 한국의 불교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고승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도선국사

통일신라시대의 승려. 속성은 김(金). 호는 옥룡자. 전남 영암 출생. 15세에 지리산 화엄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불경을 공부하고, 4년만인 846년(문성왕 8) 대의를 통달하여 신승으로 추앙 받았다. 이때부터 수도행각에 나서 동리산의 혜철을 찾아가 무설설무법법(無說說無法法)을 배웠으며,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주요저서로

는 《도선비기》 《도선답산가》가 있다.

도선은 운봉산의 굴속에서 참선을 한 후, 태백산 움막에서 고행하였으며, 전라도 옥룡사에 머물다가 세상을 떠났다. 현강왕의 초빙으로 궁중에 들어가 왕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음양지리설 · 풍수상지법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친 학설이다. 죽은 후 효공왕이 요공국사라는 시호를, 고려 현종은 대선사, 숙종은 왕사를, 인종은 선각국사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의종은 비를 세웠다.

풍수지리설

산세 · 지세 · 수세 등을 판단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키는 설.

약칭 풍수설 · 지리설이라고도 한다. 도성 · 사찰 · 주거 · 분묘를 축조하는데 있어 재앙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오는 지상(地相)을 판단하려는 이론이다.

기본적으로 방위를 청룡(동) · 백호(서) · 주작(남) · 현무(북)로 나누어 모든 산천을 해석하였고,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정기가 물에 의하여 방해되거나 바람에 의하여 흩어지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집을 짓거나 묘를 쓰면 자손이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된다고 믿었다.

삼국시대에 도입된 풍수사상은 신라 말부터 활발해져 고려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특히 신라 말기에는 도선과 같은 풍수대가가 나왔으며, 그는 중국에서 발달한 참위설을 골자로 하여 지리쇠왕설(地理衰旺說) · 산천순역설(山川順逆說) · 비보설(裨補說) 등을 주장하였다. 지리는 곳에 따라 쇠왕과 순역이 있으므로 왕지와 순지를 택하여 거주할 것과, 쇠지와 역지는 이것을 비보(裨補: 도와서 더하다)할 것이라고 말한 『비기도참서』를 남겼다.

절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손혜경

(전남과학대학 호텔카테일과 교수)

목 차

- I. 불전
- II. 불상
- III. 탑
- IV. 부도
- V. 석등
- VI. 단청
- VII. 사물(범종, 법고, 운판, 목어)
- VIII. 토막상식(향공양, 연꽃, 염주, 삼보사찰, 종파..)
- IX.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불교용어

I. 불전의 종류

가람배치상 가람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堂)이다. 당은 불당을 가리키는 말로 금당, 법당이라고도 한다.

불전의 명칭은 대웅전을 비롯하여 각종 불전이 있으며 상, 중, 하단의 개념으로 배치된다. 부처를 신앙의 대상으로 한 상단신앙, 불법의 수호신을 모신 중단신앙, 그리고 이들 신중(神衆)이 분화되어 원래의 모습을 불교적으로 전개하고 신앙하게 된 하단신앙으로 나뉜다.

대웅전(大雄殿) だいゆうでん

불사 전체의 주불전인 금당에 해당하며 석가모니가 계신 곳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웅전 건물은 사찰 전체건물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게 건축한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그 협시보살로 문수·보현보살을 둔다.

대웅전의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고 할 때는 주불로 석가모니불 좌우에 아미타불과 약사여래상을 모시며, 각 여래불 좌우에 제각기 협시불을 봉안하기도 한다.

극락전(極樂殿; 무량수전; 아미타전; 보광전) ごくらくでん

아미타경(阿彌陀經)과 무량수경(無量壽經)을 근거로 하여 아미타불을 주불로 안치하는 극락전은 극락세계를 상징한다.

아미타전은 아미타여래를, 무량수전은 무량수불을 주불로 하는데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갖는 불전이다. 극락전은 아미타여래나 무량수불의 정토를 극락이라고 한데서 온 것이다. 그 협시로 관음, 대세지보살을 봉안한다.

약사전(藥師殿) やくしでん

약사유리광여래를 주불로 안치하는 불전이며, 그 협시로 월광, 일광보살을 모시기도 한다. 약사여래본원경(藥師如來本願經)의 내용에 따르면 동방의 많은 세계를 지나가서 유리세계가 나오는데 약사여래는 그 세계의 교주이고 장엄한 궁전으로서 죄악과 고통이 없는 청정한 극락이라 한다. 손에 약합이나 보주를 들고 있다.

*신라의 선덕여왕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선덕여왕을 사모한 지귀가 상사병을 앓고 있었는데 약사경을 읽어주어 완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관음전(觀音殿; 원통전) かのんでん

觀世音菩薩(かんのんぼさつ)=觀音菩薩(かのんぼさつ)=觀音(かのん)

관음전은 관세음보살을 안치하는 불전이며, 관음보살은 일명 원통대사라도 불리므로 관음전을 원통전이라고도 한다.

그 협시로는 남순동자, 해상용왕을 들 수 있으나 조각상은 두지 않고, 후불탱화에만 나타나 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을 모든 고난에서 구제하고 해탈로 인도해 주는 보살로 미륵신앙과 같이 염불을 수행방법으로 한다.

관세음보살 :

묘장왕의 막내딸 묘선이 향산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자 왕이 노하여 절을 불태우고 모두 죽여버렸다. 묘선이 명부에 갔다가 다시 소생하여 향산에서 수도하던 중 딸을 잃은 슬픔에 죽음의 문턱에 이른 왕을 정성으로 간호하고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하였다. 이로써 묘선은 보살이 되었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누구라도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서원하였고, 자비의 상징이 되었다.

관음신앙의 기적 :

중국 제나라의 손경덕은 집에 관음상을 모시고 섬겨왔는데 억울하게 강도의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 옥중에서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노승이 나타나 구고관음경(救苦觀音經)을 천 번만 외우면 죽음을 면할 것이라 알려주었다. 형장에 이르러서야 천 번을 다 외웠는데 형졸이 경덕의 목을 치니 칼이 부러지기를 세 번. 이 기적 같은 일이 왕에게 보고되어 경덕은 사면되었다. 집에 돌아와 관음상을 살펴보니 목에 칼 맞은 자국이 세 군데 있었다.

응진전(應眞殿; 나한전; 영산전) = あらかん

석가모니의 16제자를 모시는 불전이며 한국의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전이다.

아집과 생사를 초월한 성자를 응진, 무학, 응공나한이라 하므로, 응진전을 나한전, 응한전, 16나한전 등으로 불리운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봉안하고 좌우에 석가의 제자인 16나한상을 봉안한다. 이 불전은 수도승을 섬기는 신앙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비로전(毘盧殿; 대적광전; 대광명전; 화엄전) びるでん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는 불전이다. 화엄경에 근거한다는 뜻에서 화엄전, 화엄경의 주불이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에서 비로전, 화엄경의 세계가 대정적(大靜寂)의 세계라는 뜻에서 대적광전이라고도 한다.

주불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에 화신불로서의 석가모니불과 그 좌우에 문수, 보현, 관음, 세지보살을 협시로 봉안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적광전은 불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합천 행인사 대적광전, 김제 금산사 대적광전이 그 예이다.

팔상전(八相殿; 영산전) はっそうでん

석가모니불과 그의 일대기인 팔상탱화를 봉안한 불전을 말한다. 좌우 협시로는 상리보살과 미륵보살을 봉안한다.

팔상이라는 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생을 나타낸 여덟 가지 상이며, 응진전이 없는 사찰에서는 팔상전을 영산전이라 하고 있다(양산 통도사)

미륵전(彌勒殿; 용화전) みろくでん

미륵불을 주불로 봉안한다. 미륵불이 용화세계를 주관하므로 용화전이라고도 한다. 미륵불은 56억7천만년 후에 용화세계에 재현하는 미래불인데 이를 믿으면 사후 도솔천에 태어나 죄가 소멸되고 복을 얻는다고 한다. 미륵불은 입상으로 옥외에 설치된 예가 많으나 미륵불상으로 실내에 안치한 불전이 미륵전이다(금산사 미륵전)

명부전(冥府殿; 지장전; 시왕전) めいふでん

명부는 죽은 영혼이 최종적으로 이르는 곳으로 지옥행에 빠진 자를 구제해 주는 지장보살을 주불로 삼는 불전이다. 천상에서 지옥에 이르기까지 6도(천, 인간,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의 존재를 교화시켜 성불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장보살을 본존으로 하고 협시로 도명존자, 무독귀왕을 두며, 그 좌우에 명부시왕상을 배열하고 있다. 지장보살이 강조될 때는 지장전이라 하고 명부시왕이 강조될 때는 명부전이라고 한다(조선시대에 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게 된 전각)

지장보살 :

사람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업경대 앞에서 지은 죄를 실토하고 두루마리에 죄목을 적어 저울에 달아 그 경중에 따라 지옥행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 때

지장보살이 변호인 역할을 하여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최후의 한 명까지 구제한 후에 성불하겠다고 서원하였다.

각황전(覺皇殿)

구례 화엄사에 있는 특수명칭의 불전이며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약사불의 삼존불(三尊佛)이 안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문수, 보현, 관음, 세지의 사보처 보살입상(四補處 菩薩立像)이 안치되어 있다. 각황전 본래의 이름은 장육전(丈六殿-부처님의 몸을 일컬어 장육금신이라 함)이다.

암자(庵 いおり) :

본사 주변(약 6km 이내)에 있는 직속말사이며, 암(庵), 원(院), 사(寺) 등의 명칭을 쓴다. 각 암자 건물의 수는 단일불전 또는 신각(神閣)등에서 시작되어 대규모의 말사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건축양식이 다양하다.

II. 불상

넓은 의미로는 불교와 관련이 있는 상징물을, 좁은 의미로는 부처의 상만을 가리킨다. 부처의 모습을 처음 조성한 것이 언제 어디서부터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며, 경전(증일아함경)에 따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는 동안 부처님을 사모하던 코삼비의 우다야나(Udayana)왕에 의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입적 후 5세기가 지나 인도의 간다라(Gandhara)지방과 마투라(Mathura)지방에서 불상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불상 출현의 배경으로 유력한 것은 대승불교의 확산으로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견해와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그리이스의 신상(神像) 조각이 들어오면서 불상의 조성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불상의 표현형식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자 불상조성은 불교미술의 중심을 이루면서 활발히 이루어진다. 인도의 간다라(Gandhara, 서구적 이미지)와 마투라(Mathura, 동양적 이미지)에서 시작된 불상 형식은 불교사상의 발달과 함께 복잡하고 독특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원칙인 32상 80종호가 마련되어 부처의 상을 표현하게 되었다.

석가불상(釋迦佛像) しゃかぶつぞう

인도에서도 초기의 불상은 거의가 석가불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시대나 석가불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석가불은 삼국시대에는 입상일 경우 시무외인, 여원인의 수인을 짓고 있으며 좌상일 경우에는 선정인의 수인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통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항마촉지인을 짓는 것이 거의 통례로 되었다. 대형 대웅전에는 석가불 좌우에 약사불과 아미타불 또는 미륵불과 아미타불 삼세불을 봉안하기도 한다.

비로자나불상(毘盧자那佛像)

현상세계에 나타난 화신 부처님의 원래모습으로 진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부처가 비로자나불이므로 진신 또는 법신이라고 한다. 광명이 어디에나 두루 비친다는 뜻으로 이 불상이 봉안된 불전을 대광명전 혹은 대적광전이라 한다. 이러한 불전에는 비로자나불을 본존으로

하고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이 협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불전이 클 경우 좌우에 노사나불과 석가불이 협시하는 이른바 삼존불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짓고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주먹을 가슴에서 아래위로 포개고 밑의 왼손 검지를 오른손 주먹이 감싼 모양이다.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란 불경구절처럼 아미타불상은 관음보살상과 함께 가장 인기가 있었다.

아미타불은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보장해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영원한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서방극락을 주재하면서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존재이다. 즉 어떤 중생이라도 착한 일을 하고 아미타불을 정성으로 부르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하층민에게는 구세주로 절대시되었다. 극동에서는 이 부처만을 특별히 신봉하는 정토종이라는 종파까지 생기게 되었다(수인은 아미타9품인)

약사불상(藥師佛像)

불교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질병의 고통을 없애주는 부처도 요구되었는데 여기에 부합해서 출현한 부처가 바로 약사불이다. 특히 민중들은 극락의 아미타불과 함께 의사로서의 약사불을 절실히 고대하였던 것이다.

약사불은 다른 불상과는 달리 손에 지물을 가진 계인을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손에 약이 든 약함이나 보주를 들고 있는 약기인을 짓고 있다. 협시상으로 일광, 월광보살과 함께 약사12지신상을 거느리고 있는 것 역시 독특한 점이다.

미륵불상(彌勒佛像)

메시아로서 널리 알려진 미래불이 미륵불이다.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가 혼란할 때 새로운 지상낙원을 꿈꾸게 되는데 이러한 혁명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부처가 바로 미륵불이다. 후삼국시대의 궁예가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한 것을 단적인 예이다.

원래 불상의 형태로 나타나기 전 미륵은 보살이었다. 이는 도솔천을 주재하는 보살로, 56억 7천만년 후가 되면 석가불이 미처 제도하지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 부처의 모습으로 내려와 세 번 설법하여 남김없이 제도한다는 것이다. 용화꽃 봉우리나 꽃가지를 든 용화수인을 짓고 있다.

방위불(方位佛)

4방, 8방, 10방 등 방위는 계절과 함께 우리 인간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방위를 최소한으로 나누면 동서남북 4방이고, 여기에 상하를 합치면 10방이 된다. 모든 우주는 이 10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十方세계는 바로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방위신앙도 받아들여 4방에 부처님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천불(千佛)

대승불교의 특징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철저한 평등주의 사상이다. 즉 과거에도 천불, 현재에도 천불, 미래에도 천불이 있다는 것으로 무한한 부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Ⅲ. 탑(塔) と う

부처의 유골과 유품을 모시고 공양하기 위하여 높게 세운 건조물이다.

원래 부처님의 사리(유골)를 묻고, 그 위에 돌이나 흙을 높이 쌓은 무덤 또는 묘를 일컫던 말이었으나 후세에 유골을 묻지 않고 다만 특별한 영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그 덕을 우러러 공양하는 뜻으로 세운 것도 탑이라 부르게 되었다.

탑의 재료는 돌, 벽돌, 금속, 나무 등이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는 벽돌로 만든 전탑, 우리나라에서는 돌로 만든 석탑, 일본에서는 나무로 만든 목탑이 발달하였다.

탑신앙

부처의 무덤인 탑은 가장 강력한 예배대상이었으므로 탑돌이와 같은 구복신앙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탑신의 조각을 지붕에 던져두면 집안에 우환이 없어진다는 왜곡된 속설로 인하여 많은 탑들이 수난을 당하였다.

Ⅳ. 부도(浮屠) ふ と

부도는 부도, 부두, 포도, 불도 등 여러 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원래는 불타(佛陀)와 같이 범어의 buddha를 번역한 것이며, stupa(수투파) 곧 탑과의 전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탑은 예배대상이인 불탑을, 부도는 고승의 사리탑만을 일컫는다. 불교전래 이후 오랫동안 조성되었을 것인데, 삼국시대 것은 없고 오늘날 가장 오래된 것은 경복궁 안에 옮겨놓은 전흥법사 염거화상탑이다. 이를 기점으로 부도의 형식을 고찰해 볼 때, 이후의 부도는 모두 통일신라시대의 것인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대안사(지금의 태안사) 적인대사조륜정부탑 등 대부분이 염거화상탑의 형식을 따른 것들이다.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조형의 세부양식이나 조각수법이 다를 뿐 기본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각 부재가 원형으로 변해 가는 것은 신라 말기에서 고려시대에 걸쳐 나타나는 형식인데 이것은 곧 모(角)를 죽여서 원형으로 만든 새로운 의장으로 짐작된다.

Ⅴ. 석등(石燈) 石燈籠 いしどうろう

석등은 불을 밝히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법당 앞에 건립되었다. 우리나라 석등의 주된 양식은 통일신라시대에 성행한 팔각이 기본형인데 이러한 형태는 이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하게 된다. 예컨대 팔각의 화사석 사면에 보살상이나 사천왕상을 조각하기도 하였다

석등은 능묘 앞에도 장명등이라하여 조성되는데, 고려시대 말부터 세워지기 시작하여 조선 왕조의 왕릉에는 반드시 장명등을 설치하게 된다.

옛날에는 법당이나 불탑 앞에 외등을 설치했는데, 근래에는 좌우대칭으로 두 개의 석등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석등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일반적인 목적도 있지만 스스로 마음을 환하게 밝히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물 : 향, 꽃, 음식, 차, 불, 물....

향(香 こう) 공양 :

신라 19대 눌지왕 때 고구려의 승 목호자가 모례의 집에 들어와 숨어 지내며 불교를 전파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의 일이다. 중국 양나라에서 향을 보내왔으나 용도를 몰라하던 차에 목호자가 향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 신성(神聖)에게 정성이 전해지므로 향을 사르면서 기원하면 영험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마침 공주가 중병을 앓고 있어 백약이 무효였는데 목호자가 향을 피우고 기도하였더니 씻은 듯이 낫게 되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고 전해진다(신라는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됨)

Ⅵ. 단청(丹青 たんせい)

일반적으로 단청이라 하면 건축물에 여러 가지 색채로 그림과 무늬를 그리는 일을 말하며, 본래는 지배세력이나 나라의 길흉에 관한 의식,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는 건물과 용기 등을 엄숙하게 꾸며서 일반 기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의장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탑, 신상, 비석, 고분이나 무덤의 벽화, 출토된 부장품에 그려진 문양 등이 단청의 시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엄 행위는 건축물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으며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청, 적, 황, 백, 흑의 조화를 추구하며 시대와 사회의 미의식에 순응하여 오늘날의 단청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단청의 목적

단청을 하는 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위풍과 장엄을 위한 것으로 궁전이나 법당 등 특수한 건축물을 권위있게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건조물이나 기물을 오래 보존하고자 할 때 즉, 비바람이나 기후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과 방풍, 방부를 목적으로 한다.

셋째, 재질의 조잡함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흠집 등을 감출 수 있다.

넷째, 일반적인 사물과 구별되게 하여 특수기념물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다.

다섯째, 원시사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주술적인 관념과 종교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

Ⅶ. 종 (種 かね)

명칭과 구조

사찰의 종루에 걸어놓고 당목으로 쳐서 때를 알리거나 대중을 모을 때에 사용하는 큰 종을 말한다. 실제로 남아 있는 유물 중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상원사 동종(725년)이 가장 오래 되었으며 또 크기와 형태미를 대표하는 성덕대왕신종(771년) 등이 있다.

한국종의 각 부 명칭을 살펴보면 종의 맨 윗부분부터 용통, 용두, 천관, 상대, 유곽, 유두, 비천, 당좌, 하대로 구분된다.

용뉴(龍)

용의 모양을 취한 범종의 가장 윗 부분으로, 이곳에 쇠줄 걸어 종을 매달게 된다. 즉 용뉴란 '용의 모습을 취한 고리'라는 뜻이다. 용의 형상(뱀의 몸매, 잉어 비늘, 사슴의 뿔, 토끼의 눈, 소의 귀, 뱀의 이마, 매의 발톱, 범 발바닥을 취하여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다)을 취한 이유는 '포뢰'라는 용이 고래를 무서워하는 종소리와 비슷한 울부짓기 때 문이며 잘 울리도록 하기 위함이며, 당목을 고래모양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음관(音管)

용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음관은 용통, 음통이라고도 하는 소리대롱을 말한다. 이 음관은 우리나라 범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종'이라는 학명을 얻었다.

음관은 대나무의 마디모양을 하고 있으며, 종을 쳤을 때 잡소리를 없애어 맑은 소리가 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뒤울림이 명주실 같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아름다운 종 소리가 길게 여운을 남기며 감동을 주게 된다고 하겠다.

종의 몸체부분

천판(天板)은 용뉴, 음관과 접촉되어 있는 종머리 부분이다.

1.상대(上帶)와 하대(下帶)

상대는 종의 어깨 부분에 둘러진 무늬띠이고 하대는 종의 아래 부분인 종구에 둘러진 무늬띠이다. 상,하대를 종의 양쪽에 둘러서 특별한 문양을 새긴 것은 이유가 있다.

첫째, 북을 세워놓은 것과 같은 형태로서 양쪽 가죽을 단단히 끌어당겨 양쪽 테두리 위에 고정시킬 때 만들어지는 북테 장식을 모방했다는 것이고,

둘째, 위아래를 두툼하게 마감하여 굵은 울림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유곽(乳廓)과 유두(乳頭)

유곽은 상대의 네 곳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며, 이 유곽 속에서는 각각 9개씩 솟아있는 도들꼭지가 있는데 이를 유두라 한다.

이 유곽과 유두 또한 중국종, 일본종과는 달리 한국종만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3.비천(飛天)과 불보살상(佛菩薩像)

비천상은 신라종에서 많이 나타나며 불보살상은 고려와 조선종에서 나타난다.

고려종은 꼬리 구름 위에 놓인 연꽃 자리에 홀로 앉은 부처,보살의 모습이고, 조선종은 거의 대부분 연꽃 위에 꽃꽂이 선 채로 합장한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4.당좌(撞座)

당좌는 종을 치는 당목이 집적 접촉되는 부분이다. 당좌의 위치는 종의 소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밀동을 치면 소리는 크지만 시끄럽고 깨어지기 쉬우므로 밑에서 1/3 위치에 두고 있다.

한국종의 특징

한국 범종의 특수한 구조를 살펴보면 정상에 있는 용뉴 옆에 용통이 첨가되었고, 유곽이 네 곳에 배치되었으며, 1개의 유곽에 9개씩 배치되어 전부 36개이다. 그리고 종신에는 비천상과 당좌가 대칭으로 배치되었으며, 간혹 명문이 조각된 예를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한국범종의 대표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상원사 동종과 성덕대왕 신종을 들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종에는 천판에 용통이 없고 용뉴도 한 마리의 용이 아니라 일체 쌍두룡을 구부려서 배치하고 있으며, 종신에는 비천상을 배치하지 않고 종신 전부를 상하로 가득히 문양을 넣어 압박감을 주는 것이 한국종과 구별되는 점이다.

Ⅷ. 운판 (雲版 うんばん)

주로 청동이나 철로 얇게 만들어 두들겨 소리를 내는데, 그 생긴 모습이 뭉게구름 같다 하여 운판이라 부르게 되었다. 운판이 울리면 공중을 날아다니는 중생을 제도하고 허공을 헤매며 떠도는 영혼을 천도할 수 있다고 한다. 형태를 살펴보면 맨 위에는 매달기 위한 구멍이 2개 뚫려 있고 그 아래로는 당좌가 있다. 운판이 인도에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중국의 선종(禪宗) 사찰에서는 부엌이나 재당(齋堂)에 달아 놓고 대중에게 끼니때를 알리기 위해 쳤다고 한다. 이를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도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불을 다루는 부엌에 걸어 두어 화재를 막고자 함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는 부엌에서 운판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차츰 불전사물의 하나로 바뀌어 조석예불 때에 치는 의식 용구가 되었다.

Ⅸ. 목어와 목탁

목어는 나무를 깎아 외형은 물고기 모양으로 조각하고 속을 파내어 만든다. 불사에 쓰이는 사물중의 하나인 목어는 물 속의 모든 물고기를 제도하는 의미를 담아 두들겨 소리를 낸다. 법당에서 염불, 독경, 예불할 때에도 사용하며, 공양할 때나 대중에게 모임을 알릴 때에도 쓰여진다. 우리나라에서 둥근 것은 '목탁', 커다란 물고기 모양으로 된 것은 '목어'라고 한다.

목어의 유래:

옛날 어느 절에 덕이 높은 스님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제 멋대로 행동하여 속된 일도 서슴치 않았다. 몸쓸 병에 걸려 일찍 죽은 제자는 벌을 받아 등에 커다란 나무가 달린 물고기로 태어나 무척 고통스러워 하였다.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들이대고 슬피 울었다. 덕이 높은 스님이 깊은 선정에 들어가 물고기의 전생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방탕한 제자였다. 불쌍히 여겨 수륙제(물고기와 육지에 사는 미물의 영혼을 천도하는 법회)를 열어 물고기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꿈에 나타난 제자가 감사드리며 '등에 달린 나무로 물고기를 만들어 나무막대로 때려 주십시오.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그 소리를 들으면 해탈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스승은 그 말에 따라 목어를 만들었고,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는 물고기처럼 정진하라는 교훈으로 삼았다.

(중국과 한국의 선종에서 사찰 규범의 지침서로 삼았던 백장청규(百丈淸規)에 의거)

형태의 변화:

처음에는 단순한 물고기 모양이었으나 차츰 용머리에 물고기 몸을 한 용두어신(龍頭魚身)에 입에 여의주를 문 형태로 변하게 된다. 여기에는 동양적인 요소가 다분히 숨겨져 있다. 용두어신은 물고기가 용이 되는 과정으로 어변성룡(魚變成龍)의 의미를 갖는다.

(후한 이응전의 등용문(登龍門)에 도화꽃이 필 무렵 황하의 잉어들이 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상류의 협곡에 있는 용문에 오르면 용이 된다는 이야기로 선비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비유)

즉, 용두어신과 어변성룡은 불가에서 깨달음을 상징한다.

X. 연꽃 はすのはな

『법화경』에서 이르기를 연꽃은 더러운 못에서 피어나면서도 자신은 더럽혀지지 않는 점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열리어 인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불교에 수용되어 숭상받는 꽃이 되었고, 불·보살이 연화좌에 앉아 법을 설하게 된 것이다.

XI. 염주 (念珠 ねんじゅ)

염주는 불·보살께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는 법구의 하나이다. 또 염불하는 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는 염주는 금, 은, 동, 수정, 연꽃열매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보리수 열매가 가장 일반적이다. 염주알의 수가 1080, 108, 절반인 54, 42, 21 등 다양하다.

삼보사찰 (佛法僧 ぶつ,ぼう,そう)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삼보사찰(三寶寺刹)이라 하여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를 신앙의 근본이 되는 사찰로 존중하여 왔다.

불보(佛寶)사찰 :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하여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멸보궁이다. 부처님의 진신을 모신 사찰이라는 뜻에서 불보사찰이라 한다.

법보(法寶)사찰 : 해인사는 세계의 문화유산인 고려 목판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셨다는 의미에서 법보사찰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승보(僧寶)사찰 : 송광사는 고려시대 이후 16국사가 배출된 승가의 대표적 사찰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승보사찰로 숭앙되어 왔다.

한국 불교의 주된 종파

1. 조계종 : 정통파, 결혼하지 않고 출가하여 수행을 중요시하는 종파
2. 태고종 : 결혼을 허가하며, 중생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성불을 추구하는 종파
3. 천태종 : 치유능력을 특기로 신도를 관리하는 종파

XII. 생활 속에서 만나는 불교용어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의 근간임을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에 뿌리를 둔 말들이 많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도 인도 사위국의 수도인 “슈라바스티”에서 온 말이다. 슈라바스티가 실라벌(室羅伐 新羅)로 음역되었고, 신라(新羅)라는 국명 역시 석가모니가 활약했던 도시인 슈라바스티를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즉, 서울은 서라벌 서벌 서월 서울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본래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으로 또는 본래의 뜻은 유지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용해되어 있는 불교용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정리해 보았다(가나다순)

가책(呵責) : 잘못을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음

가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의미의 가책(呵責)과 “몹시 꾸짖음”

의 뜻인 가책(苛責)이다. 앞의 가책(呵責)은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잘못을 저지르면 여러 대중스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고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다.

감로(甘露) : 도리천의 영약

도리천에는 달콤한 영액(靈液-하늘에서 내리는 달콤한 이슬)이 있는데, 이 액체를 마시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장수한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감로는 “불사주(不死酒)”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명 천신의 음료라고 한다.

서양의 신화에서는 제우스신을 비롯한 천신들이 “넥타(Nectar)”를 마신다고 전해진다. 요즘 사과넥타, 포도넥타 등으로 판매되는 과일음료는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차용해온 것이다. 서양의 신화에서는 오직 신들만이 마실 수 있으나, 불교에서는 불법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면 감로의 맛을 본다고 한다.

건달(乾達) : 날아다니며 아악을 관장 일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

건달의 어원은 불교의 건달바(乾達婆)에서 유래되었다. 건달바는 제석천의 아악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 건달은 고기나 밥 등의 음식은 먹지 않으며 향을 먹고 산다. 건달은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즐긴다. 건달은 사람이 죽어서 다음 생을 받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유(中有)”의 존재이다.

오늘날에는 하릴없이 빈둥대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한다. 일하지 않고 먹으면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기별(記別) : 부처가 제자의 수행을 인가함 授記의 뜻으로 “한 소식”

기별을 한자로 기별(奇別 또는 寄別)로 썼을 경우에는 “소식을 전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기별(記別)은 높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부처가 제자들의 수행이 무르익었음을 인가해 줄 때 기별을 준다. 기별은 수기(授記)와 같은 말로 미래에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즉, 수기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성불을 의미한다.

다반사(茶飯事) : 삼매에 들면 평상심이 곧 불심 밥 먹고 차 마시듯 흔히 생기는 일

다반사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등의 흔히 생기는 일을 가리키는 말로 항다반사(恒茶飯事)가 줄어서 다반사가 되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여유와 도를 구하는 차원에서 차를 즐겼다. 이를 승화시킨 예가 차례(茶禮)인데, 우리는 한해가 시작되는 날 조상의 얼 앞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올리고 그 해의 서원과 각오를 나눈다. 또한 가을이 되어 풍년이 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차를 다려 조상에 올린 데서 추석이라는 명절이 생겨났다.

다반사는 도를 이루기도 하였다. 차를 마시는 정신과 자세는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다도(茶道)”라는 말이 생겨났다.

면목(面目) : 본래부터 지닌 맑고 깨끗한 성품 체면·남에게 드러낸 얼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면목은 “체면” “남에게 드러낸 얼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불교에서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父母未生前本來面目)을 알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깨끗하고 맑은 진수를 가리키는 말로 “불성(佛性)”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무진장(無盡藏) : 끝없는 무한자비 보시행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음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할 때 “무진장하다”고 말한다. 『불교대사전』에서는 “무진장”을 “무진”과 “장”의 합성어로 풀이하고 있다. 즉, “무진이란 덕이 넓어서 무궁

함을 뜻하고, 무진을 포함한 것을 장이라 한다” 라고 정의했다.

『유마경』의 “불도품”에 나오는 해석은 훨씬 사회적이다. “빈궁한 중생을 돕고 이롭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옛날에는 재난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스님들이 보여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절에서 실시한 장기 저리 무담보 사설금융이 곧 “무진장”이다.

바라지 : 법주(法主)를 도와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 “육바라지” “음식바라지”

바라지의 어원은 절에서 재를 올릴 때 법주(法主)를 도와 경전을 독송하고 가영(歌詠)을 부르는 스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재는 돌아가신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도하는 시식(施式) 의식이 하이라이트를 이루는데 이때 바라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인 바라지는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요즘에 와서는 음식이나 옷을 대주고 뒤에서 일을 돌보아 주는 일, 또는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음식바라지” “육바라지”가 사용범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이 경우 생활방편의 도움, 궁지에 처한 사람 돕기 정도의 범위를 넘지 못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바라지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역할은 지옥중생 또는 구천에 떠도는 외로운 영혼을 바라지하여 극락으로 왕생시키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삼매(三昧) : 부처가 삼매를 통해 깨달음 마음 집중, 흐트러짐 없는 경지

삼매의 어원은 삼마지(三摩地; samadhi)이다. 삼마지란 “마음을 한곳에 둔다, 마음이 한곳에 집중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어지러운 생각들이 사라져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삼매라고 한다. 수행이 삼매의 단계에 이르면 올바른 지혜가 생겨 진리에 도달한다고 한다. 부처도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매를 중시한다.

“독서삼매에 들었다” “삼매에 들면 못할 것이 없다”는 등의 말은 무엇인가를 집중해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져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 구업을 맑히는 “천수경”의 진언 도사의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얍!”

코미디나 어린이프로에 도사가 나와 주문을 외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말이다.

모든 예식의 전후에 천수경을 외우게 되는데, 『천수경』의 첫 시작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다. 즉, 입으로 지은 업(거짓말, 이간하는 말, 아첨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을 깨끗하게 하는 참된 말인데 그 진언이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이다. 이 진언을 세 번 외고 『천수경』을 계속하는 것이다.

“수리”란 범어로 길상존(吉祥尊)이라는 뜻이며, “마하”는 “크다”는 뜻이므로 마하수리는 대길상이다. 또한 “수수리”의 수는 “지극하다”의 뜻이며, “사바하”는 “원만·성취”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는 “길상존이시여 길상존이시여 지극한 길상존이시여 원만·성취하소서”라는 의미이다.

인간의 모든 잘못은 입으로 전달되고 입으로 익혀진다. 따라서 모든 공덕의 시작은 입을 잘 다스리는 데서 시작한다는 천수경의 근본취지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진언은 주문(呪文)이라고도 한다.

시달림 : 시다림(尸陀林)에서 기원 연습 등의 장의절차, 곤욕을 치르다

타인으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괴로움을 받는 것을 “시달림을 받는다” “시달림을 당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흔히 쓰이는 “시달림”이란 단어는 불교의 “시다림(尸陀林)”에서 이라는 기원하였다. 시다림은 범어의 시타바나(Sitavana)를 음역한 것이다. 범어 시타는 “차가운”이라는 뜻이고, 바나는 “숲”이라는 의미이므로 한림(寒林)이라고 번역하여 쓰기도 한다. 『사분율(四分律)』에 따르면, 시타바나는 중인도의 마갈타국 왕사성 북쪽에 있는 숲이었다. 이곳은 공동묘지로 성안의 사람이 죽으면 이 숲(시타바나=시다림)에 버려졌다. 따라서 시다림은 공포의 장소였으며, 질병이 무성한 곳이었다. 후일 나라에서 이 시다림에 악성 죄인들을 추방시켜 살게 했다고 전하는데, 이처럼 시다림은 고행의 장소이자 생매장터였던 것이다.

아수라장 : 아수라의 심술이 만든 피해현상 전란이나 투쟁으로 끔찍한 모습

시끌벅적하거나 전란 또는 투쟁으로 흐트러진 현장을 “아수라장 같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아수라장 또는 수라장이란 아수라(阿修羅-천, 인, 아수라, 아귀, 축생, 지옥 중의 하나)의 심술이 만들어 내는 피해 현장을 말한다.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도전적이어서 “전쟁의 신”이라고도 한다. 아수라는 전생에 바라문이었었는데, 우매하고 욕심이 많았다. 어느 날 이 바라문은 광야에서 많은 수레에 물을 싣고 다니며 보시하던 중 불타고 있는 탑을 보았다. 못된 무리들이 불탑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이다. 바라문은 물수레를 모두 동원하여 그 불을 끄는데 성공하였고, “나는 좋은 일을 했으니 다음 생에서는 욕심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존재로 태어나고 싶다”고 서원하였다. 어리석은 그 바라문은 좋은 일을 하고도 좋게 회향하지 못하여 결국 아수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아수라는 불같이 성미가 급하고 욕심이 많고 우둔한 축생이 된 것이다.

야단법석 : 법당 밖에 법단을 차린 설법장 시끄럽게 다투는 모습

떠들썩하고, 우왕좌왕하고, 여럿이 모여서 다투는 모습을 야단법석(野壇法席)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흔히 “야단법석을 떠다” “야단법석이 났다” “야단법석을 친다”는 등의 말을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야단법석은 사람들을 위해 야외에 법단을 차려놓고 하는 설법장(說法場)을 말한다. 법당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이 운집하면 자연히 야단법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부처가 최초로 법석을 편 것은 녹야원(鹿野苑)에서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 부처와 가섭존자의 삼처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이 통함 마음과 마음으로 통할 때 사용하는 말로, 부처와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연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가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보였다.

두 번째는 부처가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던 중 남무한 차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었다.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의 이심전심이다.

세 번째는 부처가 열반에 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이다. “사라쌍수하 과시쌍부(娑羅雙樹下 擲示雙趺)”라고 한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이라 하겠다.

이판사판 : 이판과 사판의 합성어 마지막 상황

이판은 참선, 경전공부, 포교 등 불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스님이고, 사판은 절의 살림을 하는 스님이다. 이판사판은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의 합성어로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이판사판이지 뭐” “이판사판 해보는 거야”

이처럼 이판사판은 마지막 몰린 궁지를 말하고 있다. 이판사판이 “마지막”을 뜻하는 의미로 바뀐 것은 조선시대에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국교로 세우면서 당시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의 신분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하여 이판·사판은 끝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시도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참회(懺悔) : 참 -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음. 회 - 부처에게 죄를 고백함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참회라고 한다.

참회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참”과 “회”로 나누어진다. “참”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참는 것이고, “회”는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부처(보살 또는 스승)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이다.

부처가 생존했던 당시에는 매월 보름날을 참회의 날로 정하여 대중이 모여 지난 달 지은 죄를 참회하였다.(=포살일.布薩日)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의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하였다.(자자일.自恣日)

『왕생예찬』에 의하면 상품(上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정도를, 중품(中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고 털구멍에서 뜨거운 진물이 내리는 정도를, 하품(下品)참회는 눈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정도를 말한다고 한다.

출세(出世) : 부처·보살이 세상에 나타남 입신하여 우려름의 대상이 됨

일상에서 쓰이는 “출세”는 세상에서 성공하여 직위가 높아졌거나, 숨어있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출세라고 한다. 이 경우의 출세는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직결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부러워한다.

출세는 불교에서 나온 단어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남을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가 이 땅에 나왔거나, 미래에 미륵 부처가 나올 때를 출세라고 한다.

투기(投機) : 조사와 확인의 근기가 일치 요행을 바라는 행위

투기란 말은 팡투기·정치투기·경제투기 심지어 인생투기·투기거래·투기심리·투기매매 등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는 대체로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고 큰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투기란 원래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불교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기원정사도 일종의 투기에 의해 세워진 절이다. 이곳에는 한창 전성기에 12채의 큰 법당, 72채의 강당, 3천채의 승방, 5백채의 누각이 있었다고 한다. 기원정사 대지는 당초 민간인 소유였던 것을 수달장자가 사서 부처에게 기증하였고, 이때 수달장자는 대지 전체에 황금을 깔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지불했다고 한다.

불교에서 “투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투합(投合)했다”는 말이다. 특히 선종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투합한 경지를 “인가받았다”라고 말한다.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것은 수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라고 하겠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말들이 불교에서 유래하였다.

결망: 스님들의 만행 “붓집” 무소유와 흠가분한 생활의 상징

도구(道具): 목탁 등 도를 닦기 위한 보조물 수행용구처럼 꼭 필요한 물건

장엄하다: 아름다운 것으로 꾸민 극락세계 규모가 크고 엄숙 웅장한 모습

탈락(脫落): 집착에서 벗어난 몸과 마음의 해탈 낙오

南道文化 들여다 보기

조상 열

(사단법인 大東文化 會長 / 호남대학교 겸임교수)

— 목 차 —

1. 한국의 지리와 지형
2. 南道の 역사적·지리적 특성
3. 남도의 정신문화

1. 한국의 지리와 지형

우리나라의 지리는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할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한반도에 국한된다. 동서남북으로 말하자면, 북쪽 맨 위 백두산을 머리로 시작하여 백두대간을 따라 남쪽의 제주도를 지나 마라도까지를 말하며, 동쪽으로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단(東端)의 섬 독도에서부터 서쪽 맨 끝에 있는 가거도(可居島-소흑산도)까지를 우리 영토라 일컫는다.

지형상으로는 백두산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으로 뻗어 내리는 태백산맥이 있는 북동쪽이 높은 편이고 서남쪽이 낮아 대부분의 강이 서해와 남해로 흐른다. 때문에 서·남해안 일대에 비옥한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갯벌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태백산맥이 금강산과 대관령을 지나고 중간에 이르러 두 갈래로 갈라져 한 갈래는 낙동(洛東)정맥을 타고 부산방향으로 내려가 바다를 건너 대마도로 연결된다. 다른 한 갈래는 속리산과 덕유산, 지리산에 이르러 천왕봉을 솟게 한 후 동남쪽으로 백운산, 조계산으로 이어지는 낙남(洛南)정맥을 이루고 서남쪽으로 무등산과 월출산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을 이룬 후 제주 한라산으로 빠져든다.

-한반도를 생명체로 보는 풍수지리 관-

이러한 우리나라의 지형을 인체에 비유하여 백두산을 머리에, 백두산에서 길게 뻗어 내린 태백산맥을 백두대간(白頭大幹)이라 하여 척추로 여겼고, 백두대간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맥들을 정맥이라 하여 갈비뼈에 비유했다. 또 산맥 사이에 여러 강들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는 인체의 뼈와 혈관의 배합형태로 보았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생명체로 보는 특이한 풍수 지리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한국의 산은 전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의 절반 정도가 5백 미터 이하의 낮은 구릉이고 주변의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풍수적 지리관은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인식되는 한국지형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남도의 젓줄 영산강은 호남정맥의 지맥이 모여들어 강 유역의 넓은 평야는 비옥하고 고온다우(高溫多雨) 등 농경문화에 적합하여 선사시대 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영산강 하류는 한반도 도작문화(稻作文化)의 발상지로 3000여 년 전에 벼가 전래되었다. 이로 볼 때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남도의 진산(鎭山) 무등산을 중심으로 북서쪽의 영산강, 동쪽의 섬진강, 남쪽의 보성강 등은 남도문화의 중심무대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南道의 역사적 · 지리적 특성

全羅道는 全州·羅州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으로 신라의 삼국통일 전에는 百濟에 속했던 땅을 말한다. 이는 현재의 全羅 南·北道를 말하는 호남지방으로 1896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전라도라고 불렀던 곳이다.

南道라는 호칭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한 지금의 전남지방을 이르는 경우와, 전라도 일대, 곧 호남지방을 남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도문화', '남도정신'이라 할 때 '南道'라는 말 역시 위치적 한계를 현재의 광주·전남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 있다.

남도와 달리 '湖南'이란 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호남이란 호칭은 湖江 곧 지금의 錦江 남쪽인 옛 후백제의 중심무대였던 충남지역 일부와 전라북도를 포함한 지역을 의미한다. 호남의 문화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가 그 정신적 근원이 되어서 공주, 익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세력권 변천에 따라 성숙되었다고 한다면, 남도의 문화는 노령산맥 이남과 지리산 서남쪽의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세력권 등 또 다른 고유한 문화권이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갖고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이병도선생은 호남의 특성을 말하면서 호남은 그 지리적이나 역사적 조건에서 볼 때 우리 고대문화의 한 중심지를 이루었고 호남일대의 풍족한 생산력과 교통의 편리는 역대조정(朝廷)의 재정(財政)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不義 不正에 항거하는 정신이 강하여 구국광정(救國匡正)에 공헌한 바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충무공 이순신이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若無湖南 是無國家)” 라고 말한 것도 역사 속에 호남의 중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湖南이니, 南道니 하는 호칭 이전에 이미 지역적 특성에 따라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가 생성되고 있었다. 때문에 여기서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도의 역사적 특성

남도라 불리는 이곳은 백제 이전에는 마한에 속한 땅으로 역사적으로 백제가 응성할 때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도 지배층으로부터 소외된 땅이었다.

828년(흥덕왕 4년)에 해상왕 장보고(張保皋)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마한시절의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838년 장보고가 정년(鄭年)과 함께 왕위다툼에 밀려난 김우징(金祐徵)과 김양(金陽)을 도와 민애왕을 공격한 후 김우징을 즉위토록 하여 신무왕이 되었으나 곧 죽었고,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이 즉위하였다.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고자 했으나 진골 귀족들은 장보고의 신분이 전라도 섬사람이란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장보고는 청해진에서 반기를 들었고, 서라벌에서는 결국 자객 열장(閣長)을 보내 그를 암살했다. 851년 장보고가 없는 청해진은 토벌을 당하고 주민들은 벽골군(碧骨郡:전북 김제)으로 강제로 이주되면서 청해진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후 서남해안의 수비장 견훤(甄萱)이 농민봉기를 틈타 892년 전라도 일대를 장악했다. 900년에 견훤은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건국했으며, 당시 광주의 토호 지촌(池萱) 집안과 순천의 토호 박영규(朴英規) 집안의 협력을 얻어 서라벌을 공격하여 박씨 왕이었던 경애왕을 자진케 하고 김부를 왕위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신무왕(김우징)의 7세손인 경순왕이다. 그러나 경순왕은 8년 뒤인 935년에 견훤을 배반하고 나라를 왕건에게 바쳐 천년 사직의 신라는 망하고 만다.

903년 철원의 궁예(弓裔)는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막하 장수 왕건(王建)으로 하여금 후백제의 견훤의 배후인 羅州를 공략했다. 나주를 점령한 왕건은 토호(土豪) 오희(吳禧: 多憐君)와 손잡고, 영암 구림의 토호 최상훈(최지몽의 父)과 태안사의 동리산문을 지원했던 곡성의 토호 신승겸(申崇謙) 집안 마저도 끌어들이었다.

이로써 후백제 근간 무대였던 전남이 왕건 세력의 등장으로 견훤의 절대 중심에서 왕건을 지원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었고 이때부터 지역적 갈등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남도와 역사 속의 나주

고대로부터 조선 말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의 나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남도 역사문화의 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궁예의 장수였던 왕건은 나주를 기반으로 하여 고려를 건국하였을 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 장화왕후 오씨를 얻은 처향(妻鄉)이자, 왕건의 뒤를 이은 2대 왕 혜종의 어향(御鄉)이기도 한 곳이다. 1010년 거란의 2차 침략 때 현종이 전주를 뒤로하고 개국의 기반인 나주로 10여일 간을 몽진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려 속

에 나주의 비중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나주의 성격은 이후의 역사에서도 드러난다. 고려 무신정권 말기 고종 때에 전남 담양에서 이연년 등이 기병한 백제부흥운동의 '李家黨' 세력이 광주를 거쳐 나주를 공략하려 했었지만, 이때 나주는 어항임을 자부하며 철저히 막아냈다. 또 1270년(원종 11년) 배중손을 중심으로 한 삼별초군 항쟁 때도 정지려 장군, 김응덕 등 주축이 된 호장세력이 삼별초군을 맞아 7일간의 나주공방 끝에 승리를 이끌어 냈다. 역사 속의 나주가 지니는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고려 건국 초에 왕권 중심세력에 등장했던 전라도는 경주계였던 8대 현종 왕대에 이르러 중심권에서 밀려난다. 당시 태조 왕건의 유훈(遺訓)이 실린 훈요십조가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경주최씨 최항의 집에서 나온 훈요십조는 '차령이남 사람은 쓰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종을 중심으로 한 경주계가 호남계 견제의 구실로 삼았던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차령이남 인재 등용 억제'는 고려 왕실에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고려 중기까지 명문집안을 이루었다. 특히 최충헌의 무신정권이후나 몽고침략이후 많은 숫자가 중앙에 진출한다.

조선 개국 초에는 함경도 중심의 이성계가 집권하고 귀족세습관료적인 탓에 중앙진출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2차 왕자란 때 반남박씨 박언, 순천박씨 박석명, 장흥마씨 마천목, 순천김씨 김승주 등 4명이 공신에 올라 명문을 이룬다. 그 후 김종서제거와 세조 추대 때 담양의 전균(田鈞), 영광의 유자환(柳子煥), 능주의 구치관(具置寬) 등이 공을 세워 중앙에 진출했고, 또 세조 때에 일어난 이시애 반란 진압의 공신 10명이 전남 사람들로 광산김씨 김국광을 비롯, 함평의 이종생, 보성의 오자경과 선형 집안 등이 이때부터 명문의 길을 연다. 이후로도 전라도는 壬·丙 兩亂 등 나라의 위난을 맞아 무공으로 중앙진출의 기회를 잡은 지역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조선에서 나주는 상대적인 세력들의 대립과 결투장으로 변신하기도 하여 1589년 정여립 반란사건의 피해가 가장 크게 미친 곳이 바로 나주이기도 했다. 그러나 호남의병과 광주학생운동의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나주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3) 남도의 지리적 특성과 유배문화

한반도의 끝에 위치한 남도 땅은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원거리에 있는 탓에 중앙과의 교통이 어렵고 시간·거리상 조락(凋落)의 요인이 발생 상대적으로 항상 변두리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해 중앙의 파문(波紋)이 전달되는 데는 생동감이 없었다.

때문에 남도는 특성상 함경도 다음의 유배지로 적합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700여명의 유배자 중 130여명이 남도에서 귀양을 살았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남도에 유배된 죄인은 중죄인 아닌 대부분 정치범으로 권력에서 밀려난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저술활동과 詩·書·畵에 집중하거나 주민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외로움과 울분을 삭힌 채 재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도문화를 유배문화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유배자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1년여로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했으며, 행동반경이 그리 자유스럽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남도지역은 유배자들이 영향을 미치기 전부터 남도인의 독자적인 성향과 소질에 맞는 누적 되어온 문화적 업적이 있었고,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 왔다. 남도의 풍토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섬세하며 선천적으로 예능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남도문화는 주민의 타고난 소질 위에 유배인의 영향이 가해져 남도인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 피웠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진도의 소치 허련이 제주도에 유배 왔던 추사 김정희의 가르침을 받았고, 완도에 유배되었던 원교 이광사의 영향은 소전 손재형과 장전 하남호 등에게 이어진 것으로 볼 때 남도의 특징적인 기반 위에 유배

문화가 접목되었음을 잘 보여 준다.

다산 정약용의 경우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실학을 집대성하였는데, 이는 외가인 해남의 윤씨의 영향과 남도의 학문 풍토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으며, 교류했던 주변의 지인들은 다산의 학문적 기반을 공고하게 해준 인물들로 다산의 저술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자료화가 되었다. 이렇듯 남도문화의 형성은 남도인에 의해서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로 구현, 승화 종합되어진 것이지 유배인이나 또 다른 어느 부류에 의탁하여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남도의 지리적 환경이야말로 문화예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기후가 온난하고 토양이 비옥하여 농산물이 풍부한 남도에서는 서사시보다는 서정시, 감정어린 시가문화(詩歌文化)가 발달했다. 손놀림이 섬세하고 정중동의 유연성이 특징인 남도의 무용, 구성진 가락과 구수한 아니리를 섞어가면서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토해내는 남도의 판소리, 구성지고 감칠맛 나는 민요 등의 민중예술은 남도의 풍토와 역사가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남도 문화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판소리나 민속 같은 경우에는 유배인의 영향이 미칠 대상이 아니었고, 남도의 지리적, 역사적 정취에 맞게 잘 남아 전해지고 또 다른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발현했던 것이다.

3. 남도의 정신문화

남도의 문화가 지리적인 특징을 배경으로 하여 독특한 문화를 이룬 데는 문화적 정신적 유산을 갖게 한 다채로운 사상과 그 역사가 있었으며 이러한 남도의 정신문화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신적 주류를 이루어 왔던 여러 사상이 남도에서 싹트고 자랐으며 이를 실천적으로 구현할 때마다 힘찬 기백을 우리 민족의 정신 속에 되살린 역사를 엮어 왔다.

농경사회에서 남도는 곡창이었다. 그러면서도 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 출신 중 중앙권력층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인문적 환경은 소외와 수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벽이 대체적으로 모질고 거칠어 질 수밖에 없었다.

또 궁벽하고 먼 땅이라 정치적 보복을 피하고자하는 양반계층들이 즐겨 찾아 들었을 뿐 아니라, 서남해안의 왜구들마저 잦은 침탈로 항상 억압과 수탈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길러지는 것이 생을 체념하는 예술성으로 승화한 계층이 있는 반면 자구책의 일환으로 억압에 참을 수 없는 삶의 한계와 불의에 대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항거하며 폭발하는 반항적 기질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남도 사람들은 국가의 위난에는 구국의 충절을 부르짖으며 선봉에서 왔는데, 바로 자주적인 항몽정신, 항일운동 등 의병활동의 본거지로 중심을 이룬 곳도 남도이다. 개혁에 앞장서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광주학생운동이나 5·18 민주화운동으로 승화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대종교, 원불교 등 민족종교가 되었고, 조선조의 사림의식이나 주자학의 발전은 호남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수 없이 많으며, 실학이 성장 완성된 곳 또한 호남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봉 기대승, 노사 기정진의 유학사상의 밑바탕이 되었다.

남도의 소리, 가사문학, 남종화 등 넉넉한 문화예술을 꽃 피웠고, 이러한 여유와 풍요는 고유성을 지닌 남도만의 전통음식 등을 만들어 냈고 오늘날의 다양한 문화를 형성케 했다고 할 수 있다.

1) 호남사림의 절의

남도의 고유한 정신은 앞에서 언급한 지리적 배경 외에도 역사적 환경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특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백제 멸망이후 후백제의 건국은 그 발원이 광주였으며, 고려 이후 불교사상의 발전과 특징에서 또한 독자성을 지닌 것이었고, 조선조에 있어서는 도학과 성리학 실학 등 그 발전적 특징에서 살펴볼 때 하나의 일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조 사림의 형성배경을 볼 때 여말선초 고려에 대한 不事二君의 의리를 실천키 위해 山間에 은거하고 落南을 하던 인물들이 士林의 연원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조 호남사림으로서 의리를 조정에 처음 심었던 것은 종종반정 후 죄 없이 공신들에 의해 쫓겨난 놀재 박상, 충암 김정, 석헌 유옥 등 세 사람이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를 올림으로써 의리정신의 정신적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호남 삼인 상소는 스스로의 의리정신을 기초로 하여 분발되었다는 점이 창조적이며, 숭선적으로 호남 의리정신으로서 독자성을 지닌다.

신진사림의 대표적 인물은 정암 조광조이다. 조광조는 도학사상의 지주로서 나라의 숙폐(宿弊)를 바로잡고 개혁을 단행하다가 훈구세력들과 종종이 함께 일으킨 이른바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해 능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림의 피화(被禍)와 호남과의 인연을 맺은 인물들을 己卯名賢이라 한다. 고려말 포은 정몽주의 충절정신이 야은 길재에 이어졌고, 강호 김숙자와 점필재 김종직, 다시 한훤당 김굉필을 거쳐 정암 조광조에 이르러 사림의 도학과 절의가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호남정신의 대중을 이루는 사림정신은 기묘사화의 피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놀재 박상의 문하에서 석천 임억령, 면암정 송순이 나왔고, 송순의 문하에서 송강 정철, 서하당 김성원이 나왔으며, 기묘명현의 한분인 高靈의 손자가 제봉 고경명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호남사림의 대중을 이루는 정신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호남사림의 실천정신

고려 말의 충신, 기묘사화의 사림들, 임병양란의 救國항쟁의 의병정신을 비롯한 한말의 항일투쟁 등에서 호남의 절의 정신이 어떠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의병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함께 여기는 대의정신에서 분기했던 것이니 호남의 건재 김천일, 제봉 고경명, 충장공 김덕령 등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천일은 나주에 있다가 고경명, 최경희 등과 창의했고, 진주성 싸움에서 성이 함락되자 아들과 함께 남강에 투신했다. 고경명은 두 아들 인후, 종후, 양대박, 유팽로 등과 함께 담양을 출발, 금산전투에 싸우다가 아들 인후와 유팽로와 함께 전사했으며, 종후도 진주성 싸움에서 전사했다.

입란뿐 아니라 병자호란 때도 호남이 의병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10년 국치일까지의 의병은 호남에서 가장 치열했으며, 면암 최익현도 호남 땅을 기반으로 의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호남인의 대의정신은 오늘날도 남도인의 혈맥 속에 면면히 고동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정신을 알려면 호남의 정신과 남도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다.

남종화의 소치 허련선생 예맥일화

소치 허련(小痴 許鍊)선생은 1808년 진도에서 태어나 85세를 일기로 별세 한 한국 최고의 예맥의 허씨의 1대조이며 남종화의 비조이다. 소치선생에게서 미산 허형, 남농 허건, 임인 허립, 임전 허문, 남농의 손자 허진에 이르기까지 5대 6인이 배출되었다. 그 외 소치의 방손 의재 허백련, 목재 허행면, 허대득, 허달용, 직헌 허달재 등이 배출되는 등 지금까지 허씨 집안에서 배출된 화가만도 30여명이다. 인구 4만도 안 되는 섬 진도 출신이 전국 화가 전국 30%를 차지하는데 소치는 이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소치가 한국 최고의 화맥(畫脈)을 잇는 데는 큰 인연 복이 있었다. 소치는 해남 녹우당 출

입하면서 공재 윤두서 등이 남긴 화집을 접해 공부하다가, 27세 때 대흥사의 초의선사와 사제의 인연을 맺었다. 인연은 인연을 낳는다고 소치는 32살 때 초의대사의 소개로 추사 김정희를 만나 본격적으로 그림을 익히게 된다. 소치의 좋은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좋은 후원자들을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이 현종 임금이다. 소치는 42세 때 현종 앞에서 어묵을 이용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이에 감복한 현종은 소치에게 300금(약 1천만원)을 후원하였고 이 후원에 힘입은 소치는 마음껏 재능의 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道家中에서 도를 닦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데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이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다. 法(훌륭한 스승), 財(수양기간 의식주 해결 정도의 재물- 후원자), 地(자신의 기운을 보전 해 줄 수 있는 암자-주변환경, 侶(함께 공부하는 同儕)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스승은 책에 나오지 않은 부분, 곧 체험으로 터득한 현묘하고 심오한 부분까지 구전심수(口傳心授)가르쳐 주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깊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때문에 좋은 스승을 찾아 수 만리를 헤메기도 하는 것이다.

소치가 남종화의 일가를 이룬 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스승 추사였다. 소치가 초의대사의 소개로 한양으로 가서 추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고, 추사는 소치의 그림을 처음보고 한마디 한다.

“그대의 그림이 공재 윤두서,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 등에 버금가는 재질이 있구나. 그러나 이를 뛰어 넘어 화가삼昧境(畫家三昧境)의 경지에 들어서기 위해서 만일 천리의 여행을 한다면 비로소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여행을 권유했다. 소치는 추사의 가르침에 힘입어 전국을 답사하면서 진경산수 등을 그려내는 등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불가의 수행단계는 처음에는 독서 10년, 참선 10년, 마지막으로 여행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행을 만행(萬行)이라 하고, 이 萬行을 중요시 여긴다. 이는 여행 중 필연적으로 조우(遭遇)하게 되는 온갖 인간의 삶과 명산대천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은 완숙의 경지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추사의 가르침 덕인지 소치는 이후 수많은 여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연과 여행이 얼마나 소중한 가를 알 수 있다.

우리 말속(한자어)에 담긴 文化

餘桃之罪 / 射琴匣

菽麥不辨 / 興清羌청 / 南山歌,

法대로.... / 彼場과장 / 쥐빨도.....

還鄉女 / 屈非(石首魚) / 骨利水 / 理判事判 / 鼎足

魚頭肉尾- 生鮮 有格

빈대/ 평만 춤지/ 평 대신 닭(庶民, 士, 大夫, 卿, 諸侯, 天子)

結婚(處女, 總角, 丈家, 媿宅, 宮合)

野鼠之婚 - 人間의 生命有限, 慾心은 無限(老子)

喪家-叩盆之嘆(哀, 哭, 泣) 哀而苦를 당하시어 喪事말씀...? / 宅內別故...?

處世이야기- 功名雁木間 / 言語龜桑慎

洗耳-堯舜時代 巢父와 許由

• 孔子와 子路 / 직팔(直八) / 一字師訓(일자사훈)

행동이 느리고 우둔한 자에게는 馬, 게으르고 늦잠을 자는 자에게는 鷄, 재치가 넘치고 영

악한 자에게는 愚, 성품이 모질고 배려함이 없으면 仁, 효성이 부족한 듯 싶으면 反哺之孝의 새 烏, 겸손치 못하고 오만하면 恭, 매사를 조급하게 서둘면 천천히 걷는 牛.

• 김삿갓 (金炳淵) 일화/ 석양행객 시장타/ 柳柳花花

竟/ 許多韻字何呼竟 - 彼竟有難況且竟

一夜熟寢懸於竟 - 山村訓長但知竟

壽宴/ 彼坐老人不似人 - 何日何時降神仙

膝下七子皆盜賊 - 截取天桃善兩親

書堂/ 書堂乃早之 - 先生來不謁

• 一覽輒記하는 습관.

• 丁茶山의 名言-항상 記錄하기....

• 朝鮮王朝實錄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

한국음식문화와 남도의 향토음식

김정숙

(이학박사 / 전남과학대학 호텔조리 김치발효과 교수)

목 차

1. 한국음식의 특징
2. 한국음식의 과학성
3. 발효식품의 과학성
4. 한국음식의 비과학성
5. 전통음식의 멋
6. 향토음식
7. 전라남도지방의 대표적인 향토음식과 특산물
8. 「섬진강의 향토음식」 해설 시나리오

1. 한국음식의 특징

1) 조리상의 특징

- (1) 주식과 부식이 분리되어 발달.
- (2) 곡물 조리법 발달.
- (3) 간장, 된장으로 맛을 내고 간을 중히 여김
- (4) 조미료, 향신료의 이용이 비슷하게 사용
- (5) 약식동원(藥食同源)의 조리법 우수.
- (6) 궁중음식, 반가음식, 향토음식의 조리법 발달.

2) 제도상의 특징

- (1) 유교의례를 중히 여기는 상차림이 발달.
- (2) 일상식에서는 독상 중심
- (3) 조반과 석반을 중히 여김

3) 풍속상의 특징

- (1) 의례와 공동식의 풍속이 발달
- (2) 조화된 맛을 중히 여김
- (4) 풍류성이 뛰어남
- (5) 저장식품 발달

2. 한국음식의 과학성

1). 감식(減食)과 장수의 과학성

1800년대 [규합총서]라는 책에는 “음식으로 의약을 삼아 나날이 부치듯하게 먹어야 하니...” 식사제한과 운동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미국 국립 동물학 연구센터 <론하트 >박사는 식사량을 70% 줄인 쥐와 100% 먹는 쥐의 수명을 비교 . 전자가 후자보다 50% 이상 오래 사는 것을 확인했다. 121세 세계 최고령 불란서의 <갈망 >할머니도 장수비결을 소식(小食)이라고 한다

2) 절식의 과학성

(1) 부럼음식의 과학성

부럼으로 먹는 견과류 속에는 필수지방산, 리놀렌산 즉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여 혈청내 콜레스테롤을 저하 시키며,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생밤에 있는 비타민 C는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준다. 호도나 잣에는 백미 편식으로 균형이 깨지기 쉬운 겨울철의 우리 식생활에 훌륭한 영양식이다.

(2) 오곡밥과 진채식(陣菜食)의 과학성

오곡밥은 찹쌀 , 찰수수, 차조, 콩, 팥 등으로 지은 밥이며, 약식은 찹쌀을 찌서 대추, 밤, 참기름, 꿀, 간장 등을 섞어 다시 찌서 잣을 박은 것이다.

묵은 나물은 박오가리, 버섯, 무, 가지, 무청 등을 말려 두었다가 삶아서 먹는 것이다.

백미 편식에서 오는 영양장해를 막기 위하여 잡곡을 주로 한 오곡밥을 먹어 주식의 영양 균형을 높이고, 묵은나물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로 변비와 암발생의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3) 입춘절식인 오신반방(五辛盤方)의 영양적 의의

입춘에는 경기도 산간 여섯 개의 읍에서 나는 움과, 산기, 신검초, 미나리, 무쌈 등의 5가지 매운 맛이 나는 채소를 조리해 먹으면서 새봄의 뜻을 새로이 하였다. 이는 생채소가 부족했던 겨울을 지내고 난 후의 비타민 C의 섭취와 섬유질 섭취의 필요성을 생각하여도 합리적인 식습관이라 할 수 있다. 산채나물은 열량식품은 아니지만 철분, 칼슘, 칼륨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 A, C의 보고이다. 곡류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섭취로 우리 식생활의 균형과

과학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이 같이 절식문화는 농경의례, 민간신앙, 벽사, 계절적인 생산성, 보신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3) 식품배합의 과학성

(1) 혼식의 과학성

잡곡밥, 콩나물밥, 고구마밥, 감자밥

(2) 무시루떡의 과학성

쌀에 없는 아스코르빈산을 무에서 보완해주고 무에 아밀라제가 많으므로 소화를 돕는다. 떡을 썰 때 칼을 무조각으로 닦는 것은 떡에 묻은 전분이 아밀라제에 의해서 당화되어 가용성이 되는 것이다.

(3) 쇠고기 산적의 과학성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상승작용 뿐 아니라 육류에 많은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레티닌(lentinen)이라는 성분이 표고에 함유되어 있다. 그밖에도 표고에는 비타민 C, B2인 에르고스테롤이 많다. 육류와 버섯을 배합하는 적, 전골 등은 훌륭한 배합이다.

(4) 고기양념의 과학성

고기의 지방산은 포화지방산으로 혈청내의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게 된다. 참기름은 리놀레인산 등의 불포화지방산으로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고기에서 오는 콜레스테롤의 피해를 상쇄시켜준다. 깨는 칼슘, 철, 비타민 B1, B2 도 많고 변비 치유에 효과가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소화를 촉진, 콜레스테롤의 함량 감소, 체력을 증진, 대장균등의 번식이 억제되는 방부효과가 있다. 특히 돼지고기의 지방산은 쇠고기에 비해서 불포화지방산이 많고 비타민 B1이 쇠고기 보다 8~10배 많아 돼지고기와 마늘과의 배합은 과학적이다.

(5) 미역국, 김구이의 영양성

미역에는칼슘(Ca)의 함량이 많고 인(P)과의 함량비율이 좋다. 마른 미역 100g 중 20 ~190 mg이 있다. 미역과 참기름의 배합이 영양적이다. 미역에 있는 요오드와 무기질은 산모의 혈액 정화와 회복을 돕는다.

김에 기름을 바르면 -카로틴의 지용성비타민의 흡수에 유리하다.

4) 아침식사의 과학성

아침식사를 중요시하는 것은 생활리듬면에서 과학적이다. 아침을 먹지 않고 격무에 시달리면 저혈당증에 걸리기 쉽다. 혈액 속에는 0.1%의 포도당이 항상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의 공급없이 활동하면 일에 의욕이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아침식사를 거르거나 빈약한 아침식사를 한 어린이들은 쉬 피로하고 주위가 산만하며,학업

성적이 저조하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 보다 여러 끼니로 나누어서 섭취하는 것이 혈액콜레스테롤과 인지질이 감소된다. 어느 한 끼니를 거르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3. 발효식품의 과학성

I) 김치

각종채소의 신선한 향미, 소금의 짠맛, 향신료의 맛, 발효로 인한 산미, 복합발효미, 씹힘 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쌀밥과 궁합이 잘 맞는다. 젖산균에 의한 정장작용, 채소의 카로틴, 비타민C, 섬유소, pectin 등의 영양소의 공급원이다.

김치의 어원 채소의 소금절임 침채(沈菜).

상고시대 김치류 총칭 지(漬) 장아찌, 오이지 짠맛 강한 것.

(1) 상고시대 - 김치의 태동기

김치 첫 기록 3000년 전. 중국 최초의 시집「시경(詩經)」, 중국 문헌은 김치류를 ‘저’ 우리는 ‘지’.

(2) 삼국시대-김치의 실질적인 등장기

- 중국(6세기)책인「제민요술(濟民要術)」 업초법. 발효지법. 업장지법.
- 삼국지위지동이전(三國志魏志東夷傳) 고구려인 선장양(善藏讓).
- 고구려 안약고분 벽화 우물가 장독대
- 「삼국사기」신라본기 신문왕편: 해(醃)라는 용어 김치류 추정.

(3) 고려 - 김치의 발전기

- 침지(沈漬) 침채(沈菜)
- ‘저’ = ‘딤채’ ‘침채’가 ‘딤채’ 구개음화하여 ‘김채’ ‘김치’
- 나박김치, 산갓김치, 죽순김치 기록.
- 장아찌류, 동치미류, 찐지류의 세가지 형태로 발전

(4) 조선전기 - 김치의 중흥기

- 다양한 농서(農書)의 편찬 채소의 재배기술 향상.
- 외국의 채소가 유입 김치 종류 다양.
- 무, 오이, 가지 등과 양념으로 생강, 마늘, 천초, 산초 등 애용.
- 평(生雉)이용 등 향토성 나타나기 시작.

(5) 조선후기 - 김치의 완성기

- 조선 중기 이후 고추가 유입(16~17세기)
- 18세기에 김치 양념으로 적극 이용.
- 통김치(배추김치) 자리구축.
- 담그는 법: 장아찌형, 물김치형, 소박이형, 쉬박지형, 식해형 김치 등

(6) 현대 - 김치의 세계화

- 옥스퍼드 사전 ‘Kimchi’ 낱말 실림.
- 영국<업저버>지(紙) 김치는 ‘20세기의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 격찬.

- <업저버>지 요리 전문가의 글 김치에는 3대 마력(魔力).
- 로이터통신 뉴스 '동양서양이 융합한 제삼세대의 맛' 김치버거 소개.

2)김치의 우수성

(1)자연 항암제 김치

- 식이섬유: 대장기능 향상. 운동지구력 증진시켜 스테미너 향상 콜레스테롤 흡수 저하.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암, 동맥경화, 당뇨병, 변비, 비만 등 각종 질병을 예방.
- 유산균(김치 1g 속에 8억개): 정상작용, 비타민합성, 유당 및 단백질의 흡수촉진. 병원균·암 저항력 증가.
- 비타민B군 생합성 에너지대사 관여로 신경통, 피로회복, 정력증강
- 현대성인병의 백신.

(2)영양의 보고(寶庫)김치

- 알카리성 식품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막고, 소화작용, 항균작용 다른 균의 이상발효억제
- 우수한 영양식품: 풍부한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섭취.
- 저열량식품

(3) 젊어지는 식품 김치

- 피부노화: 광노화, 유해활성산소
- 배추: 십자화과 채소(플라보노이드, 페놀물질, 함유화합물 풍부) 항산화작용.양념(마늘, 생강, 고춧가루) 강력한 항산화물질 함유 피부의 노화방지, 지연작용

(4) 먹으면서 살 빼는 다이어트

- 날씬한 몸매 = 아름다움 = 섹시
- 김치의 섬유질: 포만감. 에너지 섭취량 감소.
- 김치다이어트 신드롬 확산 일본 NHK방송

체질별 다이어트김치

몸에 열이 많은 체질	몸이 차가운체질
무김치, 백김치, 동치미, 물김치, 젓갈이 많이 들어간 김치	고추등의 매운양념이 들어간 배추김치, 생강이 많이 들어간 김치 등

김치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10가지 이유

- (1)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공급
- (2) 피부를 아름답게하는 효과
- (3) 위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기능
- (4) 소화기능을 활성화시켜 배변촉진
- (5)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 (6) 철분을 섭취로 빈혈예방
- (7) 항암작용
- (8) 땀의 배출로 노폐물을 제거
- (9) 지방의 축적을 막고, 축적된 체내 지방연소
- (10)피하지방의 연소에 필요한 근육생성

(5) 약으로 쓰인 고추

- 고추(캡사이신):비타민 A,C 풍부. 비타민C는 사과 20배, 귤의 2배.
(피부탄력, 각질, 멜라닌 제거)
- 지방연소, 혈액순환 촉진. 살균과 정장작용. 소화작용.

(6)양념대장 마늘

* 스테미너 식품 마늘

- 불로장생의 효과. 항산화물질함유
- 암예방, 혈액순환 개선, 저항력증진.
- 비타민 B1 · 단백질 흡수로 영양섭취,피로회복작용
-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정력강화시키는 효능이 뛰어나다 고 했다.
- 체력증진작용.

* 마늘의 살균력

- 알리신:페니실린보다 강한 살균작용. '러시아페니실린'
- 석탄산보다 약 15배 강한 살균력.
- 항산화, 항균, 항암, 노화방지작용 ,동맥경화 · 혈전예방작용

3) 장류의 영양가와 과학성

(1) 메주의 영양가

장류의 기본은 메주이다.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대두의 구성성분인 단백질, 전분과 같은 물질이 분해되어 구수한 맛, 단맛을 내게되며 효모와 젖산균에 의해 특유한 향미 성분이 생성된다. 콩이 3개월 후 메주 발효로 리포블라빈 함량은 2~3배, 효소의 가치도 증가하고 단백질의 함량도 20% 이상 상승된다.

(2) 간장의 영양가

간장의 영양은 메주의 성분, 제조방법, 저장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간장은 소금 이외의 아미노산, 당분, 유기산,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고 짠맛과 함께 특유한 향기가 조화된 양념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

(3) 된장의 영양가

한국의 전통 식생활에서 중요한 단백질의 공급원이다. 된장의 성분은 단백질 12%, 지질 4.1%, 당질 10.7%, 섬유소 3.8%, 회분 17.9% 비타민 B1 0.04mg%, B2 0.2mg%이다. 곰팡이독의 오염물질인 아플라톡신(aflatoxin)은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콩단백질의 발효 생산물인 암모니아, 아미노산, 갈색색소, pH의 증가, 햇빛, 습의 첨가 등에 의해 파괴 제거된다.

(4) 고추장의 영양가

고추장은 원료가 멥쌀가루, 찹쌀가루, 보리가루, 밀가루에 엿기름을 붓고 죽을 쑀어 메주가루,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발효시킨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 조미료이다. 영양가는 간장, 된장에 비해 비타민 B복합체의 함량이 높고, 비타민 C 5mg, -카로틴 14mcg로 항산화력이 있다.

(5) 젓갈의 영양가

젓갈은 양질의 단백질과 각종 무기질,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는 영양식품이며 독특한 풍미

를 가진 기호식품이다. 상온에서 3개월 발효 시키면 가장 좋은 맛을 낸다. 발효중 일어나는 성분변화가 맛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 염도가 10~12%로서 식염을 과대하게 섭취하는 한국인에게 문제가 되므로 저염젓갈의 가공법이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4. 한국음식의 비과학성

1) 상차림의 비과학성

음식점 등에서 내놓는 식단은 영양적인 배합의 고려보다는 가짓수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식생활 방법은 비경제적, 비위생적이며 작업면에서도 에너지 낭비와 영업능률을 저하시킨다. 한 그릇의 밥을 먹기에 필요한 반찬으로 영양과 색을 고려하여 몇 가지 음식만 장만해야 한다. 표준식단, 표준조리법, 재래식단의 간소화, 한 그릇 음식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식품금기의 비과학성

임산부, 수유부는 정상인보다 많은 영양섭취와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 없는 속설로 식품금기의 악풍이 있다.

오리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문어, 오징어, 돼지, 개, 달걀, 오리알 등 이 금기식품이었다.

3) 젓갈의 비과학성

장기간 저장을 위하여 염도 20% 이상으로 버무리고 옷소금을 뿌리게 되므로 밥을 많이 먹게된다. 탄수화물의 과잉섭취와 염분의 과다 섭취로 성인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적은 양을 섭취해야 한다.

5. 전통음식의 멋

1) 상차림의 멋

첩수 :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의 상차림은 상, 반상기, 음식 등이 멋.

상의 모양 : 원반, 책상반, 연엽반, 반월반 등 모양이 다양

상의 색 : 검은 흑칠반, 붉은주칠반

상다리모양 : 호족반, 구족반, 죽절반,

그릇

-봄, 가을 : 나무그릇

-여름 : 사기그릇, 질밥통에 밥을 푸고 대소쿠리에 넣어 베보자기로 덮어둔다.

-겨울 : 유기그릇, 은그릇

상보, 주발보도 철따라 다르고, 수저집에는 곱게 수를 놓아 정성이 담겨있는 예술품이다. 아이의 수저집에는 장원급제, 장원축수, 일갑일명(一甲一名) 이라는 글을 수놓고 어른의 수저집에는 백년동심(百年同心)을 수놓았다.

음식은 복(福), 수(壽) 등의 글자가 새겨진 뚜껑을 덮었다. 식지 않은 음식부터 하나하나 뚜껑이 벗겨지면서 음식의 색을 감상하고 맛있는 냄새를 맡아가며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는다.

우리 음식은 먹기 전에 보기만 해도 만족하고, 먹을 때 만족하고, 먹은 후에 포만감과 개운한 발효미가 입안에 그득함에 만족하는 멋이 있다. 반상차림은 우리 전통음식의 조화된 멋이다.

2) 양념과 고명의 멋

음식을 배우려면 우선 양념 손질법부터 배워야 한다. 파, 마늘을 양념으로 쓸 때는 양념은 보이지 않고 맛만 내야 한다. 굵게 다져 양념 자체가 튀어나면 색깔이나 모양이 갖는 멋을 해친다. 양념을 곱게 만드는 것은 정제된 멋을 우러나게 하는 바탕이다.

모든 음식 위에는 고명을 얹는다. 음식의 품위는 고명에서 드러난다. 고명은 음양오행설에 관련된 5가지색을 쓴다.

흰 색 : 달걀흰자지단, 잣가루, 통자, 통깨, 호도

노란색 : 달걀노란지단

빨간색 : 실고추, 다홍고추

검정색 : 목이버섯, 석이버섯

푸른색 : 실파, 은행, 미나리초대, 숙갓초대

갈 색 : 고기완자, 표고버섯, 감국잎

고명은 한 두가지 또는 여러 가지를 얹어 멋을 내며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통음식의 멋은 그릇에 음식을 풍성하고 먹음직스럽게 담는다. 그 담은 모양이 마치 산봉오리 모양을 담고 그 위에 고명을 얹어 산봉오리에 꽃이 피어 있는 느낌을 준다.

3) 계절음식의 멋

우리 음식은 사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때에 맞추어 먹는 음식은 갓나온 신선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과학적인 음식이다.

봄 : 두릅, 산나물, 진달래화전, 숙국, 조기국, 숙떡

여 름 : 콩국수, 냉면, 화채, 편수, 민어찌개, 보리수단

가 을 : 국화전, 송편, 토란탕, 닭찜, 배화채, 유자화채, 송이산적

겨 울 : 신선로, 만두, 떡국, 매화차 등

일년 내내 밥상에 오르는 음식은 한해동안 농사로 지은 농산물의 집합소이다. 자연과 인간과의 지혜로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옛 선조들의 꽃을 보는 눈은 색달랐다. 그 꽃의 화사하고 아름답고 요염한 것을 취하지 않고 그 꽃의 지조를 보고 품격을 매겼다. 꽃의 품격은 9품으로 나누고 그 뜻을 취하였으니 진달래는 5품이었다. 진달래가 메마른 땅에서 자라 오로지 북쪽을 향해서 피는 것을 절개를 지키는 신하의 일편단심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절개 있는 진달래는 춘궁기에 굶주린 백성의 음식으로 병든 중생에게 약주가 된다. 꽃에 베풀까진 주고 먹기도 하는 한국인은 자연을 인간화하고 인간을 자연화 하는 멋진 민족이다. 3월 삼짇날은 진달래꽃을 먹는 시기이다. 진달래화전, 진달래화면, 진달래술.

3월에는 진달래떡, 4월에는 느티떡, 5월에는 수리취떡, 삼복에는 장미화전, 9월에는 국화전으로 연중시식으로 먹어왔다. 꽃을 감상하고, 아름다움을 시로 읊으며, 꽃을 먹기까지 하는 멋을 지닌 민족이다.

계절음식의 멋과 풍류를 [규합총서]에서는 “선달이 지난 후 대칼로 반만 핀 매화봉오리를 따서 말려 꿀에 넣어둔다. 여름햇빛 내리쬐일 때 시원한 꿀물에 매화를 넣으면 꽃이 동동 뜨고 맑은 향기가 사랑스럽다. 국화도 이 방법으로 한다.”고 하였으니 매화차, 국화차의 멋을 즐겼음을 알 수 있다.

4)차의 멋

작설차, 매조차, 우전차. 이름부터 멋지다. 차의 멋은 향과 색에 있다. 차의 향을 순향, 청향, 란향, 진향으로 표현한다.

차의 색은 맑고 푸르러야 한다. 잔에 눈발이 떠오르는 물빛을 상으로 친다. 차의 맛은 보드레하고 향기가 그윽하며 묵직한 느낌을 주고 목안에 매끄럽게 삼켜지는 맛이 있어야 한다. 차에는 맵고, 시고, 쓰고, 떫고, 달고 하는 5미가 있다. 이 다섯가지 맛이 잘 융화된 것을 간이 맞는다고 한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것이다.

다기의 색과 선, 찻잔받침과 찻잔의 조화, 차의 선택, 차 끓이는 물의 택수와 온도, 찻잔의 예운, 차우려내기, 차 따르기, 차 마시기 등의 차일(茶事)에서 어느 하나 멋이 없는 것이 없다. 뛰어난 물 감식감각이 발달한 민족이다.

5) 술의 멋

빛는 멋

한국의 술은 풍류가 있다. 집집마다 가양주를 빚어 그 집안 특유의 술맛을 자랑한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술맛을 낸다. 술의 재료는 곡물, 누룩, 물이다.

술빛는 물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깨끗한 물을 끓이고 식혀서 쓴다. 샘물, 청명일이나 곡우일에 흐르는 강물, 가을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 술을 빚는다. 이슬로 빚은 술도 있다. 꽃에 맺힌 이슬을 털어 그 물로 술을 빚는 멋을 지닌 민족은 우리 민족 뿐일 것이다.

봄에는 홍도화에서 이슬을 털어 빚은 홍도주로 홍도음(紅桃飲), 초여름에는 장미주로 장미음, 여름에는 새 술앞에서 턴 이슬로 빚은 벽송주로 벽송음, 가을 이슬로 빚은 추로주(秋露酒)를 술 가운데 향과 맛에 제일로 좋은 술로 쳤다.

마시는 멋

혼례 때는 합근박에 술을 담아 일심동체를 맹약하고, 혼례 후에는 신방의 천장에 걸어두어 둘 사이의 애정을 보증하고 감시하는 사랑의 마스크트로 삼았으니 낭만적이 멋이다.

술마시는 예의가 있어 주도가 엄했다. 향음주례와 회음(경주 포석정)으로 회음은 공동체 의식을 결속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연회장에는 풍악이 은은히 울려 퍼지면서 화사한 멋을 풍긴다. 술을 권할 때도 기생이 권주가를 부르며 술을 권했으니 얼마나 유유자작한 멋인가. 술의 빛깔을 표현할 때는 술빛이 파랗다. 술빛이 댕잇갈다. 술빛이 아름답다. 술이 아름답고 냉수같다 등으로 표현하였다. 막걸리를 동동주, 개미주.

6) 송편의 멋

한국의 나무, 소나무.

나무의 기를 가진 나무로 간의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며 눈을 밝게 해주는 기운을 가진 나무 술잎주, 송순주, 송령주, 와송주 등 소나무를 이용한 술을 3년만 마시면 움직일 때마다 술 향기가 난다 했다. 송화수, 송화다식.

송편(松餅)은 술잎을 커켜로 놓고 찜으로 소나무의 무늬가 나며 술잎의 그윽한 향기가 나는 떡이다. 술잎 붙은 채로 보관하면 서로 붙지 않는 역할도 한다. 송편을 먹으면 소나무처럼 건강해지는 끈기가 생기며 지기(志氣), 절개, 정조가 강해진다고 여겼으므로 어린아이의 백일이나 돌상에는 반드시 오색송편을 놓았다.

쑥송편, 모시잎송편, 송기송편 등.

쑥을 넣은 송편을 술잎자국이 나고 술잎향이 남도록 찌내는 것은 한국음식의 멋이다.

6. 향토음식

인간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이다. 음식은 생명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문화이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고유한 역사의 흐름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어온 민

족특유의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가 다양하고, 각각 영토의 경계가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왕조가 교체할 때 도읍이나 도시의 발달이 지역적으로 다양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각 지방의 향교를 중심으로 사림문화가 성행하고 농촌사회의 부농층이 확대되어 향토문화가 신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함께 향토음식이 발달되었다. 먹는 음식을 알면 민족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전통음식은 맛과 멋이 어우러진 독특한 우리만의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전통음식과 그 속에 차지하는 남도의 맛에 대하여 돌아보는 것은 지구촌 시대에 우리 음식문화가 나아갈 길을 제시 해줄 것이다.

1). 향토음식의 개념

그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갖고 생산되는 지역 특산물로 그 지역에서만 전수되어 오는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토속민속음식이다. 과거로부터 현재에까지 그 지방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 북부지방은 산이 많아 밭농사를 주로하여 잡곡의 생산이 많고 서해안에 면해 있는 중부와 남부지방은 쌀농사를 주로 하므로 북쪽지방은 잡곡밥을, 남쪽지방은 쌀밥과 보리밥을 먹게되었다.

평상시의 찬은 대부분 채소류가 중심이고, 산간지방에서는 육류와 생선류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말린생선, 해초, 산채를 사용한 음식이 많고, 해안이나 도서지방은 바다에서 얻은 생선이나 조개류, 해초가 찬의 주된 재료가 된다.

북부지방은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어서 음식의 간이 남쪽에 비하여 싱거운 편이고 매운 맛도 덜하다. 음식의 크기도 큼직하고 양도 푸짐하게 마련하여 그 지방 사람의 품성을 나타내준다. 반면,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음식의 간이 세면서 매운 맛도 강하고 조미료와 젓갈을 많이 쓰는 경향이다.

첫째, 지방에서 생산되는 특산재료를 사용하여 그것에 적합한 조리법에 의해 발전시킨 음식(예 : 영광굴비)

둘째, 그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거나 타지방으로 부터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적합한 조리법에 의해 발전시킨 음식(예: 춘천막국수, 속초오징어순대)

셋째, 흔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조상들의 생활형태, 기후풍토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특유의 조리법이나 타지방과 차별적으로 발전한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시킨 음식(예: 충무김밥)

넷째, 옛날부터 그 지방행사와 관련하여 만든 음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음식(예: 선농단탕(오늘날의 설렁탕))

향토음식을 분류할 때 보통 한반도를 남북한을 통털어 10개 지방으로 나눈다. 서울지방, 경기도지방, 강원도지방, 충청도지방, 전라도지방, 경상도지방, 제주도지방, 황해도지방, 평안도지방, 함경도지방이다.

2) 전라도지방 음식의 특징

전라남도땅은 어느 지역보다 봄이 일찍와서 일조량이 길고 해풍을 쏘이며 자라 모든 작물은 맛이 부드럽고 깊다. 또 크고 작은 강과 많은 시내물로 땅은 기름지고 붉은 황토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당도와 고유의 맛을 순도 높게 보전하고 있다. 서남해안의 넓고 깊은 빨밭에서 자란 해산물은 차지고 달며, 바닷물과 민물이 혼합되는 지역에서 자란 조개류에는 깊은 맛이 있다.

이런 천혜의 조건이 갖추어진 남도의 맛깔스러운 많은 음식 맛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남도음식은 '맛과 멋이 어우러진 격이 있는 음식으로 풍류정신을 낳는다'고 한다.

남도의 음식은 맵고 짜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젓갈이나 흥어처럼 삭혀서 먹는 것이 많고, 밑반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북지방의 음식은 싱겁지만 인심은 짜고, 전라도 지방의 음식은 짜지만 인심은 싱겁고 넉넉하다"고 음식맛으로 인심을 비교한 선비도 있다.

전라도음식의 특징으로는 음식이 사치하고 상차림의 가짓수가 많다. 처음 방문한 외지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된다. 이는 기름진 호남평야와 풍부한 곡식, 각종 해산물, 산채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산물이 많아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또 음식에 정성을 많이 들여 화려한편이다.

특히 전주는 조선왕조 전주 이씨의 본관이며, 광주, 해남은 부유한 토반(土班)이 많았다. 각 고을마다 부유한 가문의 좋은 음식이 대대로 전수되어, 풍류와 맛의 고장이라고 일컫는다. 특히 음식솜씨를 닦아 온 훈인의 이바지 음식이 화려하게 발달했다.

한과와 부각(자반)종류가 많다. 가죽자반, 김, 갯잎, 갯송이, 동백잎, 국화잎 등을 찹쌀풀을 발라서 말리고, 다시마는 찹쌀 밥풀을 붙여서 말린다.

남해와 서해에 접하여 있어 해산물과 젓갈, 발효음식이 아주 많다. 김치와 젓갈이 수 십 가지이고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도 발달했으며, 장아찌류도 많다. 김치를 지(漬)라고 하는데 백김치(백지) 외에도 무, 배추 뿐만 아니라 갓, 파, 고들빼기, 검들, 무청 등으로도 김치를 담근다. 전라도 고추는 매우면서도 단맛이 나며, 멸치젓, 황석어젓, 갈치속젓, 등의 젓갈을 넣는다. 기르는 방법이 독특한 콩나물과 고추장의 맛이 좋고 나주에서는 집장도 담근다.

3) 대표적인 전라도음식

- 주식류: 전주비빔밥, 콩나물국밥, 깨죽, 대합죽, 피문어죽, 고동칼국수
- 부식류: 두루치기, 붕어조림, 꼬막무침, 꼴뚜기젓, 추어탕, 광주애저, 용봉탕, 흥어어시육, 죽순채, 흥어회, 꽃게장, 산낙지회, 장어구이, 죽순찜, 토란탕, 전라도김치, 머위나물, 나주집장, 산채나물, 콩나물냉국, 김자반, 보릿국, 꽃게미역국
- 떡, 과점류: 수리치떡, 호박고지시루떡, 감인절미, 감단자, 차조기떡, 전주경단, 유과, 동아정과, 연근정과, 고구마엿, 장성수수엿, 창평엿,

7. 전라남도지방의 대표적인 향토음식과 특산물

관광이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라남도는 진정 축복 받은 땅이다. 아직 훼손이 덜된 자연과 수를 헤아리기 힘든 유. 무형의 문화재들과 세계적으로도

지역	지명의 상징	향토음식	특 산 물
여수	총무공 정신이 살아있는 한국의 나폴리	노래미탕, 해물영양밥, 해송오리 불고기	돌산갓
무안	반도와 섬의 절묘한 어울림	기절낙지, 돼지고기집불구이	양파, 느타리버섯
함평	넉넉하고 화평한 마을	선지비빔밥	왕골 돏자리, 붓
영광	쌀, 누에고치소금, 눈 - 사백(四白)의 고장	해물전골	영광굴비, 보리쌀
곡성	은어의 향기에 취하는 계곡 마을	은어, 참게요리, 돼지불고기	사과, 대추, 통명산토종꿀
구례	하늘 아래 첫 동네	산채요리	산수유, 지리산 작설차,오이
광양	백운산 고로쇠 나무와 섬진강의 풍요로움	재첩국, 오리고기요리, 오향장육	광양밤, 화훼
장성	바람도쉬어넘는 선비들의 마을	메기요리	사과, 단감

지역	지명의 상징	향토음식	특 산 물
담양	남도의 기개가 서린 대밭의 고장	죽순회	죽세공예품, 창평
나주	젓과 꿀이 흐르는 평야	나주곰탕	나주배
영암	호남에서 으뜸가는 월출산이 있는 곳	짬뽕어탕	참빛, 무화과
장흥	파랑새가 쉬어가는 마을	바지락회	표고버섯, 한과
강진	남도답사의 진정한 맛과 멋	민물장어 구이, 장어	웅기, 파래
해남	바다를 지키는 땅끝마을	표고전골, 표고산적	참다래, 단감
완도	동백꽃과 상록수림이 우거진 어부의 고장	돔회, 전복죽, 미역죽	건자반, 건미역, 김
보성	서편제와 태백산맥의 고장	전어회, 강하주	방울토마토, 느타리버섯, 용문석
화순	더 없이 소박하고 후덕한 땅	미꾸라지 숙회	영지버섯, 참외
고흥	언제나 고향이 그리운 사람들	바다장어 구이, 피문어 보양탕	유자
목포	눈물짓는 항구의 도시	낙지연포	옥공예
신안	섬들의 천국	홍어찜	젓갈류, 맛김
진도	홍해의 기적을 재현하는 보물창고	홍주, 간재미회, 구기자 식혜, 구기자 동동주	구기자, 돌미역, 멸치, 진도대파, 흑미
순천	곳곳마다 밝은 표정이 있는 순환의 땅	추어탕, 빈대떡, 더덕구이, 파전	단감, 고들빼기

손색이 없을 맛과 멋. 유독 남도의 향토음식은 맛깔스럽고 향취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맛을 세계에 내놓아야한다. 그러려면 우리만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야 한다. 눈대중으로 요리했던 맛이 아니라 조리법을 표준화하여 음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전통음식과 향토음식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향토특산식품을 활용한 관광선물용품(향토도시락, 음식, 과자)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심포지움, 강습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음식문화의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복원되고 있는 전통 향토주는 우수한 제품이 많아서 세계적인 명주들과 겨누어 손색이 없을 만큼 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

우리 음식이 세계인이 좋아하는 맛으로 거듭나려면, 외국관광객들이 우리 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일품요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메뉴개발을 해야한다. 또한 표준식단, 재래식단의 간소화, 조리법의 표준화로 음식질의 향상,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의 음식문화의 홍보,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우리 교민들을 통하여 전세계에 전파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식도락의 즐거움과 함께 한국의 맛과 멋을 알리는 것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희, 한국의 맛,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5.
- 한복선, 명절음식, 대원사, 1997.
- 황혜성 외2인, 한국의 전통음식, 교문사, 2000.
- 이호지, 한국의 음식문화, 신광출판사, 1999.
- 문화관광부,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관광부, 2000.
- 김상엽, 양과자와 빵, 하서 출판, 1999

- 권혁세, 익생 양술, 하나로 출판, 1998
- wulf Doerry, Baking Technology, B&C word, 1997
- 이종임, 기능성 식품에 대하여, 조리학회지 제5권 2호, 1999
- Anonymous, chitin and Chitosan, Specialty biopolymers for foods, medicine. and industry

8. 섬진강의 향토음식 해설 시나리오

김 정 속(전남문화관광해설사 음식문화해설가)

해설대상: 맛기행단 및 단체관광객

1) 해설을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문화관광해설사 김정속입니다. 주로 남도음식문화를 설명하는 남도음식문화해설가역할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몇 남지 않은 살아있는 강이라는 섬진강을 따라 가고 계십니다. 섬진강은 곡성에서부터 하동과 광양에 이르는 장장 200km를 구비구비 돌아 흐르는 강입니다. 이런 섬진강을 어떤 시인은 '농악꾼들의 상모끈 같이 춤추는 강'이라 하더군요. 굽이도는 강줄기를 따라 웅기종기 모여 있는 강마을은 뒤로 대숲이나 솔숲을 두르고 있어 어디를 보아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지요.

강은 언제 찾아와도 우리에게 넉넉한 위안과 평안을 주지만 찾아올 때마다 늘 다른 모습입니다. 봄이면 강언덕의 버들가지에서 먼저 봄소식이 전해오고, 여름에는 넓은 백사장에 햇살의 폭포가 쏟아지지요. 가을이면 주욱 늘어선 갈대들의 서걱임. 쓸쓸한 겨울강의 물빛은 시린 잉크빛이랍니다.

저는 오늘 맑고 깨끗한 섬진강의 향토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섬진강의 향토음식 해설

어떤 분은 인간의 세 가지 즐거움을 '마음에 맞는 벗과, 좋은 경치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기'라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나? 그러나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지요?

여러분들은 곧 그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1) 은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섬진강에서 경관이 가장 빼어난 오곡면 압록리를 지나고 계십니다. 순자강과 보성강이 서로 만나는 곳이지요. 흰모래, 맑은 물, 푸른 산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치가 되고, 맑은 물에서만 사는 물고기는 맛 좋은 섬진강의 먹거리가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장 예쁜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은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섬진강 일대는 은어가 유명하지요.

특히 압록 은어는 두 강물이 만나는 천연적인 조건 때문에 독특한 향과 맛으로 궁중의 진상품이었답니다.

은어(銀魚)는 1년 살이 물고기로 10~11월에 강하류에서 산란하는데 부화된 새끼들은 강물 따라 바다로 들어가 월동한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해빙기가 지나 3~4월이면 새끼떼들은 다시 강물을 거슬러 올라 물살이 센데서 자라지요. 연어만 강물을 거슬러 올라 모천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은어도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옵니다. 은어는 강물에 올라온 뒤에는 이끼를 먹고 살아 수박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은어 맛을 본 사람은 으레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은어를 함경도에선 도루묵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여러분들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속담을 아시지요? 그 말이 생긴 유래는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선조임금이 임진왜란 중에 피난을 가셨답니다. 피난지에는 상감마마의 수라상도 별다른 찬이 있었겠어요? 한 백성이 생선을 한 마리 올렸는데 그 맛이 기가막히게 좋더군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었지요.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이나?" "저희들은 그냥 '묵'이고 부릅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묵이라니. 여봐라 대신들은 이 생선에 합당한 이름을 붙여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신들은 논의 끝에 은어라는 이름을 올렸고 임금님은 흔쾌히 그 생선에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하셨지요. 전쟁이 끝나고 환궁한 임금은 어느 날 입맛이 없어 은어를 다시 청하여 잡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요. "아니 이렇게 맛이 없는 생선이 은어란 말이나? 이름이 너무 과분하구나 도로 '묵'이라 해라" 하셨습니다. 산해진미가 가득한 대궐에서 작은 생선의 맛이 예전처럼 맛있게 느껴졌겠어요?

그러나 함경도의 은어와 섬진강의 은어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생선입니다. 함경도의 묵이 아니라 섬진강의 은어는 분명 이름값은 한답니다.

오늘 섬진강의 맛 기행에 오신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십니다. 은어는 산란전인 여름철에 가장 맛이 좋고 아미노산등의 영양가도 높다는데 여름에 섬진강에 오셨으니까요.

은어로는 소금구이나 튀김, 백숙, 조림으로도 애용되나 회맛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춰보시고 묵인지 은어인지는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2)참게탕

섬진강의 맛에서 빼 수 없는 것이 참게탕입니다. 게는 꼬리가 짧기 때문에 재주없는 사람을 게꼬리 같다고 하고, 거품을 내 뱉어 사람이나 동물이 몹시 괴로울 때 부걱부걱 나오는 거품같은 침을 게거품이라 하지요.

게의 종류는 꽃게, 농게, 도적게 등의 바닷게와 민물게 등 종류가 많습니다.

민물게는 강어귀나 강모래 속에 많이 사는데 가을 생식기에 암놈의 등딱지 속에 단맛이 나는 장이 드는데 이 때가 맛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민물게는 날것으로 먹으면 페디스토마에 걸릴 위험성이 크니 꼭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민물 참게로 담근 계장은 별미 중의 별미로 꼽지요. 계장을 담그려면 참게를 항아리 속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뚜껑을 덮어 하룻밤을 둔대요. 그러면 밤새 참게가 찌꺼기를 토해내게 되고 솔로 씻어서 도로 항아리에 담지요. 이때 쇠고기를 날 것을 잘게 썰어 넣으면 게가 고기를 순식간에 먹어 버리는데, 이렇게 고기 먹은 게로 계장을 담그면 맛이 훨씬 좋습니다. 게 항아리에 청장을 끓여서 식힌 것을 부었다가 이를 후에 따라서 다시 끓여서 식힌 후 붓기를 여러 차례 하여 두 달쯤 두면 삭아서 맛이 듭니다. 이 깊은 맛이 바로 참게장맛으로 밥 한그릇을 푹딱 먹어버려 밥도둑이라한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강물이 해마다 줄고, 모래채취, 시멘트 제방공사와 늘어나는 유원지의 식당 때문에 그 유명하던 참게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가 잘 잡히지 않으니 참게젓은 귀하지만 매운탕이나 참게탕만은 아직도 별미로 꼽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잘 먹는다는 것은 하나의 예술입니다. 맛의 연구자는 아니더라도 <맛>을 가려먹을 만한 여유는 갖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식사 후에는 강물에 대숲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풍경의 하나가 되어보시는 것도 좋고, 강마을에 서서히 어둠이 깔리 것이나,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아침에 바람에 은비늘처럼 뒤척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유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설 마무리

여러분들은 지리산과 백운산을 사이로 굽이돌아 흐르는 섬진강을 맛보셨습니다. 섬진강은 어느 계절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물놀이 할 수 있는 여름도 좋고, 갈대와 가을꽃이 어우러진 가을, 눈내리는 겨울 강도 아름답습니다. 특히 봄날 섬진강변의 풍경은 한폭의 수채화입니다. 강을 따라 죽 늘어선 벚꽃의 행렬과, 흰 구름처럼 화안한 매화꽃, 강물을 지척에 두고 달리는 기차,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강변도로에서의 드라이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섬진강의 기차마을 곡성에서 추억의 기차를 타고 시간을 거슬러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 일 것입니다. 수만평의 갈대와 가을꽃이 어우러진 섬진강 자연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심청축제'와 겸면 '목화축제', 석곡 '코스모스축제' 청정지역에서 키워낸 곡성의 명물인 사탕옥수수과 사과, 메론의 맛은 여행의 즐거움을 배가 시키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섬진강을 찾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하루의 일정이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며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관음사(觀音寺)와 곡성심청(谷城沈淸)

안 형 식

(곡성군 관광개발사업단장)

목 차

관음사사적기

1. 성녀 원홍장(元洪莊)의 효심(孝心)
2. 홍장(洪莊)의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3. 두 번째 성녀 성덕(聖德)과 관음사(觀音寺)

관음사(觀音寺)와 곡성심청(谷城沈淸)

관음사(觀音寺) 개요

관음사 연기설화 (觀音寺 緣起說話)

관음사에 얽힌 다른 이야기들

곡성심청(谷城沈淸)의 부활

곡성군의 심청사업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군

관음사사적기(觀音寺事蹟記)

한글로 번역된 관음사사적기는 현재 6종류가 소개되고 있다. 전반적인 줄거리는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번역자나 찬자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이고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한글본은 원문에 충실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1. 성녀 원홍장(元洪莊)의 효심(孝心)

대홍이라는 고을에 홍장(洪莊)이라는 장님의 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원량(元良)은 소년(少年)에 그만 눈이 멀었다. 비록 눈이 멀었으나 양반의 후예로써 행실이 청렴 강직하고 기개가 고상하여 언어범절이 조금도 경솔하지 아니하니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는 바였으나 불행은 겹치는 것이라고 한다더니 성품이 현숙하고 민첩하여 바느질과 품팔이로 앞 못 보는 자신을 봉양하던 부인이 그만 산고 끝에 먼저 세상을 뜨니 앞도 못 보는 장님의 처지로 어린 딸을 등에 업고 이집 저집 젓동냥으로 키운 딸이 홍장이었다.

홍장 또한 성장하면서 성품이 현숙하고 민첩하여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부축해 드렸으며 그의 봉양이 극진하여 모든 범절에 있어 비범(非凡)한데가 있었다. 홍장의 효성이 이러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대효(大孝)라 칭송해 마지 않았으며, 나라 안에는 소문이 자자했고 멀리 중국땅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그러한 어느 날 장님 원량은 밖에 나갔다가 마침 홍법사(弘法寺) 화주승 성공대사(性空大師)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공스님은 원봉사를 보더니 “당신과 함께 금강불사(金剛佛事)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부디 큰 시주가 되어 주시오.” 라고 말하였다. 원봉사는 갑작스런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생각해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으므로 조용히 대답하기를 “나는 보다시피 앞을 못 보며 더구나 가난한 처지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위하는 시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였다.

화주승 성공대사는 다시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소승이 금강불사의 원을 세워 지성으로 백 일기도를 봉행하여 마지막 회향하는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부처님께서 현몽하시기를 ‘내일 기도를 마치고 길을 나서면 반드시 장님을 만날 것이다. 그는 이번 불사에 대단월(大檀越 : 큰시주)이 될 것 이니라’ 하셨으므로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원봉사는 말을 듣고 한참동안생각에 잠겨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집에는 곡식 한줌 없고 밖에 나가 봐야 내 땅 한 뼉 없는 처지인데 무슨 수로 시주를 할 것입니까? 다만 나에게 딸린 것이 있다면 딸 자식 하나가 있을 뿐인데 아이로써 금강 같은 불법에 선근 인연이 되고 혹시 대작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데리고 가서 좋은 도리를 생각해 보시오....” 라고 하였다.

홍장의 나이 이때 불과 열여섯이었다. 이리하여 화주승 성공대사는 무한 감사의 예를 올리고 원봉사를 따라 그의 오두막으로 갔으며 아버지 원량은 성공대사와의 언약한 사연을 딸에게 말해 주었다. 홍장은 일생 아버지를 봉양할 생각이었으나 아버지와 자신의 앞날이 걱정되어 애통하게 울었으며 원량 역시 기막힌 심정이 되었다.

실로 산천초목도 울고 일월도 빛을 잃은 듯 하였으나 나는 새와 달리는 짐승 또한 슬피 울 부짖는 듯 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지극한 효심은 곧 불심으로 나타났음인지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급기야는 아버지를 하직하고 성공스님을 따라 나섰다.

아버지인 장님과 딸 홍장의 작별을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서 마을 사람들도 길을 메우며 웃기를 적시었다. 홍장은 성공스님과 길을 나서며 뒤돌아 보이는 고향 마을과 평생 모시려 하던 아버지도 이제는 영영 이별이라고 생각하니 아득하기만 하였다. 난생 처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너무나 오래 걸은 탓으로 피로에 지쳐 바자가 보이는 소랑포(蘇浪浦)에 이르러 잠시 쉬어 가기로 하였다.

홍장과 성공스님은 서쪽 바다를 향하여 쉬고 있었는데 바다 저 멀리 수평선 위에서 붉은 배 두척이 나타나는가 하더니 질풍같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화살처럼 순식간에 나루에 다다른 배는 모두 진(晉)나라의 배였고 배에는 금관옥패(金冠玉佩)와 수의를 입은 사자(使者)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언덕에 앉아 있는 홍장에게 공손히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며 “참으로 우리 황후(皇后)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홍장은 물론 화주승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홍장은 얼굴빛을 고치고 “여러분께서는 어디서 오신 어른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저희는 진(晉)나라 사람입니다. 영강 정해년 오월 신유일(永康 丁亥 300年 五月 辛酉日)에 황후(皇后)께서 붕거(崩去)하셨는데 이로부터 성상(聖上)께서는 늘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더니 하루는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성상의 새 황후 되실 분이 이미 동국(東國)에 탄생하여 잠성하셨고, 단정(端正)하기로는 전 황후보다 더 하시니 이미 가신 이를 생각하고 과히 슬퍼하지 마시오.’ 하고 현몽하시매 성상께서는 꿈에서 깨어 날이 밝자 곧 폐백(幣帛) 4만단(四萬端)과 금은진보(金銀珍寶) 등을 갖추어 이 두 배에 싣게 한 다음 상(相)을 잘 보는 상사(相師)를 선발하여 사자(使者)로 삼아 신칙을 내리시되, 동국(東國)으로 달려가서 황후를 맞이하라 하시었으므로 소신(小臣)등이 외람되이 상명을 받자와 본국을 떠난 이래 숙야(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로 근심 하옵더니, 이제 다행히 성의(盛儀)를 여기서 뵈옵게 되었나이다.”

사자의 긴 사연을 듣고 난 홍장은 길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 한 몸이야 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소. 그런데 갖고 오신 폐백이 얼마나 되옵니까?”

“예, 저기 두 배에 가득 실은 것이 모두 값진 보물이옵니다.”

홍장이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옵고 아버님을 위하여 선근종자(善根種子)를 심어 드리기 위하여 부처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그러하오니 저 두 배에 싣고 오신 폐백을 소녀 대신 이 화주승께 드리시면 기꺼이 따라 가오리다.” 하였다. “예, 분부대로 거행 하겠나이다.” 이 때, 화주승 성공대사는 참으로 부처님의 가호라고 기뻐하면서, “홍장 아가씨! 아버님의 일은 염려마시고 가십시오. 소송이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싣고 온 보물을 모두 흥법사로 가져가게 하고 홍장은 중국 진나라 사신을 따라 진나라로 가게 되었다.

2. 홍장(洪莊)의 신심(信心)과 원력(願力)

홍장이 진나라에 당도하여 궁 안으로 들어가 진나라 황제(皇帝)를 배알하였으니, 그녀는 둥근 달 같은 얼굴 모습에 별빛 같은 두 눈이 반짝였으며, 덕(德)과 지혜(智慧)를 갖춘 모습이 진실로 황후(皇后)의 기상(氣象)이었다.

바다 한 모퉁이에 있는 동국(東國)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란 말인가. 진나라 황

제는 찬탄해마지 않았다. 궁중에서는 새 황후를 모시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황후가 된 홍장은 품성이 단아하고 자애로운 위의(威儀)를 갖추었으므로 황제의 총애가 날로 더해갔으며 홍장 황후는 항상 정업(淨業)을 닦고 행하기에 힘쓰니 나라가 편안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가 줄어들어 온 나라 백성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내 비록 타국(他國)의 보위에 오른 몸이지만 어찌 조국을 잊을 수가 있으리오. 그리하여 그는 오십삼불(五十三佛)과 오백성중(五百聖衆), 십육나한(十六羅漢)을 조성하도록 한 다음, 세척의 석선(石船)에 실어 본국에 보내니 그 배는 감로사(甘露寺) 앞 포구에 닿았으며 이를 감로사에 봉안하였다. 이와 같이 불교에 대한 신심도 너무나 훌륭하였다.

그 뒤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황태자로 하여금 탑을 조성하게 하여 금강사(金剛寺)에 모셨으며 또, 풍덕현(豐德縣 : 현재 京畿道 開豐郡) 경천사(敬天寺)에도 모셨다.

이렇게 본국을 위하여 공덕을 쌓은 한편 홍장 황후 자신의 원불(원불)로서 관음성상(觀音聖像)을 조성하여 조석으로 발원하여 모시다가 고향을 그리는 사무친 마음으로 석선(石船)에 실어 동국(東國)으로 띄워 보내면서 서원하기를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인연 따라 제 고향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자비와 지혜를 주시고 정업을 닦아 소원을 성취케 하여 주소서...” 하는 원력을 세워 배를 띄웠다.

그 배는 바다에 표류하기를 한해 만에 홀연히 바람을 따라 낙안(諾安) 땅 단교(斷橋) 곁에 정박(碇拍)하게 되었다. 얼마 안되어 이 땅을 지키던 수비병들이 수상한 배로 의심하여 추격하여 붙잡으려 하였으나 관음성상(觀音聖像)을 실은 석선이 스스로 움직여 바다 멀리 가 버렸다.

3. 두 번째 성녀 성덕(聖德)과 관음사(觀音寺)

이 때 옥과(玉果 : 현재,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사는 성덕((聖德)이라는 처녀가 우연히 집에서 나와 해변에 이르렀는데 저 멀리 해운중(海雲中)에서 한 척의 석선(石船)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치 이쪽에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배를 바라보고 있던 성덕은 깜짝 놀랐다. 그 돌배 안에는 관음금상(觀音金像)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덕은 문득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디로든 좋은 자리를 찾아 모셔야 할 것 같아서 먼저 몸을 단정히 하여 예배를 드리고서 관음상을 등에 업으니 가볍기가 홍모(鴻毛 : 아주 가벼운 것, 기러기의 털)와도 같았다. 성덕은 관음상을 업고 낙안을 출발하여 고향인 옥과 땅으로 향하는데 도중에 열두 개의 정자(亭子)를 만나 쉬어갔다.

처음 쉰 정자는 그 이름조차 알 수 없고 두 번째 쉰 정자는 대취정(大鷲亭)이요, 세 번째 쉬어간 정자는 샘정(샘亭)이다. 그리도 네 번째는 미타정(彌陀亭), 다섯 번째는 율목정(栗木亭) 여섯 번째 정자는 불휴정(不休亭)이라 하는데 이곳은 조그만 산등성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곱 번째 쉰 정자는 흥복정(興福亭) 여덟 번째는 현정(玄亭), 아홉 번째는 삽정(插亭) 열 번째는 아흐레 동안 머물렀다 해서 구일정(九日亭)이니 여기서 생각하기를 화순(和順 : 옥과의 동쪽) 땅에 백아산(白亞山)으로 갈까, 아니면 담양(潭陽 : 옥과의 서쪽) 땅에 추월산(秋月山)으로 갈까, 또는 옥과현(玉果縣)의 설산(雪山)으로 갈까 하고 망설여졌다.

구일정은 성덕 처녀의 고향이므로 일단 고향까지는 왔으나 막상 관음성상을 모실 곳을 물색하려 하니 얼른 떠오르는 곳이 없으므로 9일간이나 머물면서 원근의 명산(名山)들을 생

각하면서 어느 곳으로 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9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화순 땅의 백아산으로 갈 것을 정하고 다시 관음상을 업고 구일정을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열한 번째 쉼 곳이 운교(雲橋)라는 동리 앞의 정자였다. 운교정(雲橋亭)을 떠난 성덕은 가파른 고개를 넘게 되었으니 이 고개는 하늘에 맞닿았다 하여 하늘재(天峙)라 하였다.

관음성상(觀音聖像)을 업고 이와 같은 가파른 고개를 오르는 데에도 그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리만큼 가벼웠는데 이 하늘재를 올라서니 이상하게도 관음성상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하여 마치 태산(泰山)처럼 무거움을 느꼈다. 성덕은 관음보살님을 모실 인연처가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니 산의 형상이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가 벌려져 있고 집을 지을만한 터전이 넓지도 않은 채 적당한지라 마음으로 흡족히 여겨 그곳에 터를 잡아 관음성상을 모시니 이곳이 곧 지금의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全南 谷城郡 梧山面 善世里 = 오산면은 예전에 옥과현 화면이었음)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이다.

성덕은 나무를 꺾어 움막을 만들어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관음사(觀音寺) 창건을 발원하는 기도를 조석으로 봉행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 산 아래에 사는 촌가의 사람들이 나무하러 산에 와서는 이 광경을 보고 자기들도 관세음보살께 예배하며 마음속의 소원을 빌면 모두가 성취되는 기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하나같이 이루어지므로 관세음보살의 영험(靈驗)스러움이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되니 찾아와서 예불 기원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 마치 구름 같았다.

이리하여 후세 사람들이 주산(主山)을 성덕(聖德) 처녀의 이름을 따서 성덕산(聖德山)이라 하였으며 성덕보살은 관음사의 개산조(開山祖)가 되고 또한 창건주(創主)가 되어 후세에까지 이름을 남기니 성덕산(聖德山)은 백제 이래로 수천년 동안 내륙에 있어서는 유일한 관음영지(觀音靈地)로 이어져 내려와 정유재란 전까지만 하여도 80여동(棟)의 건물을 자랑하였던 곳이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관음신앙(觀音信仰)을 서민적 염원 속에서 통불교적으로 널리 흥포(弘布)해 오고 있는 현장인 것이다. 한편 홍장(洪莊)의 아버지 원량(元良)은 딸과의 이별의 슬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 홀연히 눈을 떴다.

衆生被困厄 無量苦逼身
觀音妙知力 能救世間苦

중생이 때때로 곤액을 입어 한량없는 고통이 핍박하여도
관음보살 묘지력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모든 고통 건져 주리라.

관세음보살의 염피관음력(念被觀音力)이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고통 건져주리라 하였듯이 원봉사는 광명(光明)을 찾을 수 있었으며 그 뒤로 95세의 나이까지 복락(福樂)을 누리면서 여생을 평안하게 살았다고 한다. 또한 홍장으로부터 금은보화를 시주받은 성공대사(性空大師)는 홍법사(弘法寺) 대작불사를 환희 원만하게 회향하였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성덕산 관음연기(聖德山 觀音緣起)에서 불때 관음성상(觀音聖像)은 실로 홍장(洪

莊)의 효심(孝心)이 불심(佛心)으로 나타난 것이며 또한 4만단의 폐백과 금은진보(金銀珍寶)를 기꺼이 법보시(法雨施) 하였으며, 온갖 정업을 행하였고 마침내는 관음성상(觀音聖像)을 원불(願佛)로 조성하여 본국(本國)에 이르게 하여 뒤에 성덕((聖德)보살에 의해 열매를 맺어 더욱 빛나게 하였으니 후세인(後世人)은 홍장(洪莊)과 성덕((聖德)보살을 관세음(觀世音)보살의 화신(化身)으로 추앙하였으며 이로서 전라남도 곡성군(옛 옥과현) 성덕산((聖德山) 관음사(觀音寺)의 관음연기(觀音緣起)는 오늘에 전(傳)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내용은 현 곡성군수께서 곡성심청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음사연기설화 내용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중복되지만 원문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관음사(觀音寺)와 곡성심청(谷城沈淸)

관음사(觀音寺) 개요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다. 규모가 큰 절은 아니다. 그런데 이웃 순천의 조계산 송광사에 가면 성보박물관에 이 절의 역사를 기록한 [옥과현 성덕산 관음사 사적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이 보존되어 있다. 조선조 영조 때 (1729년) 백매자(白梅子)라는 분이 우한자(優閑子) 스님이 들려준 절이 생긴 내력을 다듬고 원통전의 상량문 기록 등 중창한 자취를 뒤에 붙여서 찬술한 기록이다. 목판 인쇄를 했는데 목판은 멸실되고 송광사에 보존된 것이 유일한 판본이다.

이 사적에 의하면 관음사는 서기 300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절이다. 백제가 불교를 공인하기 훨씬 이전이다. 고려말인 서기 1374년에 5중창을 했다는 상량문의 기록에 미루어 유추해도 창건연대가 서기 3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감직하다. 그렇다면 관음사가 “백제불교 최초 가람”이라고 내세울 만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관음신앙의 유래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관음사의 역할이 구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관음사사적]에는 정유재란 때 (1597년) 오직 관음보살을 모신 원통전(圓通殿)만 남고 모두 소실된 것을 그 후 몇 차례 중수한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관음사 원통전은 고려시대의 목조건물로서 국보 제273호로 지정되었고, 그 안에 모신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은 보물 제214호로 보존해 왔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휴전 후 1954년에 타지 않고 남은 대은암을 옮겨 지금의 원통전을 지었으니,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현재 관음사 경내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어람관음(魚藍觀音) 상이 있고, 비록 머리 부분이 깨져나가고 불에 그슬렸지만 마치 백제의 미소를 전해주는 듯싶은 소조불상(塑造佛像)이 보존되어 있어서, 이 절의 유구한 역사를 전해주는 듯하다. 소조불상을 성덕보살의 상이라고 하며, 오산면 가곡리에는 고려시대의 5층석탑이 있는데 원홍장효행탑이라고 전해진다. 이들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절실하다.

관음사 연기설화 (觀音寺 緣起說話)

관음사가 언제 어떻게 창건되었는지에 관한 [관음사사적]의 기록은 말하자면 서기 300년 창건 이래 1,400여 년을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비로소 문자로 옮겨진 것이다. [관음사사적]에 기록된 관음사의 창건설화, 불교용어로는 연기설화의 개요는 이러하다.

충청도 대흥현(大興縣)에 원량(元良)이라는 장님이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그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진 홍장(洪莊)이라는 외동딸과 함께 곤궁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홍법사(弘法寺) 성공(性空) 스님이 불사에 대시주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자, 가진 것이 없는 원량은 결국 16세의 딸을 데려가 팔아 쓰도록 한다. 비단 딸과 아버지뿐만 아니라 산천초목과 길에서 이 광경을 보고들은 사람들이 몹시 슬퍼한 가운데, 스님을 따라나선 홍장은 산 넘고 물 건너 피곤한 몸으로 소랑포 부두에서 쉬게 되었다.

이 때 서쪽에서 배 두 척이 달려오더니 배위의 사자가 홍장의 아름다운 용모를 살펴보고는 참으로 황후마마라고 절을 하였다. 사연인즉 진(晉) 나라의 황후가 돌아가셨는데 황제의 꿈에 신인이 나타나 새 황후가 동국에 태어나 이미 장성하였는데 단정하기가 전 황후에 못지않다고 하여 예물을 싣고 모시러 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예물을 스님에게 드리고 상국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한 후 황후가 되었다.

황후는 힘써 정업(淨業)을 행하였다. 조칙으로 석공에게 마노로써 삼천의 탑을 만들게 하여 여러 나라에 나누어 주고, 어찌 본국을 잇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거둬 조칙을 내려 53불, 500성중, 16나한을 만들어 배에 실어 본국으로 보냈는데 표류 끝에 감로사에 안치되었다. 석공이 늙자 그 아들을 시켜 또 탑을 만들어 보내기를 두 번이나 했고, 다섯 번째로는 아버지의 복전(福田)으로 불상과 탑을 조성하여 대흥현 홍법사에 옮겨 모셨다.

마지막으로 장인을 시켜 자신의 원불(願佛)로 관음상을 주조하고 뱃사람에게 명하여 석선에 싣고 동국으로 떠나보냈는데, 표류 끝에 낙안(樂安)의 단교(斷橋) 부근에 도착하였다. 수비병들이 황당산(해적선)으로 의심해서 잡으려 하니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움직여 아득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 버렸다. 이튿날 옥과(玉果)에 사는 성덕(聖德)이라는 처녀가 수평선을 바라보니 조그만 석선이 이끌리듯 다가왔는데, 배위의 금빛 찬란한 관음상을 보고 홀연 공경심이 일어나 몸을 던져 예배하고 몸소 관음상을 업었던 바 새털마냥 가벼웠다. 그런데 길을 도와 이 고개에 이르자 태산처럼 무거워져서 여기에 안치해 놓고 큰 절을 세워 그 이름을 성덕산 관음사라 하였다.

대저 홍장과 성덕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하겠다. 당시에 화주승 성공 스님은 재물을 얻어 달을 넘기기 전에 공덕을 일으켰고, 장님 원량은 딸과 이별할 때 흘린 눈물로 먼눈이 홀연히 밝아져서 두루 복을 누리다가 95세에 돌아가셨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이 감응하신 오묘한 자취로서 물어버릴 수 없는 일이다.

관음사에 얽힌 다른 이야기들

여기까지가 [관음사사적]의 찬술자인 백매자가 장로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듬어 기록한 것이다. 이어서 기록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나서 절의 중창에 관한 사적이 뒷부분을 이룬다. 말미에는 절의 직분을 가진 스님들의 법명과 각각자의 성명 및 간행 시기와 장소를 기재해 두었다. 간행처를 옥과 관음사라고 했는바, 당시에는 곡성현과 옥과현이 각각 이었고 지금의 오산면은 옥과현의 화면이었다.

관음사 연기설화와 관련하여 [관음사사적]에는 없으나 이 고장에서 널리 회자되어온 이야기로 12정 이야기가 있다. 성덕이 관음상을 업고 낙안을 출발하여 옥과로 향하는데 도중에 12 정자를 만나 쉬어갔다는 것이다. 처음 정자는 이름을 알 수 없고, 두 번째부터 대취정, 천정(샘정), 미타정, 율목정, 불휴정, 흥복정, 현정, 삼정, 그리고 열 번째가 9일 동안 머물렀다고 해서 구일정이다. 지금도 곡성군 곁면에 흥복(興福) 마을과 현정(玄亭) 마을이 있으니, 성덕이 이미 고향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아흐레 동안 동쪽에 있는 화순 백아산으로

갈까, 서쪽에 있는 담양 추월산으로 갈까, 옥과의 설산에 모실까를 궁리 끝에 백아산에 모시기로 작정하고 구일정을 나서서 운교에서 쉬고 하느재(천치 天峙)를 넘었다. 이 때부터 그 동안 가볍기만 하던 관음상이 점차 무거워져서 근처에 합당한 터를 잡아 관음상을 모신 곳이 지금의 관음사이다. 관음사는 바로 곁면 운교(雲橋) 마을에서 하느재를 넘어간 곳에 있다. 이 정을 정자가 아니라 마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관음사의 창건설화라고 할 수 있는데 [관음사사적]에는 누락된 채 전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학술적 조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관음사에 [오색주(五色珠)]라는 이름의 소책자가 전해오는데 환주대사의 일생을 그린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이다. 열두 정자 이야기 및 환주대사 이야기와 함께 관음사의 근대 영험설화까지 모아서 소개한 자료가 1995년에 관음사에서 발행한 광민 편저 [심청전의 원형, 관음사의 연기설화]이다. 편저자 광민은 당시의 주지 스님이다. 이 책은 엄밀한 학술서적이 아니고 관음사의 유서를 널리 알리고자 편저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음사사적]과 12정자 이야기에 구분이 없고 불교적 운색이 섞여 있다. [관음사사적]의 핵심이라고 할 연기설화에 대해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은 2001년 관음사 발행의 지인 편저 [원홍장의 아름다운 효심이 서린, 심청전의 원형, 관음사 연기설화] (21-28 쪽)가 있다. 또 2003년 박이정 간행의 박혜범 저 [원홍장과 심청전] (17-33 쪽)에는 [관음사사적]의 전문이 한문과 국문의 대역으로 소개되어 있다. 지인은 지금의 관음사 주지이고 박혜범은 향토사학자이다.

곡성심청(谷城沈淸)의 부활

곡성군에서 심청축제를 한다면 산골에서 무슨 심청이나 또는 그곳에 인당수가 있느냐 하고 의아해 한다. 그런데 곡성군에 전해오는 효녀 원홍장 이야기 (관음사 창건설화)가 1930년 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소개된 이래로 심청전의 근원설화 또는 배경설화로 국문학계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 또 한번 놀란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자치시대의 곡성군은 심청을 문화자산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심청사업을 펼칠 자격이 충분하다. 이제껏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났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크고 소중한 자산이기에 성큼 내세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양권승 전문연구원이 중심이 된 연구팀은 원홍장 이야기가 기록된 [관음사사적]이 관음사의 역사기록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서기 300년 대 철의 주산지였던 섬진강변의 처녀가 무역항로를 따라 중국 양자강 어귀의 관음불교 성지인 보타도(普陀島)에 이르는 경로를 추적했다. 그곳 심가문진(沈家門鎮)에 심가촌(沈家村)이 여러 곳 있고 심수도(沈水道)와 연화양(蓮花洋)과 성비궁터등 심청전의 무대를 연상시키는 지명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원홍장 이야기를 실화로 복원하고, 이로부터 인당수와 인신공희 및 용궁환생 등 비현실적 요소가 가미된 소설 심청전으로 발전한 경로와 관소리 심청가에 황주 도화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추론했다. 말하자면 심청전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역사기록인 [관음사사적]과 문학작품인 [심청전]을 연결시키고 심청이 실존인물임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연구 성과 [효녀 심청의 사학적 국문학적 고증]이 2000. 4. 1. 방영된 KBS 1TV의 [역사스페셜]을 통해서 전국에 소개되었던 바, 제목은 “역사추적, 심청의 바닷길”이었다. 이로써 심청은 1700여 년 만에 곡성 땅에 부활했고 곡성심청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일찍이 간송미술관 최완수 연구실장에 의해서 [관음사사적]이 철의 역사기록임에 착안하여 관음사 연기설화를 창건설화(이야기)가 아닌 역사로 복원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 (“성덕산 관음사” [불교춘추] 1997년 1월호, 86-111 쪽). 이 연구에서는 원홍장을 고려인으로서 원

나라 황후가 된 기황후로 보고 그 무대를 개성의 대흥동으로 추론하였다. 또 옥과가 옛날 당골이었고 판소리의 명인이 많았다는 데에 착안하여 관음사 연기설화가 이 고장의 수많은 소리꾼들과 무당에 의해서 판소리로 짜여졌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완판계 [심청정]이 나왔을 것이라는 추론을 한 향토사학자도 있었다 (옥과고 정일선 교사, “심청전의 고향 옥과 성덕산 관음사”). 그러나 이런 연구가 학계나 지역사회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관음사사적]에 의하면 원흥장은 충청도 대흥현 사람이다. 그런데 양권승 연구팀은 서기 300년대 철의 주산지 곡성과 중국 관음불교의 성지 보타도를 연결시키면서 원흥장이 곡성 출신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대흥현으로 잘 못 기록하게 된 연유를 추론하였다. 예컨대, 전해오던 이야기를 기록으로 옮긴 시기는 조선 시대이지만 서기 300년 당시에는 충청도도 대흥현도 없었다거나 곡성군에는 지금도 대흥(大興) 마을이 두 곳이고 같은 의미의 덕흥(德興) 마을까지 합하면 셋이나 된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학술연구와 KBS 1TV 역사스페셜 방영에 힘입어 2000년 초파일(부처님 오신 날)에 군민끼리의 심청축제를 가졌다. 곡성 땅에 심청의 부활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연세대 국문과 설성경 교수가 참석하여 자작시 “고향에 돌아온 심청”을 낭송하여 축하해 줌으로써 곡성심청은 더 한층 힘을 얻었다.

곡성군의 심청사업

곡성군의 심청사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2001년부터 대외적인 행사로 곡성심청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수십만이 축제를 찾아 주어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직 지역경제와 연결되지 못해서 애태우고 있다. 관음사 입구에 심청문화센터를 열었고 야철터가 있는 섬진강변의 옛 쇠정 마을 터에 심청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관음사가 있는 오산면에서는 주민들의 모금으로 심청공원을 만들었고, 대외적으로는 곡성군과 중국의 보타도(절강성 주산시 보타구) 사이에 자매결연의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면서 ‘심청별원(沈淸別院)’을 만들기로 하여 협조하고 있다.

곡성심청축제는 매년 학술대회를 병행하고 있다. 처음 두 번은 곡성심청을 주제로 했는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효를 주제로 선택했다. 매년 의미 있는 학술대회를 열어서 곡성군이 비록 한국의 작은 농촌이지만 현대 인류를 향하여 값진 메시지를 발신하는 진원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심청축제다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애쓴 끝에 “공양미 삼백석” 코너를 설치했는데, 곡성심청축제에 대한 중앙언론의 주목을 이끌어 낸 효자가 되었다.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으로 실명의 위기에 처했으면서도 수술비를 마련 못하는 딱한 노인들이 농촌에 많이 계시는데 매년 3천만 원 이상이 걸려서 곡성 안팎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개안 수술을 해드리는 아주 보람 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학술적으로는 심청전을 문학이 아닌 역사로 접근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허구가 아닌 실화로, 즉 심청을 실존인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곡성군의 ‘심청마을’에 내포된 허구성이 폭로되면서 역사교육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한편 향토사학자에 의해서 심청이 곡성 출신이며 심청 마을은 동악산 아래라는 주장도 제기되었고 (박혜범),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의 옥과현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유봉남). 그러나 곡성군은 학술연구기관이 아닌 지방정부이다. 곡성군을 심청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고장으로 가꾸고 싶지만, 결코 역사교육의 현장이 아니라, 말하자면 코펜하겐의 인어공주나 라인강의 로렐라이언덕처럼 이야기가 있는 관광지를 갖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학술적으로는 논란꺼리일지라도 재미있는 소재라면 곡성군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며, 어느 의미로는 학술적으로 시끄러운 논란이 많을수록 좋은 일이다. 다시 말해서 학술연구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엄밀한 검증을 거친 통설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곡성군민들은 이쯤에서 심청을 곡성군이 독점하고 싶어 한다. 심청이 곡성사람이므로 심청을 곡성군이 독점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곡성군은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국문학계가 심청전의 근원설화와 관련 있는 국내지소로 인정하는 곳이 다섯이다. 백령도의 인당수와 연화리, 화성군 서신면 (홍법사와 홍장각시), 예산군 대흥면 (조선시대 대흥현), 곡성군 관음사, 속초 동해안심청굿 근거지이다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1984). 훗날 등장하게 된 황해도 황주까지 합하면 심청전과 관련되는 곳이 여섯으로 늘어난다. 백령도에는 이미 심청각이 세워졌다. 심청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 인당수에 투신했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확신으로 간직해온 마을이라고 한다. 이를 근거로 웅진군이 곡성군보다 먼저 심청사업을 펼친 것이다. 서로 배경이 다르다. 어느 쪽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논할 성질이 못된다. 우열을 가릴 성질도 아니다.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심청과 연관이 있다고 학계가 인정하는 곳이면 지방정부가 나서서 그 지역에 맞는 심청사업을 펼치고 북녘의 황주도 넣어서 심청연대(沈淸連帶)를 만들어 교류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정말 심청다운 멋진 일이 아니겠는가? 곡성군은 심청축제 대회를 통해서 해마다 이 같은 제안을 천명해 왔는데,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적극적으로 나설만한 일이다.

곡성심청은 그 부활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착실히 성장해 왔다.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 2단계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할 때이다. 많은 주민들이 심청을 기리는 사당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영정도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청축제가 제의로부터 출발해야 전통적인 맛이 있고, 그래야 성공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음사 연기설화의 종교적 신앙적 측면을 살리는 사업을 펴야한다는 제안도 있다 (임재해, “설화의 역사성과 관음사 연기설화의 재인식” [제2회 심청학술대회] 자료집, 1-50 쪽, 곡성군, 2002).

관음사 연기설화가 심청전의 근원설화이며 원홍장이 심청으로 변환되었다고 보는 것은 원홍장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다. 연기설화에 나타난 홍장의 아버지를 위한 효행(孝行)을 부처님에 대한 신심(信心)의 발로로 보는 견지에서 이를 못 마땅해 하는 비판도 있다. 장님 원랑의 개안은 믿음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적을 매개로 하는 범종교적 행사를 심청사업에 접목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곡성신문 박정하 사장). 모두 의미 있는 비판이며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종교의 입장에서도 심청에 의한 세속화가 홍장의 신앙적 측면에 못지않은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즉 심청이 비록 세속의 인물일지라도 그 효심이 지극하기가 성녀의 면모를 갖추었으므로 홍장이 우리 민족에게 널리 사랑을 받아 온 심청의 모태로 추앙되는 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심청을 내세운 세속적 사업과 홍장을 기리는 신앙적 사업 내지는 성덕을 기리는 종교적 사업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유념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고 사업으로서 성공하기도 쉬울 것이다. 현재까지는 세속적인 심청사업에 머물러 있다. 그 틀을 갖추고 뿌리를 내리는 데에 진력하는 단계이다. 앞으로 신앙적 종교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지역발전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관음사 연기설화에는 그만한 폭발력이 잠재해 있지만 여기에는 사찰과 종단의 동참이 필요하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군

[범죄 없는 마을]이라는 제도가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이 매년 그 마을 사람들이 단 한건의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마을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전라남도가 마을에 상으로 사업비를 주는

제도이다. 1980년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 동안을 합해 보면 곡성군이 전체 마을 수의 1/3 이상을 차지했는데, 신기하게도 심청고을을 표방하고 나선 2000년부터는 매년 1/2을 넘는다. 한 마을도 없는 시군이 많은데 1/3 또는 1/2을 차지한다는 것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곡성군은 2004년에 뒤늦게 이미지통합(CI)을 시작했다. [친환경 가족도시 곡성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연 속의 가족마을]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를 형상화한 아름다운 도안도 만들었다. 이런 비전을 만들어 낸 바탕에는 역사문화자산으로서 곡성심청을 부활시키고 자연환경자산으로서 섬진강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 낸 노력과 성과가 깔려 있다. 섬진강이 그 가장 큰 지류인 보성강을 받아들이는 곳이 곡성군의 압록(鴨綠)이며, 곡성군 관내를 흐르는 두 강의 본류만 해도 54km에 이른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열녀 춘향의 고장 남원과 효녀 심청의 고장 곡성이 마주하고 있는 것과 곡성군이 “충절의 표상, 고려 신승겸 장군”(김지옥, [자유] 2004. 11월호, 59-66)의 탄생지이어서 충효가 함께 하는 것이 곡성심청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효열이나 충효가 마치 귀한 골동품을 구경하는 것처럼 옛날의 봉건적 가치를 새겨보는데에 머무르게 해서 안 될 것이므로, 현대 민주사회의 가치로 새롭게 다듬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곡성군은 [자연 속의 가족마을]에 포근하게 자리 잡은 친근한 곡성심청을 기를 것이다.

곡성군은 순후한 인심을 바탕으로 [자연 속의 가족마을]을 잘 가꾸어서, 지리산통합문화권의 일원으로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한 뉘를 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뽑힌 농촌 군은 단양과 곡성 두 곳 뿐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노장청이 어린이와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의 복원을 소망하고 있다. 곡성심청은 이러한 곡성군을 일구는 원동력이라 하겠다.

민속문화의 위기와 곡성의 문화적 활로

나 경 수

(전남대학교 교수 / 박물관장)

목 차

I. 머리말

II. 窮-마을민속 전승의 생애사적 위기

1. 생태환경의 해체
2. 생활주기의 변화
3. 전승주체의 이탈
4. 기대지평의 전락

III. 變-전통문화의 새로운 활로 가능성

1. 전통의 단절과 문화의 변질
2. 문화산업시대의 도래와 세계의 한국화
3. 문화공학과 생태문화의 지향
4. 전통문화의 상품화 전략

IV. 通-곡성 민속의 전승 활로

1. 보존: 민속에서 전통문화로
 2. 변용: 민속에서 문화콘텐츠로
 3. 활용: 민속에서 문화산업으로
-

I. 머리말

인문학의 위기가 말해지다가 최근 이공계 위기론이 대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학문이 사회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증좌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진작부터 우리의 전통문화는 위기의 가장 극점에 위치해 왔으며, 늘 염려되어 왔다. 전통단절론이 우세한 사이에서도 전통계승론이 거둬 논의되곤 했지만,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이 설 수 없는 문제이다.

민속의 위기는 언제부터였을까? 그것은 구한말 이래 우리의 민속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타파되어야 할 인습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여 지나친 말을 아낀 것이다. 그 후 계속되는 일제와 미군정, 그리고 근대화와 새마을사업 등 수없이 많은, 그리고 계속되어 온 위기적 상황에 민속은 직면해 왔다.

한편 민속의 위기는 민속의 전승주체인 민중과 전승모태인 마을이 해체되면서 크게 증폭되는 현상을 보여왔다. 실제로 우리는 민속이 시골에 남아있는 전통문화와 별개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농현상으로 인해 시골이 해체되고 공업의 발달과 함께 생활문화가 변하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되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달리 말하면 크게 훼손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위기론 속에는 하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즉 우리는 민속이라는 말을 folklore의 번역어로만 생각해온 것이다. 그러나 민속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에서 이미 2,500년 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현행되는 문화일반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이런 의미로라면 민속은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없는 현행·현존·현전하는 문화를 뜻하는 말이 된다. 개념적 착종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민속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는 반성적 논의를 충분히 다시 시간을 내서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事象을 결정하는 개념이 혼선상에 놓이면 실제적 진실에 이르는 길은 차단되고 만다. 본 논의는 주역 계사편에 나오는 동양적 변증법, 즉 “窮則變 變則通 通則久”의 논리적 전개 방식을 취해서 窮·變·通의 차원으로 우리 민속문화의 현주소와 앞으로 곡성의 민속문화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과거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 그리고 미래의 시각이 같을 수 없다. 변화, 그것의 중요성을 실감한 동양적 사상, 아니 동양적 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민속의 활로를 위한 하나의 시험적 논의를 여기에서는 해볼까 한다.

II. 마을민속 전승의 생애사적 위기

1. 생태환경의 해체

일반적으로 문화는 3대 결정 조건을 가진다.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이 그것이다. 민속 역시 하나의 문화이며, 그런 까닭에 민속문화도 위 3대 조건의 영향 하에 결정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3대 조건이 균질적으로 결정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근대적 사회로 올라갈수록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컸으나, 산업사회에서는 사회적 조건이 더 큰 결정력을 가진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주요한 생태론적 환경은 말할 것도 없이 농(어)촌사회였다. 대부분의 민속문화 역시 농촌을 모태로 하여 생성, 변화, 발전의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생산양식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고, 산업화는 도시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농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농촌문화를 상당 부분 간섭, 소거하게 된다. 집약노동력이 동력으로 대체되면서 노동양식이 바뀌고, TV의 보급으로 마실문화와 사랑방문화의 퇴조와 함께 공동체의식이 약해졌으며, 노령인구 위주의 핵가

족화는 전반적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활문화까지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이러한 문화 모태의 변화는 자연히 전통적인 민속이 폐기되는 환경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실문화가 없어지면서 설화가 사라지고, 논일을 기계로 하면서 들노래가 사라지는 가운데 민속생활 전반에 걸쳐 전통민속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생활주기의 변환

생활주기의 변화는 전통적인 마을민속에도 변화를 몰고 왔다. 음력에서 양력으로 생활력이 변화된 것도 그렇지만, 보다 큰 작용은 생활주기의 근간이 월간주기(monthly cycle)에서 주간주기(weekly cycle)로 바뀌면서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달의 순환이 생활과 생산주기가 되었지만,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일주일 단위의 생활주기가 정착되었다. 민속의 생애적 근간의 하나인 시간적 단위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에 적응하는 사례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거나, 충돌하는 예도 많다. 회사, 관공서, 공장, 학교는 물론이지만, 최근에는 상점이나 소규모의 사업체들조차도 주별 단위의 생활주기로 바뀌어가고 있다.

대체로 시간의 변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시풍속의 경우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달 있어 왔던 명절이 사라져가고 있다. 명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휴식과 놀이 기능이라 했을 때, 주간주기로 바뀌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 기능을 대신 맡게 되었다. 세시풍속뿐만 아니라, 잔치나 제례와 같은 통과 의례나 종교민속 역시 주간주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결혼식을 그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겠지만, 환갑잔치나 시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선호하게 되었다.

3. 전승주체의 이탈

민속의 전승주체는 말할 것도 없이 민중이며, 그 민중은 다름아닌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민속학을 시작한 서양의 학자들 중에서도 민중과 농민을 동일시한 예는 많다. 전통적인 의미의 민속은 달리 말하자면 농촌에서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하던 농민들이 함께 해온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5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농촌인구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오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엇보다도 이농에 따른 농촌인구의 격감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농촌인구의 감소추세와 함께 고령화 현상이 또한 수반되었다. 결국 민속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민간지식의 총체라 할 때, 전승할 세대(from generation)는 있으나 전승받을 세대(to generation)는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마을민속의 주체인 민중의 정상분포도가 일그러지는 가운데 민속의 자연적인 전승 역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다리가 통통 붓도록 달밤을 녹이던 강강술래 춤꾼들은 모두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그때의 즐거움은 이제 아련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다.

4. 기대지평의 전락

전통과의 단절을 의도하고 주장했던 것은 지금부터 100여년 전의 일이었다. 우리는 근현대사 속에서 100여년간 민속을 비롯한 전통문화의 암흑시대를 경과해온 셈이다. 구한말의 개화사상과 외래종교의 유입,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 미군정하의 구미선망, 6·25로 인한 가치공백, 산업화를 추진하던 발전지상주의, 그리고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함께 헌마을 죽이기 등, 그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은 민속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사고나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속을 지탱하던 의식은 심하게 꺾히되었으며, 또한 열등하고, 무가치하고, 때로는 부도덕한 것으로까지 비난을 받았다. 더구나 합리적 또는 과학적 사고를 표방하는 정책, 언론, 그리고 교육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선도해왔다. 공간적 차

원에서 민족문화가 세계문화에 침식당하고,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에 의해 와해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시간적 차원에서 보면 전통문화가 근현대문화에 압도당해온 모습이다. 화려한 조명과 양가의 그 많은 하객들 앞에서 눈부시도록 하얀 드레스를 뽐내던 신부는 비좁은 폐백실에서 몇몇 시댁 어른들께 절을 올리기 위해 활옷으로 갈아입기에 바쁘다. 폐백실 긴장한 신부의 얼굴은 죄없이 죄인이 된 얼굴이며, 우리의 민속이 겪어온 지난 백년간의 바로 그 얼굴이기도 하다. 이에 관해서는 장을 달리 하여 추가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전통문화의 새로운 활로 가능성

1. 전통의 단절과 문화의 변질

우리 사회에서 전통의 단절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현상을 전통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다. 우리가 추구해 왔던 서구화가 여기에 일조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당연히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단절 현상이 사회적으로 방기되고 있거나 심지어는 조장되어 온 실정이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운운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사를 지닐 뿐,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개인에게 있어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나 같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족문화는 외래문화, 특히 서구문화에 의해 잠식되면서 서서히 와해되는 과정을 거쳐 왔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문화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항변도 가능할 것이다. 문화에 있어서 배타적 주체성은 편집증적 당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외래문화의 수용에 따르는 폐해를 우리가 실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 있어서 전통이 전통으로 취급받지 못해온 그간의 파행적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는 구한말에 크게 유행했던 신문물이라는 말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서구 열강의 문물을 새로운 것으로 이해하고 무한히 선망하던 시대에 전통을 인습으로 몰아세우는 것만이 병들고 나약한 우리나라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당시의 지식인들은 굳게 믿고 있었으며,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에 이르러 이러한 믿음은 극에 달했다.

新文物 = 西洋 = 新式 = 선망
舊文物 = 東洋 = 舊式 = 폐기

위와 같은 등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유효한 듯하다. 예를 들어 문화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에 있어서 우리의 재래 문화가 어떠한 위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그 면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洋服 : 韓服 / 洋食 : 韓食 / 洋屋 : 韓屋

위와 같은 대립소 중 우리 사회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금방 안다. 우리나라 미인의 상징이기도 한 춘향이가 세모시 옥색치마가 아닌 나시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광한루가 아닌 레스토랑에서 역시 양복에 넥타이를 맨 이도령과 마주앉아 스테이크에 칼질을 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이에 대한 일련의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미할 수 있지만, 생활한복이 고안되고, 김치며 된장 등이 예찬되고 있으며, 황토집이며 옥돌 침대에 대한 광고가 한창이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는 별미로 먹는 보리밥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복고지향의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통과의 단절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전반적으로 기형화된 예를 우리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다. 그 전형은 바로 생활문화 속에 파고든 문화의 중복구조일 것이다. 온돌 위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기형적 형태를 우리는 오히려 선망하는 우를 저지르면서도 아무도 부끄러워 할 줄을 모른다. 또 외래문화에 대한 선망이 잘못된 지식이나 의도적인 오류에 의해 기인한 사례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반성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의 중요한 속성중의 하나는 변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는 변화보다는 변질되어 왔으며, 재창조보다는 모방에 그쳐 왔다는 사실을 솔직히 자인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2. 문화산업시대의 도래와 세계의 한국화

오늘날 격변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거대한 정체성(正體性)의 혼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에 익숙해 있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공업사회의 기류에 휩싸였고, 1990년대 초반부터는 다시 정보화사회를 맞았다. 서구사회는 공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200여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의 충격을 충분히 완충하고, 오히려 주체적으로 역사를 견인해 왔으나,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변화가 지난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화 충격(culture shock)이 심대하여 각종 사회적 파행을 양산해온 실정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생활주기가 바뀐 것을 비롯해서, 공업사회로의 전환은 갑작스런 이농현상을 야기했고,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은 세대간의 골 깊은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주체적으로 견인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정체성의 혼란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계속된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정보화로 변화되어 왔듯이, 정보화사회는 또 다시 새로운 사회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새로 대체되어 나타날 사회가 문화산업사회일 것이라는 예측은 세계 지식인들에 의해 거의 기정 사실처럼 주장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앞으로 맞게 될 문화산업사회에 대한 갖가지 모색과 선취권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공업화는 서구에 비해 200여년 뒤졌던 것에 반해서, 정보화는 거의 서구와 시대를 같이 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앞서 가는 예도 있다. 따라서 지난날의 혼란을 거울삼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간에 계속되어 왔던 세계의 변화는 문화산업사회를 위한 필연적 모색이었다고 볼 수 있다. 레비스트로스가 인류사 최고의 혁명이라고 일컬은 농업을 통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삶의 편의를 위한 공업이 대두했고, 공업의 발달이 궤도에 오르자 정보화를 통해 그 혜택을 공유하는 쪽으로 급속히 사회는 변화되어 왔다.

정보화사회가 가지는 몇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 전자혁명에 의한 물리적 시공(時空)의 극복, 다량의 정보 수취에 따른 수요자 권리 신장, 형이상학의 해체에 의한 사고의 다원성, 서구 일변도에서 탈피한 문화와 생활의 다변화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근대사회를 특징짓는 이성, 구조, 식민 등의 개념이 현대(post-modern)에 와서 탈이성, 탈구조, 탈식민 등의 개념으로 대체되는 뚜렷한 상황을 맞고 있어, 우리는 현재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정보화의 덕택으로 탈서구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서구의 영향력은 이제 과거만큼 절대적이 아니다. 문화진화론이라는 억지 주장을 통해 마치 진보의 모델인양 군림해 왔던 서구의 문화가 더 이상 세계인에 의해 문화발전의 최종적 샘플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근대화, 서구화, 공

업화의 단계를 넘어서 첨단화, 세계화, 정보화를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

탈서구화는 세계문화의 다변화를 촉구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일방적 문화수입국들이 앞으로 문화수출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정보화 사회에 뒤이어 도래할 문화산업시대에는 누구나 세계의 문화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 것을 아끼는 것이 최고의 상품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랜 동안 우리의 문화를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바라보았지만, 결국 우리가 버린 것이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실감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그간에 버려두었던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새로운 가치평가를 통해 원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사명을 이 세대의 우리는 안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세계화의 물결이 거침없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에 우리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로 일방적인 세계화가 낳은 폐해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세계화라는 말에 대한 주체나 객체를 전혀 고려치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짙다. 세계화란 “한국의 세계화”를 뜻하는 말이지만, 그 반대인 “세계의 한국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오히려 세계화라는 원심력과 한국화라는 구심력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화를 추진할 때, 우리 문화의 파행과 변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한편 세계의 한국화를 함께 도모함으로써, 우리가 버린 것이 우리를 버렸던 역사적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서구화와 세계화를 동일시하는 혼동에서 벗어나 세계문화의 한 주체로서 당당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그리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세계의 한국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원대한 설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3. 문화공학과 생태문화의 지향

한 민족의 전통문화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와 권위는 보존이 아닌 재창조에서 찾아져야 한다. 앞으로 전통문화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工學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전통문화란 그것이 속한 문화권에 있어서 DNA와 같은 권위를 지닌 것으로서, 무한한 문화유전 공학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일정한 문화권에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적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되어 왔으며, 따라서 강한 생명력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공학에 관련하여 두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인류 또는 세계문화에 대한 기여(寄與)요, 다른 하나는 상품화(商品化)라는 것이다. 상품은 가치를 통해 가격이 매겨진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가 찾아져야 하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가치가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 중 하나는 환경문제일 것이다. 만일 동양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라면 지금까지 인류가 자행해온 심각한 자연파괴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신화와 철학과 논리에 각인된 동양과 서양의 근원적인 차이는 바로 자연 또는 객체에 대한 태도의 문제다. 동양의 정신은 합일(合一) 또는 일여(一如)에 투철한 반면, 서양의 정신은 분리(分離)와 배타(排他)를 기저로 한다. 천인합일, 물아일여의 정신에 입각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면 자연파괴의 정도는 훨씬 완화되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합일과 일여의 동양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창출되고 전승되어 온 것인 만큼 그것들이 가지고 있을 이러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국 생

태문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과 세계의 기여도를 궁구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가치 창출을 생각해야 하며, 그를 기반으로 한 상품화 전략이 고안되어야 할 줄로 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이 운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포스트가 바로 후(後)라는 시간 개념에서 동양(東洋)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는 쪽으로 사고의 대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중세의 암흑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스로 돌아가자”라는 웅변이 유효했듯, 공업화에 따른 인간소외와 자연파괴를 치유하기 위해 “한국[동양]으로 돌아가자”라는 웅변이 다시 한번 인류사에 복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발판으로 삼을 일이다. 다시 말해서 중세의 신본주의에 압제되었던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리스로의 시간적 회귀가 주효했다면, 근대의 산업화에 파괴된 자연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국[동양]으로의 공간적 귀환이 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가 테마가 있는 전통문화의 상품화를 도모해야 한다면, 그 테마는 바로 자연친화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류가 봉착하고 있는 자연생태의 복원과 보존을 위해 우리 문화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 배려하는 차원이 될 것이며, 그런 점에서 상품화에 따른 고객은 오늘을 사는 사람만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사람들까지 수요층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4. 전통문화의 상품화 전략

문화란 워낙 넓은 개념이다. 크게는 자연과 대칭되는 개념이며, 물질적·기술적·정신적 문화로 분류하기도 하고, 학문·예술·종교·관습·제도, 관념 등을 문화요소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는 문화란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방법의 총체를 지시하며, 그 방법은 바로 간접화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보고 있다.

간접화의 방식이 자연에 대한 순응이냐 아니면 자연에 대한 도전이냐 하는 준거를 통해서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생리를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필자는 우선 우리 전통문화의 상품화를 위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어떤 점에서 자연친화적이냐 하는 것을 해명하는 한편, 더 나아가 상품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복합적 기능이 가능한 융통성과 변용이 용이한 유연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 중의 하나가 보자기의 쓰임새이다. 보자기는 2차원과 3차원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펼쳐 물건을 덮으면 2차원이지만, 물건을 싸면 3차원이 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두면 최소의 공간을 차지할 뿐이다. 이는 생활의 지혜일 수 있으며, 기본문화인 의·식·주에도 이러한 지혜가 잘 반영되어 있다. 한복은 전형적인 평면 구성이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고, 재활용의 폭이 넓으며, 또한 접어 보관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주거 형태 역시 전형적인 기능 복합을 통해 효율을 최대화한다. 예를 들어 안방에서 밥 먹고, 자고, 놀고, 일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불이나 상도 접었다 펼쳤다 차원 변경이 자유롭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꼽는 김치나 된장찌개도 보면 식물성 영양소와 동물성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하는 종합식품이다.

생활의 일차적 요소인 이러한 의·식·주에 관한 기능복합과 높은 재활용도는 궁극적으로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30-40평의 아파트가 그리 넓은지 모르는 것은 각 방들이 각각 독립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이다. 거실, 침실, 주방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소파, 침대, 식탁 등 항상적 공간을 차지하는 가재도구가 많아 넓은 공간이 넓지 않게 느껴진다. “개고, 접고, 말고, 펴고”를 자유자재로 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구조로 보면 공간의 낭비가 너무 심하며, 따라서 그 모든 자재를 자연에서 얻는 것으로 보면 결국 그러한 생활 구조는 자연의 훼손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결국 환경보존적이며, 자연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를 통

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재구성하는 한편 인류와 세계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색 방법 중 하나는 경제적 효용과 문화적 교역을 가능하게 하는 상품화 전략이라 하겠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 전략을 기본적 전략과 실천적 전략으로 양분하여 생각해 본다.

먼저 기본적 전략은 두말할 여지없이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세계화일 것이다. 본래 전통문화란 현행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굳이 현대화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그간 전통문화를 과거의 문화 정도로 인식을 해왔으며, 우리의 실생활과는 거리를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류 성악의 완성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판소리가 정작 그것을 생성시킨 우리 자신들에게는 노인들이나 듣는 또는 과거에 천민 광대들이 불렀던 노래 정도로 치부되면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통의 힘은 현행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통을 전통이 아닌, 다시 말해서 전통문화를 현행의 문화가 아닌 과거의 문화로 이해하고 또한 폄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자연적 적응과 변화보다는 인위적인 현대화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기본 전략으로 꼽는 세계화는 넓은 시장의 확보와 질관리 차원에서 긴요할 것이다. 근대사회의 세계화 특성은 보편성, 편재성, 통일성 등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와 미래사회의 세계화란 개성, 차별성, 대표성 등을 표방한다.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장 두드러진 힘이 경쟁력 또는 비교우위라고 볼 때, 우리의 전통문화가 상품화 전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세계화의 특성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이를 통한 세계 시장의 개척이라는 반경 넓히기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기본적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전통문화의 과학화, 생활화, 첨단화, 표준화, 고급화 등일 것이다.

의료인류학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용했던 약용식물 중 60% 이상이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역사를 관류하면서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정수된 전통문화는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그 유용성과 실용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굴절된 개념과는 달리 전통문화가 현행의 문화라는 점을 감안하고 본다면 그것은 복고취향적 완상의 대상이나 의례적(儀禮的) 소도구가 아니라 오늘의 생활 속에서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문화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 즉 기능은 없어진 채 형태만 남아 있는 소위 잔존문화(survival culture)로서가 아닌 오늘의 문화, 그리고 미래의 문화로서 거듭남을 이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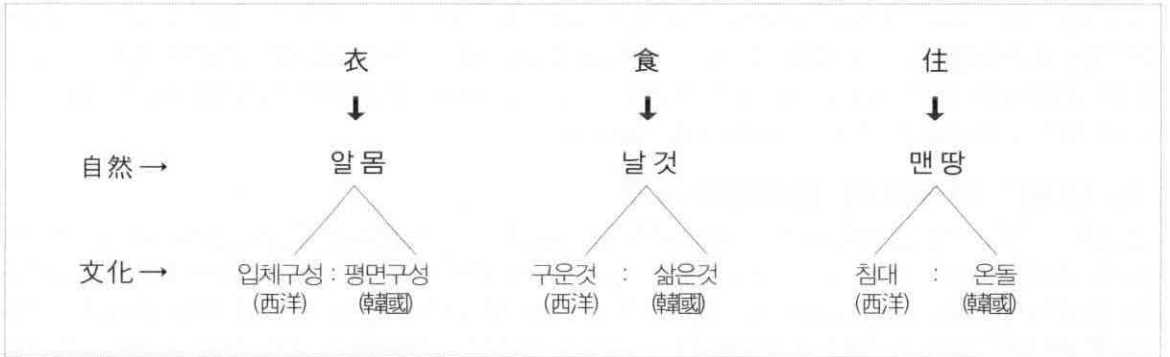
세계 패션의 첨단에 우리의 복식이 각광받고, 우리의 온돌이 첨단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에너지 절약 및 건강에 기여하며, 우리의 전통식품이 첨단의 건강 및 영양식품으로 세계인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적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생활은 자연적 환경에 의해 거의 절대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자연에 종속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게 되었다.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공통심리로 인해서 미시적으로는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거시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패턴의 생활환경을 앞으로 가꾸어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통문화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고급화는 필수적이다.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과 대형 유통구조의 확보를 통한 박리다매형의 상품화 전략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잉여생산물의 과잉을 낳을 수 있으며, 투기적 성격이 짙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의 상품화 전략으로서는 적정치 못하다. 따라서 질적인 개선과 지속적인 개량을 통한 고가형 고급 전통문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상품화하는 전반적인 기조로서, 먼저 자연친화형의 상품화라는 테마를 선택했으며, 그에 따른 기본 전략과 실천 전략을 간단히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를 재창조하고, 또한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 주류를 이루게 됨에 따라 지금은 바로 우리의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심리를 최대한 고양하여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끊임없는 개척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라 하겠다.

[참고도] 자연과 문화의 양식



IV. 곡성 민속의 전승 활로

1. 보존: 민속에서 문화재로

전통의 단절이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현상을 전통문화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과거와 현재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진단은 당연히 그에 대한 처방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단절 현상이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거나 심지어는 조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사를 지닐 뿐,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개인에게 있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나 같다. 100여년 이상을 우리는 사회적 과제였던 발전 논리와 구호에 휩싸인 채 전통 단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근대화, 서구화, 공업화, 국제화, 세계화 등 구한말부터의 구호는 모두 전통 단절의 공적이었던 것이다.

문화접변(acculturation)을 충분히 시도하지 못한 채, 대부분 외래문화에 대한 문화충격을 벗어나지 못해왔던 나약한 심인성 문화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속 역시 잔존문화라는 소극성에서 벗어나 전통문화로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게 된다. 마을은 우리 전통문화의 원형을 배태한 모태나 같다. 마을의 민속은 바로 우리 문화의 원형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전통문화이다.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당당한 우리의 역사인 것이다. 시대적 변화라는 신진대사과정에서 당연히 과거의 민속은 퇴휴하게 되지만, 이들은 잔존문화만 아닌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보존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많은 민속학자들이 동참하여 민속에 대한 조사와 발굴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발굴은 소극적 보존일 뿐이다. 전승의 한 형태로서 보존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적 모색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예를 들면 민요는 녹음과 채록과 채보만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연행적 상황 자체가 다매체(multi-media)를 통해서 가장 근접한 형태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과거 조사·정리된 것까지를 망라하여 D/B 뱅크에 보존하여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야 한다. 개인이든, 연구소든, 학교든, 사회단체든, 국가든 이들이 가진 모든 자료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적 차원의 민속정보원(가칭)에서 관리하는 체계적 보존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또한 기록보존소의 설립과 민속박물관의 추가적인 건립도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민속의 연행적 상황이 총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승적 상황 역시 총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속의 장르별 개별 조사와 발굴, 정리 등도 필요하겠지만, 마을민속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남대학교의 호남문화연구소, 전국문화원연합회,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등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같이 곡성군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지를 통한 그 전체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은 모두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곡성군을 알고 소개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는 물론, 민속관리사(가칭)와 같은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1968년에 시작했던 전국민속종합조사보고에 대한 제2차 조사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변용: 민속에서 문화콘텐츠로

공간적 차원에서 민족문화가 세계문화에 침식당하고, 지방문화는 중앙문화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시간적 차원에서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에 압도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긍정적인 쪽에서 두둔하거나 그대로 방기해 두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가능성 때문이다. 민족과 지방의 전통문화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와 권위는 보존이 아닌 재창조에서 찾아져야 한다. 민속은 일종의 DNA이다. 민속에 대한 연구는 호사가의 골동품 애호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문화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및 각 지역에 전승되어 온 민속에 대한 탐구는 옛 것을 돌아보는 회고적 취향이 아니라, 오늘을 다지고 내일을 살찌게 하는 응용과학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망된다.

최근 문화콘텐츠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문화란 현장적인 것에 반해서 문화콘텐츠란 매체적 전환을 통해 문화를 전승하는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민속을 문화콘텐츠로 변용할 수 있는 계기는 크게 열려 있다. 예를 들면 축제콘텐츠, 영상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공연콘텐츠, 교육콘텐츠, 스포츠콘텐츠, 오락콘텐츠, 복지콘텐츠, 관광콘텐츠 등 그 활용적 측면은 특히 삶의 질이 문제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는 많은 민속놀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현대적인 오락문화에 매몰되어 버린 채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예가 많다. 예를 들면 시골의 노인들조차 요즈음 게이트볼을 즐긴다. 노인복지의 공백지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게이트볼 대신에 향수어린, 그러면서도 우리의 전통민속놀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의 민속은 복지콘텐츠로서의 화학적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더 이상 명맥유지가 불가능한 고싸움을 대학의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도시축제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마을에는 이미 숲이 차서 더 이상 뛰고 부를 수 없는 강강술래를 가져와서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에어로빅댄스 대신에 댄스스포츠콘텐츠로 개량을 해서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효를 표방하고 있는 곡성군의 입장에서라면 효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앞으로 전개될 효문화산업 또는 실버산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 민속이 차지할 비중은 아주 높다고 생각하며, 그런 뜻에서 전통적인 마을민속을 마을에서만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나 그것의 다른 활로를 모색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하나의 전승방법일 것이다.

3. 활용: 민속에서 문화산업으로

앞으로의 민속학은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문화산업을 추구하는 전환적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民俗工學이나 民俗文化產業 등으로 이름지을 수 있겠다. 민속이란 그것이 속한 문화권에 있어서 유전자와 같은 권위를 지닌 것으로서, 무한한 문화공학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일정한 문화권에 전승되어 온 민속은 나름대로 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적응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문화공학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이나 호남에 전승되어 온 민속은 이들 지역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단지 문화유산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의 생성과 창조에 동인으로서 용처만 정확히 찾아진다면 엄청난 부존자원으로서의 값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2년 정부에서는 국가전략분야로 IT, BT, NT, ST, ET, CT를 꼽았다. 여기에 포함된 CT는 문화산업과 연계된 것으로 보며, 국가의 전략분야에 대한 산학협동적 관심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지금까지 수입문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앞으로 수출문화에 대한 관심이 또한 각별히 요구된다. 문화의 수신자로서뿐만 아니라 발신자로서의 변신과 적극성이 우리 민속의 또 다른 전승의 활로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제 떠나는 마을에서 돌아오는 마을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명절 때 보이는 그 많은 귀성인파가 앞으로 점점 줄어들 전망이다. 초기 이농층이 이제 도시의 노인층이 된 현 시점에서 보면, 그들의 수가 감소되면서 귀성인파 역시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생활의 향상은 휴가와 휴식의 욕구를 증대시킨다. 또한 사이버나 매체에 의한 간접체험이 많아질수록 직접 경험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 마을을 체험의 공간으로 또는 학습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마을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용인의 민속촌과 같은 인위적인 마을이 아니라 실재의 마을에서 시골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을민속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문화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노인층의 급증과 그로 인한 실버산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곡성군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민속과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실버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적인 준비가 필요한 셈이다.

韓國傳統建築의 構成要素

천 득 열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목 차

1. 内部空間 構成要素
 - 1-1. 좌향, 배치와 평면
 - 1-2. 기단(基壇)
 - 1-3. 초석(礎石)
 - 1-4. 기둥
 - 1-5. 가구(架構)
 - 1-6. 벽체(壁體)와 창호(窓戶)
 - 1-7. 공포대
 - 1-8. 지붕
 - 1-9. 바닥(床)
 - 1-10. 천장(天障, 天井)
2. 外部空間 構成要素
 - 2-1. 난간(欄干)
 - 2-2. 대문(大門)
 - 2-3. 굴뚝
 - 2-4. 석물(石物)
 - 2-5. 샘터, 도랑, 석조루, 다리
 - 2-6. 석단(石段), 화계(花階), 석계(石階)
 - 2-7. 연못과 정자
 - 2-8. 징검돌, 돌길
 - 2-9. 식재
 - 2-10. 마당과 담장(牆)
 - 2-11. 색채(色彩)

韓國傳統建築의 構成要素

건축은 단일의 개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이루는 외부공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이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상황이 결정된다. 따라서 편의상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 몸체를 직접적으로 이루는 요소들을 내부공간구성요소, 건물 밖의 주변 요소들을 외부공간 구성요소라고 구분할 수 있겠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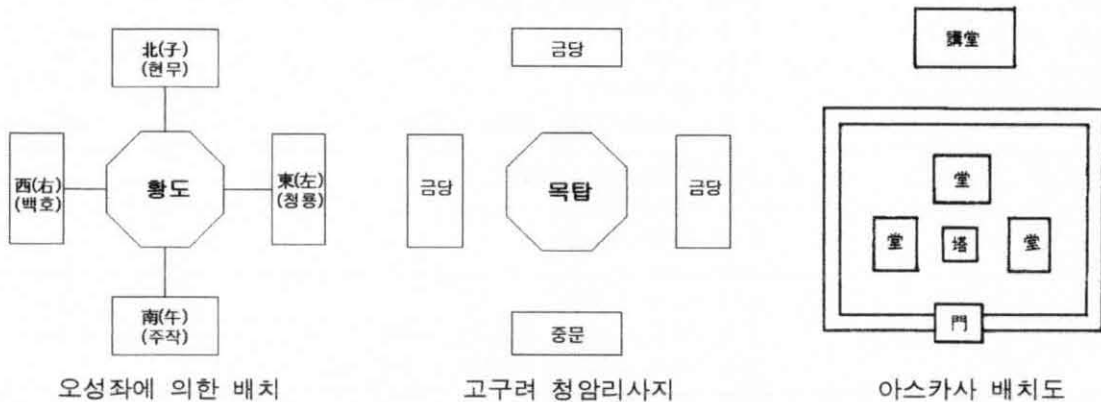
내부공간구성요소는 건물의 구체적인 의장요소들로 배치와 평면, 기단, 초석, 기둥, 가구, 벽체와 창호, 공포대, 지붕, 바다, 천장 등이 고 외부공간구성요소는 건물 밖의 난간, 대문, 굴뚝, 석물(石物), 샘터와 도랑, 석루조(石漏槽), 다리, 연못과 정자, 석단(石壇), 화단(花壇), 석계(石階), 징검돌과 돌길, 식재, 마당, 담장, 색채 등이다. 이들에 관하여는 통시적으로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가 있으며 시대적 편년이 이루어지나 본 장에서는 공시적인 입장에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內部空間 構成要素

1.1. 좌향, 배치와 평면

집터 위에 집을 앉히는 방법을 배치라 하며 이는 좌향(坐向)과 관계가 깊다. 좌향은 건축물이 어떤 집터에 앉음으로써 좌가 생기고 그 건축물이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향이 결정된다. 결국 좌는 뒷쪽이고 향은 앞쪽이 되는 셈이다.

좌향의 개념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 풍수지리설이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었고, 고려에서는 개국 초부터 도읍의 선정, 궁궐의 건축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상당히 오래 전부터라 생각된다. 물론 이보다 오래된 고인들의 배치형식이 통일성을 나타내며 원시인들이 살았던 동굴도 거의 대부분 남향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좌향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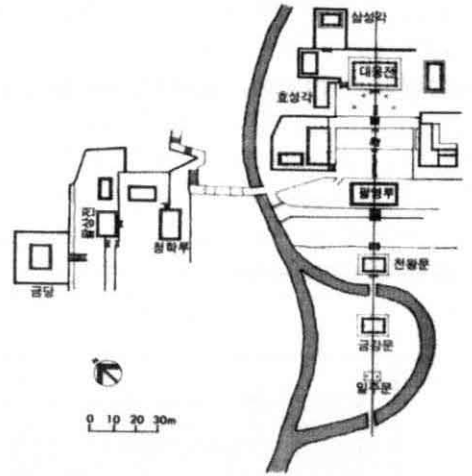
좌향과 함께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축(軸, Axis)의 설정이다. 단일건물일 때는 별 문제가 아니나 여러 채들이 모이게 될 때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오늘날 배치에서 축의 설정을 볼 수 있는 곳은 고구려 시대의 청암리, 건축군지에서 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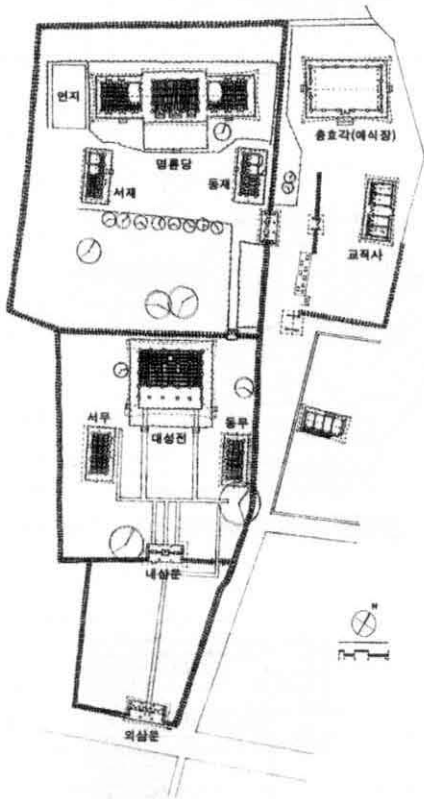
1) 주남철 교수는 <한국건축사의장>에서 1차구성요소와 2차구성요소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있다. 이는 일본 최초 사찰인 나라(奈良) 법통사(法隆寺)²⁾의 배치와도 같은 1탑 3금당의 배치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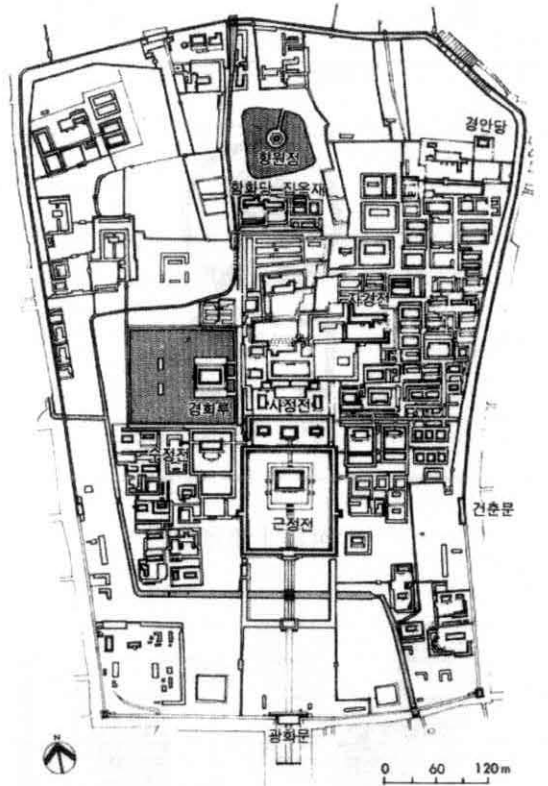
사찰의 배치에서는 대부분 축이 설정되고 있을 수 있다.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주문, 사천왕문, 문루, 중정, 금당, 강당 등의 순으로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형태이다. 그러나 축이 설정된다고 하여 반드시 좌우가 대칭인 것은 아니고 여러개의 축이 있거나 직교된 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동 쌍계사 배치도



나주향교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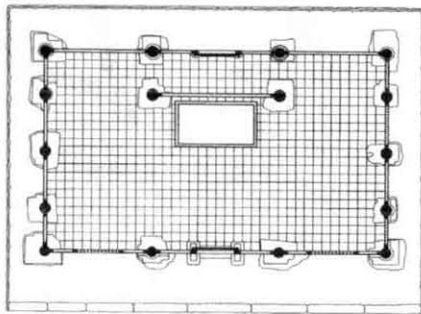


경복궁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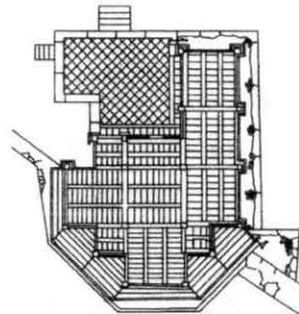
2) 607년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창건하여 670년 화재로 인해 680 ~ 690년경에 재건된 사찰이다. 현재 법통사는 5층목탑, 금당을 중심으로 한 서원(書院)가람과 몽전(夢殿)을 중심으로 한 동원(東院)가람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의 전통건축에 있어서 평면의 모양은 크게 각형(角形)평면과 원형(圓形)평면, 이형(異形)평면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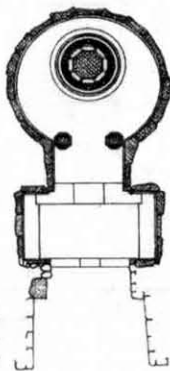
각형평면은 정방형, 장방형, 육각형, 팔각형, 십자형(亞자형), 丁자형(혹은 T자형) 등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원형평면은 특수한 것으로 목조건축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석굴암 본실의 평면에서 나타난다. 이형(異形)평면으로 부채모양인 선형(扇形)평면은 창덕궁 금원의 관람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상의 기본적인 평면 이외에 7자형, ㄱ자형, ㄴ자형, 日자형, 月자형, 用자형 등 풍수지리설의 양택론(陽宅論)에 의해 길상문자(吉相文字)를 평면의 모양으로 택한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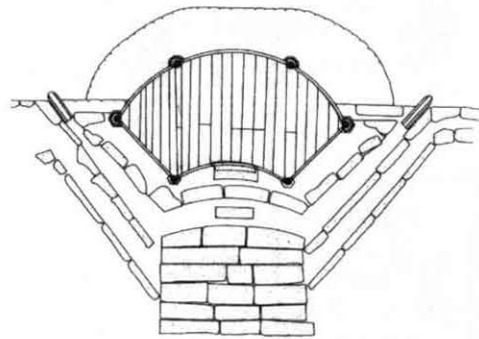
봉정사 극락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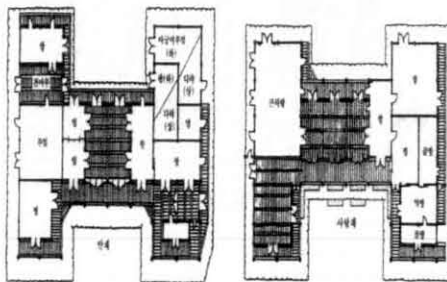
방화수류정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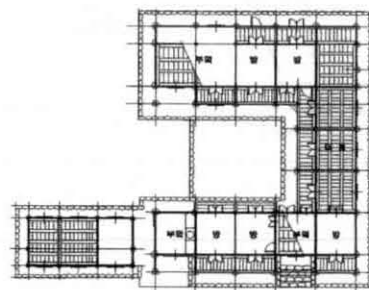
석굴암 평면도



창덕궁 관람정 평면도



보은 선씨집 ㄱ자 평면



윤두서가옥 ㄴ자 평면

1.2. 기단(基壇)

한국건축에서의 기단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에 필수적으로 형성되어 왔고, 이로서 중요한 의장적 요소가 되었으면, 기단이 갖는 상징성도 무척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3)

기단은 건물을 지면으로부터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피할 수 있고 밝은 빛을 집안에 충분히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다.

기단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에 필수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기단은 한옥에서 잘 발달되어 있으며 그 높이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기단 높이는 대략 2-5자(약60~150cm) 정도의 높이이나 건물에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단은 사용되는 재료와 형태에 따라 종류를 나눌 수 있다. 4)

기단을 분류함에 있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쌓는 재료에 의한 분류, 둘째 기단 수에 의한 분류, 셋째 기단 형태에 의한 분류, 넷째 쌓는 방법에 의한 분류이다.

(1) 단을 쌓는 재료에 따라 토단(土壇), 전축(塼築)기단, 석축(石築)기단, 와적(瓦積)기단으로 분류된다.

① 토단은 기단의 원시적 형태로 일반 서민주택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진흙을 다져 쌓아 올리며 견고성을 위하여 작은돌을 섞어 쌓거나 목심을 박아 쌓기도 한다.

② 전축기단은 벽돌로 만든 기단을 말하는 것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기단은 아니다. 그 실례로는 조선 정조 때 만들어진 수원 화성의 방화수류정이 유일한 현존하는 유적이다. 화강석으로 가구식기단을 만들고 면석 대신에 벽돌로 막은 것이다. 그러므로 방화수류정의 기단은 엄격한 의미에서 석전(石塼)혼합식 기단이라 하겠다.

③ 석축기단은 장대석(長臺石)이나 판석(板石)으로 마무리 하거나 혹은 막돌 등의 석재를 사용하여 쌓은 기단으로, 한국 기단 건축의 주류를 이루며 가장 다양하다.

④ 와적기단은 백제 군수리사지 금당 강당처, 부여 금성산 와적기단 건물터에서처럼 기와를 세우거나 또는 눕혀 쌓아서 마무리한 기단을 말한다. 이 경우 일본의 고대사지에서도 나타난다.



토단



석축(장대석)기단



가구식 기단 + 전축기단



와적기단

(2) 단의 수에 따라 단층(單層)기단, 다층(多層)기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주남철, 『한국건축사의장』, 일사, 1981, p.38

4) 김왕직, 『그림으로 보는 한국건축용어』, 발언, p.17.



단층기단



다층기단

① 단층기단은 높이와는 상관없이 단일 층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② 다층기단은 단수가 둘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3) 마감 석재의 형태와 층의 형태에 따라 막돌허튼층쌓기, 막돌바른층쌓기, 다듬돌허튼층쌓기, 다듬돌바른층쌓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막돌허튼층쌓기는 크고 작은 막돌들을 수평줄눈을 맞추지 않고 쌓는 방법으로 일반 주택건축과 사찰건축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다.

② 막돌바른층쌓기는 막돌들을 층을 맞추어 쌓는 방법이다.

③ 다듬돌허튼층쌓기는 다듬은 돌을 수평줄눈을 맞추지 않고 쌓는 방법이다.

④ 다듬돌바른층쌓기는 다듬은 돌을 층을 맞추어 쌓는 방법이다. 특히 상류주택이나 권위 건축에서 장대석을 여러 층으로 쌓는데, 쌓는 커에 따라 외(초)벌대, 두벌대, 세벌대 등으로 부른다.



막돌허튼층쌓기



막돌바른층쌓기



다듬돌허튼층쌓기



다듬돌바른층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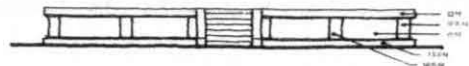
(4) 쌓는 방법에 따라 적석식(積石式)기단, 가구식(架構式)기단으로 분류된다.

① 적석식기단은 기단 돌을 차곡차곡 쌓는 방법으로 대부분의 기단들이 이에 속한다.

② 가구식기단은 기단에 석주(石柱)를 세우고, 이 석주사이에 면석(面石)을 끼워 넣고 다시 갑석(甲石)을 덮어 마감한다. 이 양식은 목조건축에서 온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들은 모두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양식이라 생각된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예는 불국사대웅전



적석식기단



가구식기단

이나 통도사대웅전 등이다.

이상의 기단과 함께 살펴봐야 할 요소로 석축을 들 수 있다. 석축은 기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완만한 구릉형태인 한국지형에 건축이 이루어질 때 대지를 평평하게 하기위해 절토(切土)와 성토(盛土)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흙의 유실을 방지하고 땅을 다지기 위해 수직으로 석축을 쌓은 다음 다시 그 위에 기단을 두고 건물을 세운다.

석축의 양식은 부석사의 경우처럼 막돌허튼층으로 쌓기도 하며 화엄사 각황전처럼 장대석으로 바른층쌓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불국사의 경우처럼 가구식으로 만든 석축은 보기드문 예이기도 하다.



부석사 석축



화엄사 각황전 석축



불국사 석축

1.3. 초석(礎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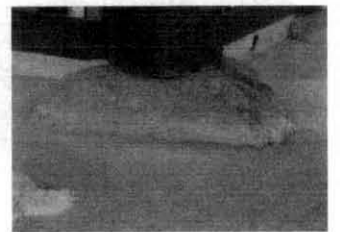
초석은 주초(柱礎) 또는 주춧돌이라고도 하며 기둥 밑에 놓여 기둥에 전달되는 지면의 습기를 차단해주고 기둥을 내려오는 하중을 지면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목조탑에서는 사리봉안을 위해 건물 내부에 심초석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도 있다. 초석의 크기는 판석으로부터 기둥으로 간주되는 대형초석까지 있다. 또한 초석은 지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에 따라 많은 조각과 장식이 들어가기도 한다.

초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재료의 가공여부, 둘째 초석의 형태, 셋째 초석의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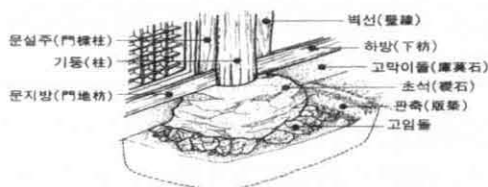
(1) 석재의 가공여부에 따라 막돌초석과 다듬돌초석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막돌초석(덩병주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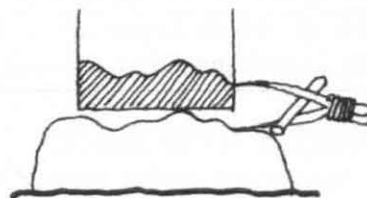
자연에서 채취한 석재로 요철이 심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의 돌이면 초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막돌초석은 상부가 편편하여 기둥 밑을 그대로 얹어 놓은 경우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기둥 밑을 초석 면에 맞도록 깎아 낸 후 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기둥밑동을 초석에 맞도록 파내는 '그랭이질'을 한다. 막돌초석은 일반 서민주택, 사찰 등의 건축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막돌초석과 기둥하부가 만나는 부분이 빨리 부식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막돌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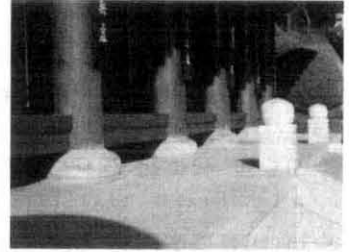
막돌초석(덩병주초)



그랭이질

② 다듬돌초석(정평주초定平柱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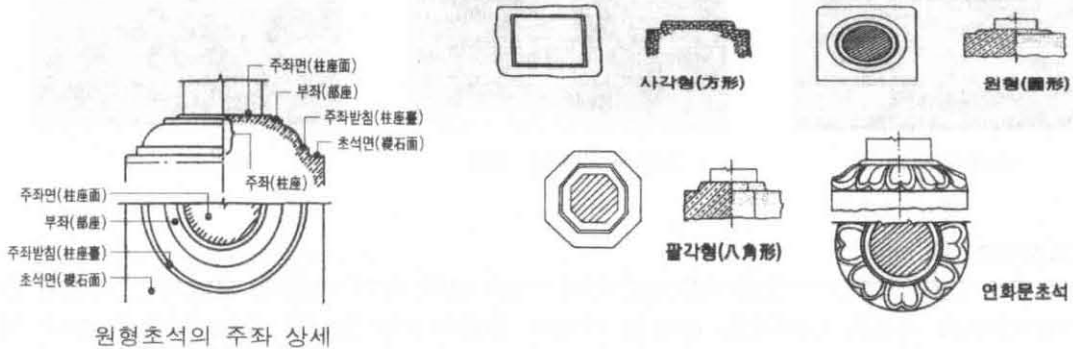
자연에서 채취한 막돌을 가공하여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을 정교하게 잘 다듬은 것을 말한다. 다듬돌초석은 방형과 원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불교적 교의에 의해 연꽃무늬나 거북이 등의 무늬를 새겨 장엄하게 꾸미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시대까지는 다듬돌초석을 사용하였으며 조선시대부터는 자연석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듬돌초석

(2) 초석의 형태에 의해 분류하면 ①원형, ②방형, ③6각형,

④ 8각형, 사발을 얹어놓은 모양의 ⑤복발형, ⑥거북이모양, ⑦연화문양 초석 등이 있다.



원형초석의 주좌 상세

그리고 주로 누(樓)건축에서 널리 통용된 초석으로 초석 상부에 앉히는 기둥처럼 초석 자체를 주형(柱形)으로 하여 내려가다가 밑동을 넓적하게 처리한 것으로 초석의 형태에 따라 원주형 초석과 방주형초석으로 나누어진다. 방주형초석은 다시 단주형(短柱形)과 장주형(長柱形)초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정음 피향정



범어사 일주문



경복궁 경회루

(3) 위치에 따른 분류는 건축구조상의 평면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기둥의 위치와 관련된다. 위치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건물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외진주 초석과 건물 내부의 내진주 초석 및 이에 속하지 않는 기타 초석으로 분류된다.

① 외진주초석은 외진부(칸)에 위치한 초석이다. 외진주초석은 다시 평주초석과 우주초석, 퇴주초석으로 세분되고 평주초석은 건물의 정면과 측면, 배면의 초석으로 나눌 수 있다. 우주초석도 정면의 우주초석과 배면의 우주초석으로 나뉜다. 퇴주초석은 퇴칸이 달린 건물에

서만 볼 수 있는 초석이다. 퇴주초석 역시 퇴평주초석과 퇴우주초석으로 분류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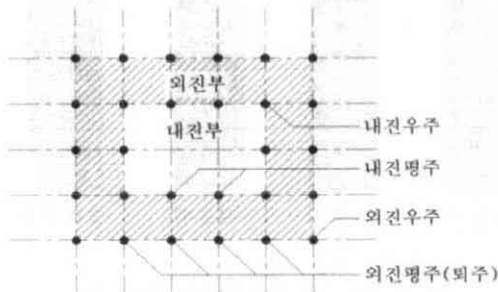
② 내진주초석은 내진부(칸)에 위치한 초석이다. 소규모 건물에는 보이지 않으며 건물 평면이 넓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목조탑에서는 심주(心柱)가 있기 마련이고 그 초석이 건물 중앙에 설치된다.

③ 기타초석은 외진주초석과 내진주초석 이외의 초석이다.

동자석(童子石)은 건물 내부에 청판을 깔 경우 사용되는 동바리나 동귀틀, 장귀틀 멍에 등을 받치는 초석으로 마루바닥의 하중을 받는 석재이다. 일반적으로 호박돌이라고 부르는 자연석을 사용한다. 건물 외부에 난간을 부설할 때에도 난간 동자주 밑동을 받치는 데에 이용되는데 청판 밑을 고일 때와 같이 자연석을 사용하지 않고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활주(活柱)초석은 지붕의 추녀 부분 하중을 받고 있는 활주를 받치는 초석으로 기단부에 설치하는 석재이다. 가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큰 건물에서 볼 수 있다.

수중(水中)초석은 수중에 초석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누각이나 정자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초석으로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 관람정, 존덕정, 애련정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초석의 위치상 분류



명옥헌 우주와 활주 초석



애련정 수중초석

1.4. 기둥

기둥은 가구식(架構式) 구조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부재이다. 구조적으로 지붕의 하중을 받아 그 하중을 초석에 전달하며, 실제적으로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가 된다. 또 의장적으로도 중요한 요소가 되며 건물의 높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주간(柱間) 거리와 함께 입면의 크기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기둥의 출현은 인간이 지상에 구조물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부터이라고 판단되며, 동굴주거와 병행하였던 원형 및 타원형의 막집 구조는 지상 중앙에 나무를 꽂아 여기에 나뭇가지를 걸쳐 뼈대를 만들어 공간을 형성하였다.

기둥의 배치는 간살잡기, 가구 구조법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목재가 지니는 재료의 특성상 크고 넓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기둥의 입면형태, 둘째 기둥의 단면 형태, 셋째 기둥의 위치에 따라 구분 된다.

(1) 입면형태에 따라 원통형기둥, 민흘림기둥, 배흘림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5) 김왕직, 앞의 책.

①원통형 기둥은 기둥머리에서 기둥뿌리까지 굵은 기둥을 말한다. 착시현상의 교정이나 안정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많은 건축에서 쓰였다.

②민흘림기둥은 기둥머리의 지름이 가장 작고 기둥뿌리 쪽으로 갈수록 넓은 기둥으로 역학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③배흘림기둥은 기둥을 상·중·하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지름의 크기가 기둥머리가 가장 작고, 기둥몸이 가장 크고, 기둥뿌리부분은 기둥머리와 같거나 혹은 기둥머리 보다는 크나 기둥몸보다는 적은 것이다. 이 배흘림 수법은 서양 건축의 엔타시스(entasis)⁶⁾와 같은 수법이고, 이의 목적은 기둥의 가운데가 들어가 보이는 착시현상(錯視現象)을 교정하기 위해 역으로 배를 부르게 하는데 있다.

(2)기둥을 단면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원형기둥, 방형기둥, 다각형기둥(육각, 팔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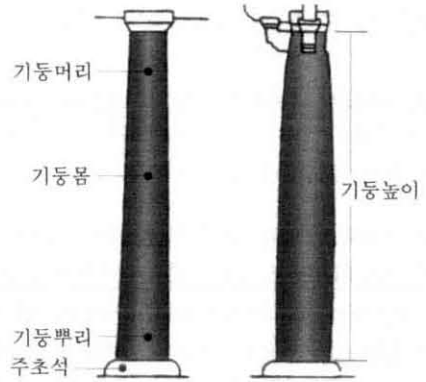
① 원형기둥(두리기둥)은 궁궐, 사찰, 관영 건축 등 주로 권위건축에 많이 쓰이고, 주거용 건축에서는 방형기둥이 쓰인다.

② 방형기둥(네모기둥)은 궁궐에서 정전(正殿)이나 중요한 내전(內殿)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에서 쓰이고, 일반 주택에는 거의 방주를 사용한다. 그러나 건축에 대한 규범이 해이해지면서 지방의 일부 상류주택에서는 방형기둥과 원형기둥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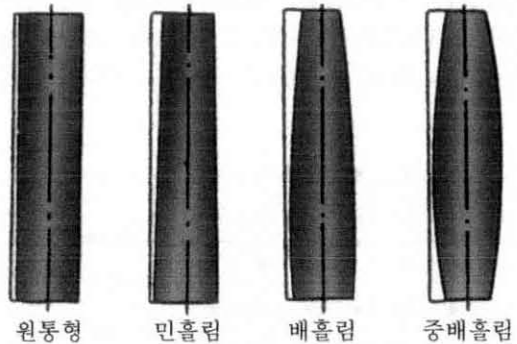
③다각형기둥은 특수한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평면형태가 육각일 때 육각기둥을 세우는 경우(경복궁 향원정)도 있고, 팔각기둥은 주로 사찰의 활주로 사용된다. 팔각 이상이 되는 기둥은 활주나 재사(齋舍)의 누하주(樓下柱) 등과 같은 특수한 기둥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3)기둥을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건물의 바깥쪽에 둘러선 기둥을 외진주(바깥기둥, 변두리기둥)라 하고 내부에 줄 바르게 둘러선 기둥을 내진주(안기둥)라 하며, 모서리에 세워진 기둥을 꺾기둥, 즉 우주(隅柱)라고 한다.

①외진주는 외진칸에 위치한 기둥이다. 외진주는 다시 평주와 우주(꺾기둥), 퇴주로 세분되고 평주는 건물의 정면과 측면, 배면의 기둥으로 나눌 수 있다. 퇴주는 퇴칸이 달린 건물에서만 볼 수 있는 기둥이다.



기둥 각부 명칭(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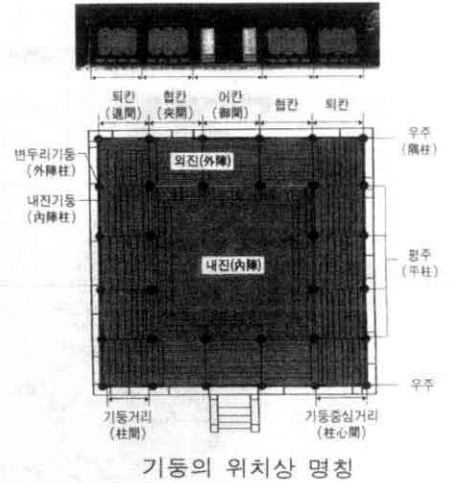
입면형태에 따른 기둥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6) 그리스 건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양고전 기둥의 엔타시스(entasis)도 시각교정을 위한 흘림기둥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배흘림과는 조금 다르다. 이것은 기둥 밑동이 가장 굵으며 위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는 흘림이고, 배흘림은 기둥높이의 1/3 지점이 가장 굵으며 밑동은 이보다 가늘고 위끝은 밑동보다 가늘게 한 것이다.

②내진주는 내진칸에 위치한 기둥이다. 소규모 건물에는 보이지 않으며 건물 평면이 넓고 건물이 높을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특히 목조탑과 같은 중층건물에서 심주(心柱)가 건물 중앙에 설치된다.

(4)귀솟음과 안쏠림기법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의 기둥세우기 기법에는 귀솟음 기법과 안쏠림기법(오금법)이 있다. 이들 기법은 모두 착시를 교정해주기 위한 의장적 효과 때문에 사용되는 기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나 모서리기둥에 집중되는 수직하중 때문에 다른 기둥에 비하여 줄어드는 높이를 고려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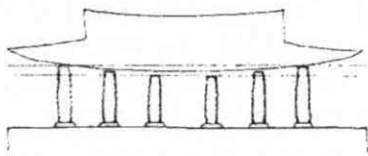


①귀솟음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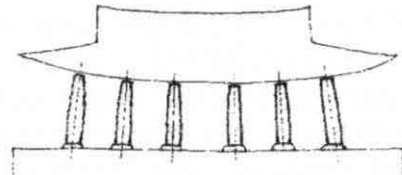
귀솟음이란 건물의 정면 중앙간 좌우 기둥을 기준으로 하여 모서리로 갈수록 기둥을 점차 조금씩 높게 의도적으로 하여 컷기둥인 우주가 가장 높게 된 것으로 건물의 좌우 끝이 처져 보이는 착시를 교정하고, 구조상으로도 추녀를 받는 기둥의 하중이 커서 목조기둥이 장시간에 걸쳐 줄어드는 재료상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해 의도한 기법이다.

②안쏠림기법(오금법)

안쏠림은 모서리기둥 위가 건물 안쪽으로 기울게 되어 전체 기둥 밑둥이 바깥으로 조금 벌어진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이것도 건물의 상부가 벌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을 수정하고 구조적으로 건물 중심 종보에서 서까래를 빗걸어 가구재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어하여 건물의 안정을 구조적으로 도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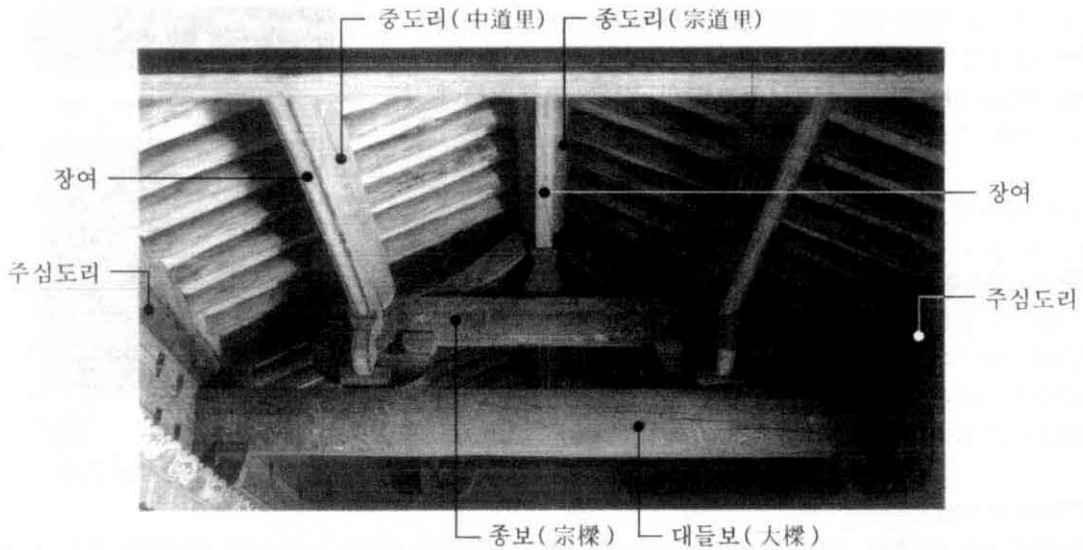


귀솟음 기법



안쏠림 기법

이와 같은 기법들은 동양의 목조건축에서뿐 아니라 희랍의 석조신전건축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서 지금까지 그 유례를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목조유구는 존재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석탑이나 부도 등의 석조유구에서 그 기법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서양신전건축에서 나타나는 시각보정기법은 건물의 중앙부가 높아지게 하여 한국건축의 귀솟음기법과는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5량가 가구

1.5. 가구(架構)

가구란 건물의 뼈대, 즉 골조(骨組)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구형식 또는 가구법을 이러한 뼈대를 짜 맞추는 법식이라 말할 수 있다. 가구를 크게 나누면 벽체가구와 지붕가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마루·천장·계단가구 등이 있으나 보통 가구라면 지붕가구를 뜻한다.⁷⁾

지붕가구는 지붕을 이루는 골조부분으로 기둥 상부의 공포와 보(梁, 樑) 도리(道里), 대공(臺) 등이 포함되는데 목조건축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결구되며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바깥 처마 밑이나 내부에 노출되는 지붕가구에는 의장적 고안이 필요하며 건물규모나 공포양식에 따라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또 가장 복잡하고 아름답게 꾸민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가구형식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가구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종단면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층수, 고주(高柱)⁸⁾의 수와 위치, 도리의 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통 2고주 5량 또는 2고주 7량 등으로 부르는데 이는 대체적인 건물의 규모와 구조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구분법이다.

일반적으로 층수와 고주의 수(數)는 건물의 규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층층이 되거나 건물의 규모가 장대해지면 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고 목재의 한계 때문에 보의 경간(徑間)을 줄이고 구조를 더 안정되게 하기 위하여 고주의 도입은 필수적이게 된다.

이 경우 고주가 하나 있으면 1고주, 고주가 중심에 위치하면 심주(心柱), 2개이면 2고주 등으로 부른다.

서까래를 받는 도리(종도리, 중도리...)의 총수에 따라 삼량(三樑)·오량(五樑)·칠량(七樑) 지붕틀 등으로 구분된다. 이때 중도리는 동자주 또는 고주가 직접 받게 되고 종도리(마루도리)는 대공이 받게 된다. 동자주는 쪼구미⁹⁾라고도 하며, 오량쪼구미, 칠량쪼구미라는 말도 있다.

지붕 가구형식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7) 정기인, 『韓國木造建築大系 V. 木造』, 普成閣, 1988, p.72

8) 고주는 기둥을 구조상 분류할 경우 한 층에서 일반 높이의 기둥(평기둥)보다 높은 기둥으로 상부에는 중도리 또는 종보를 받고 옆에 대들보가 끼이는 기둥이다.

9) 동자주 등으로 짠 지붕틀의 가구를 말하며 동자주 자체를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①삼량(三樑, 세마루) : 단칸집에 쓰이는 제일 간단한 가구형식으로 앞뒤의 주심도리(처마도리)와 종도리만으로 구성된 것이다. 회랑 등의 간단한 건물형식에만 볼 수 있다.

②사량(四樑), 평사량(平四樑) : 한칸사이에 전후중도리가 접근되어 있을 때 종도리 없이 서까래를 수평으로 걸고 그 위에 적심재나 보토(補土)로서 용마루를 꾸민 것이다. 비각(碑閣), 대문 등의 좁은 간사이에 쓰이는 형식이다.

③무고주 오량(無高柱 五樑) : 한칸 또는 두칸의 간사이에 전후중도리를 걸어 꾸민 지붕가구로서 일반 건물에 가장 많이 쓰인다. 이 경우 간사이는 넓으나 높은 기둥이 없이 결구된 것이 특징이다.

④반오량(半五樑) : 전면지붕은 오량으로 꾸미고 후면 지붕은 삼량로 된 것으로서 주택 등의 간소한 건물에 쓰인 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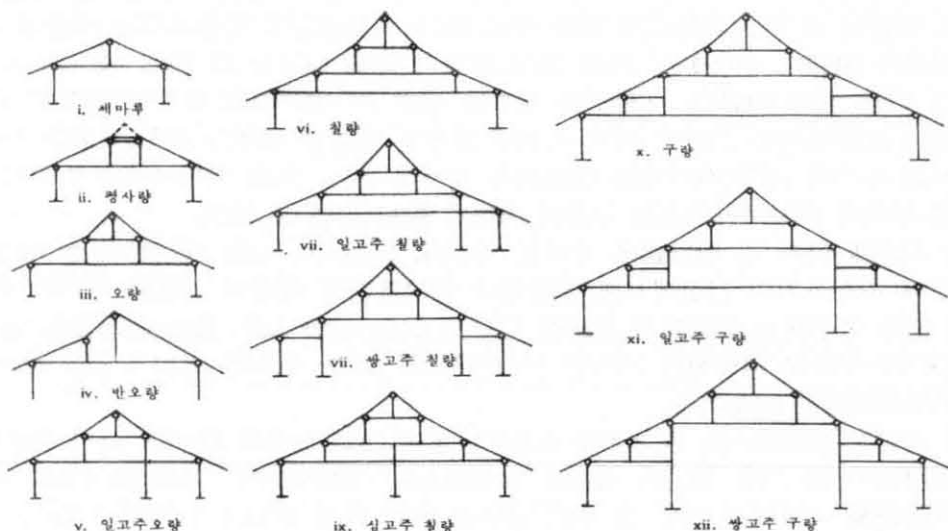
⑤일고주 오량(一高柱 五樑) : 뒷마루 또는 복도 등이 있어 중간에 기둥이 설 때 이것을 높이어 동자주를 겸하게 하고 전후에 지붕보(들보)를 받은 고주를 쓴 오량이다.

⑥심고주 오량(心高柱 五樑) : 건물 중심에 고주를 세운 오량으로 성문(城門) 등에서 볼 수 있다.

⑦이고주 오량(二高柱 五樑) : 건물의 앞과 뒤에 대칭을 이루며 고주와 평주로 짜이고 앞뒤에 퇴칸을 둔 형식으로 양반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⑧무고주 칠량(無高柱 七樑) : 두칸 이상의 긴보를 쓰는 가구에서 전후에 상하 중도리를 각각 써서 도리의 합계가 일곱이 되는 지붕틀이다. 이 경우 넓은 간사이에 고주가 없이 동자주와 중보, 종보 등 상부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상부하중을 지탱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구조로 그 예가 드물다.

⑨일고주 칠량(一高柱 七樑) : 동자주를 겸하여 중간에 고주를 세운 것이고 작은 불전 등에서 뒤쪽에 복도를 둘 때에 흔히 쓰인다.



가구도

⑩심고주 칠량(心高柱 七樑) : 간사이의 중간에 고주를 세우고 전후로 지붕보(들보)를 받게 되며 위는 중종보나 종보를 받게 된다. 이 기법은 성곽의 문루처럼 측면이 두칸으로 될 때 흔히 쓰인다.

⑪이고주 칠량(二高柱 七樑) : 전후에 고주를 세우고 고주 위에는 오량으로 하고 퇴칸을 달은 형식의 지붕가구로서 중앙은 큰 간사이가 되고, 전후에 복도를 두는 등의 대청이나 큰 방에 쓰인다.

⑫무고주 구량(九樑) : 3칸(18자) 내지 4칸(24자)되는 지붕가구로서 도리의 합계가 아홉이 되는 가구로서 단일재의 보로서는 최대형이고 재의 단면높이도 2자 또는 2자반이상이 되어야 한다.

⑬일고주 구량(一高柱 九樑) : 구량각 내부에 고주를 하나 세워서 보의 간사이를 작게 하고 고주 뒤는 뒷마루, 복도 또는 다른 용도로 쓰일 때에 유리한 것이다.

⑭이고주 구량(二高柱 九樑) : 내부에 고주 두 개를 세운 큰 간사이의 건물에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앞에 뒷마루·복도, 뒤에 고방이나 부속방을 둘 때에 쓰이며 구조적이며 고주 위에는 오량이 되고 평주와의 사이는 삼량형식의 가구로 되는 것이다.

2) 가구형식의 기본부재

(1)보(樑 · 梁)

보는 건물의 앞·뒤 기둥 위에 걸쳐 이들을 연결하는 수평구조재를 말한다. 구조, 형태, 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의 종류는 대들보, 중종보, 종보, 퇴량, 총량, 우미량, 깃보, 합보 등이 있다.

한국 목조건물의 층보는 대개 마루귀를 자체가 층보를 겸하여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층루의 귀를 밑에 굽은 부재로 보강된 것은 층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①대들보(大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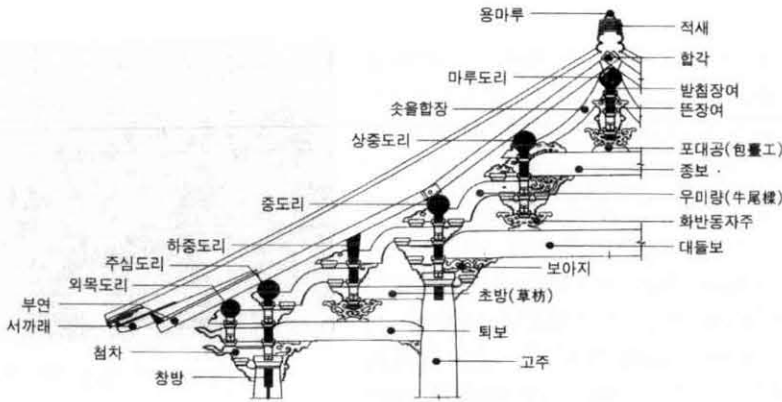
목조건축의 기본구조재로 대들보 없는 건물은 흔하지 않다. 정면이 단칸이든가(통도사 불이문 등), 목탑일 경우엔 대들보가 없을 수도 있으나 일반형의 건물에서는 대들보 없이 내부공간 형성은 어렵다. 대들보는 기둥 위에 공포가 있을 때에는 그 위에 놓이고 공포가 없으면 바로 기둥 위에 얹힌다. 대들보는 평주와 평주 즉 앞쪽열의 평주와 뒤쪽열의 평주에 걸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스패인이 커져 내부에 고주가 세워질 때에는 평주와 고주 사이는 퇴보가 걸치고 고주와 고주 사이에는 대들보가 걸치게 된다. 흔히 기둥사이의 간격이 20척이 넘으면 한 부재의 대들보만으로는 구성이 어려워 합보(合樑)로 한다.

대들보는 시대에 따라 그 단면형에 차이를 보인다. 고려시대 건물 대부분이 항아리형의 단면이 많으며 조선초기의 건물에서는 장방형에 밑부분만을 둥글게 다듬은 형태가 유행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장방형과 정방형 단면의 보를 상하 모두 둥글게 다듬은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 수법은 역학적 기능을 살리면서 의장적인 효과를 겸하고 공포와의 결구도 원만하게 처리하려는 의도이다.

대들보의 각음질 형태에서도 시대차를 보인다. 고식(古式)일수록 홍예형 보가 많은데 이는 보의 중앙부분이 축 처져 보이는 시각의 착시현상을 수정해 주기 위한 것이거나 구조적으로도 수직하중을 수평재가 받는 것 보다 상부로 약간 굽은 형식이 안정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②중중보(中宗樑)

집의 규모가 커져 7량 이상 가구되어야 할 때, 중도리를 받는 동자주가 서는 대들보와 중보의 중간 높이에 있는 보를 중중보라 부른다. 이런 경우는 규모가 큰 건물에서 나타난다.



수덕사 대웅전 가구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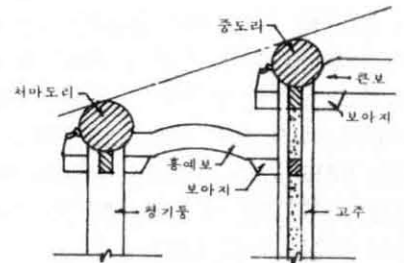
③중보(宗樑)

중대공을 받게 된 보로 여러 보 중에 가장 위에 놓인다. 그래서 마루보 혹은 중보라고 부른다. 5량 이상의 가구에는 반드시 사용되며 대들보에 놓인 동자주나 대공에 의하여 지탱되며 중보 양쪽 끝에 중도리를 얹어 짧은 서까래인 단연(短椽)의 하중을 받는다. 중보는 대략 대들보 길이의 1/2이며 대들보에서 중도리까지의 높이의 1/2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퇴보, 홍예보(退樑, 虹霓樑)

퇴보(退樑)는 대들보 보다 한단 낮게 걸치는 것이 보 통이며 고주가 있을 경우나 퇴간이 달릴 때에 사용되는 짧은보의 한 종류이다. 퇴보의 모습이 아취형의 홍예이기 때문에 홍예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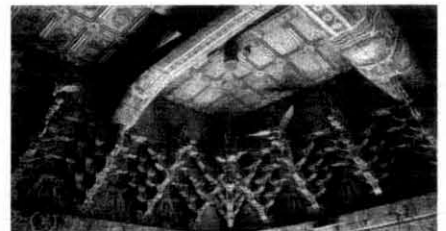
홍예보(虹霓樑)는 보의 끝머리는 수평으로 걸리고 중간부가 휘게 된 것을 말한다. 이 보도 퇴량과 같은 맞춤으로 한다. 때로는 퇴보가 휘어 오른 것이 소꼬리 모양과 같아 우미량(牛尾樑), 혹은 홍예보라 하기도 한다.



홍예보

⑤충량(衝樑)

맞배집이나 사모집 등에서는 볼 수 없고 팔작, 우진각 지붕에 도리칸 2칸 이상의 가구에서만 보인다. 보의 대부분은 대들보에 평행되도록 걸리는데 이 보만은 대들보의 직각방향으로 놓인다. 부위(部位)는 퇴량의 경우 전면과 후면에 놓이나 충량은 측면에 놓이는 게 차이점이다. 결구는 측면의 평주와 대들보에 얹히게 된다. 이 보의 기능은 측면 평주의 건실한 세움을 위함이며, 측면을 통과하는 중도리 등을 떠받쳐 지붕과 박공부분의 하중을 지탱하여 기둥과 보로 연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팔작이나 우진각집일 경우라도 측면이 2칸 이상이고 내진고주가 측면의 평주와 동일선상에 배열되지



홍국사 대웅전 충량

않을 때만 가구된다.

총량머리가 대들보 위에 얹히는 양식에서 그 끝의 처리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용머리로 조각되기도 한다. 직절(直切)되었을 경우에는 태평화(太平花) 등의 단청으로 마무리한다.

⑥우미량(牛尾樑)¹⁰⁾

부재가 휘어진 모습이 소꼬리 모양과 같아서 부쳐진 이름이다. 서까래 아래에서 위, 아래의 도리를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팔작이나 우진각집, 또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는 볼 수 없는 보로서 주로 고려시대와 조선 조 초기의 맞배집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특징은 도리와 도리 사이를 연결시켜 준다. 도리는 위치에 따라 서로 높이에 차이가 있다. 아래와 위의 도리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직재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반드시 곡재를 사용한다. 역학적으로도 기능을 하겠지만 그 곡면부재의 아름다움에서 의장재로도 역할을 한다. 우미량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다. 강릉 객사문에도 약한 우미량이 있으나 수덕사의 예보다 빈약하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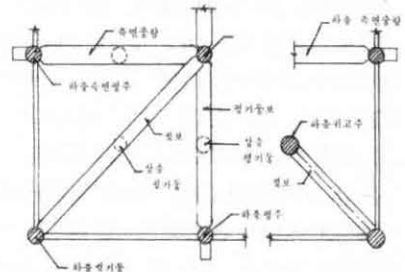


수덕사 대웅전 우미량

또한 우미량은 기둥 위에 짜이지 아니하고 도리나 보 위에 걸쳐 귀 또는 회침부의 동자주나 대공을 받는 보로서 중간이 위로 휘어 오른 보의 총칭이기도 한다.¹²⁾

⑦귓보(耳梁)

팔작집, 우진각집 등 규모 큰 건물의 모퉁이에서 보이는 부재이다. 건물 모퉁이는 추녀가 지나가는 곳이므로 보의 기능이 필요 없으나 건물이 크고 내부에 우고주가 서게 되면 퇴량과 같은 높이로 우고주와 우주를 대각선 방향으로 연결하는 귓보를 걸어 귀기둥(隅柱)을 보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중층의 건물일 경우 귓보 위에 이층우주를 세우는 수도 있다. 우고주가 직접 이층의 우주가 되기도 하나 귓보에 귀기둥을 따로 세워 짜는 경우가 건물 체감상 필요할 때도 있다. 이때의 귓보는 퇴량과 같은 역할을 하며, 퇴량 위에 2층 평주를 세우는 가구법은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특징이기도 하다.



귓보 배치평면

⑧합보(合梁)

합보는 기둥 위에서 양쪽으로 서로 맞물리게 연결된 보를 말한다. 건물의 평면이 넓을 때 기다란 보 부재를 얻기가 어려워 보 부재를 이은 합보를 쓰며, 중층(重層)의 협소한 평면에서 퇴보가 생략되었을 때 흔히 맞보를 쓴다. 대들보와 같은 부재로 쓰이면서 대들보와 구분되는 것은 맞보에는 고주나 받침기둥이 따로 있어 두 보가 맞닿게 되고 산지나 띠철로 결합된다.

(2) 도리(道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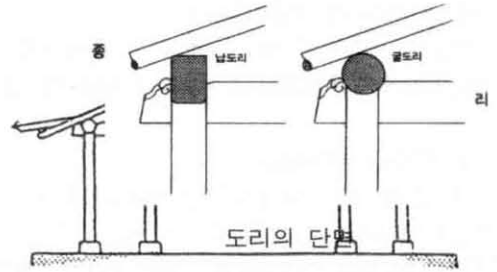
도리는 서까래 아래에서 서까래와 직각방향으로 놓여 서까래를 받쳐 주는 부재로서 기둥 위에 놓이는 각종 부재를 막음하여 서까래를 받는다. 도리는 놓이는 위치에 따라 7종으로

10) 우미량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조선중기 이전의 건물로서 수덕사 대웅전과 강릉 객사문에서 볼 수 있는 우미량과 두 번째는 도리나 보 위에 걸쳐 대어 귀 또는 회침부의 동자주나 대공을 받는 조로서 중간이 휘어 오른 보의 총칭으로 사용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다.

11) 金東賢, 『韓國古建築斷章 下卷』, 通文館, 1977, p.179.

12) 장기인, 『韓國木造建築大系 V. 木造』, 普成閣, 1988, p.264. 13)

나누어지고 집의 규모에 따라 개수의 가감이 생긴다. 그러나 어느 집이나 주심도리(柱心道里)와 종도리(宗道里)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즉 3량가구에서는 기둥 직상에 주심도리가 있고, 용마루 아래 부분에 종도리가 있다. 5량가구에서는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중도리가 들어가며 7량가구에서는 중도리 위나 아래쪽에 상중도리나 하중도리가 한 개 더 첨가되며 9량가구에서는 상·하·중도리가 모두 첨가 된다.



도리 명칭(7량집)

외목도리(外目道里)나 내목도리(內目道里)는 주심도리를 기준으로 볼 때 주심의 바깥 것을 외목도리, 안의 공포 위에 얹힌 것을 내목도리라 한다. 외목이나 내목도리는 모두 가구의 기본구성과는 관계없이 쓰인다.

도리의 단면형은 원형과 방형, 각형 등이 있다. 이때 도리 단면이 원형인 경우 굴도리라 하며 방형인 경우는 납도리라 한다. 또한 각형으로는 6각형과 8각형 등이 있는데 이를 육모도리, 팔모도리등으로 부른다. 굴도리는 관영건축 또는 사찰건축 등 위계가 높은 건축물에서 주로 쓰이고 납도리는 일반 주택건축에서 쓰이나 상류주택의 경우 굴도리를 사용하는 예도 있다.

①주심도리(柱心道里)

주심도리는 외진의 평주위에 걸치는 도리를 말한다. 즉 맨 바깥 기둥위에 있는 도리이다. 주심도리는 보통 대들보나 퇴량 위에 얹히는 것이나 상대건축(上代建築)일수록 보 보다는 훨씬 상부에 얹혀 긴서까래(長椽)를 받게 되었다. 다포집에서는 주심도리를 생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때 내목도리는 반드시 사용된다.

②외목도리(外目道里)

주심 밖의 외부도리로 여러 도리 중에서 가장 낮게 걸리는 도리로 처마도리라고도 한다. 간단한 건물에는 없으며 공포를 갖고 있는 건물에서는 어느 경우에서나 나타난다. 이 도리는 바깥공포의 최상단을 막음시키며 처마 하중의 일부를 받아 주심도리의 과중한 하중을 분산시켜 준다.

③내목도리(內目道里)

다포계 공포 내부 상단에 얹혀진 도리로 긴 서까래 뒷목이 여기에 걸린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재를 사용할 때도 있다. 위치로 보면 하중도리(下中道里)와 유사하다.

④중도리(中道里)

주심도리와 종도리 중간에 위치하며 고주 위에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5,7,9량의 건물에서 나타난다. 중도리는 긴 서까래(長椽)와 짧은 서까래(短椽)가 겹치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내진고주가 있을 때는 고주 위에 놓이고 고주가 없을 때는 중종량(中宗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⑤하중도리(下中道里)

중도리 바로 아래 놓이는 도리로 중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에 있다. 따라서 내목도리의 위치에 해당한다. 9량가구집 이상의 건축에서는 장연의 중앙부를 받고 있는 퇴량 위에 놓이는 수가 많다.

⑥ 상중도리(上中道里)

중도리 위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종도리와 중도리 사이에 놓여 단연의 중앙을 받쳐준다. 7량, 9량가구집의 가구에 보인다. 상중도리 밑은 중량이 받쳐준다.

⑦종도리(宗道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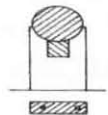
맨 위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루도리라고도 한다. 가구재의 최상부의 부재로 용마루 받침재이다. 이 도리에서는 앞 뒤쪽의 짧은 서까래가 서로 만나며 어느 건축의 가구에서나 기본 부재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종도리 아래 장혀에는 상량문이나 건물관련 기문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대공(臺工)

대공은 대들보 위에 얹혀 중중보나 종보, 그리고 도리 등을 받쳐주는 부재로 형태와 형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진다.

①동자대공(童子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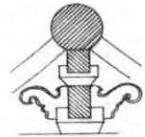
대들보와 종보 위에 얹혀 도리를 동자주 모양의 각재이다. 대공 중에 가장 간단하고 시공이 편리하다. 이 대공은 주로 대들보 위에 놓여 중도리나 상중도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자가 있을 경우에 많이 쓰인다.



동자대공

②접시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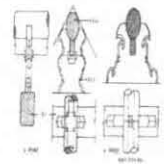
종보 위에 접시받침을 놓고 그위에 뜬창방, 초공 등을 짜고 또 소로로 받쳐서 장여와 도리를 받게 한 대공을 말한다. 영암 도감사 해탈문의 대공이 접시대공이다.



접시대공

③화반대공(花盤臺工)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앙련(仰蓮), 파련(波蓮), 안초공(按草), 복화반(覆花盤) 등이 이에 속한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앙화형 조각의 대공이 많고, 고려말 조선초 건물에는 파련대공이 많다. 안초공은 다른 대공과 복합하여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주심도리를 받치는 데에는 홀로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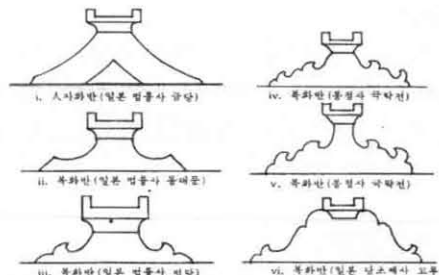


화반대공

꽃을 엮어 놓은 모습인 복화반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례가 드물어 현재 봉정사 극락전과 송광사 하사당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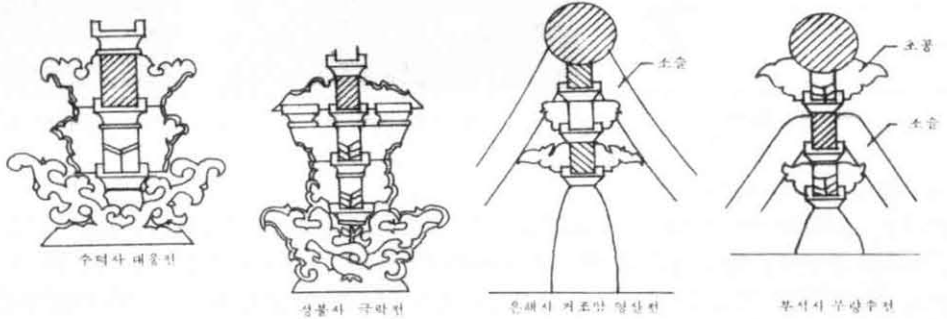
봉정사 극락전 복화반



각종 복화반

④포대공(包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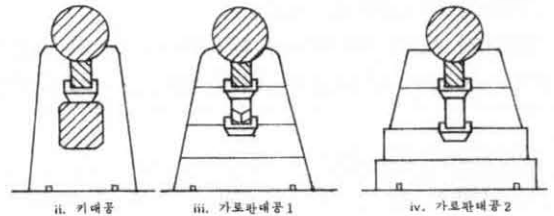
공포처럼 조립하여 쌓아 올린 대공을 말한다. 포대공은 공포부분의 짜임이 간단하게 된 것부터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많은 형상은 포대공에 화반대공을 복합시킨 것으로 형태가 복잡하다. 포대공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중보 받침에 쓰이며 종대공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포대공

⑤판대공(板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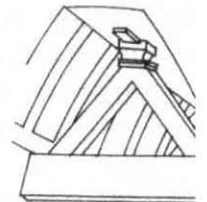
판재의 나무토막을 중첩하여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다리꼴 모양이며 장식이나 조각을 하지 않아 단순한 모습이다. 주로 종량 위에 얹혀서 종도리를 받게 하였는데 반가의 대청이나 누각의 연등천정으로 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판대공

⑥인자대공(人字臺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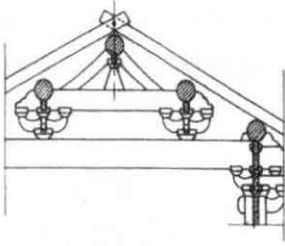
인자대공은 인자모양으로 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나타나는 고행식은 현존하는 건물에서는 볼 수 없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법륜사 금당 등의 현존 예가 다소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이후의 건물에서는 두개의 부재를 모아 인자를 이루는 형식으로 된 인자대공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인자대공 수법은 발전하여 결국 합장재(合掌材)로 변화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인자대공

⑦합장(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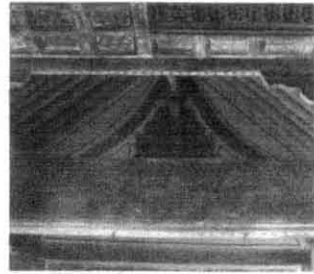
합장은 대공과 같은 역할을 하나 위치에 따라 구조적인 기능이 다르다. 흔히 솟을합장이라고 부르는 합장은 인자형 대공과 같은 모습이지만 직접 종도리를 받쳐주는 것을 형식이고 종도리를 직접 받쳐주지 않고 대공을 좌우에서 지지해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인자대공이라고 한다. 즉 합장은 일반적으로 종량 위에 얹혀 종도리를 측면 보강하여 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공의 수평 이동을 방지하여 주는 경우도 있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8세기 이전에 대공 없이 솟을 합장재로만 종도리를 받쳐 주는 건물의 예가 보인다.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주로 여말선초 건물들에 이 수법의 합장재가 보이나 모두 대공과 같이 복합되어 사용되었으며 구조적 기능뿐만 아니라 의장적인 기능에도 배려가 있었던 것 같다.



부석사 조사당



도갑사 해탈문



무위사 극락전

(4) 장혀(장어, 長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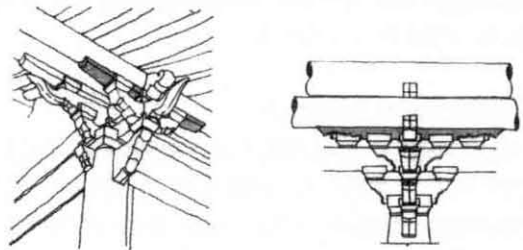
장혀는 도리를 떠 받쳐주는 보조재로서 도리 밑에는 항상 장혀가 붙어 다닌다. 장혀는 일반적으로 단면이 장방형으로 폭 보다 높이가 크다. 장혀는 도리 전체를 떠받치는 통장혀(긴장혀, 通長舌)와 공포의 위에 얹혀져 도리의 일부분만을 받쳐주는 단장혀(短長舌)로 대별된다. 종도리 아래의 장혀 밑에는 일반적으로 상량문이 써 있다.

①통장혀(긴장혀, 通長舌)

장혀가 도리 밑바닥을 받치면서 도리와 같은 길이로 된 것을 말한다. 통장혀(혹은 긴장혀)는 단장혀와 구분하기 위해 붙여진 말로 대부분의 장혀는 통장혀로 된 것이 많다.

②단장혀(短長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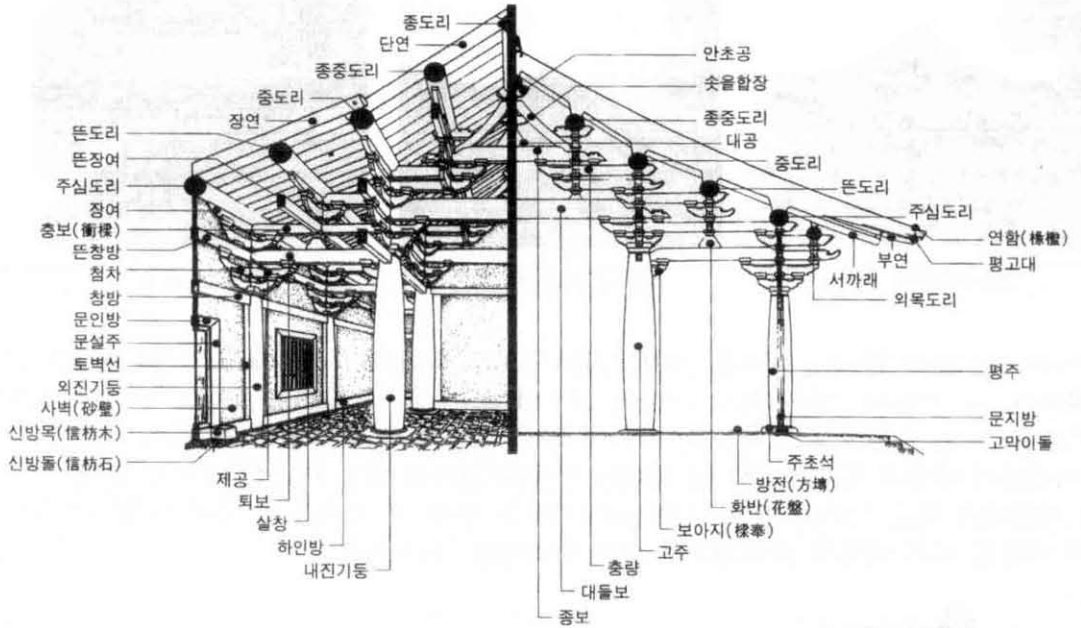
단장혀는 글자 그대로 짧은 장혀를 일컬으며 도리가 하부 가구재에 얹혀질 때 얹혀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도리 방향 좌우로 짧게 도리재를 받쳐주는 장혀이다. 이 장혀는 주로 고려와 조선초 주심포계 건물들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조상으로는 긴장혀와 크게 다를바 없으나 다 포계 건물에서는 단장혀를 볼 수 없다.



단장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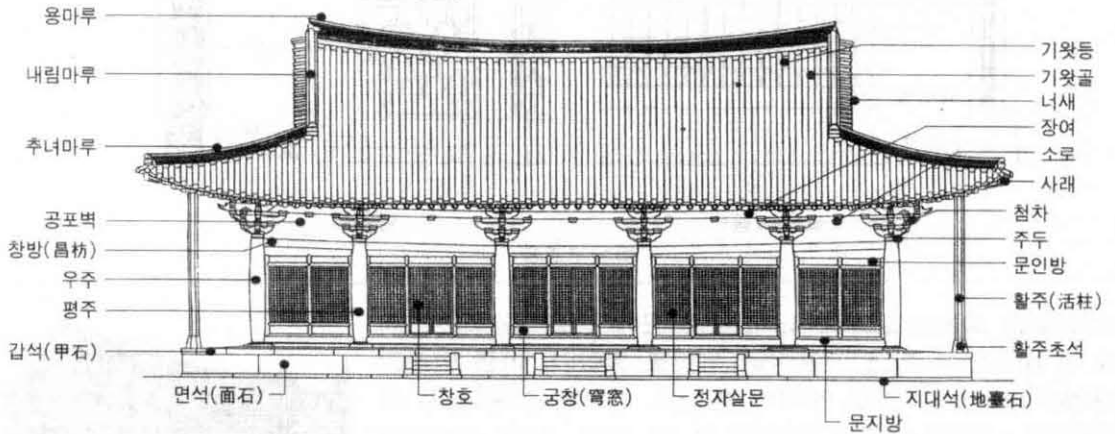
③뜬장혀(별장혀, 別長舌)

도리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통장혀나 단장혀 아래쪽에 떠 있는 상태로 부재간을 연결시켜 주는 구조재다. 뜬장혀는 기둥위에서 중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매의 조절에 많은 관련을 갖고 있다. 가구가 간단한 건물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개 7량집 이상의 건물에서 많이 보인다.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 가구도



부석사 무량수전 정면도

1.6. 벽체(壁體)와 창호(窓戶)

한국건축의 입면 의장의 한 특징은 대부분의 건축물이 정면을 거의 벽체 대신 창호로 구성하고, 벽체를 형성하는 부위는 주로 측면과 배면이 구성하고 있다. 14)

한국건축의 벽체를 형성하는 부위는 결국 측면과 배면이 되고 벽체가 정면에 오는 경우는 주택의 행랑이나 궁궐 전각의 회랑, 향교, 서원의 외곽 행랑처럼 몸체를 제외한 부속체에서 볼 수 있다.

14) 주남철, 앞의 책, pp.80~86.



최석기가옥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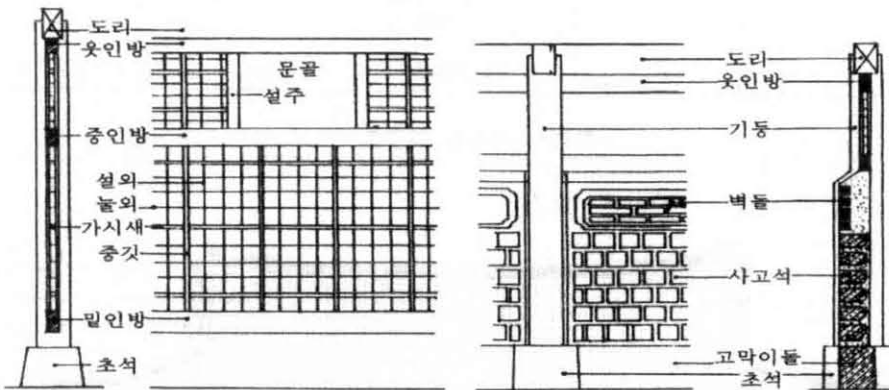
무위사극락보전 측면



금정암 배면

한국건축의 벽체 양식은 대부분 심벽(心壁)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입면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즉 기둥과 기둥사이에 인방을 상·하 또는 상·중·하로 보내고 여기에 중깃과 가시새를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여기에 다시 설외와 놀외를 엮은 후 흙을 바르고 석회로 마감하기 때문에 입면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매끈한 벽체가 된다.

또 사찰이나 궁궐 건축의 벽체에서는 목조가구의 부재 즉 기둥과 보 등이 노출되고, 그 사이에 벽체를 치기 때문에 의장상으로 강한 구조미를 나타낸다.



평벽바름벽

벽체구조도

방화벽

목조건물은 화재연소의 위험이 있는 곳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 바깥면에 돌을 진흙이나 석회로 쌓았다. 이를 방화장(防火牆)이라 하고 주로 주택의 행랑채 하벽에 이용된다. 지대석 위에 다듬은 방형의 돌들을 몇 단 쌓고, 위에 석회줄눈으로 사고석(四塊石)을 쌓거나, 아니면 위에 벽돌을 일부 쌓아 마감한다.

이와 같이 측면과 배면의 주체를 이루는 벽체와는 달리, 정면의 거의 전면을 차지하는 창호의 의장은 한국건축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창호처럼 다양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건축의 창호는 '창(窓)'과 '호(戶)'의 합성어로서, '窓'은 'Window'이고, '戶'는 'Door'이다. '室之口戶요, 堂之口門'이라 하였다. 다시 말해 방이나 대청 등 각채의 실내공간에 드



방화장

나들기 위한 것은 '戶'이고, 집에 드나들기 위한 것은 '門'인 것이다.

창호의 발생은 그 연대가 확실치 않다. 다만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 창호의 그림을 찾아볼 수 있고, 백제의 동탑편(銅塔片)에서 교살로 된 창호, 신라시대는 각종 석탑과 부도에 조각되어진 창호 조각 등으로 삼국시대의 창호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은 고려시대에 계승되어 부석사 무량수전의 정자(井字)살 창호나 수덕사 교살창호와 같은 양식을 이루었고, 이들은 다시 조선시대에 계승되어 여러 종류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창호는 크기와 모양을 비롯하여 개폐방식이 비슷하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류되어 있지 않고 그 한계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에 네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¹⁵⁾

(1) 호(戶)로만 사용되는 것

이 경우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환기나 채광을 위한 창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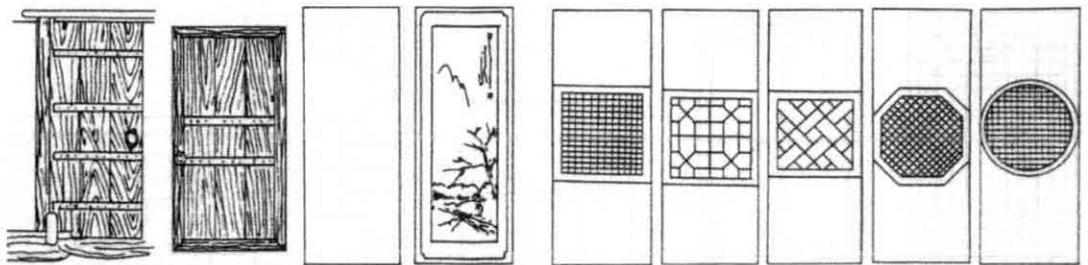
①판장문(板長門) : 몇장의 널판에 띠를 대어 한 장처럼 붙여 만든 것으로 일반주택의 부엌 출입문과 광문, 방의 덧문으로 사용된다.

②골판문(骨板門) : 문 울거미를 짠 후 그 사이에 청판을 끼운 것으로, 주택의 각방 덧문으로 쓰이고 또 고방문으로도 사용된다.

③맹장지(盲障子) : 문 울거미에 두꺼운 종이로 안팎을싸서 바른 문으로 일반 주택의 방과 마루 사이의 지게문으로 사용한다.

④도둑문 : 맹장지와 같은 종류의 문으로 울거미 부분만 돌보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택의 다락문과 방의 안쪽에 설치하는 두꺼비집으로 또 두꺼비집 속에 설치하는 갑창(甲窓)으로 사용한다. 갑창은 닫으면 빛, 바깥공기의 찬기운이나, 소리들을 차단해 준다.

⑤불발기 : 맹장지와 같은 문의 중앙부에 직사각형, 팔각형 등의 울거미를 만들고 이 속에 교살, 정자살, 완자살 모양을 짜 넣은 문이다. 중·상류주택의 대청과 방 사이에, 또 궁궐, 서원 등의 대청과 방 사이에 설치하며 이 문의 문짝들을 접어 들쇠에 매달게 되어 있다.



판장문

골판문

맹장지

도둑문

불발기

각종 호(戶)의 종류(주남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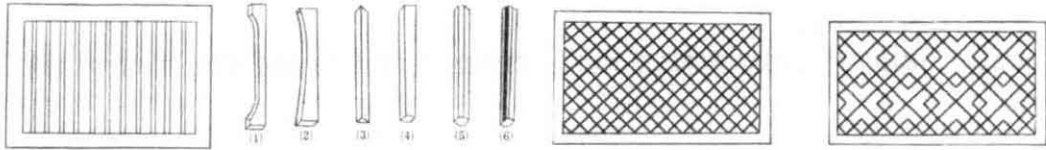
(2) 창호로만 사용되는 것

이 경우는 환기와 채광을 위한 것을 벽의 상단에 설치된다.

15) 주남철, 앞의 책, pp.83~106.

①살창 : 부엌이나 광의 벽에 창 울거미를 짠 후 여러 개의 살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 방향으로 꽂아 만든 것이다. 현대건축으로 보면 일종의 고정창이라 할 수 있겠다. 이때 여기에 꽂는 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이 있다.

②교창 : 일반주택의 부엌 벽이나 광의 벽 높직이 설치하거나, 정면 분합문 상부, 또는 사찰, 왕궁의 정면 창호 상부에 가로로 설치한다. 이 형태는 대개 장방형의 울거미를 짜고 여기에 교살, 아자살, 완자살, 정자살 등의 문양으로 살을 짜 넣는다. 이 경우 창이 고정되는 경우와 프로젝팅하는 경우가 있다.



살창과 살대

교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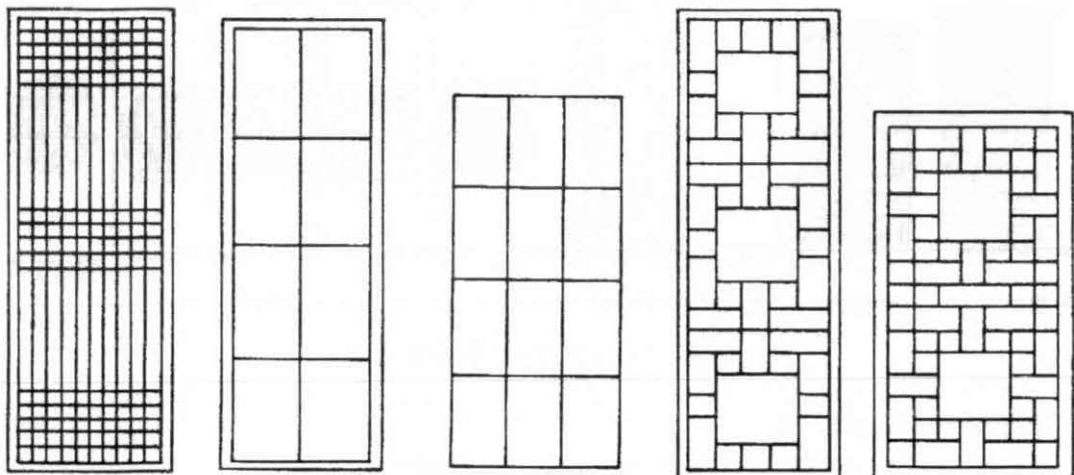
(3) 창과 호로 혼용되는 것

①띠살창, 띠살문 : 문 울거미에 가는 살을 똑같은 좁은 간격으로 수직으로 짜 넣고 수평 방향으로 다섯 줄씩 상, 중, 하 세 곳에 보낸 창호이다. 그러나 높이가 큰 창호에는 5,7,5줄씩 수평살대를 놓아 비례를 맞춘다.

②용자창(用字窓) : 살의 짜임새를 한자의 '用'자와 같게 한데서 취해진 이름으로, 방과 방 사이의 미닫이나 남향창으로 많이 사용된다. 특히 겹문에서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의 사랑채와 같이 남성을 위한 공간에 많이 설치된다.

③아자창(亞字窓) : 이 역시 한자의 '亞'자와 닮은 데서 취해진 이름으로 그림에서와 같이 아기자기한 살 짜임새를 이루며, 주택, 사찰의 승방, 궁전의 내전 등, 특히 여성적인 공간에 많이 사용된다.

④완자창 : 아자창과 같은 공간에 사용되고 이름 또한 한자의 '卍'자에서 온 것이다.



띠살창호

용자(用字)살

아자(亞字)살

⑤정자창(井字窓) : 살 짜임새가 바둑판이나 '井'자 모양으로 된 것이며 왕궁, 사찰의 정면 창호와 교창으로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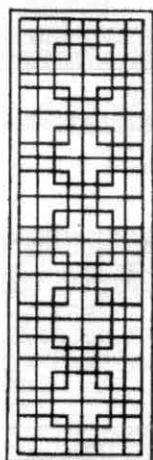
⑥숫대살 : 산(算)가지를 모티브로 구성한 창호이다. 이는 일반주택, 승방 등에서 많이 사용한다.

⑦소솔빛살창 : 수직선의 살과 30° 150°살들을 짜 넣은 것으로 왕궁, 사찰의 꽃살창의 살 짜임새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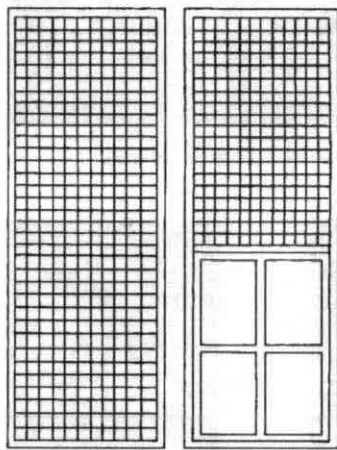
⑧귀자창(貴字窓) : '貴'자의 형태를 무늬로 하여 살을 짠 것으로 주택의 들창이나 불발기에 이용된다.

⑨귀갑창(龜甲窓) : 거북의 잔등 무늬처럼 살을 짠 것으로 주택에서 많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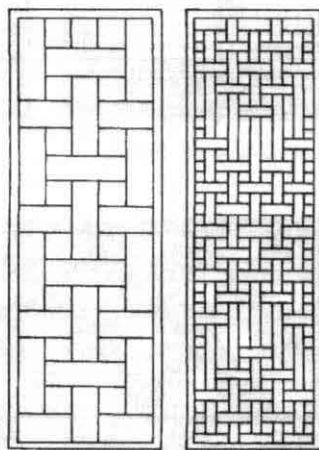
⑩꽃살창 : 창살에 꽃을 새김한 것으로 궁궐, 사찰의 정면 창호에 널리 쓰인다. 꽃살에는 빗꽃살과 소솔빛꽃살이 있는데, 빗꽃살은 빗살창의 짜임새를 바탕으로 꽃새김한 것이다. 또 같은 꽃살창이라 하더라도 정수사 대웅전 꽃살창처럼 통판재를 투각하여 꽃새김한 것과 꽃을 만들어 부착시킨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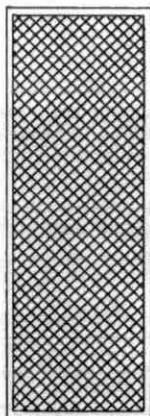
완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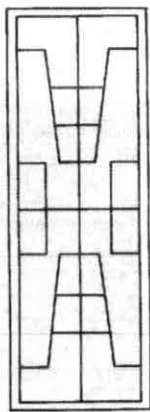
정자살과 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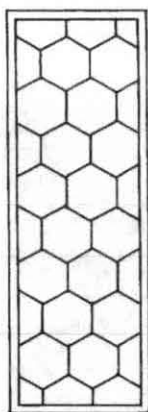
숫대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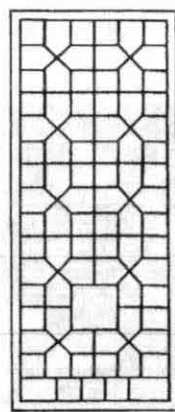
빗살(교살)



귀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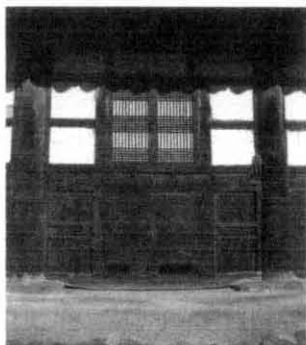


귀갑(龜甲)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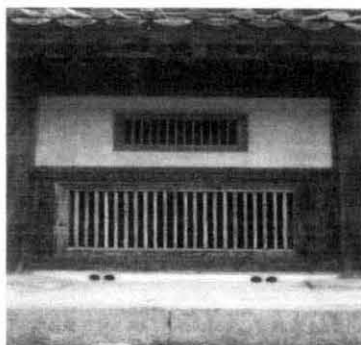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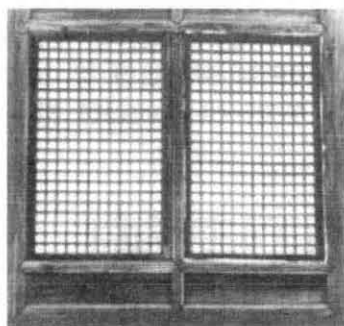
위봉사 요사채 판장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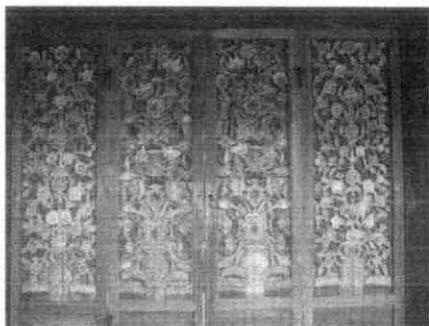
천은사 보제루 창호



해인사 법보전 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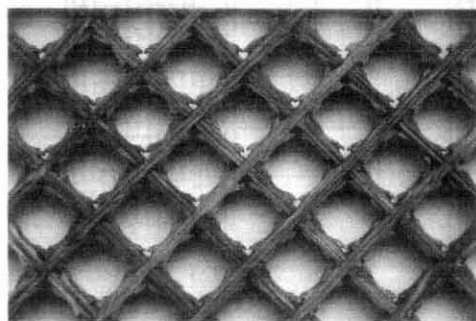
부석사 무량수전 정자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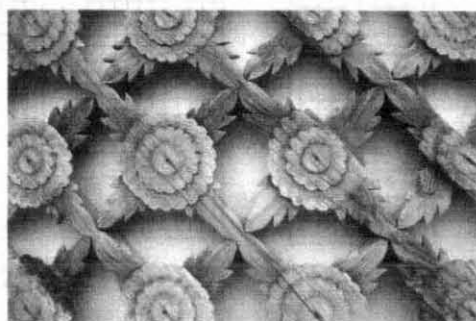
정수사 대웅전 꽃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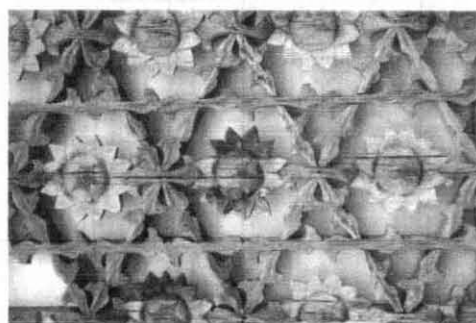
화엄사 영전 빗살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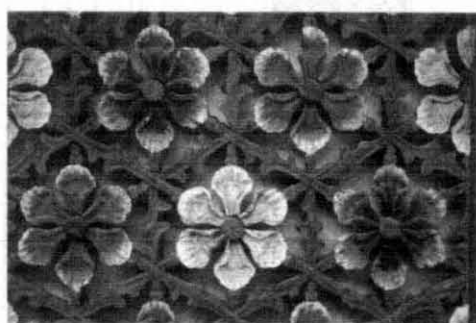
통도사 극락전 창살



내소사 대웅보전 창살



내소사 대웅보전 창살



실상사 약사전 창살

한국 창호의 특성은 중국과 일본이 창호지를 바깥으로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데 비하여 한국은 안으로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입면 구성은 전체적으로 선적(線的) 구성이 된다. 즉, 목조건축의 주구조체인 기둥, 도리, 서까래들이 그것으로 선적인 구성을 하여 창호의 살짜임새를 갖는 선적 구성과 조화되며, 가까이서 목부(木部)가 드러내는 섬세한 나뭇결이 곧 아기자기하고 정교한 살 짜임새와 조화되게 하는 것이다. 또 밝은 햇빛이 그림자를 내부 공간에 투영시키기도 하고 어두운 밤에는 방안의 밝은 불빛이 창호지에 그림자의 실루엣을 투영시키기도 한다.

1.7. 공포대

한국의 목조건축은 돌이나 벽돌들을 쌓아 만든 조적조와는 달리 기둥과 도리, 보 등의 부재들을 이음과 맞춤에 의해 짜 맞추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국의 목조건축은 모두 기단과 축부, 지붕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지붕의 하중을 수직적 구조요소인 기둥에 전달함에 있어 어떻게 분포시키느냐가 문제였을 것인데 이를 보다 넓게 분산시키는 원리로 공포대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공포대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목조건축에서는 서로 유사한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즉 목조건축은 공포를 짜지 않고 축부와 지붕들이 직접 결구되는 민도리집 구조와 공포를 짜서 축부 위에 놓아 지붕틀을 결구하는 포작집 구조로 크게 나뉜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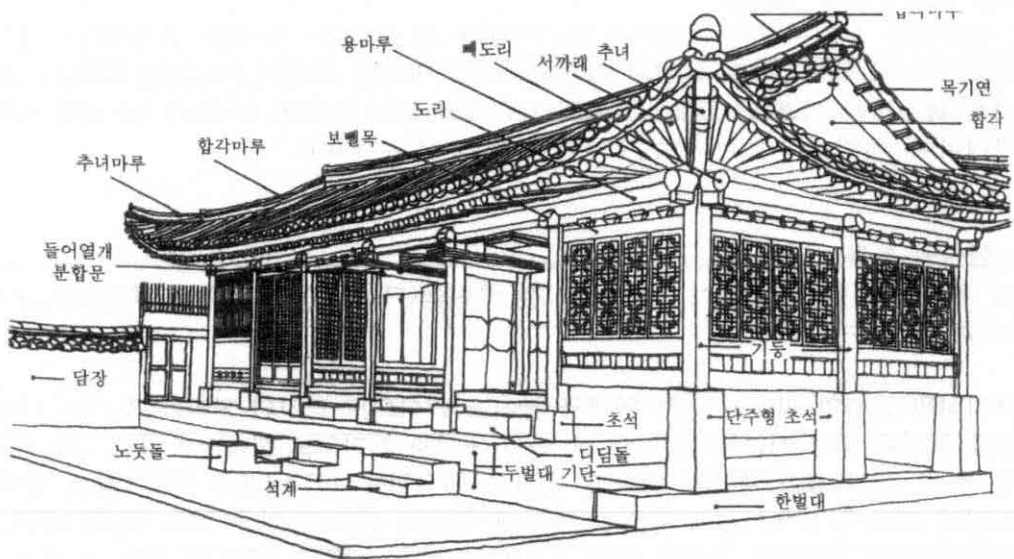
민도리집 구조에서는 다시 도리의 단면이 네모난 납도리집 구조와 둥근 굴도리집 구조로 나누어지고 포작 구조에는 주심포, 다포, 익공의 세가지 구조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①민도리집 구조 : 납도리집, 굴도리집

②포작집 구조 : 주심포집, 다포집, 익공집

공포란 기둥 위에 얹혀져 지붕의 하중을 기둥에 연결하는 부재로서 목조건축에서 가장 복잡하게 결구된 구조물이다. 공포는 건물의 천장을 높여주고 길게 뻗어나온 서까래 상부의 처마하중을 적절히 받아 그 무게를 기둥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공포의 기본부재는 기둥 위에 바로 얹혀지는 주두와 그 위에 十字로 짜여지는 단면 각형의 첨차와 소로이며 이 기본단위는 건물의 성격에 따라 2중 또는 3중, 4중으로 겹겹이 쌓여



민도리집 구조

¹⁶⁾ 주남철, 『한국의 목조건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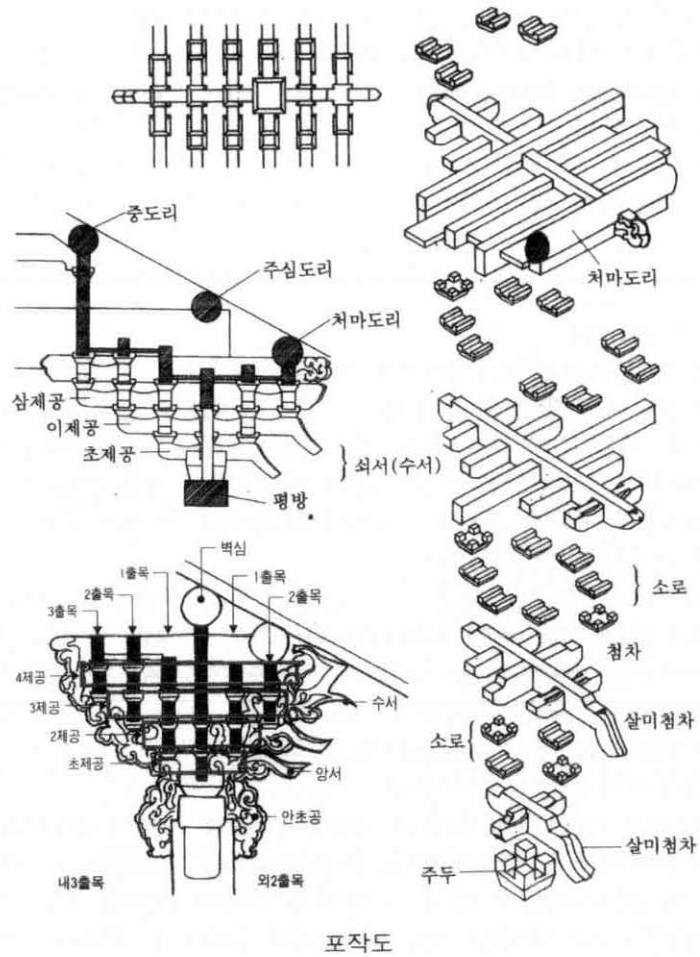
진다.

공포는 출목(出目)에 의해 지붕의 하중을 분산 시키는데 출목은 기둥위 주심도리를 중심으로 주두, 제공, 첨차, 소로 등으로 구성되며 공포를 밖이나 안쪽으로 가다를 내어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고도의 기법이다. 주심도리를 중심으로 건물 바깥쪽으로 내미는 것을 외출목, 건물 안쪽으로 내미는 것이 내출목이라 한다. 또한 첨차가 이루는 열에 따라 출목수를 산정한다.

이 기본부재들을 최초로 볼 수 있는 예는 357년경 축조된 황해도 안악 제3호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무덤안에는 8각형 돌기둥들과 기둥 위에 얹혀진 돌로 된 주두, 첨차, 소로들이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하양 구조를 들 수 있다. 특히 백제의 동탑편에는 일본의 법륜사 오중탑과 비슷한 형식으로, 뚜렷한 하양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건물이나 조선시대의 건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최근 완주군 화암사 극락전에서 하양이 발견됨으로써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신라의 사찰 불국사의 석조 난간석에서 공포의 형태를 일부 추측할 수 있다. 즉 난간기둥에 굽면이 곡면이며, 굽받침이 있는 주두가 부조된 것을 볼 수 있다.



포작도

(1) 공포형식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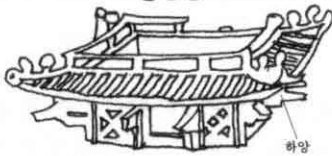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공포양식은 크게 세가지 주심포(柱心包)양식, 다포(多包)양식, 익공(翼工)양식을 나눌 수 있다.

①주심포양식은 공포의 짜임이 기둥 위에만 놓이는 양식으로 도리와 도리에 걸리는 지붕틀 무게와 지붕 무게를 받아 기둥에 전달시키고 다시 초석과 기단으로 전달시켜 주는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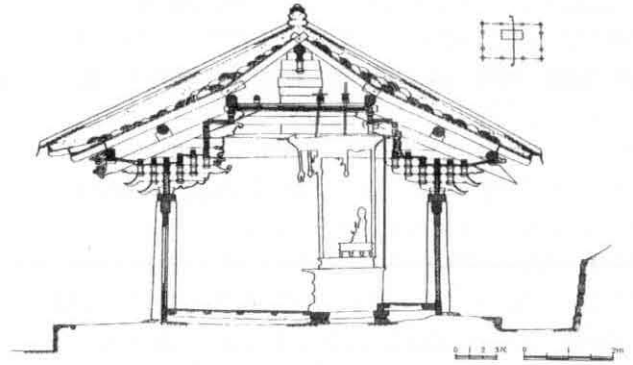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목조건축인 봉정사 극락전은 1970년대의 완전 해체 수리때 발견된 기록에 의하면 12세기경에 건립된 것인데 구조가 중국의 현존 최고 목조건축인 당(唐) 건중(建中)3년(782년)에 지어진 남선사 대전(南禪寺 大殿)의 구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양식이 이미 8세기 말 통일신라시대 건축에서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정사 극락전의 공포는 주두와 소로의 굽면이 곡면이고, 굽받침이 없으며, 첨차는 그



쌍영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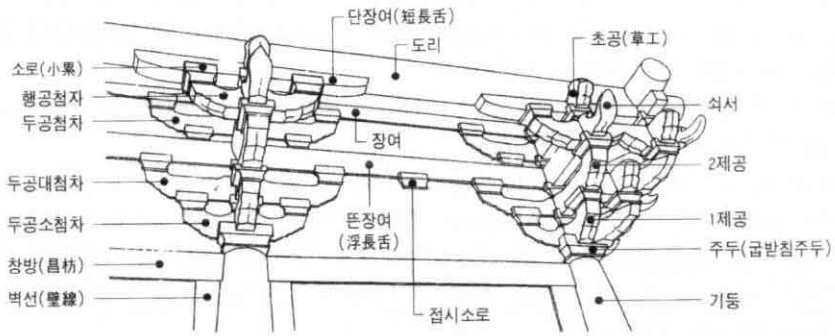


백제 동탑편



완주 화암사 극락전 하앙구조

끝면이 수직면을 이루고, 점차 밑면에 연화두형수식(連花頭形修飾)으로 장식되어 있다. 반면 부석사 무량수전의 공포는 주두와 소로에 굽받침이 있고, 굽면이 곡면이며 점차 끝면이 사면(斜面)이고, 연화두형수식이 있다. 주심포양식은 주로 배흘림기둥과 함께 외2출목 정도로 간결하고, 제공끝의 쇠서가 강직하며, 대개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어 입면상으로 강한 구조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맞배지붕과 적은 출목 수로 인해, 다포계 건축보다 처마의 끝이 들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붕이 더 한층 육중하게 구조체를 누르는 듯이 보인다. 그리고 건축물에 근접하여 처마를 쳐다볼 때 보이는 공포와 출목도리, 그리고 서까래가 형성하는 삼각형 공간은 한층 더 깊게 보이게 된다. 특히 내부공간은 천정이 없이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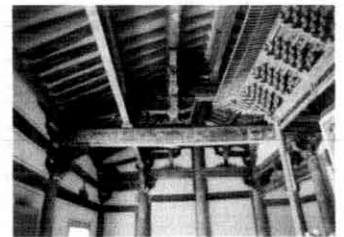
부석사무량수전의 주심포 짜임(도면 : 한국의 문화유산)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계 건물 내부



강릉 오죽헌



담양 유충헌가옥 안채



익공계 건물내부

1.8. 지붕

지붕은 빗물을 막고 햇빛을 피하게 하며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여 준다. 그러나 목조건물의 지붕은 단순히 빗물이나 일사, 실온 등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외관상의 의장효과도 크다. 네 귀의 처너 끝이 솟고 처마 끝면이 안쪽으로 휘어지는 조로와 후림이 지붕에서 나타나 아름다움을 크게 한다.

한국목조건축의 지붕은 맞배(박공)지붕, 우진각지붕, 팔작(합각)지붕, 모임지붕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도 외쪽지붕, 샷가지붕, 육각·팔각·다각지붕 등과 지붕을 이어내린 이어내림지붕 등이 있다.

지붕의 형태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맞배지붕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간소한 건물에 많이 쓰였다. 구조의 발전과정으로 살펴보면 맞배지붕이 가장 간편하여 어느 것보다 먼저 쓰였을 것이고, 맞배지붕은 양끝이 조금씩 치켜 올라가고 용마루선 역시 중앙부를 처지게 하여 서로 어울리게 하고 있다. 또 측면이 노출되기 때문에 구조체가 드러나 아름답고 건실한 구조미를 이루고 있다.



송광사



금산사 천왕문



화엄사 보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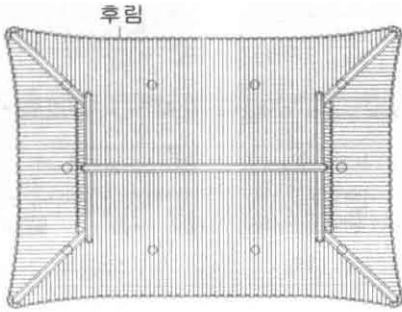
둘째, 우진각지붕은 처마의 필요성과 합각벽의 처리 등에 유리하여 보다 대형건물에 이용되게 되었고 주로 도성의 성문, 궁궐의 대문, 사찰의 중층전각, 작은 규모로는 상류 주택의 일각대문에서 사용되었다. 맞배지붕과 우진각지붕의 출현은 그 절충적인 모습인 팔작(합각) 지붕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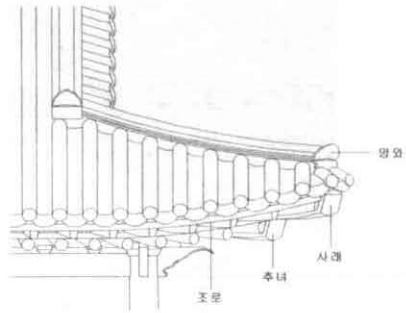
창덕궁 돈화문



창덕궁 애련정



후림



조로

셋째, 팔작(합각)지붕은 궁궐, 사찰, 관아, 향교, 중상류 주택의 몸채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붕형태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형태라 할 수 있다. 네 귀의 처마끝이 치솟기 때문에 독특한 형태미를 이룬다.

후림이란 지붕의 수평면에 있어서 그림과 같이 네 귀를 뺀게 하고 안으로 선을 후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로는 수직면 위로 평고대와 연이어 휘어 오르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처마선이 처져 보이는 것을 미면에 방지하며 또한 용마루선 까지도 휘어지게 보이게 한다.

또한 팔작지붕에 있어서 서까래 배열은 일본의 배열방법과 달리함이 또한 특성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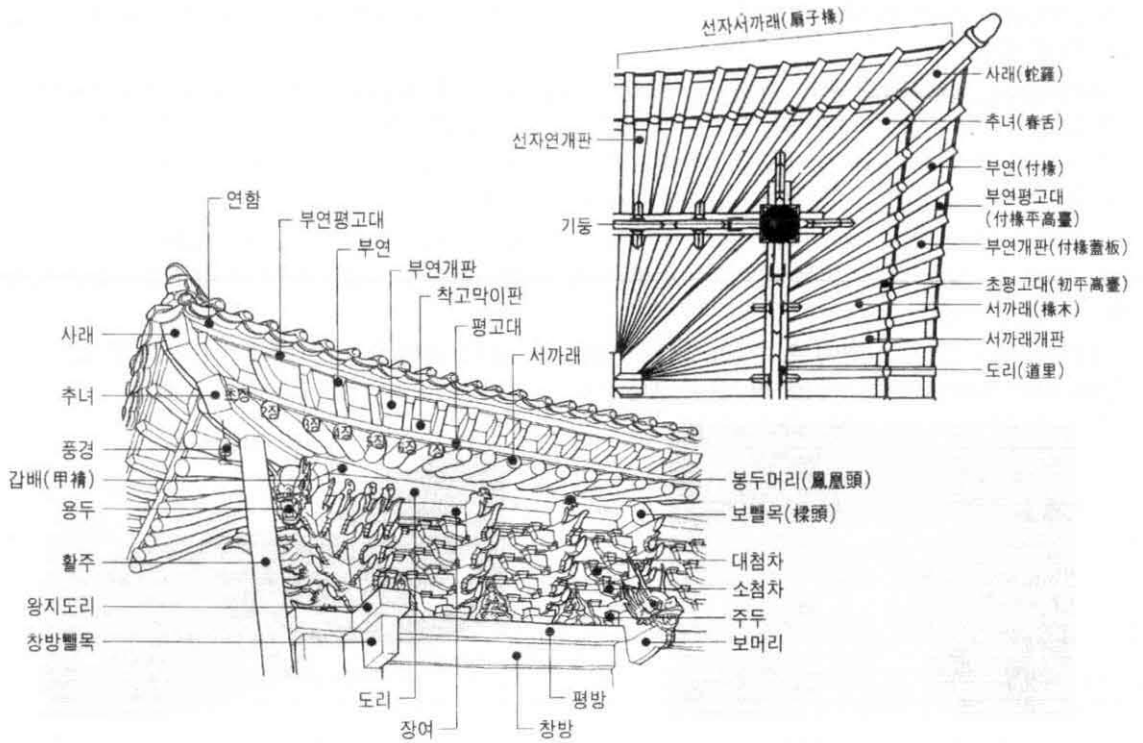
즉, 일본의 추녀에서는 서까래가 직교(直交)되게 배열하나, 한국 건축의 팔작지붕에서는 '선자서까래'를 배열, 연속성을 돕으로써 입면상이나 처마 밑에서 처마를 쳐다볼 때 서까래의 배열에서 강한 연속성과 리듬을 느끼게 한다. 다음 팔작지붕의 합각부(合閣部)는 독특한 장식면을 이룬다. 이 부분은 벽돌로 장식하여 꾸미고, 이 장식 무늬가 담장이나 기타 다른 건축부위 장식에 나타남으로써 동일 요소의 반복에 의한 강한 통일성을 손쉽게 얻는다.¹⁷⁾

넷째, 모임지붕은 결국 다각허다각형지붕은 사모지붕, 육모지붕, 팔모지붕이 있는데 대개 정자건축에 가장 널리 쓰인다. 특히 궁궐·사찰의 전각, 도성의 성문, 궁궐의 대문 등에는 추녀마루에 잡상을 얹고 용마루 끝과 합각머리에는 용두나 취두를 놓는다. 이들 사모, 육모, 팔모지붕 외에도丁자형지붕, 十자형지붕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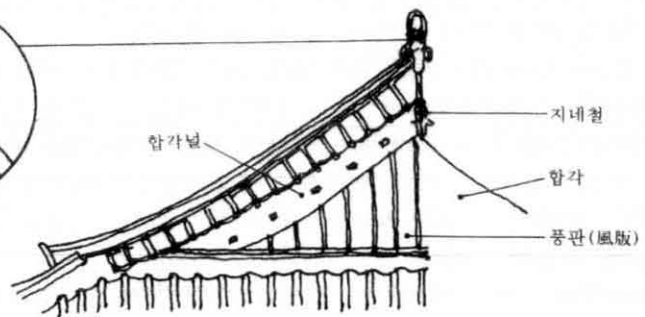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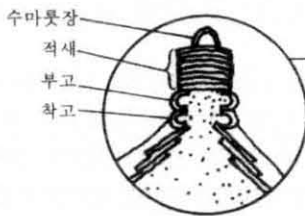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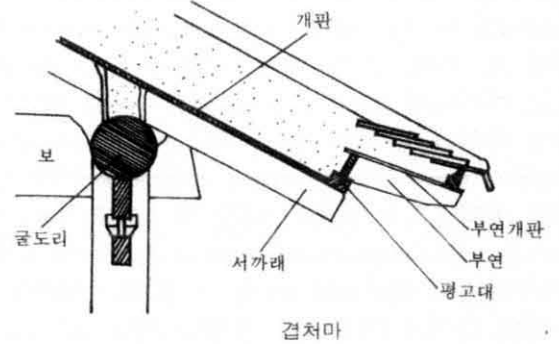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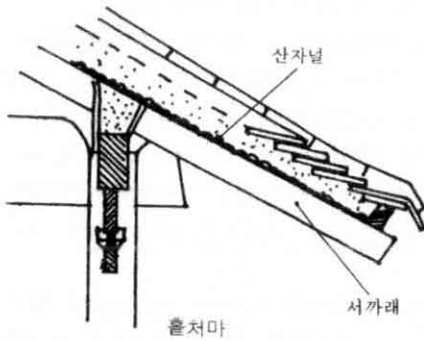


각종 지붕

17) 주남철, 앞의 책, p.134



지붕 각부명칭



처마와 합각부

또, 재료에 따라 지붕의 종류를 분류하면 초가지붕, 기와지붕, 너와지붕, 굴피지붕, 겨릅지붕 등이 있다.

초가지붕은 움집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벼농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띠나 새를 쓰다가 짚을 쓰게 되었다. 초가지붕 중 짚 대신 새를 엮어 지붕을 이룬 집을 '새집'이라 부른다.

기와지붕은 암기와와 수기와로 지붕골과 마루를 형성하는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궁궐, 사찰, 관아건축과 같은 공공권위건축의 지붕을 이루었다.

너와지붕은 너와로 덮은 지붕으로, 너와는 적송이나 전나무를 가로 20~30cm, 세로 40~60cm, 두께 4~5cm 정도 되는 두꺼운 널빤지로 만든 '나무너와'와 청석 조각으로 된 '돌너와' 두 가지로 나뉜다.

굴피지붕은 참나무 껍질로, 겨릅지붕은 껍질을 벗긴 겨릅으로 지붕을 이은 겨릅집도 너와집과 마찬가지로 산간지방에서 많이 짓는다.



낙안읍성 초가지붕



신리 너와집

1.9. 바닥(床)

한국 건축의 바닥은 크게 전(塼)바닥, 마루바닥, 온돌바닥, 흙바닥으로 구별된다.

전바닥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삼국시대에 출토된 유물에서도 우수한 전(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전바닥은 계승되어, 고려말 부석사 무량수전의 바닥은 전(塼)으로 마감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바닥은 궁궐건축의 정전(正殿)과 같은 전각에 국한되고, 기타 내전(內殿)의 각 전각이나 사찰 등은 우물마루로 바닥이 변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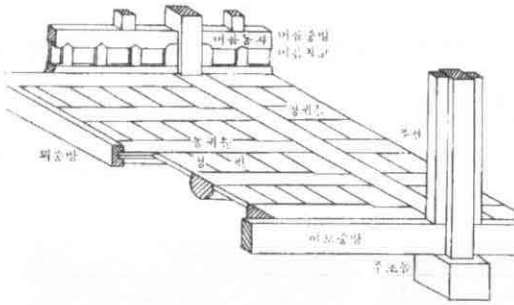
마루가 한국 건축에 나타난 것은 부족국가 시대의 원시적 주거에서라고 생각되나 주로 건축의 바닥으로서 설치된 때는 조선시대이며 우물마루가 설치된다. 특히 청관이 깔린 마루는 따뜻한 남쪽지방에서부터 발달하여 한옥에 도입되었다.

마루에는 우물마루와 장마루가 있다. 우물마루는 장귀틀과 피중방 사이에 동귀틀을 끼우고 동귀틀 사이에 마루널인 청관을 끼워 넣는다. 주택, 궁궐, 관아건축 등 모든 대청(大廳)은 우물마루로 마감된다. 장마루는 명에 위에 장선 들을 건너대고 그 위에 널판을 깔아 마감한 마루로 주택의 광과 같은 공간의 바닥으로 마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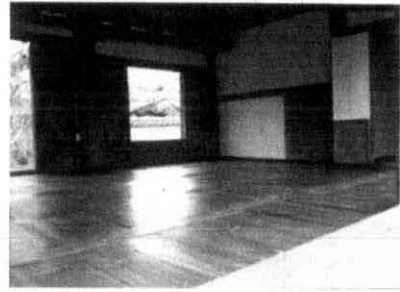
온돌은 고구려시대부터 사용되어 발전하여 일반적인 바닥구조로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궁궐의 내전 전각들과 일반 주택의 침실, 사찰의 승방, 서원의 방들 모두가 온돌바닥으로 마무리되었다. 온돌바닥은 구들골 위에 구들장을 놓고 그 위에 두껍게 흙을 바르고 초배지를 바른 후, 일정한 크기의 장판지를 바르기 때문에 별다른 의장(意匠)은 없다. 다만 마감 후에는 장판지가 겹쳐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도드라지고, 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정방형의 띠를 형성하게 된다.

끝으로 흙바닥은 가장 원시적인 것으로 수혈주거의 바닥에서 출발하여 일반 주택의 광, 부엌바닥과 대문, 궁궐, 사찰의 회랑바닥으로 쓰인다.

¹⁸⁾ 주남철, 앞의 책, p141.



우물마루 구조도



우물마루 대청

1.10. 천장(天障, 天井)

천장은 지붕 밑에 가설하는 시설로 보온 및 의장을 위한 것이다. 한국건축에 나타난 천장 양식은 연등천장, 우물천장, 보개천장, 층단천정, 귀접이천장, 빗천장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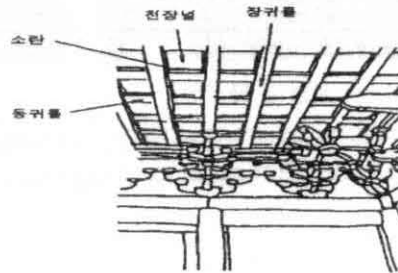
연등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양식으로 서까래가 노출되고 서까래 사이에 흰 회(灰)를 바르기 때문에 구조미가 잘 나타나는 천장이며, 주로 초기의 주심포 건축과 초기의 다포계 건축에서 쓰이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의 천장도 연등천장이다. 조선시대의 연등천장은 보통 주택의 대청과 사찰, 서원의 대청, 향교 등의 건축에 일반적 양식으로 쓰인다.

우물천장은 우물 정자 모양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 천정은 가장 흔한 형식으로 천장이 가설되면 당연히 서까래를 비롯한 상부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이 우물천장은 건물의 규모가 넓고

높아지면서 층단천장으로 변하게 되었다. 보 길이가 길어지고 기둥 높이가 높아 필연적으로 천장을 가설할 필요를 느껴 측간에서는 대량의 높이로 일부 천장을 가설하고, 다시 중량의 높이에서 단을 지어 일부 높여 천장을 가설하되 수평면상으로 가설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달리하여 가설된다. 이러한 예는 궁궐 전각의 대청, 사찰의 대웅전, 주택과 누정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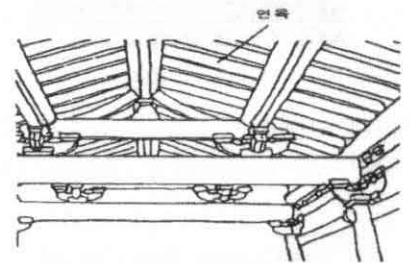
보개천장은 왕궁의 정전(正殿)에서 용상 위 우물천장의 일부를 좀더 높게 하여 장엄하게 잘 꾸미거나, 또 사찰에서 불상의 상부천장 일부를 좀더 높게 꾸미는 것이다.

귀접이천장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랜양식으로 말각조정(抹角藻井), 투팔(鬪八)천장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시대 고분 천장에 많이 축조되었다. 상부로 올라갈수록 점차 좁혀 들어가기 위해 45° 방향으로 판석을 내밀어 귀를 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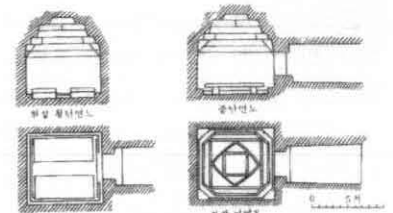
우물천장

우물천장



연등천장

연등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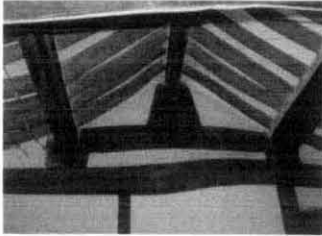


대충 우현리(귀접이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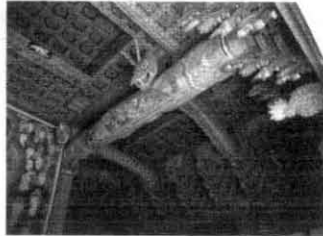
된 것이다.

끝으로 빗천장은 천장면을 경사지게 처리한 양식으로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고 수평으로 처리된 우물천장과 함께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천장 이외에도 내출목 사이의 노출되는 부분을 가려서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흙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순각천장과 일반 주택의 침실과 궁궐 내전(內殿)의 거처실에서는 종이로 천장을 설치하니, 이를 종이반자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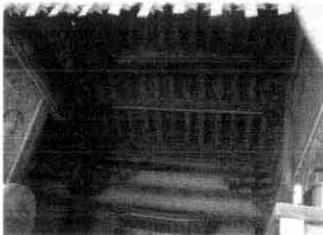
위성통가옥 안채



선암사 대웅전



불회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보전



화엄사 금정암



전등사 약사전

한편 기둥높이가 낮은 서민주택에서는 들보를 노출시키고, 서까래면을 모두 종이로 바른 삿갓반자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까래가 노출된 연등천장과는 다른 특수천장이다.

2. 外部空間 構成要素

본서에서는 건축의 몸체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내부공간구성요소라 하여 이미 고찰한 바 있다. 건축에 있어서 외부공간의 구성은 내부공간 구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며, 특히 한국 건축에서처럼 여러 채(棟)의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의 주된 건축을 이룸에 있어서는, 이들 여러 채들 사이의 외부공간 구성은 더욱더 큰 의의를 갖게 된다. 외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채와 채 사이의 구성요소들을 말하는 것으로 마당과 담장을 비롯하여 난간, 석물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¹⁹⁾

2.1. 난간(欄干)

한국건축에서 난간이 시설되는 건물은 누(樓)나 정자에 국한된다.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건축 양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난간을 주로 외부 공간에 가설하여 외부적으로 중요한 의장요소가 된다.

난간을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면 목조난간, 석조난간, 철조난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목조난간이 가장 보편적이고 누, 정자, 주택의 뒷마루 등 목조 건축에 설치된다. 석조난간은 기단 특히 궁궐 정전이나 사찰의 기단 등 석계(石階)난간과 석교(石橋)난간으로 나누어 분류된다.

19) 주남철교수는 외부공간구성요소를 2차구성요소라고 하였다. (한국의 건축의장, 일지사,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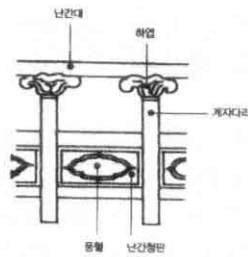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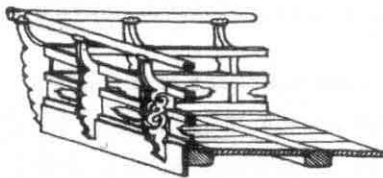
운조루 목조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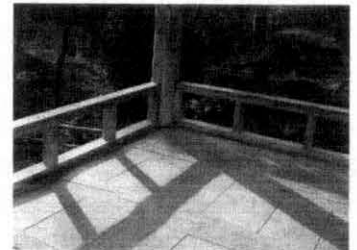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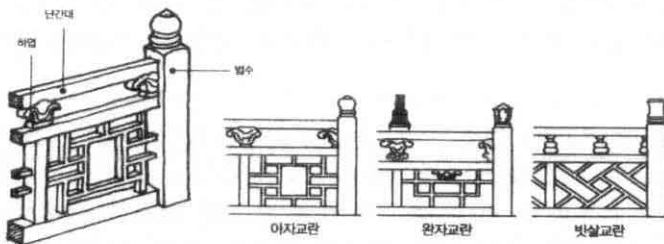
불국사 석조난간

목조난간을 의장적 수법으로 분류하면 평(平)난간과 계자(鷄子)난간으로 나누어 진다. 계자난간은 조선시대 가장 널리 쓰이던 난간으로 난간대를 계자각, 혹은 계자다리(鷄子多里)라고 하는 부재가 지지하고 있는 난간을 말한다. 계자다리는 측면에서 보면 닭의 벼슬이나 구름모양으로 조각했는데 선반의 까치발처럼 위로 갈수록 밖으로 튀어 나왔기 때문에 난간대가 난간 밖으로 약간 튀어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평난간은 계자다리가 없는 난간으로 풍혈이 있는 난간청판 대신에 창호에 사용되는 살대



담양 김선기 가옥



소쇄원 대봉대

로 여러 가지 모양을 낸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의 일반적인 양식은 궁창부를 단일층으로 하고, 그 짜임은 살 짜임과 안상형(眼象形)으로 중복 구성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을 택한다.

2.2. 대문(大門)

한국건축에서 대문의 의장은 주택의 경우 집주인의 신분이나 경제력에 따라 양식을 달리 하고, 크기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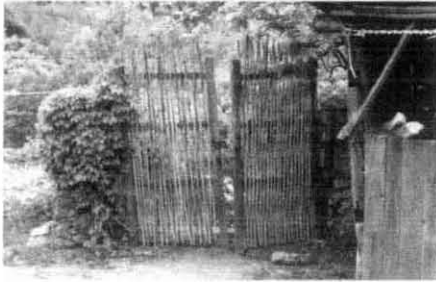
주택의 대문 종류를 분류하여 보면, 삼작문과 바자문, 평대문, 일각대문, 솟을대문으로 분류되며 삼작문과 바자문은 보통 농가나 초가에 설치되는 문으로 설치된 담장과 대부분 같은 구성재로 되어진다.

①평대문(平大門)은 기와지붕을 한 일반 서민주택이나 중류주택에서 몸채 또는 행랑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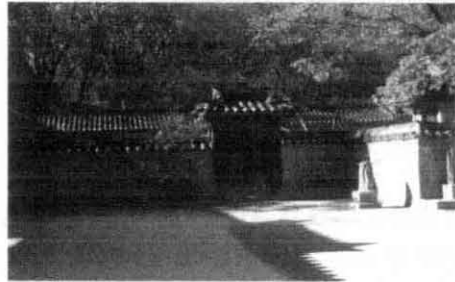
같은 지붕속에 문을 설치한 양식이다. 상류주택에서 주로 여성들만 출입하는 안채 중문도 평대문 형식이다.

②일각대문(一脚大門)은 주로 이 마당과 저 마당을 구획하는 담장에 설치된 대문이다.

이들 솟을대문이나 일각대문은 주로 맞배 기와지붕을 하며, 두쪽의 판장문(板長門)을 설치하고, 그 상부의 인방 위에는 살창을 설치한다.



싸리문



연경당 중문

③솟을대문은 대문이 설치되는 행랑채보다 한층 높게 지붕을 솟게 한 것으로 가마를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들 이외에도 주거건축에서 나타난 문의 형식은 위치에 따라서 중문(中門), 크기에 따라 협문(夾門)과 쪽문으로 나눌 수 있고, 유교적 시대상에 따라 효자문, 열녀문, 정문(旌門), 충효문 등이 나타난다.

또한 궁궐과 성곽, 사찰 등 건축물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문들이 있다. 한양 도성의 정문으로 우리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있다. 숭례문은 중앙에 아치를 두고 화강석 다듬은돌로 바른층쌓기한 육축(陸築) 위에 중층의 우진각지붕으로 된 목조건축을 세웠다. 건축양식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다포계 건축으로 상층부가 출목 수가 많아 화려하다.

또한 창경궁에는 정문인 흥화문이 있고, 정전(政殿)인 명정전으로 출입하는 명정문(明政門)이 있다. 이 대문은 약간 높은 기단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된 단층 팔작지붕의 다포계 건축이다. 이와 같이 궁궐의 대문은 정문인 경우에는 중층으로, 정전의 정문은 단층으로 한 다포계 건축이 일반적이다.²⁰⁾

사찰건축의 대문은 사찰 경내에 처음 들어서는 일주문과 다음의 천왕문을 비롯한 금강문, 해탈문, 불이문 등을 비롯한 산문, 끝으로 누문(樓門)으로 이어진다. 일주문(一柱門)은 보통 좌우로 기둥을 하나씩 세우고 기둥머리에 도리를 보낸 후, 그 위로 공포를 전후로 돌출되게 짜 올리고 지붕을 만든 데서 연유된 이름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천왕문 또는 금강문(金剛門) 등으로 불리는 사찰의 두 번째 문이 있고 금강문을 지나면 한단 높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누문에 이른다.



20) 주남절, 앞의 책, pp.147~176

사찰에서는 누문의 밑 또는 측면을 돌아 올라서면 넓은 중정마당을 지나 사찰의 본전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누문의 밑을 지나면 누하진입(樓下進入)이 되고 누하진입하지 않고 돌아가면 측면의 우각진입(隅角進入)이 된다.



낙산향교 내삼문



전주 봉남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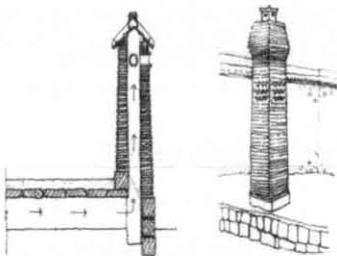
돌산향교 홍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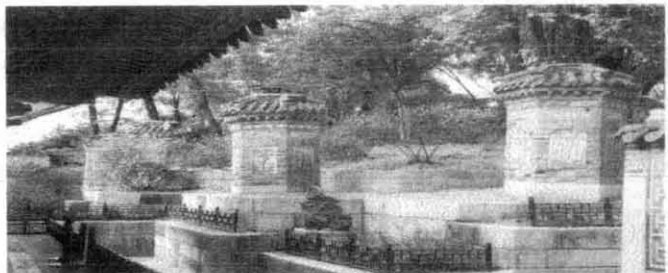
선암사 일주문

2.3. 굴뚝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에서 굴뚝은 그 자체가 갖는 기능 뿐 만 아니라 수직적 의장요소로서의 의미가 크다. 굴뚝은 아궁이에서 발생된 연기를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장치임과 동시에 아궁이의 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굴뚝은 수혈주거에서도 꼭대기로 연기를 배출하였던 점으로 보아 아주 오랜 주거형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짐작된다. 각종 굴뚝을 분류하여 보면, 그 형태상 간이형, 독립형, 복합형으로 나누어지고 굴뚝의 시공방식으로 분류하면, 흙+막돌쌓기, 검은벽돌+기와+연가(煙家), 붉은벽돌+기와+연가, 흙+기와편+돌+기와지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굴뚝은 구성재를 주건축의 구성 재료를 재사용함으로써 경제성과 통일성을 가져오고, 굴뚝에 이용된 장식무늬는 주변 담장이나 건물의 합각부 등에 다시 반복됨으로써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특히 경복궁 연경당의 굴뚝에서처럼 굴뚝의 표면에 수북강령을 나타내는 각종 문양을 넣어 장식하여 집주인의 발복을 기원하고 외부공간을 꾸미는 의도를 엿 볼 수 있다.



개자리연도



경복궁 아미산 굴뚝



아미산굴뚝1



아미산굴뚝2



아미산굴뚝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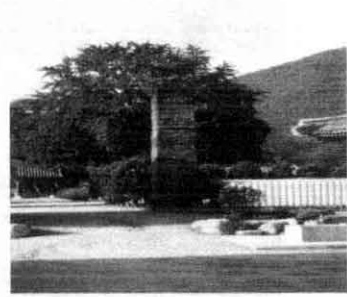
아미산굴뚝4



위성릉 가옥 굴뚝



송림사 굴뚝



운문사 굴뚝

2.4. 석물(石物)

한국건축의 외부공간은 일반적으로 넓은 마당에 심어진 각종 수목과 석물로 이루어진다. 수목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의미가 있다면 석물은 이들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매체이다. 외부공간의 의장적 요소로서 석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물확(水確, 石確)

물확은 돌확이라고도 하며, 과히 크지 않는 돌덩이를 조금 가공하여 그 중앙에 큰 홈을 파서 물을 담아 마당에 두는 석물이다. 때로는 돌 절구로도 쓰이기 때문에 부엌 앞마당이나 부엌 뒷마당에 놓여질 때도 있고, 또 정원 구성의 한 석물로서는 사랑채, 후정 등에 놓여진다.



물확

②석련지(石蓮池)

석련지는 석지(石池)라고도 하는데 대개 직육면체(평면은 대개 장방형)의 돌을 파서 물을 담고 때로는 연꽃을 키우는 석물로서, 연못을 팔 수 없는 마당에 놓는다.

③석조(石槽, 石水槽)

석조는 석수조(石水槽)라고도 하며 사찰의 승방이나 주택의 우물가에 배치된 커다란 물통이다. 이들 물통, 즉 석조와 석련지, 석조 등은 화재시에 방화수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④석함(石函)

석함은 괴석대(怪石臺)라고도 하며 괴석을 담아 마당에 늘어놓은 석물을 말한다.

⑤대석(臺石)

대석은 화초분이나 등불, 또는 석함을 받치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 석물로서 방형, 다각형, 원형, 특수형 등 다양한 모양을 이루고 있다.

⑥식석(飾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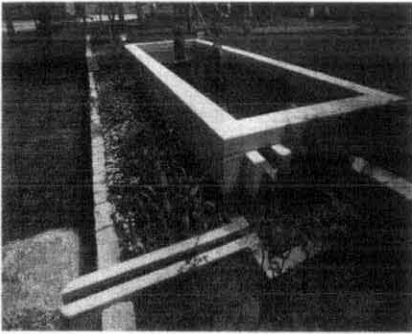
식석은 커다란 돌덩이를 직육면체 등으로 깎고, 그 면에 무늬를 조각하여 뜰에 놓고 감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석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⑦석상(石床)

석상은 커다란 자연 형태의 반석, 또는 큰돌을 판석으로 가공하여 뜰에 괴어 놓은 것으로 걸터앉거나 차를 끓이는데 이용되는 석물이다. 형태는 묘 앞에 있는 상석과 유사하다.

⑧노뎃돌(下馬石)

노뎃돌은 하마석(下馬石)이라고도 부르는데 말이나 가마를 타고 내릴 때 이용되는 디딤돌을 말한다. 이 노뎃돌과는 다른 기능을 하는 하마석도 있다. 즉 향교의 입구에는 말에서 내리라는 의미를 새긴 하마석, 또는 하마비가 있다. 나주향교의 외삼문 밖에는 '大小人員皆下馬'라 새겨진 하마비가 있다.



석련지(희원)



식석(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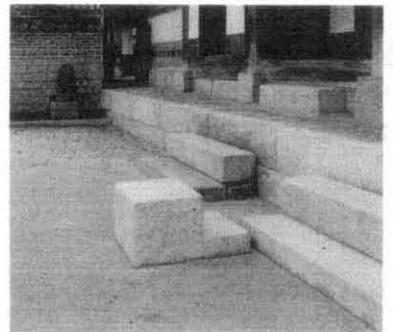
석함(교태전 후정)



대석(교태전 후정)



석조(도갑사)



노뎃돌(연경당)

2.5. 샘터, 도랑, 석루조, 다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며 샘터가 있기 마련이다. 이 샘은 넘쳐 도랑을 이루고 연못으로 모아지며 도랑을 건너자면 다리를 놓아야 한다. 이들을 모두 건축의 외부공간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되며 아름다운 의장성을 지니기도 한다.

①샘터

샘터나 우물은 생활용수를 공급해 주며, 연못에 물을 채워 주고, 또 화재에 대비하여 방화용수를 공급해 준다. 주로 원형과 방형의 물화를 만들어 극심한 대조를 이루게 하여 통일성 있는 변화를 나타낸 특출한 의장이다.



용홍궁 우물

②도랑

외부공간에 있어 도랑이나 개천은 샘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빗물을 모아 연못이나 또는 집터 밖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디자인 요소 중 방향성을 갖게 됨으로 정적인 공간에 동적인 시각요소가 된다.



희원 도랑

③다리

다리는 목교와 석교로 크게 나누어지며 궁궐건축이나 사찰건축과 상류주택에서는 돌다리가 널리 축조된다.



선암사 승선교



고막천 석교



보성강 섰나무다리

④석루조

도랑에서 물이 흘러들고, 흘러 나가는 곳에, 또 담장안의 빗물을 담장 밖의 도랑으로 내보내는 곳에는 석루조를 둔다. 즉 물이 석벽을 타고 흘러내리면 석벽이 손상되기 쉬우므로 석루조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 기법이다.



석루조(창덕궁 금원 부용지)

2.6. 석단(石段), 화계(花階), 석계(石階)

우리나라의 지형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 여러 단의 석축이나 석계를 만들어 대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석단은 집터의 높고 낮음이 다른 여러 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들 단의 가장자리는 돌로서 마무리함으로써 건축되는 필수적인 의장요소이다. 석단은 막돌로 마무리하거나 다듬은 장대석으로 바른층 쌓기하며, 주택이나 사찰, 궁궐 등의 뜰에서 마당의 일부와 일부 사이에 높낮이를 두기 위해 만들기도 하고, 또 정심수(庭心樹), 석함들을 늘어놓는 곳 주위에 쌓기도 한다.

화단은 앞마당 담장 밑에 장방형으로 석단을 쌓아 만들고, 화계는 보통 뒷뜰 구름지에 석단을 쌓고 꽃을 심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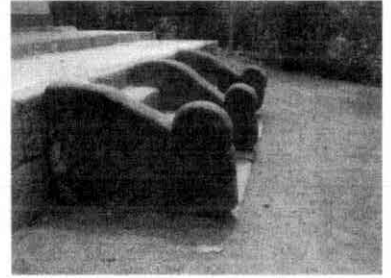
석계는 잘 다듬은 장대석이나 막돌로 쌓는데 기단에 설치되는 경우와 높낮이가 다른 마당 사이를 이어 주기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학사재 석단



학사재 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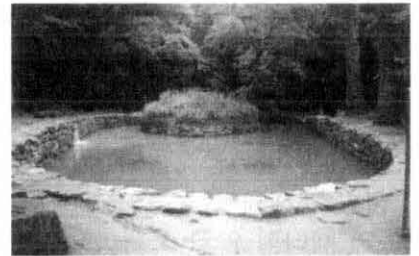


도갑사 해탈문 석계

2.7. 연못과 정자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별당마당이나 행랑채 밖 넓은 터에 연못을 파고 그 옆에 정자를 세우는데, 궁궐에서는 주로 뒷뜰에 축조된다.

연못은 물이 흘러들어 오는 것에는 석루조를 두기도 하고, 물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서 넘쳐 나갈 수 있게 수구나 도랑을 만든다. 또 연못가 또는 섬에는 정자나 누를 건축하여 연못과 주변경관을 감상하는 건축공간으로 만든다. 우리나라의 연못은 대개 네모난 방지(方池)형태이고 그 안에 섬을 두는 경우가 많다.



선암사 삼인당

2.8. 징검돌, 돌길

우리나라의 마당은 대개가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면 흙마당 위를 걷기가 힘이 든다. 따라서 징검돌이나 돌길을 놓기 마련이다.

징검돌은 주택이나 사찰 등에서 널리 쓰이지만 궁궐에서는 돌길을 만드는데 특히 임금님이 다니는 길을 어도(御道)라 부르는 특수한 돌길을 만든다. 어도는 정전(政殿) 앞이나 종묘와 같은 의식적인 공간에 만들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고 중앙이 양쪽보다 한층 높게 돌을 까는 것이다. 징검돌이나 돌길은 모두 마당의 마감재의 재질이나 색조와 대조를 이루면서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외부공간 구성의 중요한 시각요소가 된다.

2.9. 식재

외부공간의 식재는 수목, 화초, 채소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비록 건축 그 자체는 아니지만 외부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시각요소들이 된다. 수목은 건조한 곳과 습한 곳, 양지와 음지를 구별하여 적당한 수목을 택하여 심는다. 화초는 꽃을 피우는 꽃과 잎만 무성한 풀로 나뉘는데 이들은 일년생이거나 다년생을 막론하고 크기가 한 길 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소는 배추, 무, 마늘, 상추들로서 옆마당 뒷마당 등에 빈터가 있으면 심어 식생활에 이용된다.

뜰에 심는 이들 식재들은 다산(多産), 절의, 효 등 고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적절한 위치에 심어진다. 거의 모두가 철따라 잎이 돋고 무성하며, 단풍들고 잎이 지는 활엽수 계통의 것들인바 이는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조화시키려는 구성원리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10. 마당과 담장(牆)

(1)마당

마당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형성되는 평평한 땅으로, 한국건축에 있어서는 집터주위를 담장으로 둘러막고 그 속에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마당이 형성된다. 상류주택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 정자, 사당 등의 각종 건축물과 이를 둘러싼 담장, 벽, 대문 등으로 구분되는 각종 마당이 구성된다.

조선시대 주택에서 마당은 항상 내부 공간을 보완하는 반 내부적 성격을 갖는다. 개방된 마당은 창호를 개방한 내부공간과 교류되어 내부공간적 성격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건축에서 나타난 마당형식을 구분하면 사랑마당, 안마당, 행랑마당, 별당마당, 일마당, 뒷마당 등을 들 수 있다.

- 행랑마당 : 하인들의 거처, 마굿간, 곡물창고 등이 있는 행랑채에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공적인 공간으로 거의 개방되어 있고 추수 때에 공동작업장으로 쓰이기도 한다.

- 사랑마당 : 바깥주인이 주로 거주하는 사랑채의 정면에 위치한다. 행랑채와 담으로 둘러싸이거나 담과 서고 등으로 둘러싸여 구성된다. 주인의 신분에 따라 규모가 커지며 주변에 정원으로 꾸미는 경우가 많고 외부손님들을 모시거나 향촌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안마당 : 사랑이나 행랑마당을 거쳐 들어가게 되어 있으며, 어느 경우에도 직접 외부에 면하지 않는다. 중문간 행랑채와 일부 담장으로 구성된 잘 다져진 흙바닥이다. 혼인 등의 대사에는 일가친척들이 모여드는 집회장의 역할을 한다.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구성되며 기능적으로도 외부인의 출입이 상당히 제한되는 안주인의 배타적 영역이 된다. 원래 안마당에는 나무를 심거나 다른 시설물을 두지 않는다.

- 뒷마당(고방마당) : 부엌, 찬방 등과 연결되는 작업공간으로 장독대와 빨래터가 위치한다. 평지가 아닌 경우 과실수가 심어진 바로 뒷동산과 연결이 되며 남부지방의 경우 竹林으로 구성된 곳이 많다. 안채 옆의 마당은 보통 담으로 둘러싸이고 우물과 장독대 등이 위치한다.

- 별당마당 : 별당과 짝을 이루어 별당의 성격을 보완하며 다분히 정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다. 과년한 자녀용의 보다 은밀한 공간으로 대개 출입이 제한되는 한적한 장소에 위치한다.

- 사당마당 :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장소로서 사당 주위를 크지 않는 낮은 담으로 둘러쌓아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남겨 놓는다. 일반적으로 동북쪽에 위치하며 위계상 가장 높은 공간이 된다.

(2)담장

담장은 공간의 영역을 한정해주는 동시에 방어적인 시설이다. 담장은 집주인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의장을 달리한다. 서민 주택에서는 담장이 단순히 대지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성격이 강하고, 상류주택에서는 외부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서민주택의 담장은 돌담이나 흙담으로서, 그 상부에 설치하는 지붕은 초가지붕으로 처리하여 주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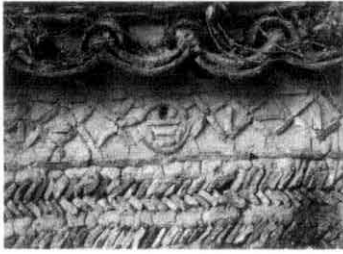
소쇄원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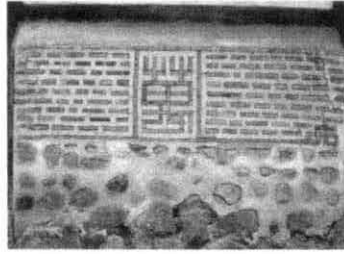
학사재 담장



독락당 담장



쌍계사 담장



신원사 담장



신원사 담장

의 지붕과 동일하게 한다. 또 중·상류 주택이나 사찰, 관아 건축에서는 기와지붕을 하며, 궁궐에서는 담장에 양동(樑棟)을 설치하여 뚜렷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바, 궁궐의 담장은 주택의 담장보다 훨씬 높다. 또 한국의 담장은 경사면을 따라 담장이 내려올 때 윗면이 경사지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단을 만들면서 건축되기 때문에 독특한 율동미를 가지고 있다.

2.11. 색채(色彩)

한민족은 백의민족으로서 색깔을 싫어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내용이고 사실은 고대사회부터 호화로운 색을 즐겨 썼다. 즉 사방색(四方色)으로 방위와 계절을 나타내고 건물에도 다양한 채색을 하였다. 한국건축은 목조건축으로 부재의 부식과 해충으로부터 보호를 위해서도 칠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일반 주택을 제외한 왕궁, 관아, 사찰 등의 건축에서 건물의 권위와 장엄을 위하여 색채를 사용하였다. 단청을 하는 건축부재는 가칠단청이 기본이 되고, 기둥머리, 창방, 평방, 도리, 보, 공포, 서까래, 부연, 천장, 그리고 벽체의 일부에 단청을 한다.

이러한 한국건축에서 사용한 단청의 종류는 가칠단청, 굿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등이다. 첫째, 가칠단청은 초록색, 적갈색, 백분, 황토 등으로 칠하여 이칠 자체가 바탕색이 되거나, 무늬 없이 단색으로 칠한 단청을 말한다. 이는 다음에 말한 굿기단청, 모로 단청 등의 바탕 칠로 사용되었다.

둘째, 굿기단청은 가칠단청을 한 위에 먹이나 색으로 일정한 폭의 줄을 긋는 것을 말하며 보통 직선이 많다. 그러나, 때때로 원호나 오금곡선을 굿기도 한다.

셋째, 모로단청은 건축 부재의 끝 부분, 즉 창방, 평방, 보 또는 기둥의 끝에 머리초를 하고, 그 다음에 가칠단청이나 굿기단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머리초란 건축부재 끝에 여러색으로 녹화, 연꽃, 석류 등의 무늬를 그린 것을 말한다.

넷째로, 금단청이 있는데 이것은 갖은 화려한 문채를 그려 마치 비단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부재의 모든 부분을 문양으로 꽉 채운 단청이고, 화려한 정도에 따라 열 금단청, 보통금단청, 갖은금단청으로 나뉘는데 후자가 전자보다 더 화려하다. 이외에도 단청무늬의 일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덧칠하는 고분단청, 또는 금박 또는 은박을 쓰는 금은박단청 등이 있다.



장구머리초



격장구머리초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980년대'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던 때였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980년대'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던 때였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980년대'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던 때였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1980년대 후반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표지에는 '1980년대'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다. 이 시기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던 때였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文化史的 觀點에서 본 숲

강 현 구

(광주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 무등산 생명숲학교장)

목 차

1. 머리말
 2. 마을 신앙과 생활 속의 숲
 3. 조선시대의 숲과 정책
 4. 종교와 숲
 5. 통과 의례와 나무
 6. 속담과 격언·고사 속의 숲과 나무
 7. 나무와 관련된 설화
 8. 나무의 민속
 9. 회화와 민요에 나타난 나무
 10. 나무의 노래·숲의 시
 11. 숲과 음악
 12. 시대를 앞서 간 해설가
 13. 맺는말
 14. 참고 문헌
-

1. 머리말

도편수에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한옥을 지으려면 어떤 나무를 사용하는가?' 라고 물었다. '청장목이나 황장목 같은 좋은 소나무도 고르지만 그보다 먼저, 좋은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큰 산을 매입하여, 집 지을 때 쓸 나무를 골라 잘 건조한 다음, 산에서 자란 환경과 방향대로 나무를 사용하면 몇 백년이 가는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도편수의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도, 한 그루의 나무만을 보지 않고 수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큰 산을 보는 것은 전체적 안목이 필요함을, 궁궐을 지을 때 소용될 나무를 고르고 건조하는 과정은, 좋은 나무를 볼 줄 아는 선별안과 느긋하게 준비함을, 나무가 자란 환경과 방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문화 유산과 숲을 찾아 나서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주변의 문화재와 나무 한 그루나 들 꽃 한 송이 같은 미미한 관심에서 출발하지만, 긴 안목으로 크게 멀리 보면, 자연과 인간이 결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람을 담는 큰 그릇'을 짓고 있는 도편수의 위와 같은 답변은, 그 분의 자연관이자 직업윤리인 생태적 일체 의식을 드러내는 현장의 목소리로 인식하고 문화의 숲을 공부하려는 우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마을 신앙과 생활 속의 숲

江山의 木 : 木 林 森林 = 숲 (藪)

숲 > 숲 : <月印釋譜> 1 : 24 / 藪 : <훈몽자회> 上 7

'숲'은 호흡을 뜻하는 '숨'에서 온 말이 아닐까?

숲'이라고 모국어로 발음하면 입 안에서 맑고 서늘한 바람이 인다. 자음 'ㅅ'의 날카로움과 'ㅍ'의 서늘함이 목젢의 안쪽을 통과해 나오는 'ㅊ' 모음의 깊이와 부딪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이다. 'ㅅ'과 'ㅍ'은 바람의 잠재태이다. 이것이 모음에 실리면 숲 속에서는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때 'ㅅ'의 날카로움은 부드러워지고 'ㅍ'의 서늘함은 'ㅊ'모음 쪽으로 끌리면서 깊은 울림을 울린다. 그래서 '숲'은 늘 맑고 깊다. 숲 속에 이는 바람은 모국어 'ㅊ'모음의 바람이다. 그 바람은 'ㅊ'모음의 울림처럼, 사람 몸과 마음의 깊은 안쪽을 깨우고 또 재운다. '숲'은 글자 모양도 숲처럼 생겨서, 글자만 들여다보아도 숲 속에 온 것 같다. <김훈의 「자전거 여행」에서>

<마을과 숲>

- 당숲 : 원주시 신림면 성황림 / 오대산 전나무숲 성황당 / 완도 장좌리 장도의 동백숲 / 전북 위도의 진리 동백숲 / 충남 서천 동백숲 / 충남 보령 외연도 어청도(중국 전횡 장군당) 녹도 당숲 / 전남 영광 법성포의 숲쟁이
- 비보숲 : 해남 연동 덕음산 비자림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명동 명곡마을 숲
- 방풍림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방풍림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숲
- 풍수림 :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 숲 / 경북 군위군 부계면 한밤마을
- 관방제림 : 하동 송림 / 함양 상림 / 담양 관방제림 / 화순군 동북면 연둔리 숲
- 향교숲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 역사 속의 숲 : 강원도 영월군의 청령포 觀音松과 소나무 숲

〈건국과 씨족 신화와 숲〉

- 단군신화 : 태백산 박달나무
- 경주의 시립)계림 : 경주박씨의 시조 박혁거세의 탄생지 나정숲 /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 탄생지
- 제주도 삼성혈 : 고씨, 부씨, 양씨 탄생지
- 종묘 숲 :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들의 위패를 모신 신궁으로 신을 위한 공간이기에 꽃이 피는 나무를 피하고 참나무류를 심었고 정자나 누각도 짓지 않았다.
- 마을 지킴이의 재료 : 동삼 : 솥대 : 장승 :

3. 조선시대의 숲과 정책

200년 전의 전국 소나무 보호규정인 〈諸道松禁事目〉(정조 12년 : 1788)을 보면, '소나무는 전함을 건조하며 궁궐을 짓고 백성들의 집을 짓고 생활자원을 제공하며 죽어서는 소나무 관에 담겨 세상을 하직하는 것처럼 소나무의 쓰임새는 지대하여 그 금양의 필요성이 지엄하므로 좋은 소나무가 자라는 훌륭한 자원의 산은 封山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고 하여 소나무에 대한 국가 정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일깨워 보호와 육성에 뜻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萬機要覽〉은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등이 왕명을 받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왕조의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집약한 책으로 각도의 封山數를 지역별로 나열하고 있는데, 松政조에는 6도에 282개의 封山이 있었고 이 가운데 저명한 松山으로는 안면도(船材封山), 변산, 완도, 팔영산, 금오도, 남해, 거제, 장산곶, 설악산 등을 들고 있다. 소나무는 백년을 기른 것이 아니면 동량재가 될 수 없어 장기간의 금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封山의 종류는 黃腸봉산(왕실의 관곽재), 栗木봉산(신주목이 된 밤나무 숲), 香炭봉산(향과 숲), 眞木봉산(선박재의 참나무 숲), 삼산봉산(삼산을 생산하던 숲?), 胎봉산(임금과 왕후의 포의와 태) 등이 있다.

〈黃腸封山〉은 좋은 棺材를 생산하기 위한 금강송을 보호하기 위한 封山(숙종 때부터 도입)으로 黃腸이란 말은 소나무의 색깔과 심재의 황색을 아우르는 말이다. 조선시대의 황장봉산은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도의 32읍 60처에 이른다고 했다. 대표적인 황장봉산으로는 경북 문경 동로면 명전리의 封山(숙종 6년 : 1680), 영월 수주면 두산리 황장골(순조 2년 : 1802), 인제군 북면 한계3리 큰절터 축대의 황장금산, 원주 소초면 치악산 구룡사 입구 황장금표, 울진 소광리의 황장금산, 영월군 수주면 법흥 1리 새터 등이 있다.

〈栗木/眞木封山〉으로는 최근 박봉우(강원대)와 전영우(국민대) 교수가 구례에 두 개의 봉산이 있다는 〈만기요람〉과 〈대동여지도〉의 표기를 추적하여 연곡사가 있는 피아골 직전리에서 울목봉산의 봉표를 찾아내었다. (以上 眞木封界 以下 栗木封界 : 봉표의 위 아래가 참나무 숲과 밤나무 숲이라는 명문) 연곡사에서 영조 21년(1745) 무렵에 이미 栗木封山으로 지정되어 위패를 만드는 신주목으로 쓰인 밤나무를 왕가에 봉납했다는 기록을 찾아 그 봉표를 직전리에서 찾아낸 것이다.

〈香炭封山〉으로는 대구 팔공산의 수릉향탄금계(綏陵香炭禁界)와 전남 영암군 구립면 도갑사 입구의 건릉향탄봉안소(建陵香炭奉安所) 표석 등은 각 陵에 쓸 향과 숲을 공납하는 숲으로 그 보존을 표기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胎封山〉(임금과 왕후의 포의와 태를 묻은 곳)으로는 경남 사천시 봉명산 다솔사 인근의 세종대왕 태실과, 광주 용봉동의 옛 태봉산 등이 알려져 있다.

〈金安洞契〉나주 금안동의 자치 규약으로 最初의 禁松契.

〈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의 토공품 : 제주도의 감귤, 유자, 유감, 동저귤, 금귤, 청귤, 돌귤, 비자, 비자나무관

〈조선왕조실록〉〈성종실록〉 : 제주도의 산유자나무, 이년목, 비자목, 안식향나무가 생산되므로 경차관을 보내 표를 세워서 벌채를 금하고 경작을 금하게 함. 현재의 제주도 구좌의 비자나무 숲 2,500그루의 비자나무 : 천연기념물 제374호 (비자열매는 약효가 특출하여 하루에 일곱 개씩 7일간 복용하라는 처방전)

4. 宗教와 숲

〈유교·도교·불교·기독교에 보이는 나무들〉

- 胎教 : 아이를 뱃을 때 잤나무 숲 속을 걸으면 도량이 넓고 훌륭한 인물로 기를 수 있다.
- 道教 : 음양오행의 나무(木) : 봄, 동방, 아침, 비장, 사랑...
竹林七賢 / 處士 : 3정승 6관서 보다 낫다.(소쇄처사, 남명 등)
- 佛敎 : 숲의 종교 / 부다의 해탈 - 설법 - 열반 / 석가모니가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나무 즉 인도의 가야산에서 나는 피팔라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간주하고 이를 깨달음의 나무라는 뜻에서 보리수라 한다.
• 아쇼카왕 : 백성들에게 평생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게 하여 숲의 대왕이라 불러짐. 열매를 맺는 나무, 집을 짓는 나무, 향기가 나는 나무, 땀감으로 쓰는 나무, 치유력이 있는 나무
•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 광주 무등산의 공유화 운동 참여 : 1993년부터 시작된 운동이 2005년 현재, 김복호(최초 2000년 2월 20일 : 동조골 468평 기증)님을 시작으로 허달재,진재량,조건국(이상 2003년), 최기영(2004년)님 까지 모두 12만평을 기증 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공유화 운동의 배경은 20세기 독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는 인도의 아쇼카 왕때의 장자들이 많은 땅을 구입하여 나무심고 가꾼 일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숲을 '아부하야타나'라고 한다.
- 신라말 고승 도선국사가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천, 함흥, 서울, 강원도, 계룡산에 심은 반룡송(蟠龍松: 하늘에 오르기 전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의 모습을 한 소나무) 다섯 그루 가운데 한 그루가 현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점리 201의 1번지에 萬龍松, 萬年松이라 부르며 남아있다.
- 팔만대장경 : 산벚나무, 들배나무, 층층나무, 후박나무, 잣나무, 단풍나무,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를 쓰고 있는 것은 여러 나무들의 芳香을 이용해 곤충들을 멀리하기 위한 배려.(UNESCO가 정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 목탁 : 목탁은 살구나무 뿌리로, 발우는 은행나무로 만든다. 특히 목탁은 최소 1백년 이상된 살구나무 뿌리로 만든다. 백년이 안된 살구 나무 뿌리는 작아서 목탁감이 되질 못한다. 만들어도 쉽게 트고 갈라진다. 가장 좋은 살구나무는 뿌리 내림이 좋은 강변에서 자란 수령 500~600년생. 이런 좋은 살구 나무는 뿌리 한 개로 목탁 70~80개를 만들 수 있다. 어렵게 구한 살구나무 뿌리를 토막내 나무 진을 빼기 위해 습한 논바닥(고논)에 묻고 기다린다. 그 다음 소금간을 먹이고 폭 삶아 응달에서 석 달을 말린다. 본 작업에 앞서 3년 반을 준비하게 된다. 목탁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속을 파낸 후에 소리를 잡아야하는 일. 곧 방자 징을 만들 때 황소 울음소리를 잡는 것처럼, 목탁에서는 새벽을 뒤흔드는 사자울음 소리를 잡아야 한다. 좋은 목탁

소리는 바람을 타고 십리를 간다고 전한다.

• 埋香儀式 :

매향비는 향나무를 묻는「매향」을 하면서 그 연유와 시기, 장소, 관련된 사람(집단)을 기록하는 비문을 말한다.「매향」은 향을 묻는 민간 불교의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미래 구복적인 성향이 강한 미륵신앙의 한 형태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매향비에 나타난 발원형태는 모두 미륵하생 신앙과 연결된다. 즉 매침한 향을 매개체로 하여 발원자와 하생한 미륵이 연결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에는 해남, 장흥, 영암, 신안 압태도, 영광 법성포 등에 7~8개소의 매향비가 발견되는데 모두가 여말 선초에 해당된다. 이는 이 지역이 왜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당하는 것과 연관지어 미래구복적인 매향의식이 성행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 매향비 중에서 해남 계곡면 매향비가 가장 보존 상태가 좋다.

• 山神圖 : 산신도 속의 소나무

• 버들가지 :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을 상징

• 잣나무 : 사찰의 경내에 잣나무가 많은 것은 진리를 깨닫는 禪의 수행을 함축 (당나라 때 조주가 불교의 道를 가리켜 '뜰 앞의 잣나무'라는 話頭로 사용했는데서 널리 알려짐) 영속성과 불변성이라는 상징

• 사명대사의 청송사 : 松兮青兮草木之君子 霜雪兮不腐 (後略)

• 마태복음 12장 33절 : '좋은 열매를 얻으려거든 좋은 나무를 길러라'

• 기독교 : 에셀나무와 소나무 : 남근 상징

• 나리꽃(百合花) : 처녀성과 겸손을 상징하며 성모마리아의 표지이기도 하다..

• 해 뜨는 곳에 있는 : 扶桑木

• 유교의 德人 : 桃李不言 下自成蹊 / 剛毅木訥近仁 (강직하고 과감하고 질박하고 말이 무거운 사람은 仁에 가깝다. <논어>)

• 우주나무 : 宇宙木으로서의 나무 인식 : 동·서양의 공통된 개념 : 솟대

5. 通過儀禮와 나무

〈婚禮·喪禮·祭禮〉를 中心으로

• 出生 : 아이를 낳을 때 시어머니가 밖에서 소나무냐? 오동나무냐?

• 내 나무 風俗 : 사내아이를 낳으면 선산에 소나무를, 딸아이를 낳으면 텃밭에 뽕나무나 오동나무를 심었다가 시집갈 때 베어 농을 짜 주었다.

• 婚禮 : 혼례상의 동백나무와 대나무 : 多子多男

• 함 속의 소나무와 茶씨 : 소나무는 두 개가 한 입자루에서 (3엽 : 리기다 / 5엽 : 잣나무) 나고 아랫부분이 서로 접촉하고 그 사이에 '사이 눈'이라는 작은 생명체를 지니고 있는 모습이 百年偕老의 완전무결한 夫婦愛의 상징으로 여겨서 陰陽樹로 인식한 결과이며, 封茶는 차나무의 특성이 한 곳에 直根으로 깊게 뿌리내리고 옮기기 어려운 점을 착안하여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집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의미로 함 속에 솔잎과 차씨를 넣게 된 것.

• 喪禮 : 嚴親喪의 喪杖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母親喪에는 오동나무 지팡이 짚는 것은 가볍고 견고하여 생명 존중과 喪主의 건강 고려한 것.

소나무 관 : 무녕왕릉 棺 (금송 : 百濟와 倭와의 교류)

• 祭禮 : 밀양박씨 문중 제사상

대추 왕 / 밤 세 톨로 삼정승 / 배 여섯 개의 씨 6判書 / 감 8개의 씨로 8方伯을 뜻한다.

밤나무 神位는 깊은 산중의 개, 닭소리도 들리지 않은 곳에서 자란 나무를 쓴다.

• 한가위 음식 : 송편 : 솔잎을 깔고 송편을 찌면 폴리페놀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송편 속의 참깨는 오장의 기운을 돋워주고 귀와 눈을 밝게 한다.

• 토란국 : 천남성과의 유일한 식용인 토란은 무기질과 식이 섬유가 풍부하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지방의 분해, 배설을 도와 고기를 많이 먹는 추석에 적합한 음식이다.

6. 俗談과 格言·故事 속의 숲과 나무

7. 나무와 관련된 說話

• 오동나무 설화 : 梧桐은 '머귀나무'라는 옛말을 잊고 이제는, '梧'는 수피가 푸른 벽오동 또는 참오동을 말하고, '桐'은 수피가 흰 백동을 말한다. 한 여성을 사모한 남자가 죽어 오동나무가 됨으로써 가야금으로 만들어져 그 여인의 손에 어루만져지기를 소원.

- 우리 협회 주소지도 머구재의 오치동

cf) 개오동나무 : 雷神木, 雷電桐 : 벼락이 피해가는 나무? : 궁궐이나 사찰 주변 벽오동 : 거문고, 비파의 재료 특히 벽오동으로 만든 거문고를 絲桐이라함 .

• 동백나무 설화 : 여수 오동도

- 大椿之壽 : 장수와 불로장생 (봄·가을을 8000번이나 맞이한 大椿 이라는 동백)

- 壽報春先 : 봄을 맞아 먼저 기쁨 있으라. (椿 = 春)

• 契樹 : 고려 최자의 <보한집> 거령현 (남원시 오수면 오수리) 사람 김개인의 義犬談

• 소나무 : 속리산 법주사 正二品松 / 예천 石松靈 / cf) 黃木根

- 일본 국보 1호 :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 : 재질 한국산 소나무인 춘양목.

- (花粉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나라 소나무의 역사는 1,500년 / 일본은 1,000년)

• 杏林 : 의원이 있는 곳

• 감나무 : 栢有七絕 : 一 壽, 二 多陰, 三 無鳥巢, 四 無蟲, 五 霜葉可玩, 六 佳實, 七 落葉肥大可書

- 재일교포 하정웅 (세계적 미술품 1,182점을 광주광역시에 기증)의 나가사키 감나무 옮겨심기.

2000년 시립미술관 주변에 심었으나 뽑히고,

2001년 再植樹 : 고사, 2003년 2월 목목 반입 비밀 장소(민속박물관 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중.

8. 民俗과 상징으로 본 꽃과 나무

• 梅花 : 겨울의 매화는 죽은 용의 형상, 여기에 꽃이 피는 것은 回春을 상징한다. 모란이 부귀, 연꽃이 군자, 난초가 은군자와 귀녀, 국화가 은일자, 해당화가 신선임에 비해 매화는 꽃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白眉故事>에서 설명하고 있다. 매화는 꽃들 가운데 가장 먼저 피기에 花兄이라 부르며, 옛 선비들은 동짓날이 되면 81개의 매화와 꽃봉오리를 그려 창문에 붙여 놓고 하

루에 한 송이씩 색을 칠하는 '九九消寒圖'를 그렸다.

• 蘭草 : 대가 남성적이라면 난초는 명문의 귀녀에 비유. 중국의 <본초경>에 의하면, 난초를 기르면 집안에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며, 잎을 달여 먹으면 해독이 되며 노화현상이 없어진다. <햄릿>에서 난초는 'Long purples'라 하여 男根의 의미. 또 꽃의 반침 때문에 여성을 표상함.

• 菊花 : 중앙절의 국화주 : 무병 장수 / 중국의 도잠이 국화를 사랑하였으며, 주돈이는 <愛蓮說>에서 '菊花之隱逸者也' / 화목과 장수 : 국화에 참새가 날아드는 민화

• 대(竹) : 爆竹과 달집태우기 / 액막이 薦 / 북소리 : 조릿대 / 초파일 燃燈 단오부채 / 竹醉日 : 음력 5월 13일 : 대 옮겨심기 적일 / 國弓과 箭筒, 화살 竹槍과 東學農民軍 / 낙죽장 : 중문 31호 국양문 / 채상장 : 중문53호 서한규 / 죽렴장 : 무문 23호 박성춘 / 참빗장 : 무문 15호 고행주

• 竹散馬 : 왕이나 왕비가 승하했을 때 쓰는 葬儀 기구

• 동백 : 서해안과 남도 지방에서는 당신목으로 모셔진다. (완도, 여수, 위도 등) 진도의 용왕 곳에서의 동백떡을 만들어 초혼을 하고, 도둑이 든다는 속신과 꽃이 떨어지는 모습이 불길함을 보여 동백나무는 집 안에 심지 않는다.

• 나리꽃(百合花) : 민간에서 나리꽃은 豐饒의 상징이다. 나리꽃이 많이 피면 장마의 피해가 없고 풍년이 든다고 믿어, 봄이면 나리꽃이 피는 것으로 그 해의 기상을 점쳤다.

• 民間信仰 : 五行木 符籙을 보면, 중앙은 잣나무 / 동쪽은 대추나무 / 서쪽은 복숭아나무 / 남쪽은 해나무 / 북쪽은 느릅나무

• 당산나무 : 마을의 수호신 / 신의 감림처

• 稼樹 :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 禁苑 연경당의 陽石 : 庭心樹로 느티나무에 박혀 있는 괴석 형태의 양식으로 나무 시집보내는 형태 :

• 東桃枝 : 鬼神 卞는 나무인 복숭아 꽃과 동쪽으로 뺀 가지

• 動木 동티 :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나무를 함부로 옮긴 후 생긴 탈이나 걱정

• 엄나무 : 집의 문 옆에 기르거나, 가시가 달린 가지를 잘라 문설주 위에 놓아두어 잡귀의 출입을 막는다.

• 面 : 하회가면 : 오리나무로 탈을 만들었으나 요즈음은 피나무로 만들어 쓴다.

• 풍물에서의 雜色 탈 : 영광의 잡색 탈 : 오동나무로 만든 10개의 잡색탈이 있다 (영감, 할미, 대포수, 비리쇠, 좌창, 우창, 초랭이, 흥적삼, 조리중, 참봉)

• 國樂器와 나무

- 거문고와 가야금 아쟁 : 울림통 : 오동나무와 밤나무 5년 이상 눈·비·바람 맞히며 삭혀야 좋은 재목 / 현침 : 대추나무, 장미목 / 양이두 : 들배나무 / 안죽 : 대추나무 단소·대금·중금·소금·생황·해금 : 대 / 대금 : 쌍골죽은 분죽

- 대금과 통소는 유독 갈대청이 붙어서 저취와 평취 역취 때마다 각기 다른 소리.

- 소리북 : 통북이 좋지만 현재는 소나무를 조각내어 만든다. / 북채 : 탕자나무

- 國樂器 : 식물성 악기의 재질 : 귀의적 순응의 자세 / 부드러운 음색

- 洋樂器 : 금속성 선호의 악기 : 도전적 극복의 자세 / 냉철한 논리

9. 繪와 民謠에 나타난 나무

1) 繪

〈東關圖〉：1800년대의 금원, 후원, 비원 숲〉 김홍도의 〈仙人松下吹笙圖〉 〈官衙圖〉：1776년 김정희의 〈歲寒圖〉 〈不作蘭〉 이인상의 〈雪松圖〉 18세기 중반 신윤복의 〈松亭雅會〉 강세황의 〈碧梧消暑圖〉 조희룡의 〈梅花圖〉 이하응의 〈蘭草圖〉 이산해의 〈菊花圖〉 양광손의 〈折竹圖〉

2). 民謠 속의 나무와 숲

〈山有花歌〉：백제 유민의 노래

산유화야 산유화야 네 꽃 피어 자랑마라. 네 꽃 피어 구십소광 잠깐간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사비강에 배 띄워라. 취영봉에 달이 뜨고 사비강에 달이 진다. 어화 어화 상사뒤여

〈나무謠〉：참나무허고 뽕나무허고 대나무가 살았는데, 뽕나무가 방귀를 췌게 참나무가 참으시오 참으시오 형게 대나무가 대끼놈 대끼놈 허드라네 (부안)

〈나무謠〉

산에 올라 산나무 들에 내려 배나무 봉화국에 화나무 불에부쳐 향나무 불밝혀라 등나무 용춘추어 용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열의갑절 스무나무 한치래도 栢子나무 조선에난 胡桃나무 남쪽에난 동백나무 푸르러도 단풍나무 단풍져도 푸른나무 소년시정 영감나무 평생소녀 대추나무 사시사철 사철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사월팔일 느티나무 먹기어린 떡갈나무 휘느러져 버드나무 白楊靑楊 黃楊나무 (중략)거짓없이 참나무 그렇다구 치자나무 (禮山地方)

10. 나무의 노래 · 숲의 詩

• 鄉歌：〈찬기파랑가〉 아, 잣가지 높아 서리 모르시울 화반이여.

• 時調：〈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어이서 백설이 만견곤하니 독야청청하리라. (굳은 질개)

〈안민영〉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녀더니 눈기약 능히 지켜 두세송이 피었구나 촉잡고 가까이 할 새 암향조차 부동터라

• 樂章：〈용비어천가 2장〉 (문화의 창달과 국가의 영원 상징)

〈이조년〉

梨花에 月白하고 銀漢이 三更인제, 일지춘심을 子規야 알라미는 多情도 병인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계람〉

이화우 흠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주희〉 권학문：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輕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

〈김인후〉

소쇄원 48詠 중 〈夾路脩篁〉 눈을 실은 등걸은 찌를 듯 곧고, 구름실은 줄가리는 굽고도 연해, 늦은 겹질 벗겨져라 청려장을 짚고, 새 즐거기를 동였어라 띠가 풀렸네.

〈정약용〉이 만든 竹欄詩社：모임 일이 살구꽃 필 때, 복숭아꽃 필 때, 참외가 익을 때, 연꽃 필 때, 국화가 필 때, 큰 눈이 내리면 모이고, 선달에는 盆梅의 꽃이 피면 한차례 모였다. / CF)

목포시사, 광주의 武珍吟사.

〈김병연 : 竹〉

此竹彼竹化去竹 風打之竹浪打竹 飯飯粥粥生此竹 是是非非付彼竹 賓客接待家勢竹 市井賣買歲月竹 萬事不如吾心竹 然然然世過然竹.

〈六·靑〉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 저시대는 울고 살대는 가고 그리나니 붓대로다, 구트나 울고가고 그리는 대를 심어 무삼하리오.

〈이은상 : 나무의 마음〉

나무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소 / 숨쉬고 뜻도 있고 정도 있지요 / 만지고 쓸어주면 춤을 추지만 / 때리고 꺾으면 눈물 흘리죠.

꽃피고 잎 퍼져 향기풍기고 / 가지줄기 뻗어서 그늘 지우면 / 온갖새 모여들어 노래 부르고 / 사람도 찾아와 쉬며 놀지요.

찬서리 눈보라 휘몰아쳐도 / 무서운 고난을 모두 이기고 / 나이테 두르며 크고 자라나 / 집집이 기둥 들보 되어주지요.

나무는 사람 마음 알아주는데 / 사람은 나무 마음 왜 몰라주오/ 나무와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 금수강산 좋은 나라 빛날 것이오.

〈김지하〉

벚꽃 지는 걸 보니 푸른 솔이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가끔씩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는 : 이외수〉

〈나무들의 결혼식 : 정호승〉

내 한평생 버리고 싶지 않은 소원이 있다면 / 나무들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낭랑하게 / 축시 한번 낭송해 보는 일이다.

내 한평생 끝끝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우수가 지난 나무들의 결혼식 날 / 물레 보름달로 떠올라 / 밤새도록 나무들의 첫날 밤을 엿보는 일이다. / 그리하여 내 죽기 전에 다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 은은히 산사의 종소리가 울리는 봄날 새벽 / 눈이 맑은 큰 스님을 모시고 / 나무들과 결혼 한번 해보는 일이다.

〈 숲 〉 : 도종환 / 〈많이 아픈 꽃일수록 더 아름답다〉 : 원재훈.

〈숲의 묵언〉 : 고재종 / 〈고목을 보며〉 : 신경림 / 〈옥룡사터 동백숲에〉 : 최두석.

〈인디오의 감자〉 : 윤재철

텔레비전을 통해 본 안데스 산맥 / 고산지대 인디오의 생활
스페인 정복자들에 쫓겨 / 깊은 산 꼭대기로 숨어든 잉카의 후예들
주식이라며 자루에서 꺼내 보이는 / 잘디잔 감자가 형형색색
종자가 심여 종이다.

왜 그렇게 뒤섞여 있느냐고 물으니

이 높은 가뭄에 강하고 / 이 높은 추위에 강하고 / 이 높은 벌레에 강하고
그래서 아무리 큰 가뭄이 오고 / 때 아니게 추위가 몰아닥쳐도
망치는 법은 없어 / 먹을 것은 그래도 건질 수 있다니.

전체적인 이 문명의 질주가 / 스스로도 전멸을 입에 올리는 시대
우리가 다시 가야 할 집은 거기 인디오의

잘디잘은 것이 형형색색 제각각인 / 씨감자 속에 있다.

〈풀잎이 아름다운 이유〉 : 김무화 / 김재황, 〈치자꽃 향기〉에서

박팔양, 〈봄의 선구자 '진달래'를 노래함〉

〈황지우 : '소나무에 대한 예배'〉 / 〈나무〉 : 이양하 / 〈내 나무〉 : 이규태

• **동요속의 나무와 숲** : 유종슬 요, 정연택 곡 :

〈숲 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살이는 길 /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가 그-옥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숲속을 걸어요 맑은 바람 솔바람이 이는 / 숲속을 걸어요 도랑물이 노래하는 길 달님도 쉬었다 가는 길 산노루가 넘나드는 길 / 웃음 띤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1986년 MBC 창작동요제 금상곡)

11. 숲과 음악

국악 : 황병기의 〈숲〉 〈침향무〉

클래식 : 차이코프스키 〈잠자는 숲속의 미녀중〉 “왈츠” / 요한스트라우스2세 〈빈 숲 속의 이야기〉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 미하엘리스 〈숲 속의 대장간〉 / 하이든 〈종달새(현악4중주)〉 / 요나손 〈삐죽 왈츠〉

12. 시대를 앞서 간 숲 해설가

• 강희안 〈양화소록〉 : 탁월한 안목의 소유자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숲 해설가

• 소쇄처사 양산보 : 〈소쇄원〉의 조영과 15대에 이어져 오는 푸른 정신

• 다산 정약용 : 〈竹欄詩社〉와

‘소서팔사(消暑八事)’라는 시에서 ‘더위를 피하는 8가지 방법’ : 소개한 피서법은, 술밭에서 활쏘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네타기, 넓은 정각에서 투호하기, 대자리 깔고 바둑두기, 연못의 연꽃 구경, 숲 속에서 매미소리 듣기, 비오는 날 漢詩 짓기, 달밤에 濯足하기

• 옥룡자 도선 : 백계산 옥룡사와 사계절 푸르른 동백숲

• 프레이저 : 『황금의 가지』저자, 황금의 가지는 : 참나무류에 기생하는 겨우살이

13. 맺는 말

문화사적 입장에서 숲을 바라보고 정리한 글이다. 문화사적 관점에서 숲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숲 밖에서 숲을 생각하고, 숲에 직접 가서 숲을 본다. 또한 숲 속에서 숲을 관찰하며, 숲 속에서 숲을 느껴본다. 그러나 숲은 항상 수많은 생명체를 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숲을 바라보는 관점은 내가 어떤 시각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각기 달리 보일 것이다. 숲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숲을 다 볼 수는 없다. 숲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해서 숲을 다 느낄 수는 없다. 숲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차장보는 남다른 애정과 부단한 관찰 그리고 쉽 없는 공부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숲에 다가가고 느껴보자. 그제서야 숲은 이미 우리들의 마음 속에 다 들어와 있을 것이다.

參考 文獻

- 『양화소록』강희안
- 『황금의 가지』프레이저
- 『시조문학사전』정병욱, 신구문화사, 1979.
- 『한국민요집』Ⅰ ~ Ⅳ : 임동권편, 1973 ~ 1993
- 『나무백과』임경빈, 일지사, 1978. 『속, 나무백과』임경빈, 일지사, 198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한국문화상징사전 1, 2』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동아출판사, 1992.
- 『한국 민속 식물』최영전, 아카데미서적, 1992.
- 『마을 숲』김학범, 장동수, 열화당, 1994.
- 『우리 가락 우리 문화』한명희, 조선일보사, 1994.
- 『녹색세계사』클라이브 폰팅, 이진아 역, 심지, 1995.
- 『한국의 동요』한용희, 세광음악출판사, 1995.
- 『새동요대전집(상,하)』성강환, 아름출판사, 1995.
- 『소나무』임경빈, 대원사, 1996.
- 『신림문화론』전영우,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7.
-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1~3, 이상희, 빅세스, 1998.
- 『匠人』박재관, 증명, 1999.
- 『풀문화』인병선, 대원사, 빛깔있는 책들 111, 1999.
- 『나무와 숲이 있었네』전영우, 학교재, 1999.
- 『대나무』김준호, 대원사, 2000.
- 『태산풍류와 섬진강』송수권, 토우, 2000.
- 『생태기행』2, 남부권, 김재일, 당대, 2000.
- 『목수일기』목수 김씨(김진송), 웅진닷컴, 2001.
-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최재천, 효형출판, 2001.
- 『우리숲 산책』차윤정, 웅진닷컴, 2002.
- 『꽃의 중국 문화사』中村公一 지음, 조성진, 조영렬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04.
-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박상진, 김영사, 2004.
- 『방외지사 1,2』조용현, 정신세계원, 2005.

불교 문화의 올바른 이해

황 호 균

(전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목 차

1. 가람의 배치형식
 2. 목조 건축물의 우수성
 3. 불멸의 몸이 깃든 집,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 무덤
 4. 석등
 5. 불보살상
 6. 불교회화
 7. 불전의 명칭과 봉안하는 불·보살상에 따라
거는 탱화의 종류가 달라진다
 8. 불교공예
-

〈사료의 가치 이해〉

역사가는 사료에 의하여 사실을 인식하고 판단한다. 따라서, 사료의 탐사, 수집, 정리,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은 역사 연구의 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료에 의한 역사 연구 방법론은 19세기 독일의 근대 사학에서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역사학을 실증적 기초 위에 선 과학으로서 발달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역사 연구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사료학과 사료 비판으로 나눌 수 있다. 사료학은 사료의 수집과 정리 및 분류를 그 내용으로 하며, 사료 비판은 사료의 진위를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나눌 수 있다.

외적 비판이란 사료 그 자체에 관하여 그것의 진위 여부, 원사료에 대한 타인의 첨가 여부, 필사(筆寫)인 경우 필사 과정에서의 오류, 혹은 사료가 만들어졌을 단계에서 작자·장소·연대 및 전거(典據) 등에 관하여 사료의 가치를 음미하는 것이다.

내적 비판이란 사료의 내용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분석하고, 사료의 성격을 밝히는 작업으로서, 이는 사료로서 전하는 것이 반드시 역사적 진실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행하는 작업이다. 즉, 내적 비판은 사료의 기술(記述)을 분석하고 기술의 개개의 점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이유의 유무를 조사하는 것이다.

1. 가람배치 형식

- 1) 지역성 : 평지(포교, 교종, 수행공간) 산지(선종 유입, 수도처), 석굴(전래초기)
산지가람의 경우 계단식 배치로 좁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화엄사)

인도와 중국에서 유행하는 석굴사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지 못한 이유?
우리나라의 절은 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다. 해서 불교 전래 초기에는 포교 중심의 신앙형태 수도처인 석굴사원이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신라의 경우 불교 공인 이전 모례의 토굴은 예외)

윤회설의 실체

왕실이나 귀족들이 불교를 집권 이데올로기로 이용하였다. 윤회설도 원효스님 이후에나 민중들도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귀족으로 태어 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왔지, 그 전에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아서 현생에 왕족이나 귀족들로 태어났다는 논리가 만연했다.

우리나라에 산지가람이 많은 이유?

조선시대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이해이다. 신라시대 말 선종의 영향으로 수행하기 좋은 깊은 산에 수도처를 많이 만들었던 결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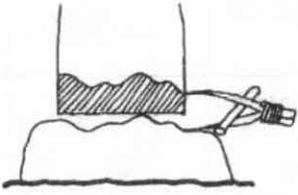
조선시대 억불사례

조선시대 유생들의 사찰에 대해 박해는 대단했다. 유생들이 말을 타고 법당 앞까지 들어와서 술상 봐와라! 고기 내와라! 기생 대령 해라는 등 온갖 작폐가 심하여지자 교육지책으로 이들이 계곡을 건너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로를 바꾸는 경우(불갑사, 송광사)와 말을 타고 법당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지붕 있는 건물을 세운 경우(송광사 우화각, 태안사 능파각)가 있다. 화순 능주지역에서 유생들이 사찰을 방화하기도 하는 등 각 지역에서 유생들이 침탈이 끊이지 않았다. 해서 사찰 불사 때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제년(王妃殿下壽齊年), 세자저하수천추(世子殿下壽千秋)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유생의 작폐를 극복하려는 지혜를 보인다.

2. 목조 건축물의 우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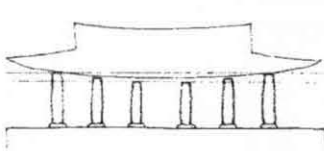
일주문 - 쓸어 질것 같은 일자형으로 나란한 두 개의 기둥이 무거운 지붕을 지탱하는 불가사의한 역학 구조, 지진에 강하다. / 등장 시기 : 조선시대

짜 맞추는 결구 구조 - 못을 하나도 안 쓴다. 보수와 해체가 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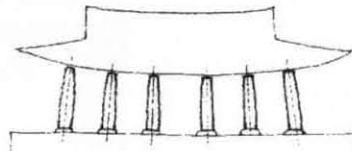


그랭이 기법 - 기둥과 초석 결합하는 방법으로 초석의 요철대로 기둥의 밑을 절단하는 기법을 말한다. 자연미가 물씬 풍긴다.

지붕 용마루 공그리는 선 - 중국과 일본의 직선에 비해 옷자락 늘어지듯 여유로운 곡선, 주변의 노년기 산등성이 곡선과 조화 지붕과 벽체 높이의 비율이 1대 1일 때 가장 안정감이 느껴진다.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귀솟음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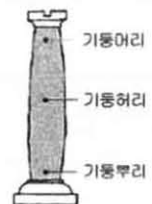


안솟림 기법

안 오금(솟림) 기법 - 건물 바깥쪽의 기둥들을 안쪽으로 오무라들게 배열하는 법, 직각으로 세울 때 기둥 무게로 바깥쪽 기둥들이 벌어질 것 같은 착시 현상을 교정키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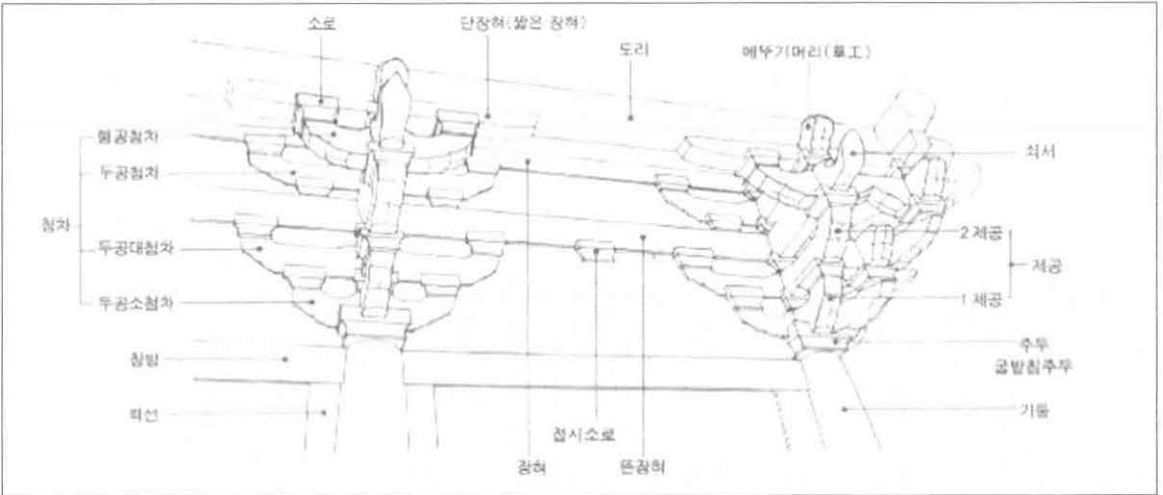
귀솟음 - 건물 모서리 네 개의 귀기둥을 다른 기둥보다 길게 하는 기법, 지붕의 무게로 인한 침하에 대비, 동일 길이 시 양쪽 끝이 처져 모서리가 내려앉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교정키 위해

배흘림 기법 - 배불림, 엔타시스, 새벽과 해질녘의 측광 시 기둥 중앙이 빈약해지게 보여 건물이 쓰러질 것 같은 착시현상을 교정키 위해



주심포, 다포 - 공포를 배열하는 방법. 간결한 주심포식에서 원나라 지배 이후 라마불교 영향으로 건물의관이 화려해지는 다포식으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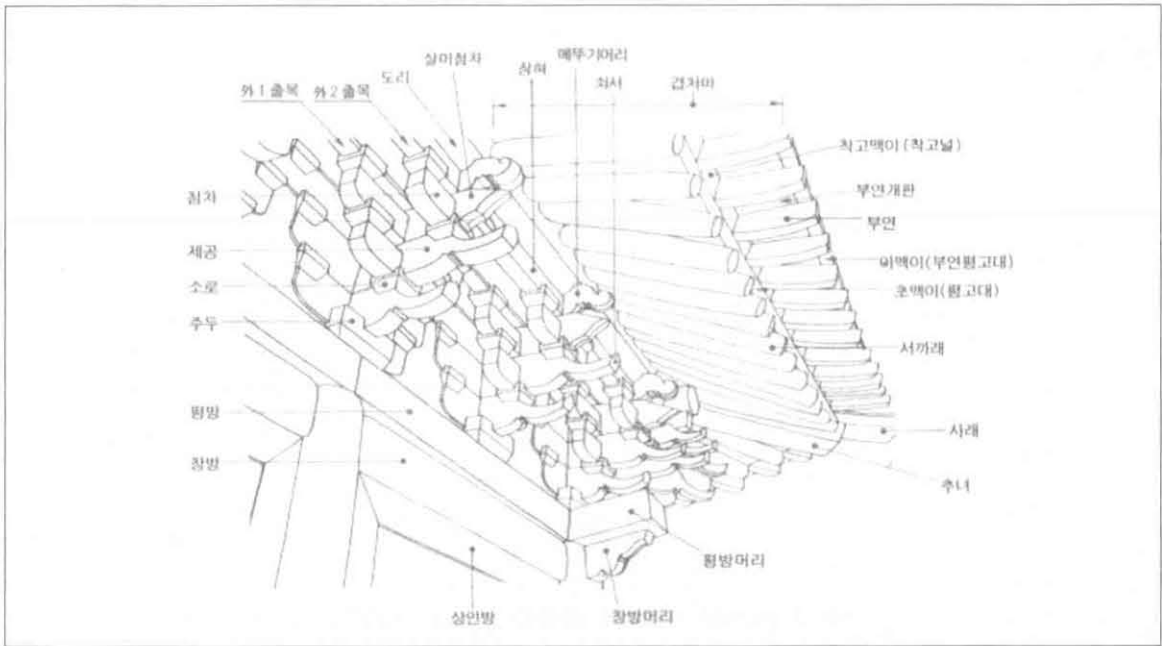
주심포 양식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 건물인 부석사 무량수전



다포 양식



다포 양식의 건물인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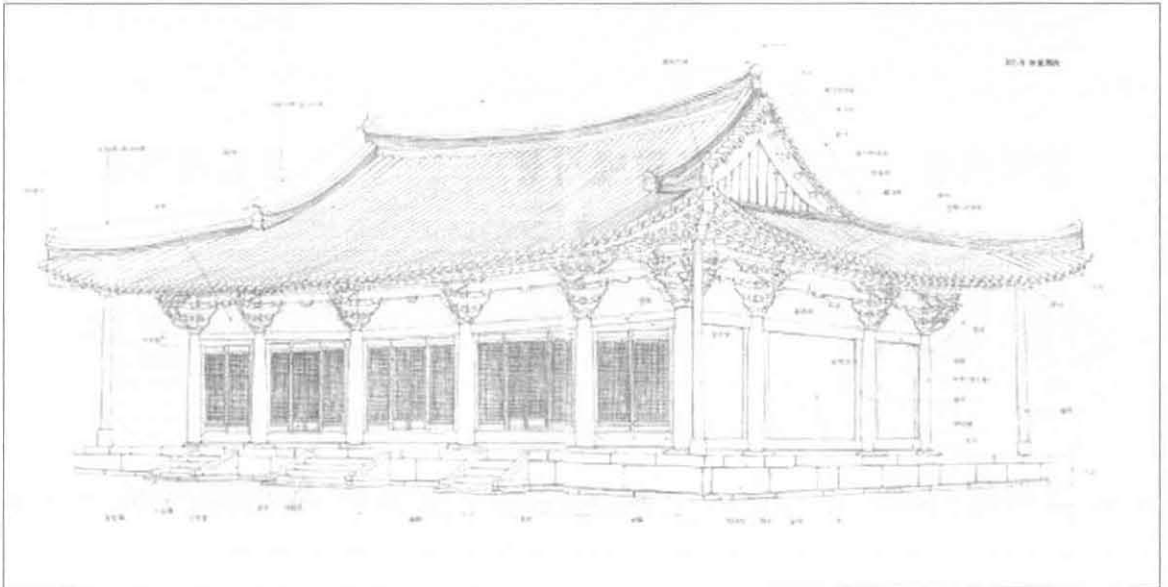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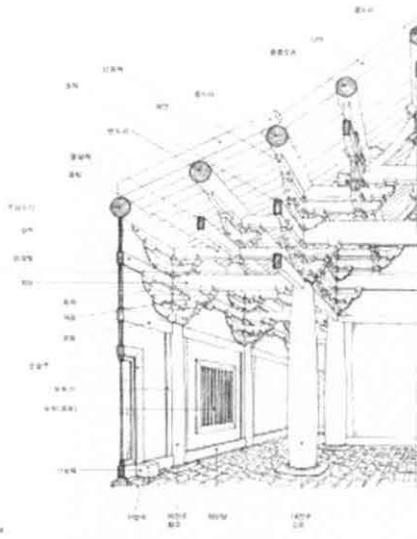
목조·기와·흙과 결합한 건물 - 우리나라 풍토에 적합한 건물,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목조건물 칸수 세는 법 : 정면 3칸, 측면 2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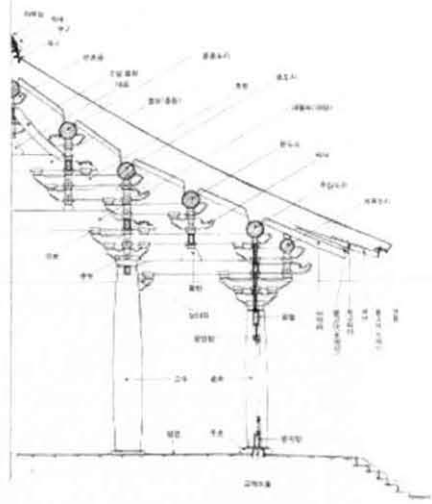
목조 건물의 구조



부석사 무량수전



부석사 무량수전 투시도



석사 무량수전 종단면

지붕 형식 - 맞배, 팔작, 우진각

목조 건물의 지붕 형태



팔작지붕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십자명지붕



육모지붕



정자명지붕

법당과 불전의 차이 - 법문하는 집, 불상을 모신 집, 금강계단, 허공법단

건물명칭 차이 - 전(불보살), 각(산신, 칠성), 당(응진당, 조사당), 루(강당), 요, 소(解憂所)

3. 탑 - 불멸의 몸이 깃든 집,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 무덤

1) 탑의 발생

열반, 다비, 여덟 말의 사리 출현, 사리분쟁, 도로나존자의 중재로 사리 팔분(10분, 병탑, 회탑)

2) 탑 조성자 및 관리자의 변화

“너희들 출가 수행승들은 여래의 장례 같은 일에 상관하지 말라. 너희들은 진리를 위해 게으름이 없이 정진하여야 한다. 장례는 독실한 재가신도들이 맡아서 집행해 줄 것이다.”라는 열반시 유언

- 탑 조성자 : 신도
- 초기에는 2백 년 동안 승단의 간섭 없이 재가신도들이 탑을 관리
- 나중에 승단에서 관리권한을 가져감

3) 탑 형태의 변화

인도탑은 복발형식으로 인도 전통적인 무덤형식에서 연유하나 중국에서는 무덤과 예배 및 법문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 목조건물 형식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는 초기에는 중국식 목탑형식이 유행하나 차츰 목조건물을 번안한 석탑형식으로 완성됨.

4) 탑은 부처님의 무덤이라 하는데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의 탑은 있는가?

없다. 불국사 다보탑은 법화신앙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특수한 예, 실존인물이 아닌 경우는 무덤이 존재할 수 없다.

삼신일체사상 :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5)탑의 의미

1. 탑의 의미

1. 탑의 어원 : 고대 인도어인 범어(sanskrit)의 'stupa'의 소리를 한자로 표기한 것
2. 스투파 : 신골(身骨)을 담고 토석(土石)을 쌓아 올린 불신골(佛身骨:진신사리)을 봉안하는 무덤
3. 불탑 : 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축물의 일종으로 불탑이라고도 함

2. 탑의 재료

1. 한국의 탑 : 석탑 위주 - 화강암이 많아서 석탑이 발전
2. 중국의 탑 : 전탑 위주 - 황토가 많아서 벽돌을 쌓아 만든 전탑이 발전
3. 일본의 탑 : 목탑 위주 - 전쟁의 피해가 적고 나무가 많은 일본은 목탑이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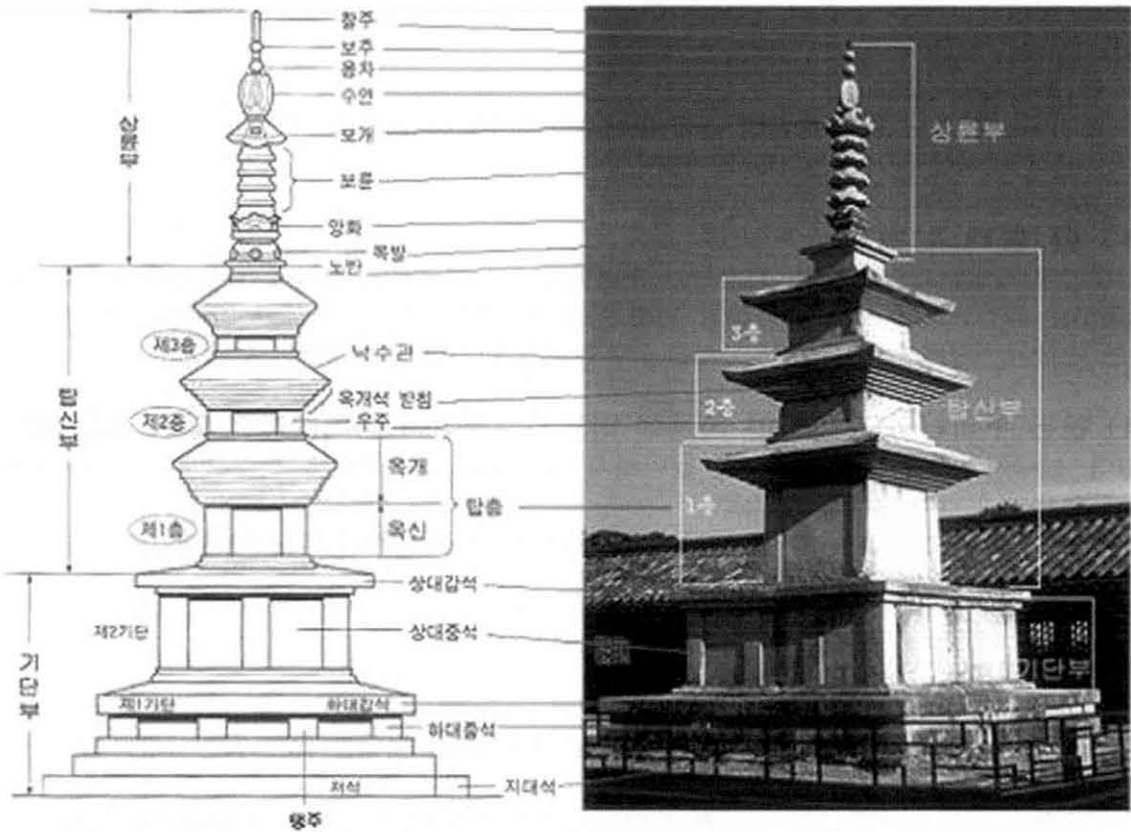
3. 탑의 이름

답이름	위치 - 소재지	형태 / 층수	재료	
	어디	모양 / 몇층	무엇으로	
(1)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삼국시대(백제)
(2)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통일신라
(3)	월정사	8각 9층	석탑	고려시대
(4)	원각사지	10층	석탑(파고다탑)	조선시대

4. 승탑(부도)의 의미

1. 승탑 : 승탑은 스님들의 사리를 보관해 놓은 곳. 부도(浮屠), 묘탑(墓塔)이라고도 함
2. 승탑의 위치 : 불탑은 예배와 신앙의 중심. 사찰 경내의 중심부인 법당 바로 앞에 건립. 이에 반해 승탑은 사찰의 한적한 곳에 위치. 승탑은 승배의 대상이기는 해도 신앙의 중심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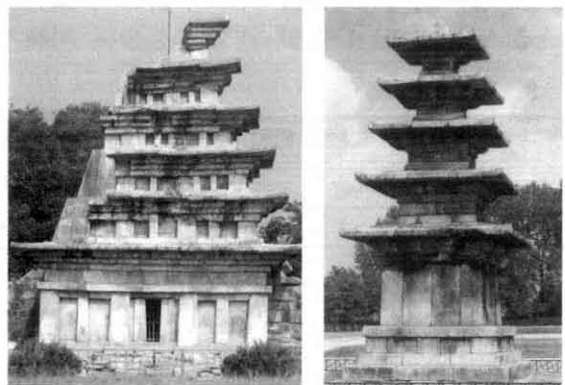
5. 탑의 구조와 부분 명칭



6. 우리나라 탑의 변천

1. 삼국시대

- (1) 고구려 : 목탑 위주로 현존하는 탑은 없음
- (2) 백제
 - ①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목탑 양식의 석탑
 - ② 부여 정림사지 석탑 : 목탑 양식의 석탑



(3) 신라

① 황룡사 9층 목탑:현재 탑지만이 남아 있음



② 분황사 모전 석탑:전탑 양식을 모방



2. 통일신라시대 : 3층 석탑으로 정형화 - 안정과 균형

(1) 전형적인 양식의 시작

- ① 감은사지 3층 석탑
- ② 고선사지 3층 석탑



(2) 전형적인 양식의 완성 - 불국사 3층 석탑(석가탑)



(3) 변형 석탑

① 불국사 다보탑



②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③ 안동 신세동 7층 전탑



3. 신라하대

(1) 중앙 -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



(2) 지방

①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② 전남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등 부도(승탑):선종의 유행과 지방 호족 성장



4. 고려시대 : 탑과 불상에 비해 부도(승탑)가 발달

(1) 전기

① 월정사 8각 9층 석탑 :다각다층탑



②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2) 후기

① 경천사 10층 석탑:원나라 라마교의 영향을 받음. 조선의 탑에 영향을 줌



5. 조선시대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 문화 쇠퇴

원각사지 10층 석탑(파고다탑):고려 경천사 10층 석탑 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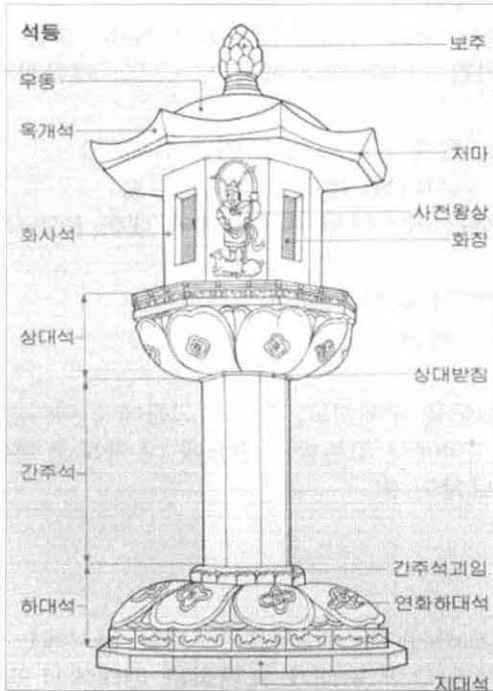
4. 석등

빈자일등, 빈녀일등, 『아사세왕수결경』 기독교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

석등 용도 : 長明燈(부처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려는 바램),

실용적인 야외 조명등 역할(실상사 석등 계단)

석등 건립 위치 : 사찰 중심부, 조명효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징성도 내포



5. 불보살상

1) 불상이 만들어진 시기

(1) 석가모니 부처님 사후 5백년 동안 불상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 ?

- ① 석가모니 부처님을 신성시하여 다른 신들과 구별키 위해
- ② 불신을 형상화시키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다(증일아함경)
- ③ "나를 형상으로 찾지마라!" 부처님의 가르침

(2) 불상이 서기 1세기경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이유 ?

- ① 불교 교리 변화 유부 계통의 교단에서 대중부계통의 교단으로 세력 변화, 불교를 널리 포교하기 위해 교주의 형상을 제작할 필요성 대두
- ② 쿠산왕조 시대에 그리스·로마(헬레니즘) 계통의 신상에서 영향 쿠산왕조의 카니슈 카왕대의 금화(금전)에 붓다라는 글씨와 함께 불상이 새겨짐, 간다라지방
- ③ 인도 재래 신상에서 발전 : 마투라지방, 약사상이나 약시상에서 유래

(3) 무불상시대의 신앙 대상은 ?

- ① 석굴사원인 예배당(차이티야)

② 탑

③ 각종 상징물 : 보리수(선정), 금강보좌(성도), 불족적(전도), 법륜(전도, 설법)

신앙의 중심이 탑에서 불상으로 변화

2) 불상과 보살상이 한 분 이상이 된 이유 ?

- 대승불교의 특성, 구제해야 할 중생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불·보살상들이 출현
- 불교의 불·보살과 기독교의 성부·성모는 인간 가족관계의 핵인 부·모의 역할관계 속에서 출현
- 불 상 : 三世佛(과거 : 다보·연등·아미타, 현재 : 석가모니, 미래 : 미륵)
三身佛(法身 : 비로자나불, 報身 : 노사나불, 化身 :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 사후세계에 대한 불안감
약사불 : 병을 치유해주는 의사
- 보살상 : 억지를 부려도 소원을 들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
인도의 재래신인 약시나 약사상에서 유래
관음 : 자비의 화신,
지장 : 육도 윤회속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지옥의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다 제도한 후에
성불을 이루리라 하던 지장보살의 원
문수 : 지혜
보현 : 자비나 이치
미륵 : 도솔천 주재

수자령지장 : 낙태아의 혼령을 천도하신다는 보살이나 부처님 당시에는 들도 보도 못한 신앙이다. 일본에서 최근에 수입한 신앙으로 낙태가 보편화된 현대에서 필요한 신앙이었으나 그러한 신앙이 존재하면 낙태하고 수자령지장에게 빌면 된다는 부정적 사고가 등장할 수도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3) 불상의 얼굴이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

- 석굴암 본존불과 운주사 못난이 불상 얼굴 표현 : 국왕같은 권위가 물씬 풍기는 근엄함과 이웃집 아저씨 같은 편안함이 대조
- 제작된 시대의 미감이나 지역성 및 교리적인 내용이 불상제작에 반영된 결과
 - 한국불교는 전래 초기부터 지금까지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
 - 원효나 요세스님같은 분들에 의해 민중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민중불교 태동
 - 귀족불교 : 경제력이 풍부해서 최고의 장인을 동원한 탓에 조각의 솜씨가 좋다. 귀족권위 옹호하려고 근엄함을 강조
 - 민중불교 : 경제력의 열세로 형편대로 요량껏 만든 탓에 조각 솜씨가 좀 떨어진다. 민중의 열망을 대변하려고 못난이 촌부 모습으로 제작

4) 불상의 시선이나 어깨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

• 삼국시대 이후 특히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이 시선을 정면을 향하고 어깨가 당당한 것과 비교해서 조선시대 불상이 눈을 아래로 향하고 어깨를 움추리는 것을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이해하여 왔다.

•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의 눈이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닌 반개 또는 1/3정도만 뜬 이유는 무엇일까?

① 유흥준 교수의 눈 높이 부처 이야기처럼 오체투지 상태에서 바라다보면 머리가 가분수처럼 보이지 않고 신체에 대한 비례가 절할 때의 대상자 중심으로 설계한 눈 높이 부처이다.

② 마루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체투지를 하는 중생에게 향하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마음을 담아내는 모습으로 왜란과 호란을 겪은 우리네 백성들의 아픔을 달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릿속으로는 중생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눈을 지그시 뜬 상태로 고통을 호소하는 중생들을 모든 번뇌를 다 들어 줄 것 같은 부처의 마음을 담아내었다. 눈을 떠버리면 연민에 빠지기 쉽고 눈을 감아버리면 부처의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아름답게만 조각되는 신상의 속성과는 달리 불전에 예배용으로 조성된 기능성에 충실한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엿 보이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특히 석굴암 본존불처럼 특정한 계층인 왕실의 득남 기도 도량이라는 조성 의도에서처럼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민중들의 번뇌를 함께 하는 자비스러운 부처상이 아니라 군림하는 절대자 같은 모습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어깨가 짝 펴져 있고 머리도 곳곳이 곧추세워 눈을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는 귀족불교 중에서 왕실불교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

5) 미륵불과 미륵보살의 차이는 ?

- 무착스님의 스승으로 불제자인 인도의 유가유식학을 체계화시킨 학승인 미륵을 미륵보살과 혼동
- 지금은 도솔천을 주재하는 보살
- 석가모니보다 더 먼저 성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석가가 워낙 맹렬하고 진실되게 백 겁이 소요되는 보살 수행기간을 91겁으로 마치고 성불하자 자연히 미래불이 된 것이다.
- 보살상은 여성적인 모습의 사유상, 불상은 용화수인
- 석가모니불이 입멸한 뒤 56억 7,000만 년 뒤에 사바세계에 태어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불이다
-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 :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



① 최초에는 미륵하생경이 먼저 성립, 도솔천을 주제하신 미륵불이 인간세상이 내려와서 용화삼회하는 3번의 설법에 참여하여 구원 받기를 원하는 신앙, 재림 예수는 심판자이나 미륵불은 모든 중생을 구원의 대상으로 파악함.

② 그렇다면 미륵불이 오실 용화세상 이전에 사는 사람을 어찌란 말이나는 반대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륵상생경이 성립함, 인간이 살다가 죽은 다음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과 함께 하다가 미륵불과 함께 하생하여 용화삼회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신앙체계,

6) 중국 선종사찰의 법당에는 불상이 모셔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 불상을 모신 이유는 ?

- 화엄적 선종 : 대당 유학 선종 승려들은 모두가 화엄종 출신이고 중국처럼 부처와 조사도 부정하는 혁명적인 개념인 선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당시 사회풍토에서 조명되어져야 할 것이다. 선적인 개념에서의 개선은 극도의 사치를 치닫는 금불상 조성을 자제하고 철불을 조성한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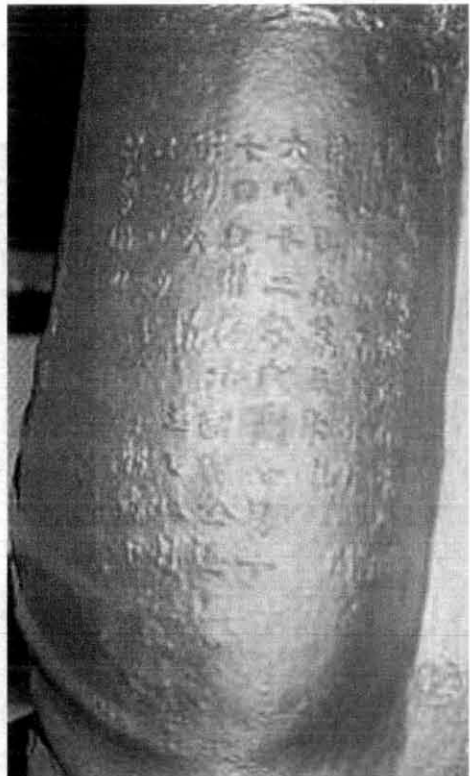
7) 철불이 통일신라 말에 유행하는 이유는 ?

- 화엄적 선종 : 대당 유학 선종 승려들은 모두가 화엄종 출신이고 중국처럼 부처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 비교적 덜 사치스러운 철불을 조성한 듯하다.

- 철불이 조성된 지역은 대부분 후삼국전쟁이 치열했던 격전지들이다. 무기를 녹여서 불상으로 ?

- 신라시대 말기나 고려 초기에 혼란한 사회현상으로 사찰 경제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 좌상(寶林寺 鐵造毘盧遮那佛)



8) 수인이나 지물들로 불·보살상의 명호를 알 수 있는가 ?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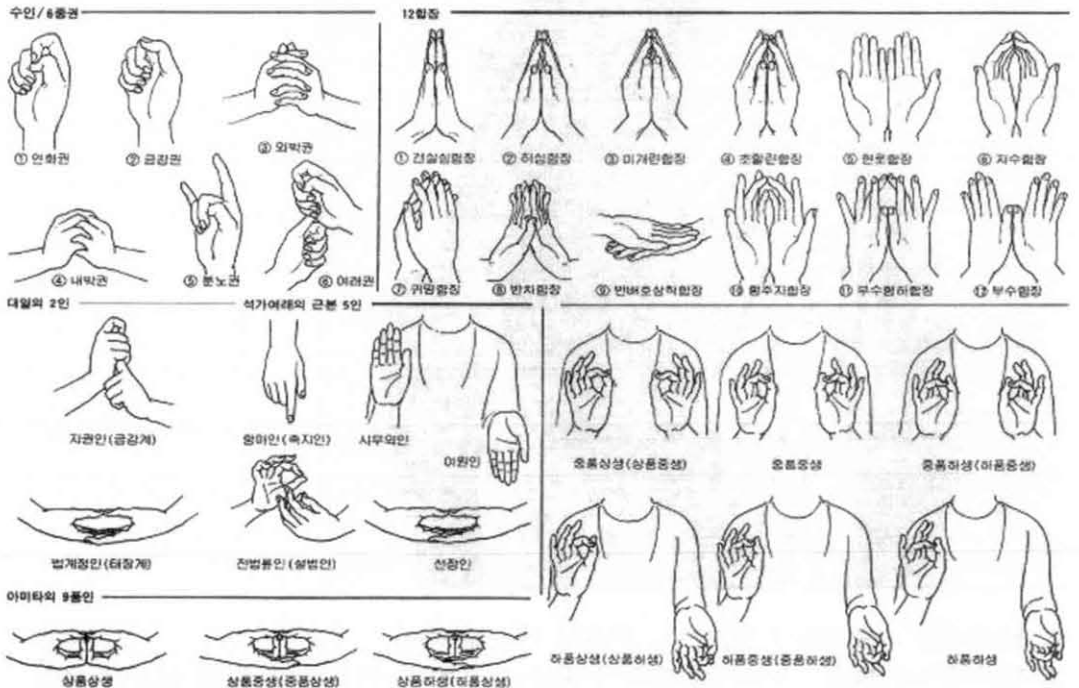
인도·중국·한국·일본 등에서 보편적인 형식이 완성되지 않고 나라나 시대·지역·교리에 따라 다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1) 불상

- ① 석가불 : 삼국시대는 좌상 선정인, 입상 시무외인·여원인,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는 항마촉지인이나 항마인
- ② 아미타불 : 아미타 정인, 아미타 구품인, 항마촉지인 8세기 중엽 성행
- ③ 비로자나불 : 766년 석남암사 불상이 최초이며 9세중반부터 9세기말까지 50여년동안 많이 제작됨. 지권인을 하면 모두 비로자나불상이다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우수상 좌수하(정령치마애불), 항마촉지인상
- ④ 로사나불 : 보림사철불은 지권인, 화엄사불상은 보관을 쓰고 두 손을 들어 올림. 일정한 형식에 대한 연구 전무
- ⑤ 약사불 : 약합이나 보주를 든 약기인
- ⑥ 미륵불 : 용화수인

(2) 보살상

- ① 관음 : 손에 정병이나 버들가지를 든 모습, 보관에 아미타불을 화불로, 백의·양류·십일면·천수천안·여의륜관음 보살
- ② 지장 : 깎은 머리나 두건 쓴 머리에 보주나 석장을 든.
- ③ 문수 : 사자
- ④ 보현 : 코끼리
- ⑤ 미륵 : 사유인(보살) 이나 용화수 꽃을 든 용화수인(불)
- ⑥ 대세지 : 보관에 보병을 새기거나 손에 보병이나 연꽃을 든.
- ⑦ 일광 월광 : 이마나 보관에 해와 달을 새김.



9) 수인의 의미는 ?

인도의 재래 무언 무용에서 유래, 교리적인 내용을 함축

밀교가 확립된 굽타시대인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 부터 다양화

- ① 석가 근본5인 : 선정인(참선수행), 항마촉지인(극복), 전법륜인(설법), 시무외인(두려움 소멸, 조복, 설법인), 여원인(자비, 소원성취), 천지인(탄생)
- ② 아미타정인과 구품인 :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자비로 구제함을 상징
- ③ 지권인 : 理와 智, 중생과 부처, 미혹함과 깨달음이 본래 하나임을 상징.
손등을 덮는 권인으로 변화
- ④ 약기인 : 자비를 베푸는 여원인에 약함을 들게 하여 병을 고쳐줄 의사임을 상징

10)

1. 불상의 의미

1. 불상의 기원 : 불상은 탑 이후에 생성. 탑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필요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과 간다라 미술의 발달로 불상 조각이 발전

간다라 미술 :



2. 불상이란 : 불교에서 종교적인 예배의 대상을 의미

3. 우리나라의 불상 : 4세기경 불교가 중국에서 유입, 경전 탑과 함께 불상이 전래

2. 불상의 종류

1. 부처 : 불타, 여래, 깨달은 자석가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불, 미륵불 등
2. 보살 : 불교의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 수행하고 실천하여 모든 중생을 교화관세음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3. 천 : 불교를 수호하는 신. 인도의 고대 신앙에 있던 토착 신들이 불교에 흡수된 것
법천, 제석천, 사천왕, 인왕(금강역사), 팔부신중, 비천 등
4. 나한 :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와 여러 나라에서 숭앙받던 고승들수행자의 민머리 모습으로 표현. 십대제자, 유마거사 등

3. 부처의 손모양

1. 시무외인 : 모든 중생에게 두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 위안을 주는 수인
2. 여원인 : 부처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는 수인
3. 선정인 : 석가여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에 잠겼을 때 맺은 수인
4. 항마촉지인 : 부처가 마귀를 물리치고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는 수인
5. 여원인 : 비로자나불의 위대하고 훌륭한 지혜를 상징하는 수인
6. 선정인 : 부처가 수행할 때 선정에 들었음을 상징하는 수인

4. 불상의 이름

불상이름	소재지 / 특징	재료 / 방식	주인공	자세 / 형태
	어디	무엇으로	누구를	어떻게
(1)	서산	마애	삼존불	
(2)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3)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5. 불상의 구조와 부분 명칭



6. 우리나라 불상의 변천

1. 삼국시대 :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 수용

초기불교 : 친근한 미소

(1) 고구려 : 연가 7년명 금동 여래 입상



(2) 백제

① 서산 마애삼존불상



② 태안 마애삼존불상



(3) 신라 : 경주 배리 삼존불상



미륵보살상과 반가사유상을 많이 제작

(4) 고구려 : 평천리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5) 백제 : 삼산관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6) 신라 : 일월식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2. 통일신라 : 안정감과 근엄한 자태, 아름답고 화려함

(1)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 조화와 균형미, 안정감과 통일감



(2) 석굴암 석조 석가모니불 좌상: 근엄하고 위엄있는 얼굴



(3) 안압지 금동 삼존관불상: 사실적인 묘사



3. 고려시대 : 개성미와 친근감, 호족 중심의 문화

(1) 지방 호족의 모습

① 개태사 삼존석불상



②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③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2) 다양한 지방색과 개성미 및 친근감 : 운주사 부조이불 와상



(3) 딱딱하고 굳은 표정의 얼굴 : 파주 용미리 마애불



4. 조선 시대 : 억불숭유 정책 - 불교 문화 쇠퇴, 개인의 행복 내세 추구 - 불감, 목감탱 등 제작

① 신륵사 명부전지장보살상



②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상



11) 삼성신앙의 의미는 ?

독성, 산신, 칠성 용왕(불회사, 갯바위 암자), 산신, 칠성

(1) 독성 : 나반존자 인도·중국·일본에는 없다. 최남선은 산신이된 단군으로 파악 불교계는 빈두루존자, 천태산과 소나무·구름 등을 배경으로 흰머리와 길다란 흰 눈썹을 가진 비구가 오른손엔 석장을 왼손에는 염주 또는 불로초를 들고 반석 위에 정좌한 모습으로 그려 짐. 간혹 동자가 차를 달이는 모습과 文臣이 양쪽 협시로 등장

김현준 : 나반존자에 대한 독성신앙은 나한신앙에서 분화

나한신앙 : 말법론의 대두와 함께 8고려시대는 祈雨와 求福, 외침의 극복 등을 기원하는 羅漢齋를 많이 개설, 고려말 이성계가 석왕사에 나한전을 짓고 광적사의 5백나한을 옮겨 봉안하면서 5백일 기도한 힘으로 조선을 개국했다는 이야기 때문에 크게 유행 전두환 십원짜리 동전 다보탑 불상, 노태우 팔공산 갯바위, 독성각

(2) 산신 : 민족 고유 토속신을 호법신중으로 삼은 것, 호환에서 유래, 할머니 산신, 할아버지 산신(도교풍, 유교풍, 불교풍), 호랑이, 동자가 산신령을 시봉하는 모습, 재래 전통 산악숭배 사상의 불교적 수용, 산신각,

(3) 칠성 : 불교의 칠성신앙 대상은 도교처럼 북두칠성 자체가 아니라 여래의 증명을 거치고 7여래의 화현한 칠성신, 다산 및 수명장수신인 칠성, 우리나라만 유일한 신앙, 동방세계만 관장, 칠성각, 북두각

삼성신앙의 전개 : 임란이전으로 올라갈 만한 유적이거나 유물이 없다. 조선초기 삼성각에는 고려말 삼대성승으로 추앙 받는 지공·나옹·무학대사를 봉안(양산 통도사 삼성각), 고려말까지는 불교의 외호적 기능을 담당하는 토속신을 사찰 안으로 구태여 끌어드릴 필요가 없었으나 조선조의 억불정책의 영향으로 열세에 몰린 불교계가 조선후기 사찰 중창기에 토속신을 사찰안으로 끌어 들일 필요성이 대두, 장승·용왕·조왕도 이때 끌어 들임, 인간의 복을 관장하는 신을 세부적으로 전문화

건물 형식

3칸일 경우 ⇒ 삼성각

1칸일 경우 ⇒ 독성각, 산신각, 칠성각(북두각), 용왕각

11-1) 명부신앙의 의미는 ?

지장, 시왕신앙 : 명부전(冥府殿)은 저승의 유명계(幽冥界)를 상징하는 사찰 당우 중 하나로 유명계의 심판관인 시왕(十王)을 봉안하고 있으므로 시왕전(十王殿)이라고도 하며, 지장보살(地藏菩薩)을 주불(主佛)로 봉안하고 있으므로 지장전(地藏殿)이라고도 한다.

시왕 : 불교에서는 중생은 사후에 육신을 벗어나서 자신의 전생업보(前生業報)를 심판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죽은 날부터 49일까지를 7일 단위로 하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또 100일 되는 날, 소상과 대상을 당할 때마다 그 십대 왕에게 차례로 선악업(善惡業)의 심판을 받는다. ① 진광왕(秦廣王), ② 초강왕(初江王), ③ 송제왕(宋帝王), ④ 오관왕(五官王), ⑤ 염라왕(閻羅王), ⑥ 변성왕(變成王), ⑦ 태산왕(泰山王), ⑧ 평등왕(平等王), ⑨ 도시왕(都市王), ⑩ 전륜왕(轉輪王) 등이다.



명부전 존상 배치방법 :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을 협시(脇侍)로 하고, 그 좌우에 시왕(十王) 10구와 시봉을 드는 동자상 10구, 판관(判官) 2구, 녹사(錄事) 2구, 문 입구에 장군(將軍) 2구 등 모두 29개의 존상(尊像)을 기본으로 갖추게 된다.

명부신앙 : 도교와 라마교 영향
비불교적신앙 - 만해 한용운

12) 절집에 가면 어느 절의 불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주존불이고 어느 절은 비로자나불·아미타불·미륵불인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사찰마다 주불전에 주존불로 모시는 불상의 명호가 달라지는 것처럼 주불전의 이름도 대웅전·극락전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종파적인 성향의 차이로 시대와 사찰에 따라 유행하는 주존불을 달리 모시기 때문이다. 이는 그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결과로 아주 주목되는 현상이다. 모시는 불상의 종류에 따라 불전의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해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여준다.

- | | | |
|---------|-------------------------------|-----------|
| ① 아미타불 | : 정토종 / 극락전, 무량수전, 무량광전, 미타전 | ⇒ 정치적 집권기 |
| ② 비로자나불 | : 화엄종 / 대적광전, 대광명전, 대광보전, 비로전 | ⇒ 정치적 안정기 |
| ③ 미륵불 | : 법상종 / 용화전, 미륵전 | ⇒ 정치적 혼란기 |
| ④ 석가모니불 | : 천태종, 조계종 / 대웅전, 대웅보전 | ⇒ 보편적 신앙상 |
| ⑤ 약사불 | : 총지종 / 약사전, 유리전, 유리광전 | ⇒ 유행병 창궐기 |

6. 불교회화

1) 후불벽화와 후불탱화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였느냐 ?

불전 내외면의 장엄이나 교화·예배를 위해서 벽화로 그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후불벽화를 제외하고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처럼 후불벽에 벽화로 그려지게 된 것이 먼저이나 언제 어떤 이유로 탱화를 걸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안동 봉전사 대웅전의 경우는 이러한 의문을 푸는데 아주 좋은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후불벽에 아직도 탈색이나 탈락이 많이 된 고려 벽화가 남아 있고 그 위에 조선 탱화를 걸었다.

고려 불화 가운데 3미터 이상 크기의 탱화는 후불벽 용도이고, 1·2미터 내외의 작은 탱화는 귀족 원당용이다. 불전의 후불벽에 사용했을 탱화는 고려 말 이전으로 올라갈 만한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고려 말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후불탱화 발생은 후불 벽화 퇴락 후 예불의식을 중지해야 하는 벽화 보수보다는 다른 장소에서 제작해서 간단히 걸면 되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이유에서 등장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은 신선하다.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아미타삼존불상과 후불벽화〉

2) 괘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괘불은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나주 죽림사 괘불(1622년)이다. 괘불은 17세기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8세기말까지는 꾸준히 만들어지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제작빈도가 적어진다.

괘불에 그려진 부처의 종류는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 즉 세존탱화 영산회상이 주류를 이루고 관음 보살과 미륵보살이 19세기경에는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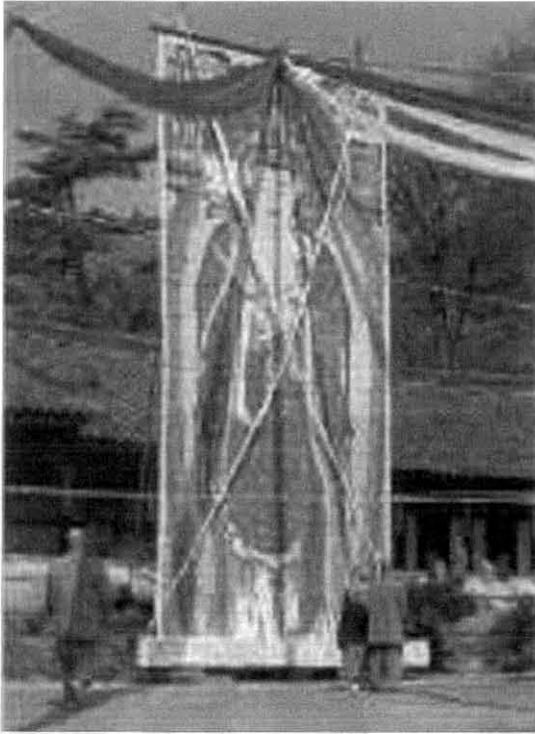
17세기에는 좌상이 압도적이고 18세기 이후는 입상이 압도적이다.

입상이 되면서 크기도 10미터 내외로 커진다.

사찰의 중창불사가 활발한 숙종 영조 정조연간에 활발하게 제작된 사실은 중창시주와 관련되지 않을까?



〈화엄사 괘불〉 영산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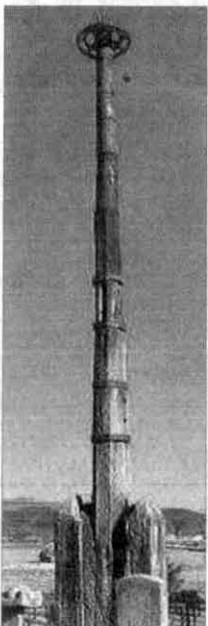


〈수덕사 패불〉

3) 패불지주와 당간지주의 차이점은 ?

(1) 건립 위치

- ① 당간은 사역의 앞쪽인 입구 문 안쪽에 1조가 보통이나 가람 배치상 2조를 나란히 세우기도 한다.
- ② 패불은 주 불전 바로 앞쪽에 좌우로 나란히 2조가 한 쌍으로 세워진다.



◁ 보물 제 505호, 전남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 발생 시기

- ① 당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만 제작
- ② 괘불은 조선 후기에서 지금까지 제작

(3) 용도

- ①幢竿은 깃발을 걸기 위한 장대이며 민속신앙인 솟대에서 형식을 차용한 듯하다.
- ② 괘불은 야외 예배용(야단법석) 탕화이다.

7. 불전의 명칭과 봉안하는 불·보살상에 따라 거는 탕화의 종류가 달라진다.

殿閣名	異名	本尊	左右脇侍	後佛幀畫
寂滅寶宮	舍利塔殿	眞身舍利		
大雄殿	大雄寶殿, 覺皇殿, 覺王殿	釋迦牟尼佛	· 迦葉, 阿難 · 文殊菩薩, 普賢菩薩 · 阿彌陀佛, 藥師如來 · 提和迦羅菩薩, 彌勒菩薩	· 靈山會上圖 · 三如來幀畫
大寂光殿	毘盧殿, 大光明殿, 大光寶殿, 寶光明殿, 普光殿, 華嚴殿	毘盧遮那佛	· 盧舍那佛, 釋迦牟尼佛 · 文殊菩薩, 普賢菩薩	· 三身幀畫 · 華嚴幀畫
極樂殿	無量壽殿, 彌陀殿	阿彌陀佛	· 觀世音菩薩, 大勢至菩薩 · 觀世音菩薩, 地藏菩薩	· 極樂會上圖 · 阿彌陀三尊幀畫
藥師殿	藥王殿, 琉璃殿	藥師如來	· 藥王菩薩	· 藥師琉璃光會上圖
龍華殿	彌勒殿, 慈氏殿, 大慈寶殿	彌勒佛 彌勒菩薩	· 日光菩薩, 月光菩薩	· 龍華會上圖 · 彌勒幀畫
靈山殿	八相殿, 捌相殿	釋迦牟尼佛	· 提和 羅菩薩, 彌勒菩薩	· 靈山會上圖 · 八相圖
應眞殿	羅漢殿	釋迦牟尼佛	· 迦葉, 阿難, 16羅漢	· 釋迦三尊幀畫 · 十六羅漢圖
五百羅漢殿	羅漢殿	釋迦三尊佛	· 迦葉, 阿難, 500羅漢	· 釋迦牟尼幀畫 · 五百羅漢圖
千佛殿		賢劫千佛	· 迦葉, 阿難, 500羅漢	· 千佛幀畫
圓通殿	觀音殿, 寶陀殿	觀世音菩薩	· 南巡童子, 海上龍王	· 觀音幀畫 · 四十二手 또는 千手觀音圖
冥府殿	地藏殿, 十王殿	地藏菩薩	· 道明尊者, 無毒鬼王, 十王 등	· 地藏幀畫 · 十王幀畫
大藏殿	法寶殿, 藏經閣, 海藏寶閣	毘盧遮那佛 釋迦牟尼佛	· 大藏經	

殿閣名	異名	本尊	左右脇侍	後佛幀畫
祖師殿	祖師閣	歷代祖師		· 祖師幀畫
獨聖閣		那畔尊者		· 獨聖禪畫
山神閣	山靈閣	山神		· 山神幀畫
七星閣	北斗殿	七如來		· 七如來幀畫
三聖閣		山神, 獨聖, 七星		

8. 불교공예

의식법구 · 공양구 · 장엄구로 구분

1) 의식법구

사물놀이	북	팽과리	장구	징
불교사물	법고	운판	목어, 목탁	범종
구제대상	세간축생	허공중생	수중중생	지옥중생

불전 사물이 민간사물놀이에 영향을 줌, 해남 미황사 궁고와 남사당패도 마찬가지다.

조석예불시 불전사물 치는 순서

법고 ⇒ 운판 ⇒ 목어 ⇒ 범종

① 법고

크기와 용도별 구분

가. 큰 북 : 흥고, 대고 조석예불

나. 작은북 : 소고 열불의식, 범패

사찰 불전에 놓인 호랑이 목각상은 소고의 받침대이다.

(강진 무위사, 해남 미황사, 영광 불갑사)

법고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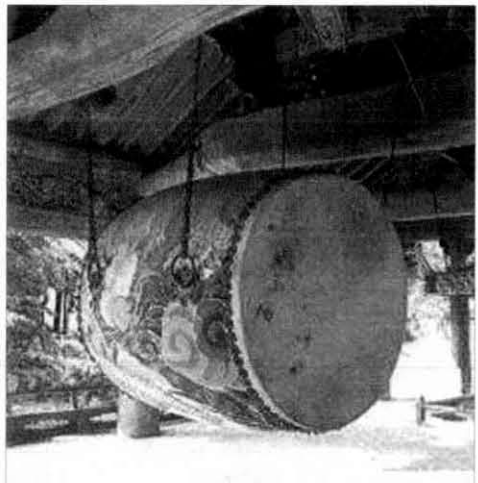
몸통은 잘 건조된 나무

두드리는 부분은 암소와 수소가죽을 좌우에 각각 부착하여 사용

두 개의 북채로 마음심자(心)를 그리면서 북을 친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교리상 법고에 소가죽을 사용하는 것은 제아무리 좋은 의도인 축생제도라는 명분을 대더라도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

② 운판

청동 또는 철로 만든 구름모양의 넓은 판에 보살상이나 관세음보살육자대명왕진언인 음마니반매흠을 세기고 가장자리에는 두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담기도 한다.



중국 선종사찰에서 부엌이나 제당에 걸어 놓고 끼니때를 알리기 위해 타종했다고 함.

구름이 비를 머금음을 상징화하여 불을 다루는 부엌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예방코자 화판을 사용한 것이다. 화(火)와 수(水)가 상극하는 오행의 원리를 적용한 주술적 의미 : 선암사의 공양간에 물 수(水)자가 세겨진 창문

부엌에서 밥이나 죽이 끓을 때 세 번 치므로 화판(火板)이라고도 하고

끼니때를 알리는 경우 여러 번 길게 치므로 장판(長板)이라고도 불렀다.

고려시대에 부엌에서 운판 많이 사용하다가 훗날 조석예불 때 치는 의식용구인 불전사물의 하나가 됨.



③ 목어와 목탁

목어 설화 : 수행을 게을리한 제자가 죽어서 등에 나무가 솟아난 물고기로 태어남. 풍량이 칠 때마다 나무가 흔들려서 피를 흘리는 고통. 그 스승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이 물고기가 뱃전에 머리를 들이대고 슬피 울. 스승이 선정에서 전생을 살펴보니 자기 제자여서 가여운 생각에 수록재를 베풀어 물고기 몸을 벗어나게 해줌. 그날 밤 스승의 꿈에 나타 난 제자가 감사의 서원을 함. "스님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참으로 발심하여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의 등에 난 나무를 베어 저와 같이 생긴 물고기를 만들어 나무막대로 쳐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교훈이 될 것이고 강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소리를 들으면 해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백장청규에서는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으므로 수행자로 하여금 잠을 자기 않고 도를 닦으라는 뜻으로 수행자의 잠을 쫓고 흥미한 정신을 경책함.

어변성룡(魚變成龍)과 등용문(登龍門) ⇒ 대전환(成佛)의 의미

처음에는 단순한 잉어모습이었으나 차츰 여의주를 입에 문 용두어신 형태로 변화

초기에는 식당이나 창고에 걸어 놓고 끼니때를 알리거나 대중을 모으는 데에만 사용하다가 훗날 독경이나 의식에 쓰이는 법구로 용도가 확대



〈목탁〉

수행자나 민중의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람을 "이 사회의 목탁이다."

큰 목탁은 매달아 놓고 치는 것과 불전에서 포단위에 얹어 놓고 치는 목탁 두 가지 형태이며 작은 목탁은 손에 들고치는 목탁으로 휴대용이다. 매달아 놓고 치는 것은 끼니때를 알리거나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하고 포단위에 얹어 놓고 치는 것은 염불·예배·독경시 사용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지금도 포단위에 얹어 놓고 치는 목탁으로 독경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들고치는 소형 목탁이 유행한 것은 아마도 만행이나 탁발시 휴대하기 편하게 개량한 결과 일 것이다.

④ 범종

아침 : 28번 타종(육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상징)

저녁 : 33번 타종(제석천 33천 상징)

상원사 종(725년)과 에밀레 종(771년)

에밀레 종 시주에 얽힌 가난한 집 아이를 소신공양한 사연 끊는 구리에 물이 들어가면 구리가 튀고 잘 깨어지기 때문에 90%가 물로 이루어진 사람을 넣는다는 것은 상식 밖이며 사람의 뼈 속에든 인의 성분이 종소리를 좋게 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았다.

울기 좋아하는 포뢰용을 종 꼭지에 올려놓아 용의 모습을 취한 고리인 용뉴로 하고 종을 치는 당목을 고래 형태로 만들어 고래만 보면 우는 포뢰용의 습성을 적절히 표현한 것임.

고려 말까지는 용뉴에 한 마리의 용이 조각되었으나 고려 말 이후 조선시대에는 두 마리의 용 즉 쌍용이 보편화 되었다. 이는 원나라 라마교 영향

음관 만파식적 설화의 영향으로 대나무 마디가 조각됨. 맑은 소리를 내게 하는 역할과 뒤울림이 길게 이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설

상대와 하대에 두텁게 둘러진 무늬 띠는 북테두리 장식과 유사하고 종 깨짐 현상을 방지하게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함.

유곽과 유두는 천지인 삼재에 근거를 두는 구공법을 상징한다거나 극락 구품연화대라는 불교교리에 대입해서 풀이하기도 하지만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이라는 4생과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설문 연각 보살 불타의 세계라는 십계 가운데 불계를 제외한 9계를 상징한 다는 설, 나머지 불계는 용뉴에 장식된 용과 연화대좌이며 사생 구계의 중생이 궁극적으로 종소리를 통해 부처의 세계로 올라와야 함을 암시 함.

종의 몸신은 한국 여인의 통치마 곡선을 응용한 듯하다. 명동은 종 밑에 항아리를 물거나 땅을 움푹 파서 공간을 마련하면 종이 긴 여운을 내면서 오랫동안 울리게 하고 생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종의 몸체에 제작사찰, 제작연대, 참여승려, 시주자, 제작자, 발원내용 등이 쓰여진 명문을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신라 종은 밀납법(토종 벌통에서 채취)으로 제작



낙산사 동종(보물 479호) / 조선 8대 임금 예종이 즉위 원년(1469)에 그의 아버지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한 동종

관광농업의 시대로

나 종 년

(고로쇠 간장·된장 대표)

목 차

1. 글을 열면서
2. 곡성의 첫인상
3. 관광 농업 문화란 무엇인가?
4. 21세기 한국농업과 곡성의 미래

글을 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그 사람도 상대를 사랑한다면 아는 대로 진실하게 대답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의 숨결을 느껴 보신적 있습니까? 잠시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맥박소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숨결에 질문을 해봅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며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5천년의 우리 역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집념과 끈기를 주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우리 민족의 맥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역사는 간절히 질문하는 자에게 꼭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꼭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잡자는 곡성의 혼을 일깨워 다시 맥박이 고동치게 하고 곡성의 메아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시대적 사명이요, 임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 곡성의 첫인상

저는 솔직히 많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경험도 적습니다. 그러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작은 가슴을 활짝 열고 곡성에 대한 저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곡성! 그러면 저는 광주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곡성 휴게소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러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곤 합니다. 여느 휴게소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중이 쉽게 사용하는 곳부터 곡성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곡성을 한번 놀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휴게소와 상의하여 곡성의 문화 관광 유적지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선국사의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동리산 태안사를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9산 선문중의 한곳 이요, 적인선사 혜철스님이 계셨던 태안사는 광양과도 뿔래야 뿔수 없는 의미 깊은 곳입니다. 바로 혜철스님이 도선국사의 스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설의 비조이신 도선국사의 스승 적인선사! 이 얼마나 멋진 관광 상품입니까?

도선국사는 적인선사의 깊은 가르침으로 선종에 몰두하게 됩니다. <무설설 무법법>의 종지를 받은 것도 혜철스님에게서입니다.

바로 도선국사의 스승님 집이 곡성 인 것입니다. 제가 곡성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곡성하면 신승겸 장군이십니다. 고려 건국 공신이요, 태조 왕건의 충신이신 신승겸 장군의 태생지가 곡성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출중한 무예와 주군을 섬기는 충성심으로 한평생을 다한 신승겸 장군은 바로 우리 호남인의 표상이요, 정신 그대로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심청의 고향이 바로 곡성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 누구나 친근하게 아는 효녀 심청의 고향,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심청이 태어난곳, 심청이라는 거대한 관광 자원이 있는 곡성은 심청이라는 캐릭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충과 효의 대표적 인물을 가지고 있는 곡성. 섬진강의 오염되지 않은 참계와 은어, 친환경 농산물, 그속에서 사는 인심좋은 곡성 군민.

나는 이러한 곡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순수한 곡성에 경영과 경제적 마인드를 접목시켜 돈도 잘 벌고 사람도 많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곡성 만들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곡성 출신의 재경 향우회의 고향에 대한 관심입니다. 곡성은 인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계의 출향인사들이 좀더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협력하면서 곡성알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계와 문화계 출신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심청전」과 「충신신승겸」같은 소설과 드라마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에 남원은 「춘향전」소설 한권으로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가 곡성에 기업을 유치하고 자본은 유치할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곡성에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주민스스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활발한 대외적 교류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가족 시대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지키면서 생각만큼은 세계화 되고 개방화 되어야 합니다. 가장 곡성다운 것을 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농특산물의 유통전문가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식품 가공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효」라는 상품을 세계화 해야하고 곡성의 축제를 곡성 안에서만 안주하지 말고 타 지역과 연계를 시도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광양 옥룡사 도선국사와 곡성 동리산 태안사 적인선사를 연계한 새로운 시티투어 상품을 개발해서 두 지역의 관광 교류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문화 유산 해설사의 전문적 양성입니다. 추천받은 인적자원을 잘 교육시켜 이분들이 곡성을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각 시, 군 마다 예산의 한계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만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는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한 만큼 품위를 유지하며 자부심을 갖고 곡성 문화를 알리는 전령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우리 문화유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예향심을 가지면 곡성의 역사를 알게되고 역사를 알면 곡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21세기 곡성의 관광문화는 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맡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관광 농업 문화란 무엇인가?

농업은 1차산업입니다. 관광은 3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우리 인간의 생활모습이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삼위일체 농업을 주창해 왔습니다.

1차생산, 2차제조, 3차판매가 동시에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 진다면 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의 프로그램대로 농업 경영을 운영해 나갈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은 이론입니다. 저의 경우를 들어 미안합니다만 고로쇠 된장을 하는 저로서는 먼저 콩을 자체 생산 해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국내산 콩 한되 값이 8000원 정도 합니다. 아무리 대량 구입한다 해도 한되에 7천원은 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원료구입비에서 타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콩 만큼은 자체 생산해 내야하며 자체생산한 만큼만 제조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체생산량의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제조 공장내에서 메주와 고로쇠 수액 첨가, 장담그기, 장분리, 숙성을 통해 직접 고로쇠 간장,된장,고추장을 만들어 냅니다. 이 만들어낸 제품을 자체 홈페이지, 자체 직판장, 자체 직영식당을 통해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된장 공장을 자비로 시작하여 7년이 지난 오늘까지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 버틴 것은 삼위일체 농업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 마트, 광양 제철소, 학교 급식납품, 각종 특판행사, 전시회를

통해 직접 어깨띠를 두르고 고로쇠 장류 브랜드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0일부터 10일간 미국 뉴욕에서 추석맞이 특관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단순한 생각이지만 생산, 제조, 판매의 동일 시스템을 통해 세계적인 식품을 만들어 21세기 세계식품 산업을 정복해 보자는 위대한 꿈!

이것이 농업의 징기스칸 농법이며 그 옛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까지도 우리의 차별화된 농법을 통해 세계를 지배해 보자는 진취적인 기상! 징기스칸의 몽골, 중국, 러시아 까지도 우리의 영역에 포함시키자는 공격적 농법이 제가 주장하는 역(逆)징기스칸 농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할수 없다는 패배주의적 발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한 만용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하나하나 곡성의 힘을 보태 나갈 때 저는 곡성인이 만든 곡성제품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꼭 오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까요? 「골짜기의 맑은 물, 튼튼한 건강곡성」의 이미지를 담은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만들어 내야하고 그 제품속에 곡성인의 혼과 기상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제품에 생명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곡성의 돌 하나, 풀 한포기에도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부여하여 신명나게 팔아야 합니다. 잘 팔수 있는 유통전문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좋은생각, 좋은재료, 좋은마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제품은 분명 성공한 제품이며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일 것입니다. 이제는 잘 팔리는 물건속에 곡성의 혼을 담고 이미지를 담아 밖에서 힘차게 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곡성으로 물건을 사러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곡성에서 만든 제품을 곡성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러 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며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이 된장」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밖에서는 1kg에 만원에 팔고 곡성에서는 팔천원에 팔면서 매주만들기, 된장만들기, 찌개 끓이기 체험에 동참하게 하고 고객이 돌아갈 때 콩 비지 몇봉지를 선물로 준다면 가족끼리, 모임끼리, 곡성으로 곡성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유서깊은 제품을 만들고 함께 즐기면서 체험하고 기분좋게 물건을 사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 곡성이 해야할 관광농업문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농촌 체험이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관광객입니다. 누가 저 지나가는 관광 버스를 곡성에 머물게 하고 곡성에서 쉬게 하고 곡성의 물건을 사가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노력,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곡성이 어렵다면, 지금이 곡성이 살기 힘들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주 5일 근무제로 남들이 여행다닐때 우리는 차분히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21세기 한국 농업과 곡성의 미래

저는 한국농업의 미래를 누구보다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위기의 바닥속에 있고 역사상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탁월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우리 선배들께서는 보릿고개도 극복하면서 오늘의 조국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 가정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고 다 자식들이 도시에 나가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의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곡성의 공무원들이 명절 선물때 곡성의 농산,임산물을 선물하고 향우들이 곡성의 「심청쌀」을 드시고 곡성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곡성의 제조업들이 하나 둘 씩 기지개를 펼 수 있습니다. 농업인끼리 필요한 것을 서로 사 주고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해법해 나간다면 농업 발전은 의외로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의 위기와 실패를 외부의 요인으로 돌리지 않고 내부의 원인 즉 우리들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잘살기를 바란다면 진실로 우리가 성공을 바란다면 고통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국가 정책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바로 우리들! 국민인 것입니다. 이나라의 주인인 우리가 언제까지 정치 탓으로 정부탓으로 모든 것을 돌린다면 우리는 영영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나라 살리고 지역을 살린다는 희망찬 개혁정신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용맹 정진 한다면 그것이 경쟁력이요, 미래를 열수 있는 희망의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질경이, 칩뿌리, 이를모를 야생초에도 무한한 자원을 추출해 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묻고 찾아가서 의논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여러분 가까이 에 있고 면 단위마다 여러분의 일꾼인 군의원들이 있습니다.

심청이가 인당수로 향하는 심정으로- 심승겸 장군이 공산 싸움에서 왕건으로 복장으로 적진을 돌파하는 정신으로 모든 일은 해나간다면이세상 이루지 못할 일이 그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신념입니다.

결국 신념이 변치 않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를 믿으며 제가 사랑하는 우리 곡성의 희망찬 미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향심과 의지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 해설기법 및 현장 실무요령

이 준 탁

(파란들문화유산답사회 회장)

훌륭한 해설가란,,,

의뢰인(단체)의 구성이나 관심사항을 가능한한 빨리 파악하여, 그들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잘 맞추어 진행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통한 정신적 여유로움과 문화적 상식이 발전하였다는 마음을 갖게함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과 문화적 자긍심을 갖게함으로써, 해설사 본인의 보람을 함께 찾을수있어야함.

1. 행사 시작전

- 인원
- 성비 및 연령대
- 직업군
- 목적 및 관심사항 연구
- 체류시간
- 목적지 전후 방문지 연구

2. 고객 상면시

가. 대표자 면담

- 인사
- 고객 인적(건강)사항 확인,
- 고객 요청(휴식,화장실,쇼핑,자유시간등)사항 확인,
- 일정 및 코스 확인,
- 시간 배정 안내,

나. 단체 상면시

- 인사
- 일정 및 주요 코스 확인,
- 시간 배정 안내,
- 고객 요청(휴식,화장실,쇼핑,자유시간등)사항,

3. 관광 중간

- 남은 장소, 시간 및 주요사항 한번더 확인 전달

4. 행사 마무리

- 인사
- 조요방문 코스 및 관심사 확인,
- 간단하게 다른 목적지 및 이벤트 홍보
- 끝인사

5. 안내 실무요령

가.주요 목적지

- 절
- 박물관

- 기념관, 전시관
- 민속마을
- 서원, 향교
- 당, 정자 등
- 전통(종가)가옥
- 당산, 솟대, 장승등 전통 민속신앙
- 무당, 굿등 민속 신앙
- 옹기, 도자기, 풀잎공예 등 공방
- 음식체험
- 농가 체험
- 농악, 소리 등 전통음악 체험

나. 관람 포인트

- 절
- 한반도와 한국인의 신앙 및 종교생활 - 시대별, 지역별 중추 신앙
- 불교는 무엇인가 - 탄생 배경과 인도.동아시아, 한반도에서의 역사적 시대적 변화
- 한국 불교의 변천사
- 스님이란 누구인가 - 주변국과의 비교 및 역사적 변천과 현대 스님의 출가 과정
- 스님의 하루 및 일생
- 절이란 무엇인가 - 주변국과의 비교 및 역사적 변천과 현대 사찰의 하루 및 일년
- 절의 하루 및 일년
- 암자, 탑과 부도, 탕화, 불경, 부처 및 사찰의 조각품, 사물, 전각및 건축물 구조 철학등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 설립 배경 과 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민속마을

- 성립 배경 과 특징(가족 및 마을 구성원) 및 주요 관람 포인트
- 마을 주요행사(당산제, 대보름 놀이, 백중놀이, 쥐불놀이 등)
- 마을내 민속신앙(무당, 당산, 산신당, 입석, 선바위, 미륵바위, 장승, 솟대 등)

서원, 향교

- 설립 배경 과 배향인 및 참가자 구성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 교육 및 과거 제도의 변천

사당, 정자, 열녀(효자)문, 신도비 등

- 설립 배경 과 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전통(종가)가옥

- 설립 배경 과 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 전통 관.훈.상.제
- 양반의 일생

당산, 솟대, 장승 등 전통 민속신앙

- 설립 배경 과 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무당, 굿 등 민속 신앙

- 전통 민속신앙의 변천

옹기, 도자기, 풀잎공예 등 공방

- 역사적 배경 및 변천과 현대적 의미 고찰

음식체험

- 생활과 음식의 변천

축제

- 성립 배경 과 특징 및 주요 관람 포인트

농가 체험

농악, 소리 등 전통음악 체험

관광 해설가가 되고자하는이 에게 부치는 글

유희와 현대식 문화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관광 해설가가 되고자 한다면, 단순히 안내에 치우치지 말고, 본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 안내하고 판매한다는 자부심과 책임의식이 투철해야한다.

따라서,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내시 경험과 답사를 통해서 관광상품으로 포장하는 최일선의 관광대사임을 깨우쳐야 한다.

90년대 중반 모 여행사의 영어가이드는 40여명의 영어권 고객을 모시고 남도 전통 문화 체험도중 송광사를 방문했을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보자고 모두에게 뒷간으로 들어가게 하고,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힘을주게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에게 우리 뒷간에서의 잊지 못할 오케스트라 화음을 선사하여주었고, 송광사 화장실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찬사를 듣게하였다.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추억을 잊지못해 손님도 보내주는등 연락을 해오고 있다고한다.

위의 예는 준비가 잘되고 고객의 수준이 그만큼 높았기에 성공한 예 이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안목으로 실행에 옮긴 가이드의 실험 정신이 없었다면 상품으로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비단 오랜기간 지방의 체험여행이 여행산업의 주류로 자리잡은 영어권 고객뿐 아니라 가까운 일본의 주류층과 우리나라의 30-40대 고학력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의 문화이벤트나 현지체험 관광이 주류로 부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되고 있다.

우리전통문화의 관광 체험상품은 비단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익 증대라는 1차적 목적외에, 그동안 잊혀지고 불편한 것으로 인식돼던 우리 전통행위들이 가치있는 문화상품으로 탈바꿈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깊은 자긍심을 갖게하여 더욱 깊이있고 값어치있는 상품으로 투자 노력을 경주할수있게하는 동기가 됨으로써, 도농간의 균형적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을수 있다.

잊혀졌던 것이든, 현존하는 것이든 전통과 호흡하는 모든 우리것이 관광 상품화될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부와 준비를 통한 전략과 안내 소스등 충분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앞서야함은 기본중의 기본임을 알아야한다.

인터넷 관광정보

김용수

(전남과학대 교수)

목 차

- I. 관광정보의 개념과 획득
- II. 인터넷에서 관광자원 서핑
 - 1.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사용법
 - 2. 인터넷 이용분야
 - 3.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둘러보기

I. 관광정보의 개념과 획득

관광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문의 또는 관련 책자 등을 통한 정보습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관광정보를 검색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얼마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경상남도가 주관한 “지방행정 정보화 연찬회”에서 대구광역시도 모바일을 이용한 무선관광정보 서비스 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무선장비로 다양한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장착한 150대의 PDA를 도입, 호텔과 공항 등 7군데에 대여소를 설치하여, PDA를 통해 호텔과 쇼핑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광업계에서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관광객이나 관광종사자들이 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관광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윈도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원하는 관광 상품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행 경험담과 숙박시설이나 교통편을 예약할 수 있어야 한다.

II. 인터넷에서 관광자원 서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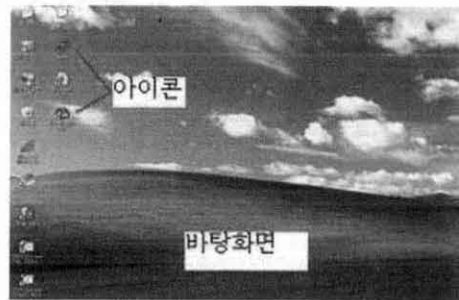
1.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사용법

가. 윈도우란

윈도우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회사에서 만든 컴퓨터의 운영체제(컴퓨터내의 프로그램들과 그의 수행을 관장하여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하나로, 사용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프로그램하여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 부팅과 윈도우 초기화면(화면 II-1)

컴퓨터전원을 누른 후
부팅과정을 거쳐
시스템에 오류가 없을 때
오른쪽과 같은 바탕화면(화면 II-1)이
나타난다.



(화면 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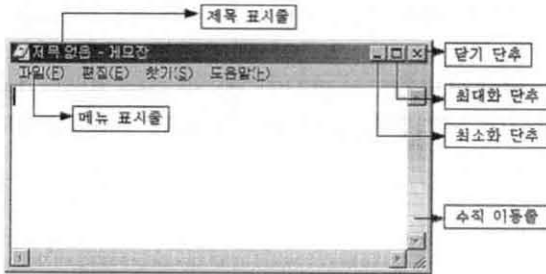
(2) 마우스 사용법

- ☞ 클릭 - 메뉴, 아이콘 등을 선택, 취소할 때 사용한다.
- ☞ 더블 클릭 -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사용한다.
- ☞ 드래그 - 아이콘의 이동 및 창의 크기조절 등에서 사용한다.
- ☞ 오른쪽 단추 클릭 - 단축메뉴를 보고자 할 때 쓰인다.

(3) 프로그램의 실행

시작버튼 → 프로그램메뉴 → 보조프로그램 → 메모장 클릭

(4) 창의 화면구성(화면 II-2)



(화면 II-2)

< 창 크기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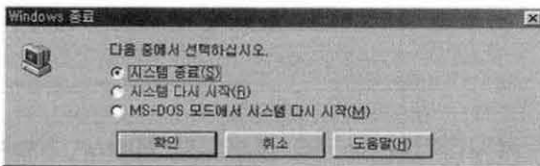
- ① 창의 경계선 또는 모서리 부분으로 마우스를 이동한다.
- ②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 ↑ 표시될 때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한다.

< 창의 이동 >

- ① 창의 제목 표시줄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한다.
- ②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표시될 때 드래그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한다.

(5) 윈도우의 종료(화면 II-3)

- ① 사용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 ② 시작 단추를 클릭한 후 시스템 종료를 클릭한다.(단축키 Alt + F4)
- ③ 화면 I-3에서 시스템 종료를 선택 후 예 단추를 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른다.



(화면 II-3)

나.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사용

컴퓨터 시스템 여러 대를 서로 연결해두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인터넷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있는 이러한 컴퓨터 네트워크들을 광통신망이나 통신위성을 통해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광통신망과 통신위성을 통해 세계 어느 곳의 컴퓨터와도 직접 연결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월드 와이드 웹(줄여서 웹으로 부름)은 인터넷에서 그림, 사운드, 동화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띄워놓고 보다 쉽게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법이다. 이러한 웹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웹 사이트(Web Site)' 또는 '웹 서버(WEB Server)'라고 부른다.

장난감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했을 경우 처음으로 보게 되는 화면을 '홈페이지(Home Page)'라고 한다. 즉, 홈페이지는 책의 표지에 해당하는 웹 페이지이다. 홈페이지 안

에는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여러 장의 웹 페이지가 속해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웹 페이지는 종이가 아닌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문서로 작성되어졌다는 것이다. HTML 문서는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문서를 찾아가기 위한 문서형식이다. 장난감 로봇을 파는 웹 사이트에 방문했다고 가정하자. 상품을 고르는 웹 페이지에서 상품의 이름에 마우스를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진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상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웹 페이지가 나타난다. 이때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바뀌는 부분을 '링크(Link)'라고 부른다(화면 II-4). 이렇게 링크를 눌렀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다른 자료를 볼 수 있는 것을 하이퍼텍스트 방식이라 한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웹 주소는 항상 'http://'로 시작한다. 이것은 웹이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화면 II-4)

웹브라우저란 이런 HTML 문서를 읽어서 화면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터넷에서 월드와이드웹(WWW), 전자우편(E-Mail), 인터넷 채팅 등을 이용하려면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웹 사이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웹브라우저는 필수이다. 요즘 대부분의 인터넷용 프로그램들은 웹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전자우편용 프로그램, 채팅용 프로그램 등이 패키지 형태로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잘 알려진 웹브라우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와 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 등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함께 설치된다.

다. 익스플로러 살펴보기

(1) 익스플로러 실행시키기

바탕화면의 'Internet Explorer'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거나 <시작>-프로그램-Internet Explorer를 선택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가 실행된다. 꼭 알아두어야 할 구성요소의 명칭과 기능만 간략히 설명하겠다.



(화면 II-5)

- 뒤로 : 이전 웹 페이지로 이동
- 앞으로 : 앞 웹 페이지로 이동
- 멈춤 : 웹 페이지 수신을 중단함
- 새로고침 : 현재의 웹 페이지를 다시 수신함.

- 시작 : 익스플로러가 실행될때 처음보는 홈페이지로 이동
 - 검색 : 야후, 알타비스타 등에서 인터넷을 검색
 - 즐겨찾기 : 즐겨찾기에 추가해둔 웹 사이트 목록 보기
 - 목록보기 : 지난 20일동안 방문했던 웹 사이트 목록 보기
 - 채널 : 채널목록 보기
 - 전체화면 : 화면 넓게 보기
 - 메일 :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실행하여 메일과 뉴스 이용
 - 글꼴 : 글꼴크기와 일본어, 중국어 등의 언어를 설정
 - 인쇄 : 프린터로 인쇄하기
 - 편집 : 프러트 페이지로 현재의 웹 페이지를 편집하기
-
- 주소 : 이곳에 웹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함.
 - 연결 : 가볼만한 웹 사이트로 이동

(화면 II -6)

2. 인터넷 이용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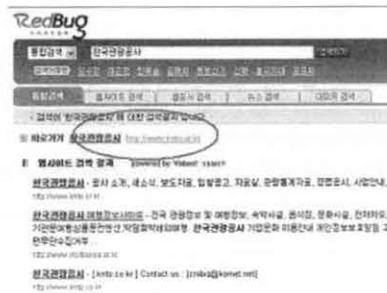
- 가. 정보검색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이용 한다.
인터넷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찾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라고 할 수 있다.
- 나. 전자우편 -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편지를 교환할 수 있다.
- 다. 전자상거래 - 직접 시장이나 백화점, 은행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매 또는 팔수 있는 상거래 방식이다.
- 라. 광고 및 홍보 - 상품의 홍보나 기업의 광고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 마. 사이버 교류 - 인터넷을 통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다.
- 바. 게임 -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동시에 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3.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둘러보기

강사의 컴퓨터는 익스플로러를 실행시키면 (화면 II -7)과 같이 초기 홈페이지로 www.ohkorea.com의 검색엔진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 두었다. 야후나 엠파스와 같은 다른 검색엔진에서도 통합검색란을 이용하여 검색한다. (화면 II -8)의 통합검색란에 『한국관광공사』를 입력하고 검색키를 누른다.



(화면 II -7)



(화면 II -8)

그러면 ohkorea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게 된다. 이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서 『한국관광공사』를 키워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화면Ⅱ-8)과 같이 모든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 감사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랬더니 (화면Ⅱ-9)와 같이 한국관광공사의 홈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 화면에는 많은 관광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클릭해 봄으로써 사전에 많은 관광정보를 획득할 수 있거나 필요하다면 사전에 예약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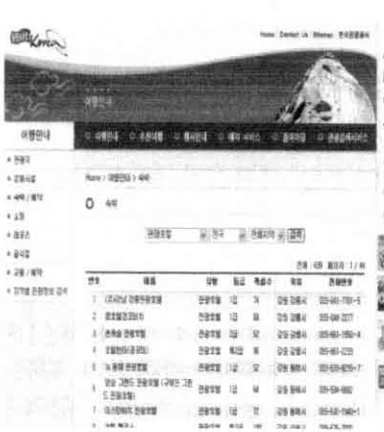
(화면Ⅱ-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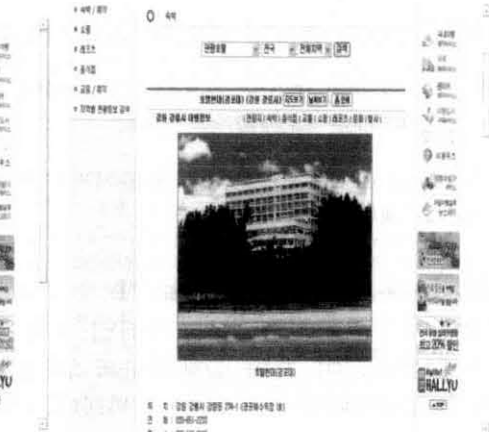
(화면Ⅱ-10)

예를들어, (화면Ⅱ-9)에서 우측의 교통/예약 항목을 클릭했다면 (화면Ⅱ-10)이 나온다.

(화면Ⅱ-10)에서 첫 번째 아이콘(관광호텔)을 클릭했다더니 (화면Ⅱ-11)로 링크되었다.



(화면Ⅱ-11)



(화면Ⅱ-12)

(화면Ⅱ-11)에서 4번째 호텔현대(경포대)를 클릭했다더니 (화면Ⅱ-12)로 넘어갔다. (화면Ⅱ-12)에서 제공되는 호텔현대(경포대)에 관한 많은 정보들(위치, 전화, 팩스, 등급, 객실수, 홈페이지 주소, 특징, 구조, 객실요금, 식음료장, 부대시설)이 제공되고 있어서 여행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본 후 만족되면 예약도 하여 경제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포대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된다.

곡성읍 읍성(邑城)은 1958년 12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1971년 12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1971년 12월 25일 국가지정문화유산(국립민속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곡성 In 詩

오 소 후

(전남과학대 교수)

— 목 차 —

- (1) 곡성을 만난다
- (2) 옛 글의 정취를 밟아서
- (3) 현대의 문인들의 작품으로 시선을 옮겨 간다

① 곡성을 만난다

곡성을 찾는 사람들에게 곡성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통해서 곡성의 문화와 역사 풍속 등의 이해를 돕고 감동을 안겨 드리고 싶다. 곡성 문화원에서 발간한 지리지, 곡성방목, 곡성문학 9호 등 책자들을 참고 삼았다. 먼저 옛사람의 글 몇 편과 근 현대 시인들과 현역 곡성문학을 발전 선양시키는 문학인의 작품을 선하였다.

곡성팔경으로 곡성의 이미지 부각을 한다면 동악조일(動樂朝日) 도림효종(道林曉鍾) 순강청풍(鶉江淸風) 압록귀범(鴨綠歸帆) 태안두견(泰安杜鵑) 대황어화(大荒魚火) 통명숙우(通明宿雨) 설산낙조(雪山落照)로 풀어 볼 수 있다.

제일 오래된 사찰부터 기록하자면 관음사(백제 분서왕 300), 도림사(신라 무열왕 660), 태안사(신라 경덕왕 742) 수도암(신라 설두화상) 서산사등으로 열거 할 수 있겠다.

곡성의 산 이름은 동악산, 설산(안산), 비래산, 예산, 성덕산, 천덕산, 아미산, 통명산 등으로 산 마다 명절과 명인을 임태하고 있다. 동악산은 날아가는 봉황새 형상으로 오지촌(梧枝村)과 죽곡면이 있다. 봉황은 동백나무에만 앉고 대나무 열매만 먹고 산다. 또 한 봉황은 고양이를 꺼리므로 서쪽에 묘치(猫時)가 있고 메추리를 보면 멈추기 때문에 북쪽에 순자강(鶉子江)이 있다.

곡성의 나루 - 순자진 대황진, 압록진으로 강물이 흘러 보성강에 이른다. 남치(藍時) 과치(果時) 기우치(騎牛時) 묘치(猫時) 불노치(不老時)등 큰 산악이 서쪽을 누르고 큰 강이 동쪽을 당긴다(巨嶽鎮西大江控東)다는 형승을 지녔다.

정자이름 이락정(二樂亭), 운강정(雲江亭), 수운정(水雲亭), 반구정(伴鷗亭), 상춘정(賞春亭)을 큰 소리 내어 읽어만 보아도 옛지명 욕내군(欲乃郡)으로 불리운 이래 곡성에 깃든 문기(文氣)를 느끼게 한다.

지도를 보지 않고도 이렇게 산, 강, 사찰, 향교, 정자등으로 환경 설정을 해놓고 이 곳을 찾거나 머문 사람들의 시정을 더듬어 보면 곡성을 알고 느끼고 전해 줄 수가 있다고 본다.

② 옛 글의 정취를 밝아서

압록원(鴨綠院)

백헌(白軒) 이경석(李景奭)

골짜 속 안개의 한 물결이 일대에 비졌는데
거문고 노랫가락에 괴로움 더니
이별 후의 정(情)이라
어찌하여 지는 해가 갈림길에 임 했는가
강물이 도리어 변방 물 이름과 같은데

곡성이라는 말은 곡신(谷神)의 사상을 떠올린다.

무이구곡의 아름다움과 신령한 생각은 곡성의 자연과 일치한다.

석별의 정을 노래하며 압록강의 이름을 떠올린 듯 하다.

현재 압록원은 폐원되었다고 한다.

능파정(凌波亭)

진사 신대년(申大年)

백년의 호해(湖海)도
세 잔 술이요 만고(萬古)의
천지도 피리 하나의 가을이라

사람의 삶이 백 개의 호수, 백 개의 강물 바다로 셈하여 질 수 있다.
술잔으로 세잔에 불과하다고 설파를 했으니 도량이 얼마나 큰 진사 분이였을까?
무성했던 나무의 수많은 잎이 가을바람에 모두 떨어지고 만다. 한 가락 불러 본 피리소리에 불과한
우리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능파란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뜻한다.

청계동(淸溪洞)

양대박(梁大撲)

산도깨비 밤에 금가마솥 불을 엿보고
물새는 낮에 돌솥 연기에 깃드네

청계동은 동악산에 있다. 의병장이며 도인이었다는 양 대박이 누대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마치 한산과 습득의 한산시를 대하는 느낌이다. 이런 경지의 선풍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낸 양 대박
을 만나보고 싶다.

진사 오천뢰(吳天賚)

신선골이 삼 십 육 개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계(淸溪)라네

이 시귀절을 통해서 신선골이 삼 십 육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시는 지적 만족을 주는 동시에
감흥을 돋군다. 서계동에서는 최치원이 놀았다는 기록이 있다. 주무숙의 태극설을 중심으로 신유교
적인 성리학의 발전을 살펴 볼 기회이다.

월화루(月華樓)

유순(柳洵)

나무그늘에 얽혀 있으니 달빛이 더디고
바람이 높은 누에 지나니 네 자리가 다 알맞고나
만학(萬壑)에 뜨는 산바람은
아침 비 개인 후요
처마에 떨치는 산색은 석양(夕陽) 때로다
경치에 유련하기 술이 없지 않고
심정(心情)을 도야함은 시(詩)가 가장 좋도다 가소롭다
시행의 구기(拘忌)함이
몇 번이나 좋은 기약 막혔는고

번역시는 원문대로 느끼기가 어렵다. 월화루에서 시를 떠올린 선비의 마음이 지극하다. 구기(拘忌)
란 꺼림이란 의미이다.

의운루 (倚雲樓)

성 임 (成 任)

루에 오르니 경치가 한 없는데
봉이 다 되매 홀로 머리를 굽적이네
빈 평상엔 소나무가 비로소 울고
먼 촌락에는 보리가을일세
관산(關山)에서 북쪽 바라보기에
신세(身世)는 동으로 흐르는 물에 부쳤다
낮과 밤으로 시름 많은 구름이 합하니
돌아가고픈 마음 거둘 수 없도다

오뉴월 의운루에 오른 선비는 망중한이다. 스스로 봉이 다 되매라는 표현을 하고도 시름 많은 구름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했으니 현실은 늘 불만이다.

명수색외경(冥搜塞外境)

- 티끌 세상 밖의 경치를 깊이 찾으니

김극기(金克己)

팽택(彭澤)에 행장을 푸니
기쁘게 도령(陶令)을 만났도다
햇빛 조이니 화기(花氣)가 따뜻하고
바람이 급하니 대(竹)소리가 차고나
버들 언덕에 피꼬리가 울고
연꽃 못에는 백로(白鷺)가 한가롭네
티끌 세상 밖의 경치를 깊이 찾으니
한 번 웃으며 낮빛을 펴도다

자연과 사람이 같아야 한다고 했다. 자연의 일부라고도 했다.
맑은 세상은 화기, 냉철, 청아, 한가함으로 가득하다.

분송(分松)

남 추 (南)

한 떨기 화분(花盆)의 즐기 연약한데
천추(千秋)의 눈(雪)과 같은
자태(姿態)는 호걸스럽구나
누가 능히 너의 굽은 것을 펴주리요
바로 스쳐가는 저녁 구름만 높은데

나이 28세에 졸(卒)한 전적을 지낸 분이다. 종종조 문과 장원을 하였다,

③ 현대의 문인들의 작품으로 시선을 옮겨 간다

(곡성문화 2005년 통권 9호를 중심으로 자유로이 선정한다.)

자연학교

임 보(충남대학교 교수, 시인)

그것도 괜찮으리
시골 학교 교장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나고
느린 사람들만 아직 몇 남아
산과 들을 지키고 있는 산골
전교생이 모두 십여명
학년과 반 구분도 없이
한 교실에서 오순도순 지내는
그런 평화의 학교
거기
교사이며 교장이며 사환인
그런 삶도 괜찮으리

얘들아, 오늘은 개울가로 가자
생긴 물풍뎡이가 얼마나 해엄을 잘 치며
늘 보는 여귀풀이 얼마나 예쁜 꽃을 감추고 있는지
가서 찾아보자꾸나
책에 담긴 말들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단다

그것들은 탐욕과 논리로 너희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타고난 너희들의 천진과 평화를 더럽힐 뿐
믿을 만한 가장 정직한 책은
너희 곁에 저렇게 펼쳐진 산과 들이란다
굳은 땅을 뚫고 돌아나는 어린 싹들
햇살에 반짝이는 곤충들의 투명한 날개
허공을 맴도는 수리의 날카로운 날개
허공을 맴도는 수리의 날카로운 눈매
황소의 단단한 뿔
향긋한 쉼 냄새
종달새의 간지러운 지저귀
모두가 다 너희들의 정직한 스승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희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는 것일 뿐
교장은 종일 뒷집이나 지고 서서
흘러가는 구름이나 바라보고 서 있겠구나

섬진강 문화학교에 발맞추어 '자연학교'라는 시는 자연합일의 메시지가 가득 담겼다.
<자연학교>는 문교부우수도서로 지정되었다. 우이시의 원로이신 임보 시인은 곡성의 자랑이다.

목탁 · 2

차창룡(국어국문학과 교수, 시인)

몇억 광년의 세월을 흘러 별빛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보이지 않는 속도는 보이지 않는 소리이다 날아가라 어서 목탁소리여 이 목탁 닳고 닳아 먼지가 되면 돌아오리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며 아득한 광년의 거리 너머 빠른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는 목탁소리 별은 먼지이므로 눈에 들어가 눈물 흘려보낸다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여준다

별빛이 목탁소리이다. 몇 억 광년이 지나면 목탁이 닳아져 먼지가 된다. 별이 먼지이고 그리고 소리는 안보이니까 별로 보여 준다 라는 상상력으로 무한대의 공간과 시간을 사유할 수 있어 좋다. 누구에게 우리는 목탁소리로 안겨 본 일이 있는가? 시집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하는 노래> 김수영문학상 수상.

우리들의 찌그러진 영웅

차창룡

오늘도 똥을 밟았다
날마다 똥을 밟는다
개똥 소똥 사람똥
가리지 않고 잡식성으로 밟는다
오늘은 미끈한 사람똥을 밟았다
밟고는 뒤통 미끄러지다
간신히 무게중심을 잡았다
똥을 보았다
기름진 미색의 똥
똥도 나를 본다 똥 씹은 표정의 나
똥이 일그러진 목소리로 말한다
너는 눈도 없나
멀정한 나를 밟고 다니게
하면서 콧김을 송송 내뿜는다
나는 할말을 잃고
침만 튀 뺐었다
침은 직사포로 날아가 똥 속에 박힌다
몇 송이 거품만 보글보글 끓다가
이내 사라진다
너석, 똥에 동화된 것인가
화가 난 나는
호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는 신문지를 깨워
똥 위에 눕혀버렸다

社說: 어른스런 政治
-5共非理 합리적으로 철저히 밝혀야

이럴 수가 있는가
똥의 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신문지를 뚫고 뚫이 일그러진 눈으로 나를
빠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뚫이 마렵다

생리적인 표현은 유머도 기찬 유머가 된다. 풍자와 해학은 말해서 무엇하랴.

淸溪洞 청계동

김택수(德山 金澤洙)

로입청계 별유천 路入靑溪 別有天 길 따라 청계동에 들어오니 별천지가 있고
청류사일 정서현 淸流斜日 正西懸 이 맑은 놀이에 기우는 해 서산에 걸렸구나
백송원근 개산악 柏松遠近 皆山嶽 멀고 가까운 송백나무 숲은 모두 산봉우리이고
석곡고저 진수천 石谷高低 盡水泉 돌 골짜기 높고 낮은 곳은 다 물과 샘이로다
주민인간 빈발흥 洲閭人間 頻發興 술 익어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흥이 일고
다전야방 암생연 茶煎野龐 暗生煙 차 끓이는 들 부엌에는 연기가 아롱이네
층정일상 무진사 層亭一上 無塵事 층층의 정자에 한번 오르니 세간일 다 잊고
기절사연 각작선 奇絶斯筵 却作仙 기절한 이 자리에 문득 신선이 되었구나

청계동에 가면 시가 보인다. 자연은 의구하고 사람들만 역할이 바뀌는 느낌이 든다. 한시 한 수가
미래 사람들에게 좋은 시적 감흥과 자료가 될 것이다.

元達里의 아버지

竹兄 조태일(조태일문학관)

모든 소리들 죽은 듯 잠든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1리
九山の 하나인 棟裡山 속
泰安寺의 종으로
서른다섯 나이에 열일곱 나이 처녀를 얻어
깊은 산골의 바람이나 구름
멧돼지나 노루 사슴 곰 따위
혹은 호랑이 이리 날짐승들과 함께
오손도손 놀며 살아라고
칠남매를 낳으시고
난세를 느꼈는지
산 넘고 물 건너 마을 돌며
젊은이들 모아 夜學 하시느라
처자식을 돌보지 않고
여순사건 때는
죽을 고비 수십번 넘기시더니

땅땀기 세간 고스란히 놓아둔 채
처자식 주렁주렁 달고
새벽에 고향을 버리시던 아버지.

삼십년을 떠돌다
고향 찾아드니 아버지 모습이며 음성
동리산에 가득한 듯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
폐허뿐이네 적막뿐이네.

조태일 문학관에서 조태일 시인님의 활동과 시집 그리고 시적 에스프리를 직접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꺾이는 것은 지조가 있다

윤석주(〈시와 사람〉 신인상, 우이시 동인)

갈대밭으로 속으로 난 길을 걷는다
꾸불꾸불한 길이 평탄치 않게 살아온
사랑의 여정 같아서 조금은 정겹다
젊은 날 꿈을 키우던 시절
옳다고 믿었던 마음,
하늘 향해 우쭐우쭐 키우던 시절
모진 세파에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았던 꼳꼳한 정신,
한질 넘게 자라 탐스럽게 꽃피운 갈대밭에서 본다
느릿느릿 해찰 하면서
풀어진 마음 다독거리며 걷는 길
가고 오는 사람 없었는지 길은 묵었고
허리 꺾인 갈대가 장검을 들고 나를 노려본다
만개한 갈대꽃 사이사이
꺾인 갈대들은 꽃을 피우지 않고
시퍼렇게 시퍼렇게 칼만 갈고 있다

시는 발견이다. 문화해설도 새로운 눈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스스로 질려 버릴 것이다. 역사를 근거로 혁신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탈피는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자의 열연이다. 윤 석주 시인의 시안(詩眼)을 닦아 간다면 곡성을 해설하는 수준이 지역성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섬진강 청계동에서

이금노

청계동 정철봉에 올라서
청계 와 정철 을 찾았더니

님은 보이지 않고
사삼골 반석이 영겁에 달아
쉽 없이 내달려
동악의 계곡이 깊고 푸르르다

그 골에
한번
환장하게 빠져서
한 이틀
미쳤다 가도 좋겠다

내 한사코
숨어버린 님을 찾아
따져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골짜기를 가르킨다
묵방골
사삼골
밤절골
그 골이 淸溪로다
모두가 섬진강에 내려와
한 사나흘
빠져 죽을 만도 하겠다

청계동 : 임진란 의병장 양대박의 호 "청계"를 딴 곡성지역 섬진강과 동악산이 위치한 지역임

청계 :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 양대박의 호

정철 : 조선중기의 문신, 시인, 호 송강(松江).

동악 :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에 있는 산(높이 735m)

이금노 시인의 시 한 편이 동악산 청계동을 금방 알게 해준다. 여러 번 청계동을 갔어도 자기 고향이 아니라서 깊은 성찰이 되지 않는데 이 시를 통해 훨씬 곡성이 가까이 느껴진다. 양대박이란 인물을 알기도 쉬워졌다.

2018년 12월 27일
수요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12월 27일

곡성 선사인의 삶과 고인돌

이영문

(목포대학교 교수 / 박물관장)

목 차

1. 머리말
 2. 구석기시대의 곡성
 3. 신석기시대의 곡성
 4. 청동기시대의 곡성
 5. 선사시대 이후 곡성의 고대문화
 6. 맺음말
-

1. 머리말

우리나라의 역사는 문자기록이 없는 선사시대와 문자가 기록되는 이후인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다. 문자기록이 없어 밝힐 수 없는 선사시대의 역사와 문화상을 구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고고학(Archaeology)이란 인류가 남긴 물질적인 자료(흔적) 즉 유물·유구·유적을 통하여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유물에는 토기, 석기, 목기, 금속기, 골각기 등이 있고, 유구에는 주거지, 건물지, 패총, 가마, 무덤 등이 있다. 유적은 이러한 유물과 유구가 존재 하였던 공간적인 위치를 말한다.

고고학의 연구 범위는 지역적인 범위와 시간적인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적인 범위는 인간이 살았거나 활동의 흔적을 남긴 모든 지역이 연구대상이다. 이처럼 고고학연구는 시대와 사회 환경의 산물인 우리 인류가 살고 있었던 문화의 형성과정을 조사해서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물증(고고학자료)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있는 자료 발굴이라는 특수한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한다.

곡성지역의 고고학적 조사연구는 1965년 곡성 목사동면 공북리 고인돌 발굴이 최초이다. 이 발굴로 곡성지역에도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며, 석검, 석촉, 민무늬토기 등 청동기시대 유물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 후 1975년과 1977년에 전남고고학지명표와 문화유적총람이 간행되면서 일부 유적이 알려지게 되었다. 1983년 이영문에 의해 곡성군에 분포된 고인돌 일부가 소개된 바 있으며, 1986년 입면 제월리 구석기 유물 소개와 1989년 이선복에 의해 옥과 주산리와 입면 송전리 후기구석기 유적이 발굴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곡성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으로, 1990년대 초까지는 이렇다할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호남고속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오산면 연화리, 겸면 현정리, 삼기면 농소리와 경악리, 석곡면 연반리와 유정리 등 7개 지역의 고인돌 46기가 발굴되어 곡성지역의 선사와 고대문화의 일면이 밝혀지게 되었다. 특히 유정리에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 출토, 현정리에서 철기시대 토기유물, 연화리에서 백제시대 고분 등이 함께 조사되어 구석기시대부터 계속하여 사람들이 살아왔음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하지만 곡성지역의 본격적인 조사는 1995-6년 사이에 문화유적 전반에 대한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로 고인돌 69개 유적, 유물산포지 10개소, 고분 6개 유적이 확인 보고 되었다. 이와 같은 곡성지역에 대한 조사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됨으로써 해서 이 지역의 선사와 고대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의 고고학적인 학술조사나 연구 성과를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곡성의 선사문화의 시대별 특징과 고인돌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2. 구석기시대의 곡성

1) 구석기시대의 문화

인류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출현하는 것은 문화사적으로 볼 때 구석기시대에 속한다.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상 홍적세(괘신세, pleistocene)에 해당되며, 그 기간동안에 4차례의 빙하기와 세 차례의 간빙기가 있었기 때문에 빙하시대라고도 한다. 이 홍적세 기간 중에 빙하기에는 해수면이 가라앉고 간빙기에는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 해수면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구석기시대에는 중국대륙과 한국 및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지형은 빙하기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는 대개 1만년 전후해서 형성되었다.

우리나라 구석기유적은 전 지역에서 걸쳐 분포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대동강, 한강, 금강의 상류지역과 석회암이 잘 발달된 평양부근 및 충북지방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구석기시대인들은 동굴과 강가에서 생활하였는데 동굴유적은 주로 석회암동굴지대에서 나

타난다. 이는 추위를 자연스럽게 막을 수 있고,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동굴의 입구는 평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대체로 동향이나 남향이며, 물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구석기시대의 문화는 뿔석기로 대표된다. 이 뿔석기는 인간이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인지활동과 자유로이 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결과의 산물이라 하겠다. 구석기시대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어지고 있다. 전기에는 한 개의 석기를 가지고 여러 용도로 쓴 주먹도끼나 찌개 등이 주로 만들어졌고 중기나 후기로 가면서 몸돌에서 떼어낸 돌날을 잔손질한 굽개, 자르개, 찌르개 등 크기가 작으면서 한 개의 도구가 하나의 쓰임새로 사용되도록 석기가 만들어졌다.

곡성지역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더 많은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2) 곡성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

곡성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입면 제월리와 송전리, 옥과 주산리가 있지만 제월리 유적은 학계의 논란이 많은 유적이다.

(1) 옥과면 주산리 구석기 유적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리 461-10 및 463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옥과천의 퇴적과 침식운동으로 형성된 단구가 현재의 하천쪽을 향하여 끝나는 말단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은 대부분 경지정리과정에서 파괴되어 대부분의 유물은 지표에서 채집되었으며, 발견된 석기는 모두 177점으로서 소형석기 4점, 격지 49점, 몸돌 3점, 부정형 조각 121점이다. 유물 세부구성을 보면 각주형 몸돌편을 비롯한 몸돌들, 돌날 상에 잔손질한 끝날 굽개, 격지 상에 잔손질한 톱날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의 석기는 주암댐 수몰지구 내의 여러 유적에서 사용된 응회암제 석재로 주로 제작되었다. 이 유적의 문화적 특징은 이 시기 동북아시아의 너른 지역에 걸친 세형몸돌-굽개 공작의 한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이 유적에서 확인된 각주형과 부정형의 세형몸돌의 기술적 특징은 동북아시아의 후기구석기 최말기에 나타나는 석기제작 전통을 보여주는 표본증거가 된다.

(2) 입면 송전리 구석기 유적

전남 곡성군 순창 남쪽 12km지점 옥과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역에 넓게 발달한 하안단 구상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의 퇴적학적 환경과 지형의 특징에서 이 유적들은 모두 비교적 추운 기후조건하의 하천변에 형성되었다. 층위는 위로부터 표토층, 실트성분이 포함된 점토층(문화층), 실트와 모래 혼합층, 자갈 간층이 포함된 모래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표토로부터 50~70cm 이르기까지 깊은 지점까지 확인되고 있어 두꺼운 문화층을 갖고 있다. 이 유적의 단구층에서는 3~4매의 토양썩기가 확인된다.

이 유적의 석기는 모두 214점이 수습되었으며 몸돌 3점, 대형석기 2점, 소형석기 3점, 가공 혹은 사용된 석기 2점, 격지 90점, 돌날 13점, 부정형 조각 101점이다. 석기에 대한 세부 구성을 보면 몸돌석기인 찌개류와 응회암제의 격지, 세형몸돌 및 스키형 기술격지, 옆날굽개, 끝날굽개, 톱날석기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적은 석재의 선택으로부터 석기조합상 주산리를 비롯한 보성강 섬진강 유역의 여러 후기구석기 유적들과 유사한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유적은 동북아시아의 세형몸돌-굽개 공작의 한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격지상 세형몸돌, 부정형의 썩기형 몸돌은 후기구석기 말기의 기술적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석기는 주로 격지 상에 잔손질을 베풀어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몸돌석기인 찌개류들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이 유적들은 후기구석기 최말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유적의 연대는 그 상한을 15000 B.P.로 설정되고 있으며 대략 13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볼 수 있다.

(3) 곡성 구석기유적의 특징

위 두 유적은 전남 곡성군 순창 남쪽 12km 지점 옥과천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후기구석기 유적으로, 모두 홍적세 최말기, 소위 빙하시대가 끝나기 직전의 시점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유적의 퇴적학적 환경과 지형의 특징에서 이 유적들은 모두 비교적 추운 기후 조건하의 하천변에 형성되었고, 연대는 그 상한을 15000 BP로 설정되고 있다.

이 유적들에서 출토된 유물군은 첫째, 모두 호온펠스를 주 석재로 하는 석기가 압도적이다. 석기제작에 사용된 호온펠스는 주암댐 수물지구 내의 여러 유적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들 유물군의 지표유물은 세형몸돌과 굽개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들은 이 시기 동북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세형몸돌-굽개공작의 한 유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유물구성을 보면 주산리에서는 주상몸돌을 비롯한 몸돌들, 끝날굽개, 톱니날 석기 등이 출토 되었다. 이 석기들은 주로 돌날기법에 의해 생산된 돌날상에 제작되었다. 송전리에서는 호온펠스제의 박편, 세형몸돌 및 스키형박편, 굽개, 끝날굽개, 톱니날석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수양개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 소위 유베찌기법이라고 일본에서 명명된 세형돌날 제작기법과 관계된 몸돌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썰기형몸돌이 발견되었고 세석기류들이 출토되었다. 이 썰기형몸돌은 주로 세형돌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후기구석기 말기의 전통을 유지하는 표본증거가 된다. 격지석기에는 돌날기법이 일부 보이며 후기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석기형태이다. 하지만 돌날떼기 기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신석기시대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특성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유적들도 13000년을 전후로 하는 시간적 위치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3. 신석기시대의 곡성

1) 신석기시대의 문화

신석기시대는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된다. 그 특징은 토기의 사용과 농경의 시작을 들 수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부분 하천과 해안을 중심으로 밀집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수렵, 어로, 채집에 의한 경제생활이 위주가 되었다. 이는 활과 화살등 원거리용 수렵도구, 조합식 낚시바늘이나 그물추 등 어구류가 다량 발견된 것으로 증명된다.

기원전 약 2천년경부터는 농경의 흔적이 발견된다. 즉 탄화된 곡물과 함께 농경도구, 대형 저장토기 등이 발견되고 있다. 신석기시대는 움집을 만들어 생활했으며 움집은 보통 하천변의 충적대지나 해안의 평탄면에 자리 잡고 있다. 흔히 수십 채씩 부락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도구로서 석기는 초기에는 구석기제작기법에 의한 조잡한 석기가 주로 쓰이다가 후기로 가면서 마제석기가 널리 이용되었는데 도끼, 화살촉, 돌칼, 창, 쟁기 등이 주류를 이룬다. 실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가락바퀴는 많은 유적에서 출토되고 동물 뼈를 갈아 만든 바늘도 몇몇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실이 바늘귀에 꿰어 있는 채로 발견된 예로 보아 이미 베를 짜서 옷을 지어 입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으로서 의례와 다산을 기원하는 조각품들이 서포항과 완도 여서도 등지에서 출토된 바 있고 그 외 부산 동삼동, 강원도 오산리 등지에서는 조각품과 장식품이 나오고 있다.

곡성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석곡 유정리처럼 강변의 대지상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곡성에서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

곡성에서 뚜렷한 신석기시대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석곡면 유정리 고인돌 발굴과정에서 신석기시대에 속한 빗살무늬토기편들이 다수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의 유적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성 죽산리 하죽의 예처럼 강변 평지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이 발견

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과 보성강유역의 층적평지에 유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석곡면 유정리 유평 빗살무늬토기 유적

전남 곡성 석곡면 유정리 유평촌에 위치한 이 유적은 고인돌 발굴과정에서 집자리 4기와 폐기장 2기 등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낮은 야산의 사면과 경사가 완만한 대지로 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집자리와 폐기장에서 빗살무늬토기 40여점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 후대의 퇴적층이거나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와 석기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출토된 상황으로 볼 때 청동기시대 유구에 빗살무늬토기편들이 후대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와 관련된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곳에서 신석기시대에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한 사람들이 거주한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민무늬토기의 태토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운모가 섞인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 태토를 가진 것도 발견되고 있다. 문양은 손톱무늬, X자무늬, 변형된 마름모무늬, 빗금무늬, 사격자무늬 등이 있다. 태토는 신석기시대 전통과 민무늬토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문양은 신석기시대 전통을 이어받고 있어 빗살무늬에서 민무늬토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곳에서 출토된 석기 중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타제돌도끼와 석제 그물추가 있다. 타제돌도끼는 신석기시대 석기 제작방법을 보여주는 유물이며, 그물추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조그마하고 납작한 강자갈 양쪽을 깨서 묶어 사용하는 형태이다.

4. 청동기시대의 곡성

1) 청동기시대의 문화

청동기시대란 인류가 처음으로 청동주조 기술을 알게 되어 청동기를 생산하게 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게 되고 그 이전의 석기시대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된 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대체로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로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주된 생업은 농경이었으며 어로와 동물사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주거양상은 주로 구릉과 층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을 형성하였으며 정착생활을 하였다. 무덤은 고인돌과 석관묘가 주로 쓰여 졌다. 대표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청동도끼, 청동촉, 청동손칼, 청동단추, 거울 등의 청동기류와 민무늬토기, 가지무늬토기, 붉은간토기 등의 토기와 돌검(石劍), 돌화살촉, 톱자귀, 흙자귀, 돌칼 등의 석기류와 함께 목걸이와 귀걸이 장식인 굽은옥, 대롱옥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청동기문화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민무늬토기로 바뀌고, 간석기가 더욱 발달하여 각 석기마다 쓰임새에 따라 일정한 형태가 이루어지며, 농경이 본격화되고, 무덤이 정형화되어 혈연가계가 형성되며, 청동기가 제작 사용되는 문화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특히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중심으로 합금한 것이어서 인간이 새로운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며, 석기에 비해 형태의 제약이 없고, 재제작이 가능하고, 견고하며, 날을 수시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북한에서는 함북 회령 오동, 라진 초도, 함북 강계 공귀리, 해주 미송리, 평남 승호 금탄리, 황해 봉산 지탑리, 남한에서는 경기 여주 흥암리, 파주 옥석리, 서울 가락동, 충남 부여 송국리, 강원 강릉 포남동, 광주 송암동·전남 영암 장천리·승주 대곡리의 주거지 유적이 있다. 청동기 후기에는 대동강유역·금강유역·낙동강 중류지역·영산강유역 등지가 청동기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곡성의 선사문화는 청동기시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문화형성 단계에 돌입하게 되고 어느 시기보다도 이 시대의 유적이 가장 많이 조사되고 연구된 시대이다. 곡성지역에서는 고인돌과 주거지 등이 발견되고 있다.

2) 곡성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

1) 최초로 발굴된 목사동면 공북리 고인돌

전남 곡성 목사동면 공북리에 있는 고인돌은 곡류하는 보성강의 반월형 충적평지에 35기의 고인돌이 4개의 군집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 고인돌 5기를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굴하였다.

제 1군은 10㎡를 조금 넘는 좁은 지역에 7기가, 제 2군은 약 400㎡의 범위내에 15기 가량이 군집되어 있다. 덮개돌은 큰 것이 많고 1-2m씩 간격을 두고 한 줄로 배열된 것도 있다. 여기에서는 2기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네 벽과 바닥을 납작한 냇돌로 쌓아 장방형의 돌덧널형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개석식이다. 무덤방의 길이가 1.7m에 달하는 것은 퍼묻기가 가능하다. 석실 주변에서 토제칼자루 끝장식 1점과 민무늬토기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모난 돌을 깔아 묘역을 표시한 것도 있다.

제 3군은 약 300㎡의 면적내에 13기가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2기가 발굴되었다. 그 중 D호 고인돌은 냇돌로 쌓은 돌덧널형 무덤방위에 덮개돌을 덮었으며, 내부 퇴적토에서는 민무늬토기편과 돌화살촉 1개가 출토되었다. 다른 하나는(E호 고인돌) 지하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나, 무덤방의 공간이 약 1.2 0.9m 정도이고 주위에서 약간의 민무늬토기편만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고인돌 주위에서 발견된 민무늬토기편이 대부분이다. B호 고인돌 옆에서 출토된 검파두식은 타원형의 중앙 좌우에 십자형으로 작은 돌기를 만들고 윗면에 원주형을 세운 형식으로 토제품의 검파두식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이 형식의 검파두식은 대부분 세형동검과 공반되어 발견되고 있다. 이밖에 고인돌이 파괴된 석실에서 출토된 자루식 간돌검과 돌도끼가 있다.

2) 집자리와 빗살무늬가 발견된 석곡면 유정리 고인돌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유평마을에 위치한 고인돌 유적으로, 고인돌 9기를 비롯하여 집자리 4기, 폐기장 2기가 확인되었다.

고인돌은 대부분 덮개돌이 없어진 상태였는데, 남아 있는 1기도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되어 고인돌의 존재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형식 또한 기반식 가운데 바둑판식인지 무지석식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무덤방은 지하에 갯돌, 냇돌, 판돌로 쌓은 돌널형과 돌덧널형이 있다. 무덤방 크기는 길이 100~200cm, 너비 36~60cm, 높이 20~31cm이다. 묘역시설은 갯돌과 냇돌로 1~3겹 깔고 그 위에 판돌을 얹어 평면 장방형, 타원형, 원형으로 정연하게 만들었다.

1호 무덤방은 크기 200 50 20cm로 장벽은 갯돌과 강돌로 쌓고 단벽은 판돌로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양단벽에 가까운 곳에 판돌 1매씩을 깔고 그 사이에는 갯돌과 강돌로 깔았다. 적석시설은 없다.

2호는 크기 150 42 30cm인 돌널형으로, 이중으로 뚜껑돌을 덮고 4벽은 판돌로 잇대어 축조하고 그 외곽의 뚜껑돌이 받는 범위에 갯돌과 강돌을 1겹 깔았다. 바닥은 모래바닥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7호는 길이 400cm, 너비 280cm 범위에 판돌로 구역을 정하고 내부에 판돌과 갯돌로 적석시설을 마련하였다. 무덤방은 적석시설의 중앙에 크기 150 55 40cm로 4벽을 갯돌과 강돌을 이용해 축조한 돌덧널형이다. 바닥은 판돌로 깔고 그 위에 10cm 내외의 갯돌로 중심부를 향하여 1~겹 깔았다. 부장유물은 습베식간돌검, 자루간돌검, 간돌화살촉, 돌끌, 갯돌도끼, 소옥 등과 함께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간돌도끼, 간돌화살촉, 그물추, 빗살무늬토기, 석기미완성품 등이 수습되었다.

이 유적은 동일 공간에서 무덤과 집자리가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고인돌에서 정교한 장방형의 묘역시설(5~7호 고인돌)을 갖춘 점, 무덤방 축조시 판돌·냇돌·갯돌을 혼용하여 조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제단의 성격을 가진 대형 바둑판식인 석곡면 연반리 고인돌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전기마을에 위치한 고인돌은 보성강으로 유입되는 석곡천변으

로 산기슭의 경사면에 있는 2기의 고인돌은 남동쪽의 평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입지하고 있으며 규모도 대형급이다.

1호 고인돌은 크기 415 360 220cm, 무게 50톤이다. 덮개돌하에는 고임돌 11개를 원형으로 돌려 배치하였으며, 고임돌 사이에는 납작한 강돌을 깔았다. 그 범위는 180 110cm이다. 2호는 390 280 298cm 크기의 괴석형 덮개돌로 무게가 35톤이다. 덮개돌하의 고임돌은 7개가 받치고 있었으나 중앙에 대형 고임돌이 있으며, 북쪽 즉 산쪽에 납작한 자연석을 얹혀 세워 묘역을 구획하였다. 고임돌 사이에는 강돌이 깔려져 있는데, 그 범위는 220 110cm이다.

두 고인돌 모두 뚜렷한 무덤방은 없었고, 강돌만 전면에 깔려 있는 고임돌만 있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다. 이것은 고인돌이 무덤보다는 제단과 같은 의례 행위의 표석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인돌의 내부 강돌 사이에서는 많은 민무늬토기편들이 출토되었고, 고임돌 주위에서는 농구류와 공구류 등 생활 용구들이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 수량이나 종류에 있어서 다른 고인돌들과 큰 차이를 보인 이러한 유물은 당시 농경의례의 일환으로 석기를 파쇄한 후 매납한 행위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연반리 고인돌 중 가군 고인돌은 4기중 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3기는 파괴되거나 이동되었다. 1호 덮개돌의 크기는 250 220 90cm이다. 지상에 5개의 고임돌이 드러나 있고 하부구조는 무덤방 등 별다른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바둑판식고인돌이라 할 수 있다. 출토 유물은 민무늬토기조각 돌도끼, 원반형토제품으로, 돌도끼는 남서쪽 모서리에 위치한 고임돌 밑에서 출토되고 나머지는 고인돌 주위에서 출토되었다.

다군 고인돌은 3기로 1호를 제외하고는 하부구조가 있으며, 석곡천의 흐름방향과 평행하게 남-북 1열을 이루고 있다. 2호 덮개돌은 평면형태 장방형의 크기 410 370 210cm, 무게 55톤으로 대형이며 상면에는 성혈이 있다. 7개의 고임돌이 C자형으로 놓여져 있으나 무덤방 등 다른 시설이 없는 바둑판식고인돌이다. 3호 덮개돌은 평면 장방형의 250 200 108cm 크기로 무게는 7톤이다. 고임돌은 1기가 확인되며, 그 아래 지하식의 돌덧널형 무덤방이 있다. 무덤방의 크기는 168 47 20cm로, 장벽은 강돌을 얹혀 쌓고 단벽은 판돌 1매 세워 축조하였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4) 훼손이 심한 경악리와 농소리 고인돌

전남 곡성 삼기면 경악리 북룡마을에 위치한 고인돌군은 통명산에서 서북쪽으로 내려오는 산자락의 말단에 있는데, 유적 앞으로는 서북쪽의 대명산과 서남쪽의 국사봉 사이를 흐르는 개천을 따라 형성된 비교적 넓은 삼각형상의 평지가 펼쳐져 있다. 이 일대에는 10여개의 괴석(塊石)이 있었으며 발 가운데 고임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고인돌 1기가 있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평면 타원형이며 규모는 250 210 90cm이지만 발굴 전에 경작자에 의해 파괴되었다. 덮개돌이 있었던 자리에서 하부시설이 확인되었는데 10~30cm 크기의 자연석을 직경 3m 내외의 범위에 1~2겹 깔아 부석시설을 마련하였다.

전남 곡성 삼기면 농소리 대명마을에 위치한 고인돌은 마을 앞 논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사구간을 벗어난 1호 고인돌은 현지에 그대로 보존하고 2호 고인돌만 발굴하였다. 1호 고인돌 아래쪽 논둑에서 파괴된 고인돌의 덮개돌 2기가 새로 확인되었다.

1호 고인돌은 지형상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덮개돌은 평면·단면 장방형으로 크기는 392 275 148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이다. 덮개돌의 서쪽 아래에 고임돌 1매가 노출되어 있다. 2호 고인돌의 덮개돌은 2조각으로 깨져 있는데, 평면 장방형이며 크기는 426 248 45~125cm, 무게 28톤이다. 하부구조는 덮개돌 중앙의 생토면에는 40cm내외의 석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파괴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논둑 속에서 드러난 4·5호 고인돌과 농소리에서 경악리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분포하고 있는 6·7호 고인돌도 모두 이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돌낫이 발견된 곽면 현정리 고인돌

전남 곡성 곽면 현정리 가마실들에 위치한 고인돌은 현정리 마을의 북쪽 해발 90m의 평탄

한 독립구멍의 말단부에 축조되어 있으며 5기 가운데 2기는 이미 공사로 파괴되었다.

조사된 3기의 고인돌 하부구조는 무덤공간을 만들지 않은 1기(1호)와 무덤방을 안치한 돌덧널형 2기 등으로 나누어진다. 1호 덮개돌의 평면형태는 원형에 가까우며 크기 250 220 90 cm, 무게는 8.5톤이다. 덮개돌 아래에 굵은 자갈돌과 퇴적된 사질토로 이루어진 적석부가 500 400cm 범위에 있고, 3개의 고임돌이 있어 형태적으로는 고인돌로 보이지만 하부에 무덤공간을 만들지 않았다. 유물은 민무늬토기편, 돌낫, 삼각형돌칼, 스페식 간돌화살촉 등이 출토되었으며, 돌칼의 깨진 조각은 고임돌 하부와 적석부에서 각각 출토되었는데 서로 접합되고 있다. 4호는 하부에 반지하식 무덤방을 안치한 것으로 무덤방은 크기 111.6 35 38cm의 돌덧널형이다. 뚜껑돌은 상하 2겹의 뚜껑을 덮은 겹뚜껑식인데, 하단은 동쪽 끝에 놓인 관돌이 남아 있고 상단은 1매의 관돌로 덮었다. 벽석은 강돌과 깎돌을 혼용하여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2~3단 쌓고, 맨 윗면에는 넓은 관돌을 돌려 놓아 돌널을 보호하고 있다. 바닥은 납작한 돌을 듬성듬성 깔았다. 유물은 구멍있는 스페식간돌검, 간돌화살촉, 민무늬토기조각 등이 내부에서 출토되었으며, 관석열과 주변에서 간돌화살촉, 돌도끼, 골아가리 구멍무늬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6) 간돌검과 화살촉이 발견된 오산면 연화리 고인돌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713-1번지와 1018번지에 위치한 고인돌은 A지구에서 4기, B지구에서 16기 및 독립무덤 1기 등이 있다. A지구는 발굴 당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해발 102.5m이 저평한 지형이며, 동쪽으로 300m거리에 B지구가 위치한다.

고인돌의 덮개돌의 무게는 1.6톤에서 10.2톤까지 다양하며, A지구의 덮개돌은 잘 남아있는데 크기는 A-1호는 320 290 60cm, A-3는 250 260 73cm, A-4호는 417 260 78cm로, 모두 상면에 채석흔이 있다. B-4호는 175 120 59cm이며 무게 1.6톤으로 가장 가볍다. 고인돌은 바둑판식에 속하지만 지하식과 지상으로 매장주체부의 일부가 올라오는 반지하식의 두가지 형식이 한 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다. 무덤방은 돌덧널형이 대부분이며, 지하식은 대부분 강돌로 돌덧널을 축조하였으며 반지하식은 깎돌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A지구 고인돌은 동-서향으로 1렬로 배치되어 있고 무덤방의 형식도 반지하식으로 대형 깎돌을 이용한 것과 깎돌과 강돌을 혼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반면 B지구의 경우는 반지하식과 지하식이 공존하고 있는데, 지하식의 고인돌은 거의 고임돌과 덮개돌이 없었으며 반지하식은 덮개돌과 고임돌을 갖추고 있는 점이 다르다. 바닥은 관돌을 이용한 것, 관돌과 깎돌을 혼용한 것, 강돌을 이용한 것, 깎돌을 이용한 것 등 다양하며, 대부분 전면에 깔았다.

A-1-1호 돌덧널은 크기 165 50 35cm이며 고임돌이 있는 반지하식으로 장대석을 바닥에 먼저 깔고 후 장벽은 깎돌을 이용하여 가로쌓고 단벽은 50cm 내외의 관돌 1매를 세움하여 축조하였다. B-13호는 뚜껑돌 3매를 덮은 지하식 돌널형으로 형태 \square 자형의 92 30 25cm 크기이다. 무덤방의 장벽은 대형관돌 여러매를 잇대고 단벽은 관돌 1매로 세움하고 뒤쪽에 강돌로 채움한 후 바닥에는 강돌을 깔아 축조하였다. 또한 하나의 덮개돌 밑에 두 개의 무덤칸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조각, 붉은간토기조각, 자루간돌검 3점, 스페식간돌화살촉 19점, 굵은옥 1점이 있다. 석기류는 무덤방 내부에 시신과 함께 매납되며 토기류는 벽석을 쌓는 과정 중에 깨뜨려서 부장되고 있다.

7) 석곡면 유정리 잡자리와 폐기장 유적

전남 곡성 석곡면 유정리 유평촌에 위치한 유적은 집자리 4기와 폐기장 2기, 고인돌 9기가 확인되었다. 낮은 야산의 사면과 경사가 완만한 대지로 동쪽에 있는 개천에 의해 그 동쪽의 논으로 경작되는 지역과 구분된다.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원형 2기(2호, 4호), 장타원형 1기(3호), 말각방형 1기(1호)이다. 집자리들은 모두 암황색의 강모래층을 파고 만들어졌으며 1호를 제외한 모든 집자리는 내부 중앙부에 타원형구덩이와 기둥구멍이 있는 송국리형 집자리이다. 2호는 크기 500 450 55cm로 타원형 구덩이 내부에 1개의 기둥구멍이 있으며, 3·4호 크기는 각각 700 600 40cm, 직

경 670 50cm이며, 타원형구덩이 양단 내부에 기둥구멍이 있다. 1호는 크기 515 500 40cm로 내부시설은 없다. 유물은 민무늬토기편, 붉은간토기편 등 토기류와 습배식간돌화살촉, 간돌검, 반달돌칼, 숫돌, 돌끌 등의 석기류 및 토제 및 석제 그물추와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내부 퇴적토에서 빗살무늬토기편들이 일부 출토되었다.

폐기장은 집자리들과 인접되어 있는데 평면형태와 규모에 있어서는 집자리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한쪽으로 경사진 점 등으로 보아 집자리와는 다른 성격으로 보고 있다. 1호의 경우 직경 600cm로 규모가 크고 내부에는 잡석무더기와 동쪽부분에 토기편이 집중되어 있다. 폐기장에서 출토된 유물은 민무늬토기편, 붉은간토기편, 간돌화살촉, 간돌칼, 흙자귀, 그물추등이 출토되었다.

8) 오산면 연화리 출토 독무덤

연화리 출토 독무덤은 고인돌 발굴지역의 B지구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경 55cm의 움을 파고 독을 수직으로 매납한 형태이다. 독 저부에는 직경 1.5cm의 구멍이 하나 뚫려 있으며 이 구멍은 바깥쪽에서 삼각형의 잔자갈로 막아 놓았다. 독은 민무늬토기로서 적갈색을 띠며 출토시 아가리는 파손되어 남아 있는 길이는 34cm이다. 내부에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다.

3) 곡성에 분포한 고인돌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의 하나가 고인돌인데 이는 땅속이나 땅 위에 돌로 무덤방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을 올려놓은 형식의 무덤이다. 전남지방에서 지금까지 조사된 고인돌의 수는 2만여기로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 분포되어 있어 주목된다. 즉 서해안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에서는 973개 지역에 7,189기이며 보성강을 포함한 섬진강유역에서는 521개 지역에 4,098기이고, 남해안지역은 724개 지역에 7,773기가 현재까지 확인된 수이다.

곡성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1996년 조사에 의하면 69개 군 350여기의 고인돌이 분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완전 파괴유적이 10개군에 40여기, 일부 파괴가 6개군 50여기, 새로이 발견된 것이 9개군 17기이어서 당시 잔존 고인돌은 61개군 280여기로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곡성지역에서 발견 보고된 고인돌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곡성군 고인돌 분포 현황표(면단위)

위 표는 문헌 자료와 이영문이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원래 곡성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고인돌 통계이다. 즉 83개군에 532기의 고인돌이 분포되어 있었다.

강 수계로 보면 곡성읍을 중심으로 한 섬진강유역에 15개군 79기, 보성강유역에 24개군

구 분	군 집 수	기 수	10기 이상	비 고
검 면	9개군	24기		
곡성읍	5개군	21기		
목사동면	19개군	204기	공북리 신기 가군 15기 공북리 신기 나군 13기 구룡리 구룡 10기 동암리 관암 14기 용사리 사당 11기 죽정리 원정 58기 죽정리 유치 10기	
삼기면	10개군	79기	괴소리 가군 18기 괴소리 나군 25기 원등리 인동 15기	
석곡면	9개군	48기	연반리 나군 10기	
오곡면	8개군	52기	오지리 상동 12기	

구 분	군 집 수	기 수	10기 이상	비 고
오산면	11개군	57기	조양리 반석 13기	
옥과면	3개군	14기		
입 면	2개군	6기		
죽곡면	6개군	27기		
계	82개군	532기		

279기, 옥과천 주변에 33개군 172기이다. 이로 보면 고인돌 사회 당시에 목사동면을 중심으로 한 석곡일대와, 삼기와 오산을 중심으로 한 옥과일대가 하나의 중심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들은 셋강이 합류되는 강변 평지가 비교적 발달된 지역으로 당시 소규모의 집단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자연 지형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것이다.

곡성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의 입지는 대부분 평지와 낮은 구릉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삼기 금반리 밤실 고인돌처럼 비교적 높은 고개마루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다. 또한 오산 연화리 연화와 오곡 오지리 상동과 동동 등에서는 마을안 집의 담이나 장독대로 사용되는 고인돌도 있고, 석곡 유정리처럼 민묘 주변에 군집된 예도 있다. 이 경우는 잘 보존되고 있지만 논 밭이나 야산에 위치한 고인돌들은 경작이나 개간등으로 상당 수가 파괴되거나 유실된 고인돌이 많다. 마을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곁면 운교리 운고 고인돌은 칠성바위로 부르며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곡성지역의 고인돌 중 8개군에서 50여기가 발굴되었는데, 무덤방이 있는 고인돌과 없는 고인돌이 있다. 앞의 고인돌은 무덤의 기능을 가진 것이며, 뒤는 제단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무덤의 기능 고인돌에서는 부장유물등이 발견되고 있는데, 고인돌의 대표적인 부장유물인 간돌검과 간화살촉은 목사동면 공북리, 석곡 유정리, 오산 연화리, 곁면 현정리에서 발굴되었으며, 당시 귀중히 여기고 장신구로 사용된 옥은 석곡 유정리와 오산 연화리에서 발견되었다. 청동기시대 농경과 관련된 수확구인 돌낫이나 돌칼이 발견된 곳은 곁면 현정리와 석곡 유정리, 석곡 연반리 전기 고인돌이 있으며, 이외 목제 공구류인 돌도끼나 자귀류, 돌끌 등이 있고, 곡물 조리구인 갈돌, 고기잡이 쓰인 그물추, 옷과 관련된 방직구의 일종인 가락바퀴, 석기 제작 도구인 숫돌 등이 고인돌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제단의 성격을 가진 고인돌은 석곡 연반리 전기와 삼기 금반리 밤실 고인돌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고인돌은 대개 군집되지 않고 1기만 있는 대형 고인돌로 받침돌만 있고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자연적인 집단에 의해 축조된 거석기념물의 성격이 띠고 있다. 그 입지도 평지 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주변을 관망하기 좋은 곳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삼기 금반리 밤실 고인돌은 고개마루에 1기만 있고, 길이 4.9m에 두께가 2.7m로 곡성 고인돌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이 고인돌의 경우 거의 100톤에 이르는 무게로 추정된다. 석곡 연반리 전기 고인돌은 35톤과 55톤 규모로 받침돌이 7개와 12개가 고이고 있으나 무덤방이 없는 대형 고인돌인데, 주변에서 많은 토기편과 일상에 쓰인 석기편들이 발견되었다.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보면 당시 이 고인돌 주변에서 제의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선사시대 이후 곡성의 고대문화

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에 이어 나타난 시대로 기원전 300년부터 기원후 300년경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고고학상에서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합해서 이르는 말인데, 초기철기시대는 청동기시대 후기(B.C300~0)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새로이 철기가 유입된다. 이 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철제품이 일부 지역에 들어오나 일반적으로는 한국식동검, 가는무늬 거울 등 청동기와 덧띠무늬토기, 검은간토기 등의 토기를 사용하고 움무덤과 독무덤 등의

묘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청동기가 부장된 돌널무덤 등이 사용된 시기이다. 철기시대를 역사 시대의 전단계라 하여 원삼국시대라고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 전기 또는 삼한시대(전남지방은 마한지방)인데 역사학자들은 삼한시대, 부족국가시대, 성읍국가시대로 명명하고 있어 이 시대의 명칭을 학자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다.

철기시대는 청동기와 고인돌이 거의 소멸하는 한편 철 생산의 보급으로 철기와 벼농사가 더욱 발전하고 민무늬토기에 이은 소위 경질민무늬토기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이는 본격적인 철제농구의 제작과 사용으로 생산력의 급증과 농경술의 발전으로 인구의 증가, 집자리의 확대, 교역의 발달이 촉진되었다. 또 토기의 제작에 있어서 새로운 요법 즉 노천요에서 등요로의 대체 또는 회전판의 사용으로 기종이 다양해지고 섭씨 1000도 이상의 고열로 구운 단단한 토기들이 대량 생산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으로 철제무기가 사용되고 농업생산량이 증가하여 부의 축적화가 일어나 점차 지배 집단세력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력간의 연합 또는 흡수로 고대국가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곡성지역에서 이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발견된 곳은 곽면 현정리 현정, 죽곡면 용정리 용정, 죽곡면 남양리 태안교 부근, 죽곡면 태평리 국도변, 죽곡면 연화리 연화, 목사동면 공북리 석곡교 부근 등 주로 구릉상에서 조사되었지만 강변의 퇴적평지 등지에도 유적이 잔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유적들에서는 경질민무늬토기, 적갈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편으로 발견되며, 토기 형태는 장난형토기, 납작바닥 항아리, 토기뚜껑편들이고, 문양은 문살무늬와 사자리무늬 등이 주를 이룬다.

고분시대는 삼한시대에 배제된 각 지역의 수장층이 형성되어 그들의 무덤으로 대형 성토분을 조성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즉 삼국이 주변의 소국들을 병합하여 왕권을 갖추어 지배력을 행사하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기원후 300년 무렵부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남지방의 경우 백제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백제 문화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시기와 그의 지배적인 문화요소가 보이는 시기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고분시대라 하였다. 이에 해당되는 유적은 움무덤, 독무덤, 돌방무덤 등의 묘제와 성곽 및 생활유적 등이 있다. 독무덤과 움무덤은 철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묘제이나 새로이 거대한 봉토가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곡성지역에서 발견된 이 시기의 유적은 옥과면 봉산리 보정과 황산, 주산리 주산, 입면 만수리 만수마을 주변의 구릉에서 고분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고 대부분 봉분이 삭평되거나 파괴된 상태이다. 이 중, 봉산리 보정 고분은 직경 15m 높이 5m의 봉분을 가지고 있으며, 만수리 만수 고분은 봉분이 삭평되었지만 6-7단 정도 쌓은 벽석이 드러나 있는 돌방무덤임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오산면 연화리 연화 고인돌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고분은 고인돌을 재사용한 것으로 고인돌 덮개돌하의 빈공간을 이용해 바다에 잔자갈을 깔고 네벽을 깎돌로 쌓았는데, 한쪽 벽은 밖에서 마무리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출토유물은 짧은목단지, 병, 소형항아리, 뚜껑접시, 세발토기 등 토기들이 완형으로 부장되어 있었으며, 철촉과 쇠낫(철검), 손칼(철도자), 철도끼 등 철기도 발견되었다. 이 무덤은 돌곽무덤(석실묘)계통으로 대개 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곡성지역의 선사인들은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삼한과 백제시대에 이르는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있음이 밝혀져 끊임없이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살아왔음이 드러났다. 비록 구석기 후기와 신석기 말기에 속한 유물이지만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강변 평지 뿐 아니라 석회암 동굴이 발달된 오산면 일대에서의 동굴유적의 조사가 필

요하며, 신석기시대의 경우 강변 평지의 깊은 곳에 잔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유적의 발견은 모든 공사시 조사가 선행되거나 주민의 신고에서 밝혀질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은 지상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산중턱이나 산속에서 더 많은 고인돌이 발견될 것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로 보면 보성강과 석곡천이 합류되는 지점(석곡일대)과 옥과천과 삼기천이 합류되는 지점(옥과일대)이 청동기시대 하나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변 평지나 구릉상에서 당시의 취락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것은 곡성읍일대, 석곡일대, 옥과일대 등이 역사시대 이후로 계속 중심지역으로 이어져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곡성의 뿌리를 찾는 일은 학자만의 일이 아니라 곡성에 거주하신 주민의 관심과 유적 유물의 발견 신고에 따라 더더욱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곡성 선사유적 지명표

- 최몽룡, 1975, 『전남 고고학 지명표』, 전남매일신문사출판국.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전라남도, 1986, 『문화유적총람』.
이영문 조근우, 1996, <전남의 지석묘> 『전남의 고대 묘제』, 목포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 문화재청, 1999,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 · 연구』.

곡성 선사유적 조사 보고서

- 김재원 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국립박물관
이영문, 1983, <섬진강유역의 선사유적 유물> 『향토문화』8집,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최무장, 1986,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출토 구석기> 『인문과학논총』18, 건국대학교
이선복 외, 1990, 『옥과 구석기 유적』서울대학교박물관 곡성군.
전남대학교 박물관, 1997,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전라남도 한국도로공사
임영진 · 양해웅, 1996, <곡성군의 고고학유적> 『곡성군의 문화유적학술조사』전남대박물관.
임영진 · 이영문, 1992, <호남고속도로확장예정지역의 고고학유적> 『호남고속도로광주-순천간 확장예정지역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전남대박물관.

곡성 청동기시대와 고인돌 관련 문헌

- 이건무, 2000, 『청동기문화』대원사
이건무 · 조현종, 2003, 『선사 유물과 유적』술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다지리
이영문, 2002, 『한국지석묘사회연구』학연문화사
이영문, 2002,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주류성
이영문, 2004,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동북아고인돌연구소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 연구』백산자료원

곡성의 인물과 성씨

류기상

(소설가)

목 차

1. 서론
 2. 신승겸 장군과 '장수브랜드'인 성씨
 3. 마천목 장군과 한반도 소외의 역사
 4. 파릉군 이경과 한국의 종법제도
 5. '심청 브랜드'와 곡성의 미래상
-

1. 서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문화관광해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계사회에 대해 잠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모계사회가 뭐예요? 아시는 분? 정확히 아시는 분? 어디 어디...

제가 알기로, 모계사회는 얼마 전까지 농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로 곁에 말입니다.

자, 해설가 여러분!

배냇소 아시죠?

배내기소 말입니다.

자! 여기 암소 가진 여씨 농가가 있습니다. 여(呂)씨 집안은 경상남도 함양이 본관입니다.

그리고 수소 가진 남씨 농가가 있습니다. 남(南)씨 집안 또한 경상남도 의령이 본관입니다.

곡성 어느 산골 마을에서 여씨와 남씨는 서로 사돈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바로 송아지 사돈

말입니다. 해서 소들간에 인사가 오간 게 아니고, 소들 주인간에 인사가 오갔습니다. 날씨 좋

은 날, 넓은 여씨 집마당에서 소들은 부부가 되고 소주인들은 사돈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암소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숫송아지 말입니다.

자아 송아지는 누가 가져요, 해설가 여러분?

수소 아버지가 가져요?

수소 주인 남씨가 가져요?

암소 어미가 가져요?

암소 주인 여씨가 가져요?

그렇습니다. 바로 암소 주인 여씨가 송아지 주인이 됩니다. 소의 세계는 모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냇소의 이치처럼 모계측에게 2세에 대한 탄생·보육·성장까지 책임지는 사회질서가 바로 모계사회입니다.

2. 신승겸 장군과 ‘장수브랜드’인 성씨

신승겸 장군 이전 이름 아시죠? 능산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태조 왕건 드라마 등을 통해서 혹은 곡성군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강을 말씀드리자면, 능산은 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사람으로 태어나 고려 신라 후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9백년대 초반 삼한통일과정에서 고려 태조 왕건과 의형제를 맺은 분으로, 지금의 경상북도 대구 근처 공산전투에서 견훤부대에게 쫓겨 강원도 춘천까지 큰형님인 왕건의 투구와 전투복을 입고 후백제 군대를 유인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잘린 채 시신이 돌아오게 됐고, 지금도 그 묘소가 강원도 춘천 근방에 있다고 합니다.

좌우지간, 왕건은 의제(義弟)인 능산에게 평산 신씨(申氏)성을 하사했고 신승겸이란 이름 석자를 부여했답니다.

해설가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족보 즉 보화 공부 좀 해봅시다.

한국에서 보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된 시기는 15~16세기입니다. 그 유명한 광산 김씨 집안의 인물 김집·김장생 부자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 해설가 여러분들 장롱속에 있는 족보가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5백년 이상은 안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려건국은 918년, 고려에 의한 삼한통일은 936년, 고려태조 왕건의 본관제를 실시한 것은 945년 경인데, 약 6백여년간 집안내력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서 구전이란 집안내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 왕족이나 명문가들부터 '가승보'란 8촌이내 족보부터 발행했던 역사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한글창제 후 발달된 인쇄술 덕분에 명족부터 양인 중인 상인 맨 나중에는 개백정과 소백정까지도 족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보화의 역사가 유추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은, 족보는 후손들이 기록하는 것이지, 선조들이 기록해놓은 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분명한 증거는 망한 백제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희귀하지만, 흥했던 신라와 고구려의 왕족과 유명인을 시조로 하는 성씨가 다수라는 점입니다. 우리 민족이 존대했던 중국 유래설은 많지만, 동남아나 일본 유래설은 극히 드물다는 현실입니다.

해설가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성씨는 약 286개이고 본관은 4,170여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4천여개가 넘는 성씨가 신승겸을 비조로 하는 평산 신씨처럼 죄다 왕건에게서 하사 받은 것일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조선시대 '공명첩'이란 제도가 있어 성씨가 없는 사람들이 돈으로 성씨를 다수 매입한 역사가 여러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05년경,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씨를 조사하고 소위 호적을 만들려고 했더니, 성인 남자 약 30% 정도가 성씨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당쇠, 돌담쇠, 삼머슴 새끼머슴 등등은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밀양 박씨 등 성씨들을 만들어 주고, 처갓집 택호를 부여했답니다. 곡성 남자분이 화순으로 장가가면 화순양반, 순천으로 곡성 여자분이 시집가면 곡성댁하고 호칭했던 역사가 바로 이 택호입니다. 비로서 우리 한반도에서 전 남성이 양반이 됐던 역사가 바로 이 시기부터랍니다.

사람들이 '갑오경장 양반'이란 말을 지금도 하는 경우를 들어보았을 것이고, 민촌분들 중 심으로 여러 집안들이 4대 이상 시제를 모시려 갈 수 없는 불행한 경우를 해설가 여러분들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짐작하실 일입니다.

해설가 여러분!

그렇다면 말입니다. 신승겸 장군의 평산 신씨나 마천목 장군의 장흥 마씨나 그 얼마나 위대한 브랜드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관 분명한 성씨가 그 얼마나 자랑스럽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천년이상족보'이지 아니합니까.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곡성 심청축제만 브랜드란 말입니다. 담양 대나무만 보성녹차만 함평 나비만 지역 대표 브랜드란 말입니다. 윤사마 배용준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죠'의 최진실이란 배우들만 유명 브랜드란 말입니다.

브랜드란 '타다 남은 나무'란 뜻입니다. 말 허벅지에 낙인(烙印)을 찍었던 벌건 쇠불에 탔던 불붙은 나무조각이란 말입니다. 말은 한번 낙인찍히면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옛날 여인분들은 남자에게 하룻밤 낙인찍히면 평생을 그 남자와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이름 석자 앞 바로 성씨, 평산 신씨든, 청송심씨든, 전주 이씨든, 옥과 조씨든, 제주 고씨든, 성주 이씨든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있다 없어지다시피한 종이조각처럼 천대합니다만, 그 성씨 한 자는 그 유래가 의미심장하고, 그 역사가 유구하며, 세계 어디 누구에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은 해설가 여러분 고유의 '천년만년브랜드'란 말입니다.

브랜드로 먹고 사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바로 여러분 이름 석자 앞 성씨

란 말입니다.

해설가 여러분!

이래도 그 이름 석자 남겨준 부모와 조상분들에게, 역대 재산 안남겨 줬다고 서운해 하실 겁니까. 천석 논배미 물려주지 않았다고 불평하실 겁니까. 돈되는 밭패기 안남겨 줬다고 입술이 석자나 나올 겁니까.

3. 마천목 장군과 한반도 소외의 역사

곡성군지 등에 의하면 마천목 장군은 장흥인으로, 조선초기 개국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왕자의 난'때 태종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 장흥부원군에 봉해진 충정공으로, 순자강(섬진강) 하류 귀신으로 하여금 어전(漁箭, 어살-물속에 나무를 둘러꽂아 물고기를 들게 하는 울)을 만들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얼마나 무술이 뛰어났으면 사람도 아닌 귀신을 고기잡는 머슴으로까지 부려먹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찌됐든 대단한 무용담을 가진 장수 중의 장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설가 여러분!

'천방지추마골피'란 단어 들어보신 분? 그 유래를 분명히 아시는 분? 아니면 천방지추마골피 성씨 가진 분과 혼인을 안한 경우를 보신 분?, ...

천씨는 하늘 천(天)자를 사용하는 황해도 연안·우봉, 충청도 충주 천씨가 있고, 일천 천(千)자를 사용하는 천씨 성은 본관이 경북 영일만 근처 흥해를 관향으로 하는 '흥해 천씨'가 고려사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영양(潁陽)천씨가 있는데 중국 지명을 관향으로 하는 영양 천씨는 임진왜란 즉 조일전쟁 때 명나라 지원군으로 군량 수송을 담당한 장수를 시조로 한답니다. 시조 아들 3분이 같이 귀화해서 후손을 늘렸다고 합니다.

방(方)씨는 온천으로 유명한 충청도의 온양 방씨이고, 지(地)씨는 충청북도 충주 지씨이고, 추(秋)씨는 함흥, 추계, 전주, 양지, 강동 등을 본관으로 합니다. 마(馬)씨는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목천과 전남 장흥 마씨가 주류입니다. 골(骨)씨는 강화 골씨가 있고, 피(皮)씨는 강원도 흥천과 충북 괴산 피씨가 있습니다.

해설가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충주지방이 어딥니까? 목천이 어디쯤입니까? 온양은 천안 부근이죠? 강원도 흥천과 충북 괴산은 이쯤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백년 전쯤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후삼국시대로 말입니다. 강원도 흥천에서 충북 괴산 충남 목천·온양 차령산맥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그 당시 어떤 경계선이었습니까? 바로 고려와 후백제, 즉 왕건과 견훤이 밀고 밀리던 국경선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천방지추마골피에 대한 오해는, 이 국경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료 등에 의하면,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후백제 재건을 꿈꾸는 여러 장수들 때문에 상당기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동란 당시 지리산 남부군 산사람들처럼 이 국경선 근처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며 유격대 활동 등을 통해 고려국을 오랜 세월 괴롭혔다고 합니다. 전쟁은 이미 끝나고 견훤이 고려국에 투항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그들에게 짐승 성을 부여했다고 하는데, 그 속설의 잔재가 여태까지 설명해 드린 '천방지추마골피'랍니다. 천년박대의 단어인 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방지추마골피에 대한 편견과 편심 그리고 편과, 즉 3편현상이 우리 민족의 최대 장애물로 사료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기가 넘쳤던 장수들을 구박하는 속사정도 모르면서, 그리고 위대한 인물을 다수 배출한 천방지추마골피에 대한 집안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졌던 천년 이상의 '편견과 오해의 역사'가 이 천방지추마골피란 단어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해설가 여러분!

개땅쇠가 무슨 뜻이어요? 소땅쇠는요? 아마도 저 여자분은 꺾떡쇠는 아시는 모양이시네! 쇠는 몸으로 땀으로 노동력으로 생활하는 남정네를 말합니다. 사(士)는 우리 곡성남자분들 처럼 양반, 즉 문반과 무반을 당연히 지칭하지요. 머리로 지혜 위주로 사는 남성분들을 지칭합니다.

고전 등에 의하면, 고려조 김방경 장군때부터라는 설과, 고려말 왜구침입때부터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일본국 조상인 왜구들이 하도 바다를 통해 도둑질을 일삼으니까, 서해안과 남해안 섬지방과 해안지방에 공도정책(空島政策) 혹은 공도령을 실시 선포했다고 합니다. 고기 잡아보야 일본놈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농사 지어보야 그놈들 식량만 마련해 줄 바에는, 차라리 섬과 갯벌이 있는 해변지방 사람들을 육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속편하다는 바다 포기 혹은 경시 정책이 유학자 조상분들의 시각이었답니다.

섬과 지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3백에서 5백년 동안 텅텅 빈 섬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유배문화가 발달했던 조선조 중·말엽부터라고 합니다.

역모자, 사화피해자, 당쟁귀양자들이 대개의 경우 양반님네들이었는데, 그들이 섬지방으로 귀양갈 때는, 반드시 여자 노비 즉 몸종이 동행했다고 합니다.

본부인은 한양에 남거나 멸문지화로 노비로 팔렸지만, 섬으로 장구한 세월 귀양간 문신과 무신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종과 합궁을 하게 되고, 그 후손이 바로 '갯벌을 경작하며 땀 흘리는 사내'라는 뜻의 '개땅쇠'가 되었답니다.

여종 입장에서야 남편이지만 상전이고 대감마님 지아비이자 지체높은 부군인 귀양인을 위해 온갖 시중을 다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섬지방 여자분들이 부지런하고 남자들을 지극 정성으로 모신다는 점 등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사서 등 사료 등에 의하면, 영양가 풍부한 바다와 갯벌 생산 수산물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던 남정네들이 언젠가는 강인한 체력과 역사의 반전 등을 통해 육지를 지배하고 정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두 분의 섬출신 대통령을 모셔봤었고, 바다가 자원인 지구촌 한가쪽 시대속에서 공도령이 그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데 하는 후회막급의 과거사를 되새김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다가 없는 곡성 출신 해설가분들!

그러나 곡성에 바다가 없다고 걱정들 마십시오. 인류역사는 강상류 강중류 강하류(바다)를 중심으로 수레바퀴처럼 역사가 순환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섬지방이 환경과 오염 그리고 전쟁 등으로 다시 사람살만한 곳이 못되는 곳으로 인식되면, 강상류 지역인 그것도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섬진강의 중심인 곡성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고장으로 부활할 것으로 확신 또 확신합니다.

4. 파릉군 이경과 한국의 종법제도

파릉군이 전주 이씨니까? 그럼 무슨 파입니까? 곡성 무슨면 대곡리에 후손들이 많이 사신다고 하시던데요?

제가 알기로, 기묘사화 전 정암 조광조 선생이 복권시킨 왕족이었고, 남해로 귀양갔으며, 모 기생을 놓고 중종조때 당시 실세 대감과 사랑싸움을 한 왕족으로 아는데, 틀렸습니까? 제가 왜 파릉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자분들의 인생살이 진리를 알려드리고 증명해보이려고 그렇습니다.

왕가에서조차 왕비가 낳으면 대군, 후궁이 낳으면 군, 더 촌수가 멀어지면 그냥 전주 이씨 떨거지 하는데 관인데 말입니다. 파릉군이 왕이었다면 역사책이 두터웠을 것이고 부족합니다만 제가 그분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이 대목에서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좌우지간 속옷은 시기와 장소를 잘 택해 한번만 잘 벗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가 총각때 벗으면 조감지처 혹은 본부인, 남자가 상처했을 때 벗으면 후처 혹은 계모, 요즘으로 말하면 세컨드 서드 포타임즈... 그러죠? 남자가 늙었을 때 벗으면 재취 삼취 사취 그런단 말입니다. 때와 곳을 잘못 택하면 좌우지간 본(本)자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후 혹은 재 삼 사라는 단어가 붙어가는 이치가 바로 여자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장소 역시 중요합니다.

본남편과 원앙금침 이부자리에서 벗었습니다. 본남편이 왕이면 왕비, 본남편이 양반이면 정경부인, 본남편이 껌떡쇠이면 무슨데에서 버림받은 여자로서까지 낙인찍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행들처럼 모텔에서 벗었습니다. 그것도 화끈하게 말입니다. 부인있는 유부남 앞에서 부답없이 벗었습니다. 본부인에게 머리채가 잡히고 간통죄가 어떻고 남편에게 알려지고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미욕한 제가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큰일났습니다. 영구사랑이든 계절사랑이든 시간사랑이든 남녀간 사랑은 넘쳐나는데 사랑의 열매가 드물다는 말입니다. 세계 최소 출산율로 추락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족보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그것도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실 여자분들이 더 따지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껌떡쇠에게 괜히 배빌려주고 양반아들도 못얻고 유치장이나 들어간다면 그것 참 불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저는 곡성군은 산이 많은 전형적인 양반지방으로 반촌과 명촌도 많고 명족과 명씨들이 많은 곳으로 압니다. 곡성을 살려내는 등 곡성의 미래는 바로 곡성의 여자분들에게 그 운명이 달려있다고 감히 진언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종법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책임 또한 곡성같은 명촌의 여성분들에게 막중하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4. '심청 브랜드'와 곡성의 미래상

효녀 심청을 축제화한 곡성분들에게 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인류역사는 사람에게 대한 투자의 역사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관리유지했던 분들이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됐던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 곡성출신 인물들로 신승겸 장군, 마천목 장군, 옥과 조씨 조통 한림학사, 류팽로 임진왜란 의병장, 박언배 병자호란 의병장, 신태운 독립운동가, 정수태 신간회원 등과 더불어 심청은 앞으로 곡성의 대표인물 브랜드가 되고 환한 미래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태조 왕건이 능산에게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았다면, 태종 이방원이 마천목 장군의 무술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면, 옥과 조씨 집안에서 조통 한림학사를 공부시키지 않았다면, 문화 류씨 집안 좌상공파 집안에서 류팽로 의병장에게 의로움에 대한 소년공부를 시키지 않았다면,

신씨 집안에서 신태운 독립운동가에 대한 민족정신을 공부시키지 않았다면, 정씨 집안에서 정수태 신간회원에 대해 무관심했다면, 이런 곡성의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심청은 효와, 효의 총집합인 충, 그리고 사람교육을 대변하는 인재양성 파워브랜드임이 분명합니다.

마침 유능하신 곡성 지도자분들이 이런 심청 브랜드와 곡성의 미래 그리고 한국의 교육미래를 한 '맥줄기 브랜드'로 통합해 가는 모양인데, 저는 그 전도가 양양하다고 확신합니다. 섬진강 상중하류로 역사가 순환되어 가듯이, 우리가 압축성장과 천민자본주의 풍조속에서 자칫 소홀해왔던 효성과 교육이란 브랜드는 머지않아 곡성의 상징이 되고 곡성의 자람이 되고 곡성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심청브랜드로 밝혀져 가는 곡성의 내일을 감축드립니다.

